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Korean Urban Design Paradigm

권영상 Kwon, Young Sang
엄운진 Um, Woon Jin

(a u r i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Korean Urban Design Paradigm

지은이: 권영상, 엄윤진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8,000원, ISBN: 978-89-93216-09-7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8-2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권영상 · 부연구위원
- ▮ 연구진 엄운진 · 연구원

- ▮ 외부연구진 손동욱 · 홍익대학교 교수
한지형 · 아주대학교 교수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주심)
조준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염철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김광현 ·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래 · 단국대학교 교수

- ▮ 연구자문위원 안건혁 ·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구 · 경기대학교 교수
정 석 · 경원대학교 교수
정인하 · 한양대학교 교수
조형규 · 창원대학교 교수
박세훈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류제홍 · 도시문화연구소 공간력 소장
최정민 ·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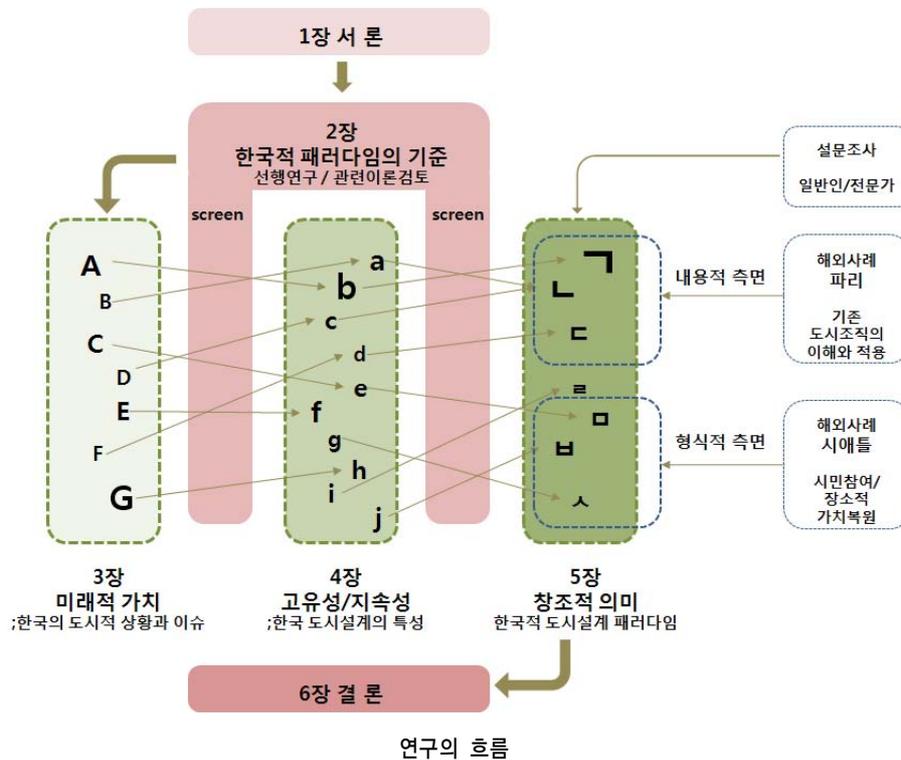
연구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은 해방이후 최근까지 경제성장 및 국가개발에 대한 요구가 모든 정책과정에 있어서 최우선과제였고, 이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간정책은 경제성장에 적합한 구조로의 도시 및 국토환경 재편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급속한 도시화, 양적인 팽창,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도시에서부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시설계 경험이 축적되었다. 한편, 최근 도시 여건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시적 담론이 진행되고 있고 질적 가치향상에 대한 고민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구조, 이미지, 생성원리에 대한 고찰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되어온 도시공간의 양적성장에 대한 반성과 한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한국적 도시공간이 무엇이며,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공간환경에 대한 문화적 수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국의 도시에 적합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어왔던 도시적 논의와 지식체계를 포용하면서 또한 그것이 한국적 도시상황에 적합하고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고찰과 실제 도시공간의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그리고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외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 사례를 검토한다.

전체 연구는 1)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2) 해방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설계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설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 이러한 한국도시의 상황적 여건과 지금까지의 도시설계 특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2장 관련이론검토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한국 도시설계분야에서의 패러다임 논의는 “기존의 도시설계의 틀이나 방식과 다른 가치체계”이며 “한국의 현 시점에서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의 사고를 지배하는 방법적 틀과 내용적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론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형태적인 측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한다. 첫째로 “한국적”이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일회성을 가져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및 변화와 연계되어 그것을 반영하는 체계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이를 통한 패러다임의 모색을 진행한다.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논의의 규정

제3장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최근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주요이슈들을 살펴본 결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의 흐름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먼저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상황은 정치적 민주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국가주도의 도시개발 및 공간전략 체계에서 점차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간조성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과 인구저성장이나 탈산업화와 같이 사회, 경제구조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겪게 되는 도시적 상황에서의 대처와 같은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크게 네 가지로 크게 특성 지어서 정리했는데, 첫째로는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참여의 증가였고,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체계의 변화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치적 권력의 변화과정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구저성장 및 도심부 쇠퇴에 대한 변화였고, 네 번째는 탈 중심화, 탈산업화 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로서 각각 사회적, 경제적 변화과정이라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주요이슈들은 세계화, 지방화 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체계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도시설계 참여주체와 수립체계와 같은 과정에 대한 논의와 탈근대적인 인식체계와 같은 논의로 정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의 등장과 이에 따른 환경친화형 패러다임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기존도시질서와 도시문화의 보존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되었다. 두 번째로는 도시설계 분야 간 협업이 향후 도시설계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리되었고 세 번째로는 주민 및 NGO의 참여

와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상향식 계획방식의 등장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으로 탈 중심적 탈위계적 도시설계의 등장과 근대적 토지이용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 구 분 | | 내 용 | 세부내용 |
|-----------------|----------------------------|-------------------------|-----------------------|
| 한국 도시의 여건 변화 | 정치구조의 변화 민주화 / 권력이동 |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시민참여 증가 |
| |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 만들기 확산 | 주거에 대한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 | |
| |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진행 | |
| | 산업,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 탈산업화 | 도심부 쇠퇴 및 인구저성장 | 도시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 |
| | | |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 |
| 탈집중화 시대의 공간 양극화 | 탈집중화 시대의 공간 양극화 | 인구 저성장 구조의 진행 | |
| | | 탈산업화 창조도시로의 이행 | |
| | |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 | |
| 한국 도시의 주요 이슈 | 가치체계 | 지속가능한 가치체계 등장 | 환경 친화적 패러다임 |
| | | | 기존도시질서의 보전과 문화적 지속성 |
| | 도시설계 주체 | 전문가 협업 및 통합화 확산 |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 확산 |
| | | |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 |
| | 이즘 | 상향식 계획방식의 등장 | 시민과 NGO의 참여 확대 |
| | | |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의 등장 |
| | | 탈 중심적, 탈위계적 도시설계 제시 | |
| | |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조닝제도)에 대한 대안 | |

제4장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해방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는 크게 1) 국가주도의 산업화 및 국토개발과정에서 건설된 신도시에 대한 도시설계 부분과 2)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진행된 기존도시의 조정 및 신시가지의 확장과 관련된 도시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흐름을 검토하여 각 시기별 대표도시로서 전주시, 창원시, 분당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신도시와 기존도시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도시설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8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분야는 국가주도의 압축적 성장에 대응하면서 근대적 상징가로,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의 분할,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모의 필지규모 선정,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환경, 교통 등의 기술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지나친 기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국가의 산업화 및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설계 분야의 기술축적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2) 한편, 이 과정에서 기존도시 조직에 대해서는 이를 해체하고 근대적 도시조직을 도입하는 입장과 전통적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장소적 기억을 복원하는 입장이 공존해왔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도시조직이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존도시조직의 유지 및 이를 통한 장소성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또한 이러한 단기간의 압축개발의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양식과 유형의 도시·건축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으면서 통일된 도시경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모습이 혼재되어 온 것이 지적되었다. 4) 한편 도시설계의 주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각 분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온 것이 지적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도시설계분야에서는 이들의 소통과 협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5)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화 이후 도심부의 쇠퇴와 탈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있는 것도 도시설계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정에서는 이들을 도출하기 위해 각 분석대상 도시별로 5개씩 총 20개 내외의 도시설계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 사 례 |
|----------------------|-----------------|
| 압축적 개발성장에 대한 적응 | 창원시, 분당신도시 |
|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양면적 접근 | 전주시 |
| 도시경관에 있어서 시간적 층위의 적층 | 전주시, 창원시 |
| 전문 분야 간 단절 및 소통 | 분당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 탈 중심적 도시공간의 재편 | 행정중심복합도시 |

제5장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관련이론(2장), 한국 도시공간의 상황(3장)과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4장)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들 패러다임은 한국적 도시상황과 현실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다.

도출된 패러다임은 크게 1) 커뮤니티 중심의 시민참여, 2)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계획체계의 변화, 3) 전문분야간의 소통과 계획의 유연성, 4) 도시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 5)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 6) 탈근대 및 탈산업화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정리되었고 이들 패러다임은 도시설계의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위한 형식적인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구성요소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3장)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4장)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5장)

한국 도시의 여건변화

-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 공간 문화의 질적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 도시공간 조성과정의 시민참여 증가
 - 주거에 대한 재인식으로서의 인식
- 지역정책에 따른 도시변용기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 집행
 - 도시개발계획의 지자체 위상
- 토질부 피하 및 지구적성장 환경
 - 기존도시의 낙후 및 쇠퇴
 - 인구차별성 구조의 진행
- 생활환경 시대의 공간 양극화
 - 도시내외 질서도시로의 이행
 - 도시계획시공의 자유 도시공간구조 변화

한국 도시의 최근 이슈

-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의 등장
 - 환경권 패러다임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 기존도시질서의 보완적 대학 관심
- 편중가능 및 통합적 촉진
 - 도시성장권은 불이전 협력확산
 - 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
- 지방적 계획방식의 등장
 - 시군과 NGO의 참여
 - 대학적 계획 패러다임의 등장
- 포스트리움 도시질서에 대한 반성
 - 일중성적, 일회적적 도시설계 등장
 - 군대적 도시리움체제의 대한 대안적대

현황

- 전통적 도시공간의 위기와 근대적 도시공간의 발전
- 기존도시질서를 활용하는 도시개발 추진
- 전통마을 조성과 전통적 가로공간의 개선
- 전통적인 가로공간 개선
- 도시계획의 목표로서 문화역동도시 공동화 대응, 주민참여, 활력
- 공공시설이민을 통한 친시가지 조성, 구시가지 회복
- 대규모 단지계획, 개발의 무의미한 반복
- 외래상업과 재개발, 대량주거개발과 재개발의 충돌
-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공공활동의 저해성
- 대규모 아파트에 의한 도시공간 구조화
- 시원, 필요성 등 무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용

특징

- 신대적 발달성, 무논쟁적합치
- 건축과 관련된 생활 실용성연구성
- 신리적 공간구조적
- 전통문화적의 차등적 유지
- 비동형적인 도시가능 체계
- 대규모 시설까지
- 재개발의 쇠퇴와 상업구조의 변화
- 권고성, 실험적의 실험적 한계적 실험적연구의 촉발
- 국가주도형 정책개발까지로서 도시개발정책

방안

- 도시공간문화의 보존주의, 활용, 생활과 차기 도약
- 차등적 보행성 보행
- 도시건축의 복합적 구성/생활환경, 복합기능의 구성
- 복합적 생활권, 문화, 휴식, 운동의 공동체 구성
- 대규모, 친도시, 공공성과 및 주거(주택)의 구성
- 생활문화적
- 한국의 대표적 주거개발으로 자각주의 정착
- 주거생활의 변화, 전통의 존상복합성의
- 공공성의 선용, 계획적

방향도시

- 크레디 문화 도시로서의 가치체계, 일중성과 일중성
- 전통문화적 가치로서의 회복
- 지역에 대한 복원, 한일적 현대적의
- 신원적의 성장, 시민참여, 행정적
- 군대적 존상체제의 탈, 복합적 도시적
- 전문가 협업체제의 구축
- 커뮤니티의 회복, 문화 커뮤니티
- 분리적인, 소규모, 행정
- 일중적 가치의 복원
- 다 전문분야와 일중적 협업

근원적 도시적 질서성에 대한 회복

- 한국도시의 고유한 질서성 | 주거, 업무, 문화, 주거, 산업
- 한국적 도시를 정착시키는 도시로 만들어져 주는 질서성
- 시대의 요구 | 지속가능성과 역사문화적 정체성

지역적 변화에 대한 대응

- 인구 과잉집중지역의 인구종교학과 도시연구의 감소
- 일상문화로서의 변화, 교역한 경제성장의 변화
- 지역의 질서의 민주화를 통한 시민참여의 성장
-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적대응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의 도입
- 도시의 동적인 가치와 디자인에 대한 요구증가
- 공간적 재설계 제안은 가능 | 행정문화도시
- 사회변화를 수용한 도시설계 가능 필요

일중성적 시대정신에 대한 수용

- 다문화도시의 특성 | 다양한 가치의 존재성 | 질서성
- 행복도시 - 민주성, 일중성, 민주적 도시공간 구조
- 다 문화간의 소통과 협업
- 도시문화공간에 다 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서 차분

지역적 변화에 의한 커뮤니티 회복

- 민주성 | 시민참여의 성장
- 이론적 배경 | 도시공학적 계획론 | 녹색도시
- 시민의 참여하는 공공공간 도시정착 | 민주, 복종, 책무의
- 복합적커뮤니티의 | 커뮤니티 회복의 시작
- 도시문화 고향에서 커뮤니티의 지역적 고향
- 기존 도시계획체계, 시민참여체계에 커뮤니티 개념도입
- 기존 도시 계획과 고향 문화

지역적 주도적 전환 지역별 정책 회복

- 민중참여자치체제의 정착화
- 지역별 도시의 정체성 확보
- 민주 역사전통도시 | 부산시 | 최후주목자치도
- 도시질서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 시원 - 역사보존지구제도
- 상황이 계획체계의 정착
- 지자체에 의한 지역 맞춤형 도시설계 추진

환경분야간 소통과 통합적 계획체계

- 문화분야와 환경분야, 전통분야 (도시, 건축, 조경, 가이)
- 통신 | 도시, 건축, 조경의 소통과 협업의 시작
- 분당 | 행정문화도시
- 도시설계 수업체계를 유연하게 조정
- 전문가 스스로의 역할과 정보소통 강화
- 전문가 양성 교육 통합과 이해도 증가
- 소통을 위한 지속적 소통과 전문학적 가치 공유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종합)

제6장 결론

한국의 발전국가론, 압축 성장 위주의 양적성장은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발전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유래 없는 도시설계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배경 및 최근의 논의들과 한국의 도시설계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제시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은 향후 도시설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선형적인 가치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설계를 추진 해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별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체계나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논의를 단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도시를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정체성 있는 도시로 구현하는데 의미 있는 전통적 가치나 현재적 가치에서의 논의들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이처럼 정리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은 향후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도시설계과정에 적용되어 기존의 한국 도시설계 논의와 실제적 경험에서 의미 있는 연장선을 형성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도시들을 정체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기 도시를 정체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도시구성원 들 또한 기존의 양적인 공급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가치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당장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몇몇 공사와 지자체에서 본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었고, 실제 설계공모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시설계 어휘를 제시하거나 실제 설계안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계기법과 지침을 제시하는 세부적인 실천연구로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반론적인 도시설계 기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수해로서 어떤 대상도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설계공모 지침에 적용될 내용들을 정리하는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앞으로 지속성과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첫째는 지자체별로 도시정체성에 대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간의 경쟁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높이 살 만하나 각 지자체간에 서로 특색 없는 반복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도시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 문화적 다양성은 떨어지고, 비록 외형적으로 발전했을지라도 또 다른 방식의 무미 건조한 동일성이 한국의 도시문화를 후퇴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생성과정에서부터 특색 있는 지형적 조건, 입지적 특성, 도시구성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적 자산 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장소성과 특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각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회가 점차 다원적이고 탈산업화된 구조로 이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장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기초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작년에 통과된 ‘건축기본법’을 통해 법제화되고, 도시와 건축공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

식체고와 문화적 가치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었다.(건축기본법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인 논의에서 의무적인 단계로 넘어간 상황으로 법적인 실행력을 담보로 진행될 토대가 구축되었다. 비단 이러한 법적인 토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외에도 자발적인 역량의 결집과 효과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지난 70~80년대처럼 잠깐 논의되다가 사그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범 지식사회에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도시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험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실천력을 갖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민간에 촉발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도시의 한국성에 대해 일반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논의하고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러한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관련분야전문가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전연구 성격으로 기존의 한국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담론의 경향들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20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본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 후속하여 진행될 세부 실천연구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정체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적, 한국도시, 도시공간, 도시설계, 패러다임

차례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 1) 연구의 배경 | 2 |
| 2) 연구의 목적 | 4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 1) 연구의 범위 | 5 |
| 2) 연구의 방법 | 8 |
| 3) 연구의 흐름 | 11 |
| II. 관련이론 검토 | 15 |
| 1. 도시설계분야의 주요패러다임 변화 | 16 |
| 1) 도시설계 분야에서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 16 |
| 2) 도시설계 분야에서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 | 19 |
| 2.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 27 |
| 1)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 27 |
| 2)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의 규정 | 30 |

| | |
|-------------------------------|-----------|
| III.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 33 |
| 1. 한국 도시의 여건변화 | 34 |
| 1)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 34 |
| 2)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 만들기 확산 | 41 |
| 3) 도심부 쇠퇴 및 인구저성장 진행 | 45 |
| 4) 탈집중화 시대의 공간 양극화 | 48 |
| 2. 한국 도시의 최근 이슈 | 51 |
| 1)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의 등장 | 51 |
| 2) 전문가의 협업 및 통합화 확산 | 55 |
| 3) 상향식 계획방식의 등장 | 59 |
| 4)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 61 |
| 3. 소결 | 63 |
| | |
| IV.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 65 |
| 1.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 66 |
| 1) 기존도시 설계의 경향 | 66 |
| 2)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 74 |
| 2.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 92 |

| | |
|--|-----|
| 1) 신도시 도시설계의 경향 | 92 |
| 2) 60-7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의 사례 : 창원시 | 100 |
| 3) 8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사례 : 분당신도시 | 116 |
| 4) 200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사례 : 행복도시 | 132 |
| 3. 소결 | 144 |

V.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153

| | |
|----------------------------------|-----|
| 1. 내용적 측면 | 156 |
| 1) (고유한 도시적) 장소성에 대한 회복 | 156 |
| 2)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 171 |
| 3) 탈 근대적 시대정신에 대한 수용 | 175 |
| 2. 형식적 측면 | 179 |
| 1) (시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의 복원 | 179 |
| 2) (지자체 주도에 의한) 지역별 정체성 회복 | 189 |
| 3) 전문분야간의 소통과 유연한 계획체계 | 195 |
| 3. 소결 | 201 |

| | |
|---|------------|
| VI. 결론 | 203 |
| 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의의 | 204 |
| 2. 향후 연구 및 정책추진 방향 | 207 |
| 1)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207 |
| 2) 정책제언 | 208 |
| | |
| • 참고문헌 | 212 |
| • Summary | 223 |
| • 부록 1-1.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미국) | 227 |
| • 부록 1-2.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 | 253 |
| • 부록 2-1.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일반인) | 300 |
| • 부록 2-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전문가) | 345 |

표 차례

| | |
|---|----|
| 〈표 1.1〉 분석대상도시 개요 | 7 |
| 〈표 1.2〉 연구의 방법(도시사례분석부분) | 9 |
| 〈표 2.1〉 2000년대 이후 도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관련 주요연구 내용 (해외사례) | 18 |
| 〈표 2.2〉 2000년대 이후 도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관련 주요연구 내용 (국내사례) | 24 |
| 〈표 3.1〉 현재 거주도시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 35 |
| 〈표 3.2〉 현재 거주도시 경관의 문제점 인식 설문조사 결과 | 35 |
| 〈표 3.3〉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 38 |
| 〈표 3.4〉 주거의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에 대한 언론 사례 | 40 |
| 〈표 3.5〉 지자체별 도시디자인관련 조직현황 (2008.3 기준) | 41 |
| 〈표 3.6〉 지자체별 도시경관조례 제정현황 | 41 |
| 〈표 3.7〉 지자체별 향후 경관조례 제정계획 | 41 |
| 〈표 3.8〉 2007~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국토해양부) | 42 |
| 〈표 3.9〉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 43 |
| 〈표 3.10〉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 43 |
| 〈표 3.11〉 도시의 인구변화 추이 | 47 |
| 〈표 3.12〉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사례(행정중심복합도시) | 56 |
| 〈표 3.13〉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사례(파주운정지구) | 56 |
| 〈표 3.14〉 전통적(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특성 비교 | 60 |
| 〈표 3.15〉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설정 현황 | 62 |

| | |
|---|-----|
| 〈표 3.16〉 한국 도시공간의 여건변화와 최근이슈 | 63 |
| 〈표 4.1〉 전주시 일반현황 | 74 |
| 〈표 4.2〉 전주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76 |
| 〈표 4.3〉 전주시 도심재생 관련 사업 추진현황 | 79 |
| 〈표 4.4〉 한옥마을 조성과정 및 관리체계변화 | 81 |
| 〈표 4.5〉 전주한옥마을의 용도지역·지구계획 | 82 |
| 〈표 4.6〉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 | 83 |
| 〈표 4.7〉 한국의 신도시 개요 | 93 |
| 〈표 4.8〉 창원시 일반현황 | 101 |
| 〈표 4.9〉 창원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102 |
| 〈표 4.10〉 분당신도시 일반현황 | 117 |
| 〈표 4.11〉 분당신도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118 |
| 〈표 4.12〉 분당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중 미이행 항목부분 | 126 |
| 〈표 4.13〉 분당신도시 상업·업무지역 배분현황 | 130 |
| 〈표 4.14〉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 132 |
| 〈표 4.15〉 기존재개발수법과 소단위재개발수법 비교 | 147 |
| 〈표 4.16〉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분석 요약 | 150 |
| 〈표 4.17〉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도시설계의 특성 | 151 |
| 〈표 5.1〉 파리시 마세나 구역의 전통적 특수성과 장소적 정체성 구현사례 (현상설계안) | 167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분석대상도시 항공사진 | 7 |
|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7 |
| 〈그림 1.3〉 연구의 방법 | 10 |
| 〈그림 1.4〉 연구의 흐름 | 13 |
| 〈그림 2.1〉 과학혁명의 구조(토마스 쿤, 1962) | 16 |
| 〈그림 2.2〉 만리2동 주거지구 재개발계획(HURPI, 1967I) | 20 |
| 〈그림 2.3〉 세종로 스케치(안영배) | 20 |
| 〈그림 2.4〉 여의도 도시계획(김수근) | 20 |
| 〈그림 2.5〉 과천신도시 공간구상도 | 20 |
| 〈그림 2.6〉 목동신시가지 공간구상도 | 20 |
| 〈그림 2.7〉 25만 도시설계, 근린주구 오픈스페이스 스타디(HURPI, 1967I) | 20 |
| 〈그림 2.8〉 도시설계 연구보고서(국토연구원, 1982) | 21 |
| 〈그림 2.9〉 지구단위계획의 체계 | 21 |
| 〈그림 2.10〉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도 사례 | 22 |
| 〈그림 2.11〉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도 사례 | 22 |
| 〈그림 2.12〉 분당신도시 개발계획도 | 23 |
| 〈그림 2.13〉 일산신도시 개발계획도 | 23 |
| 〈그림 2.14〉 성수대교 붕괴(1992) | 23 |
| 〈그림 2.15〉 남산외인아파트 철거(1994) | 23 |

| | |
|--|----|
| 〈그림 2.16〉 프루이트고(Pruitt-Igoe)주거단지 폭파(1972) | 25 |
| 〈그림 2.17〉 유비적인도시(Analogous City)(Aldo Rossi) | 25 |
| 〈그림 2.18〉 전통도시구조와 근대도시구조(Colin Rowe) | 26 |
| 〈그림 2.19〉 동경의 현재 모습 | 26 |
| 〈그림 2.20〉 나무형 구조와 반격자 구조의 다이어그램(Christopher Alexander) | 26 |
| 〈그림 2.21〉 동경의 건축과 도시 경계부분 양상에 대한 연구 | 26 |
| 〈그림 2.22〉 글로벌리즘 (최정화 작품, 2002) | 27 |
| 〈그림 2.23〉 전통한복과 외국패션쇼에 출품된 한복 | 28 |
| 〈그림 2.24〉 부여박물관(김수근) | 28 |
| 〈그림 2.25〉 프랑스대사관(김중업) | 28 |
| 〈그림 2.26〉 공간사육(김수근) | 28 |
| 〈그림 2.27〉 외국인이 보는 한국적 도시의 모습 | 29 |
| 〈그림 2.28〉 서울 강남 전경 | 30 |
| 〈그림 2.29〉 평촌신도시 전경 | 30 |
| 〈그림 2.30〉 서울 북촌 전경 | 30 |
| 〈그림 2.3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논의의 규정 | 31 |
| 〈그림 2.3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이긴 하나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일 수는 없는 상황 | 32 |
| 〈그림 3.1〉 부평 문화의 거리 | 37 |
| 〈그림 3.2〉 헤이리 주민회의 모습 | 37 |

| | |
|--|----|
| 〈그림 3.3〉 강남 재건축아파트 전경 | 39 |
| 〈그림 3.4〉 강남 타워팰리스 전경 | 39 |
| 〈그림 3.5〉 강남 재건축예정 아파트 모습 | 39 |
| 〈그림 3.6〉 재건축에 대한 개발압력 사례 | 39 |
| 〈그림 3.7〉 서울시 도시갤러리 사업 사례 | 42 |
| 〈그림 3.8〉 도시개발과정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2008.4) | 44 |
| 〈그림 3.9〉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 사례 | 46 |
| 〈그림 3.10〉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 | 47 |
| 〈그림 3.11〉 아시아문화전당 위치 | 50 |
| 〈그림 3.12〉 광주 구도심 전경 | 50 |
| 〈그림 3.13〉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당선안 (우규승, 2005) | 50 |
| 〈그림 3.14〉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 따른 도시설계 변화과정 사례 | 52 |
| 〈그림 3.15〉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한 보전지역 사례 | 52 |
| 〈그림 3.16〉 분당신도시 중앙공원 | 53 |
| 〈그림 3.17〉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생태보존 축 설정 개념도 | 53 |
| 〈그림 3.18〉 행정중심복합도시 시설녹지 구상도 | 53 |
| 〈그림 3.19〉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 54 |
| 〈그림 3.20〉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체계 사례-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계획수립체계 | 55 |
| 〈그림 3.2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3등작 | 58 |
| 〈그림 3.22〉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블록 당선작 | 58 |

| | |
|--|----|
| 〈그림 3.23〉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계획구역 | 62 |
| 〈그림 4.1〉 삼례도의 왕성도 | 68 |
| 〈그림 4.2〉 경복궁 북궐도형 | 68 |
| 〈그림 4.3〉 중국 북경 도성도 | 68 |
| 〈그림 4.4〉 신라 경주의 도성추정도 | 68 |
| 〈그림 4.5〉 발해 상경의 추정도 | 68 |
| 〈그림 4.6〉 서울(한성부)의 입지체계도 | 69 |
| 〈그림 4.7〉 풍수지리명당도 | 69 |
| 〈그림 4.8〉 지방도(1872) 중 전주부 | 70 |
| 〈그림 4.9〉 고지도에 나타난 서울(한성부)의 5부 경계 | 70 |
| 〈그림 4.10〉 고려 개경의 행정구획 추정도 | 70 |
| 〈그림 4.11〉 의인섬마을 배치도 | 71 |
| 〈그림 4.12〉 하회마을 항공사진 | 71 |
| 〈그림 4.13〉 마을단위의 내재적 도시질서에 대한 연구사례: 양동마을 주요건축물 안대 | 71 |
| 〈그림 4.14〉 군산신시가지 지도 (1920년) | 73 |
| 〈그림 4.15〉 진해시가지 지도 (1916년) | 73 |
| 〈그림 4.16〉 서울 경성시구개수예정노선도 (1928년 총독부고시) | 73 |
| 〈그림 4.17〉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철도역사 주변의 방사형 도시구조 (전주시) | 73 |
| 〈그림 4.18〉 전주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현황 | 74 |

| | |
|---|----|
| 〈그림 4.19〉 대동여지도, 전주지역일부 | 75 |
| 〈그림 4.20〉 지방도(1872) 중 전주부 | 75 |
| 〈그림 4.21〉 전주시 시구개정 전후의 비교 | 75 |
| 〈그림 4.22〉 전주시 시가지계획평면도 (1938) | 75 |
| 〈그림 4.23〉 전주시의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 77 |
| 〈그림 4.24〉 전주시 분석대상지역 (5개소) | 77 |
| 〈그림 4.25〉 전통성당(전주시) 전경 | 78 |
| 〈그림 4.26〉 전주시 시구개정 전후의 비교 | 78 |
| 〈그림 4.27〉 전주시의 전통적 도시구조(전주역, 구성광, 내부도로체계) | 78 |
| 〈그림 4.28〉 전주시 영화거리 | 79 |
| 〈그림 4.29〉 전주시 차이나거리 | 79 |
| 〈그림 4.30〉 전주시 걷고 싶은 거리 | 79 |
| 〈그림 4.31〉 전주시의 원도심 지역 | 80 |
| 〈그림 4.32〉 한옥마을 내 서비스시설(왜곡된 형태의 한옥모습) | 82 |
| 〈그림 4.33〉 전주시 전통가로 조성사업 | 82 |
| 〈그림 4.34〉 전주한옥마을 전경 | 82 |
| 〈그림 4.35〉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 83 |
| 〈그림 4.36〉 전주한옥마을 | 85 |
| 〈그림 4.37〉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전경 | 86 |
| 〈그림 4.38〉 전주시 신시가지 | 87 |

| | |
|------------------------------------|----|
| 〈그림 4.39〉 전주시 남부시장 전경 | 88 |
| 〈그림 4.40〉 전주시 모래내시장 전경 | 88 |
| 〈그림 4.41〉 남문시장 하늘공원 조성사업 | 88 |
| 〈그림 4.42〉 전주시 비보이광장 | 88 |
| 〈그림 4.43〉 전주시 상업지역(시장)의 도시공간분석지역 | 89 |
| 〈그림 4.44〉 전주시청 전경 | 90 |
| 〈그림 4.45〉 전주시 옛 철도노선 | 90 |
| 〈그림 4.46〉 전주시청 앞 광장 | 90 |
| 〈그림 4.47〉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재편 | 90 |
| 〈그림 4.48〉 전주종합경기장 주변 | 91 |
| 〈그림 4.49〉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 개편 | 91 |
| 〈그림 4.50〉 한국의 신도시 도시설계 특성 연구대상 | 93 |
| 〈그림 4.51〉 창원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 94 |
| 〈그림 4.52〉 새서울백지계획 (박병주, 1966) | 94 |
| 〈그림 4.53〉 서울 잠실 종합개발계획 (박병주, 1974) | 94 |
| 〈그림 4.54〉 서울 영동신시가지 개발조감도 (1971) | 94 |
| 〈그림 4.55〉 신행정수도 백지계획 (강홍빈 외, 1977) | 95 |
| 〈그림 4.56〉 수도권 신도시 현황 | 96 |
| 〈그림 4.57〉 분당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97 |
| 〈그림 4.58〉 일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97 |

| | |
|--|-----|
| 〈그림 4.59〉 송도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99 |
| 〈그림 4.60〉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국제공모 | 99 |
| 〈그림 4.6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 99 |
| 〈그림 4.62〉 창원시 도시개발계획 조감도 (1977) | 100 |
| 〈그림 4.63〉 캔버라와 창원시 항공사진 | 101 |
| 〈그림 4.64〉 창원시의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 103 |
| 〈그림 4.65〉 창원시 분석대상지역 (5개소) | 103 |
| 〈그림 4.66〉 창원시 창원대로 | 104 |
| 〈그림 4.67〉 창원시 중앙광장 전경 | 104 |
| 〈그림 4.68〉 창원시 경남도청 | 104 |
| 〈그림 4.69〉 창원시 중앙광장 | 105 |
| 〈그림 4.70〉 신제주 중앙광장 | 105 |
| 〈그림 4.71〉 창원시 상징가로축과 대형필지구획 | 106 |
| 〈그림 4.72〉 창원시 생활권 구상도 (원본) | 107 |
| 〈그림 4.73〉 창원시 근린지구계획도 | 107 |
| 〈그림 4.74〉 창원시 생활권 구상도(항공사진에 다시 작업) | 107 |
| 〈그림 4.75〉 창원시 단독주택지 전경 | 108 |
| 〈그림 4.76〉 창원시 단독주택지역 근린생활권 사례(구릉지형) | 108 |
| 〈그림 4.77〉 창원시 아파트지역 근린생활권 사례 | 108 |
| 〈그림 4.78〉 창원시 단독주택지역 근린생활권 사례(격자형+루프형) | 109 |

| | |
|--|-----|
| 〈그림 4.79〉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녹지와 이면도로 | 110 |
| 〈그림 4.80〉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이분법적 도시구조 | 110 |
| 〈그림 4.81〉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공간분포 | 110 |
| 〈그림 4.82〉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도시설계 | 111 |
| 〈그림 4.83〉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 112 |
| 〈그림 4.84〉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내 공공공간설계 | 112 |
| 〈그림 4.85〉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 113 |
| 〈그림 4.86〉 창원시 공단지역 가로변 전경 | 114 |
| 〈그림 4.87〉 창원시 공단지역 건축물 배치형태 | 115 |
| 〈그림 4.88〉 창원시 공단지역에서 바라본 상업지역 | 115 |
| 〈그림 4.89〉 창원시 공단지역 도시설계 패턴 | 115 |
| 〈그림 4.90〉 분당신도시 조감도 | 116 |
| 〈그림 4.91〉 분당신도시 분석대상지역 | 118 |
| 〈그림 4.92〉 분당신도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 118 |
| 〈그림 4.93〉 분당신도시 서현역 상업건축물 | 119 |
| 〈그림 4.94〉 분당신도시 서현역 주변 시민참여형 가로정비 추진상황 | 119 |
| 〈그림 4.95〉 분당신도시 서현역 건축물 사이공간 | 119 |
| 〈그림 4.96〉 분당신도시 서현역 상업가로 | 119 |
| 〈그림 4.97〉 분당신도시 서현역 앞 분수광장 | 120 |
| 〈그림 4.98〉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도로/보행 | 120 |

| | |
|---|-----|
| 〈그림 4.99〉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공원/보행 | 120 |
| 〈그림 4.100〉 기본구상 당시 분당신도시 서현역 주변 도시설계 구상도 | 120 |
| 〈그림 4.101〉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 120 |
| 〈그림 4.102〉 분당신도시 서현역 일대 중심상업지구의 도시설계 | 121 |
| 〈그림 4.103〉 분당시범단지 중심부 서비스축 | 122 |
| 〈그림 4.104〉 서현역과 시범단지의 고층아파트 | 122 |
| 〈그림 4.105〉 분당시범단지 도시설계 지침도 | 123 |
| 〈그림 4.106〉 분당시범단지 보행가로와 복합커뮤니티 구상 | 123 |
| 〈그림 4.107〉 분당시범단지 복합커뮤니티 | 123 |
| 〈그림 4.108〉 분당시범단지 상업서비스축의 아케이드 | 123 |
| 〈그림 4.109〉 분당시범단지 생활권 설계 | 124 |
| 〈그림 4.110〉 분당중앙공원 | 125 |
| 〈그림 4.111〉 생태교량에서 바라본 분당시범단지 | 125 |
| 〈그림 4.112〉 분당중앙공원의 녹지네트워크 | 125 |
| 〈그림 4.113〉 분당신도시 녹지계획 | 127 |
| 〈그림 4.114〉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사례 - 도로변 | 128 |
| 〈그림 4.115〉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사례 - 탄천변 | 128 |
| 〈그림 4.116〉 분당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도시구조 비교 | 128 |
| 〈그림 4.117〉 분당신도시 일반아파트 단지의 도시설계 패턴 | 129 |
| 〈그림 4.118〉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 130 |

| | |
|--|-----|
| 〈그림 4.119〉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 130 |
| 〈그림 4.120〉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정자지구) | 130 |
| 〈그림 4.121〉 분당신도시 정자지구 주상복합 현황 | 131 |
| 〈그림 4.122〉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 131 |
| 〈그림 4.123〉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의 도시설계 패턴 | 131 |
| 〈그림 4.124〉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당시 조감도 | 132 |
| 〈그림 4.12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 133 |
| 〈그림 4.126〉 행정중심복합도시 분석대상지역 | 133 |
| 〈그림 4.127〉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작 | 134 |
| 〈그림 4.128〉 행정중심복합도시 스케치 (안건혁, 민범식, 권영상 외) | 134 |
| 〈그림 4.129〉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 135 |
| 〈그림 4.130〉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도 | 135 |
| 〈그림 4.131〉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 구성 | 136 |
| 〈그림 4.132〉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계획안 - 지형에 대한 보전계획 | 137 |
| 〈그림 4.133〉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 137 |
| 〈그림 4.134〉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계획안 - 지형에 대한 보전계획 | 139 |
| 〈그림 4.135〉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계획안 - 음과 양의 복합 | 139 |
| 〈그림 4.136〉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미지 | 140 |
| 〈그림 4.137〉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 구성 | 140 |
| 〈그림 4.138〉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 141 |

| | |
|---|-----|
| 〈그림 4.139〉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 141 |
| 〈그림 4.140〉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원 현상설계 당선작(2007) | 142 |
| 〈그림 4.14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3등작 - 건축가(민현준, 권영상 외) 참여 | 143 |
| 〈그림 4.142〉 아파트 공화국 | 144 |
| 〈그림 4.143〉 신도시 주거단지, 평촌 | 145 |
| 〈그림 4.144〉 초고층주거, 강남 타워팰리스 | 145 |
| 〈그림 4.145〉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 145 |
| 〈그림 4.146〉 분당신도시 서현역 상업건축물 | 145 |
| 〈그림 4.147〉 한국도시의 모범이 되는 외국의 사례 (일반인) | 146 |
| 〈그림 4.148〉 기존의 도시조직을 해체한 뉴타운사례 | 147 |
| 〈그림 4.149〉 철거예정인 한옥지구 | 147 |
| 〈그림 4.150〉 도시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 (전문가) | 149 |
| 〈그림 4.151〉 창원시, 중앙로 | 149 |
| 〈그림 4.152〉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 149 |
| 〈그림 4.153〉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건축, 조경분야 참여 | 149 |
| 〈그림 4.15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의 개념으로서의 탈중심성 (국제공모 당선작) | 150 |
| 〈그림 5.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구성요소 | 154 |
| 〈그림 5.2〉 전체 연구내용 | 155 |
| 〈그림 5.3〉 도시형태 및 도시조직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현황 | 157 |

| | |
|--|-----|
| 〈그림 5.4〉 한국적인 것의 개념 (전문가) | 157 |
| 〈그림 5.5〉 한국도시의 정체성 (일반인) | 158 |
| 〈그림 5.6〉 한국도시의 정체성 (전문가) | 158 |
| 〈그림 5.7〉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일반인) | 159 |
| 〈그림 5.8〉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전문가) | 160 |
| 〈그림 5.9〉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 필요성의 정도 (전문가) | 161 |
| 〈그림 5.10〉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 필요성의 정도 (일반인) | 161 |
| 〈그림 5.11〉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 (일반인) | 161 |
| 〈그림 5.12〉 뉴 어바니즘 현장(1996) | 162 |
| 〈그림 5.13〉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 서밋, 2002) | 162 |
| 〈그림 5.14〉 전통적인 경관과 현대 조경에서의 재현 사례 (정영선) | 163 |
| 〈그림 5.15〉 전주시 한옥마을 | 164 |
| 〈그림 5.16〉 전주시 태조로 | 164 |
| 〈그림 5.17〉 전주시 걷고 싶은 거리 | 164 |
| 〈그림 5.18〉 전주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현황 | 164 |
| 〈그림 5.19〉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1 - 복잡성, 동시대성 | 165 |
| 〈그림 5.20〉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2 - 민주성, 탈근대성 | 165 |
| 〈그림 5.21〉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3 - 풍수(전통적 원리) | 166 |
| 〈그림 5.22〉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4 - 전통도시구조, 서울, 5부, 풍수, 중심성 | 166 |
| 〈그림 5.23〉 파리의 고유한 도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설계 사례 | 167 |

| | |
|--|-----|
| 〈그림 5.24〉 전통도시조직의 검토를 통한 현대적 적용 : 프랑스 파리의 사례 | 168 |
| 〈그림 5.25〉 파리의 고유한 도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설계 사례 | 168 |
| 〈그림 5.26〉 일본 마찌야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현상공모 | 169 |
| 〈그림 5.27〉 한국적 신도시를 주제로 한 현상설계(2008)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커뮤니티 시범단지 부분 | 170 |
| 〈그림 5.28〉 관련주제분야별 연구수 변화 | 171 |
| 〈그림 5.29〉 일본 도쿄시 건축 옥상녹화 사례 | 172 |
| 〈그림 5.30〉 최근 도시공간조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관심대상 분야 (전문가) | 172 |
| 〈그림 5.3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개발계획) | 173 |
| 〈그림 5.32〉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 구성 | 173 |
| 〈그림 5.33〉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미지 | 173 |
| 〈그림 5.3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작의 탈중심성에 대한 제안 | 177 |
| 〈그림 5.3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 177 |
| 〈그림 5.3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 177 |
| 〈그림 5.37〉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심사위원 노트 | 177 |
| 〈그림 5.38〉 록본기힐즈 (모리부동산) | 179 |
| 〈그림 5.39〉 무안기업도시 구상(안) | 179 |
| 〈그림 5.40〉 도시조성과정에 참여의사 (일반인) | 180 |
| 〈그림 5.41〉 도시조성에 참여시 관심분야 (일반인) | 180 |
| 〈그림 5.42〉 한국의 도시조성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주체 (일반인) | 181 |

| | |
|---|-----|
| 〈그림 5.43〉 도시가꾸기 우선분야 (일반인) | 181 |
| 〈그림 5.44〉 근린주구계획 다이어그램 | 182 |
| 〈그림 5.45〉 전주시 웨딩거리 상인정비 | 184 |
| 〈그림 5.46〉 전주시 재래시장 정비 | 184 |
| 〈그림 5.47〉 전주한옥마을 커뮤니티공간조성 | 184 |
| 〈그림 5.48〉 전주시 특화거리 쌈지광장 조성 | 184 |
| 〈그림 5.49〉 북촌 전경 | 184 |
| 〈그림 5.50〉 헤이리 주민회의 전경 | 184 |
| 〈그림 5.51〉 조정되기 전에 작성된 헤이리 도시설계안(초안) | 185 |
| 〈그림 5.52〉 실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조정된 헤이리 도시설계안 | 185 |
| 〈그림 5.53〉 분당시범단지 중앙부 근린상가복합지역 | 186 |
| 〈그림 5.54〉 분당시범단지 복합커뮤니티의 초기형태 | 186 |
| 〈그림 5.55〉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 186 |
| 〈그림 5.56〉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 186 |
| 〈그림 5.57〉 도시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문가) | 187 |
| 〈그림 5.58〉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일반인) | 190 |
| 〈그림 5.59〉 도시조성주체 (일반인) | 191 |
| 〈그림 5.60〉 전주한옥마을 전경 | 191 |
| 〈그림 5.61〉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 191 |
| 〈그림 5.62〉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재개발계획안 | 192 |

| | |
|---|-----|
| 〈그림 5.63〉 파이오니어 스퀘어-스키드로드 역사보존구역 | 193 |
| 〈그림 5.64〉 파이오니어 스퀘어 주변 전경 | 193 |
| 〈그림 5.65〉 도시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 (전문가) | 196 |
| 〈그림 5.66〉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 (전문가) | 196 |
| 〈그림 5.67〉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시범단지 | 198 |
| 〈그림 5.68〉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위치 | 198 |
| 〈그림 5.69〉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전시회 | 198 |
| 〈그림 5.70〉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조경설계사 발모리) | 199 |
| 〈그림 5.71〉 송도마스터플랜 (건축가 램콜하스) | 199 |
| 〈그림 5.7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중요도 (전문가) | 201 |
| | |
| 〈그림 6.1〉 향후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항목 (전문가) | 209 |
| 〈그림 6.2〉 한국의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일반인) | 210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해방이후 최근까지 경제성장 및 국가개발에 대한 요구가 모든 정책 과정에 있어서 최우선과제였고, 이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간정책은 경제성장에 적합한 구조로의 도시 및 국토환경 재편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급속한 도시화, 양적인 팽창,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및 도시설계의 경험은 강남, 여의도, 창원, 반월과 같은 60~70년대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80년대 말 분당, 일산과 같은 수도권 신도시에 이어 2000년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2기 신도시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들어 국내외 도시적 상황에 대한 여건변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도시적 담론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들어 도시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탈산업사회로의 진입이나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한 요구, 거버넌스 시대에 적합한 계획 패러다임의 구축 등이 계획 분야의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서 이어져 왔고, 지속가능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뉴어머니즘 등이 부분적인 패러다임으로 제기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양적인 도시 성장과 국가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질적인 가치향상에 대한 고

만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구조, 이미지, 생성원리에 대한 고찰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되어온 도시공간의 양적성장에 대한 반성과 한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한국적 도시공간이 무엇이며,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공간환경에 대한 문화적 수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5년도에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개념국제공모에서 ‘한국적 도시공간’ 이 공모지침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고¹⁾, 당선작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다뤄진 바가 있다. 또한 2006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 일반인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 경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고유의 특색이 없다(국적불분명)’ 을 지적하는 등 경제규모와 문화적 수준에 부합할 만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도시공간의 질적 가치와 정체성의 모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도시설계를 지배해온 지식과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시를 만들고 이를 위한 도시설계를 진행해 온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실제 도시공간에 있어서는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의 지식체계는 거시적인 계획방식이나 외국의 지식체계에 대한 소개만이 반복되고 있고, 구체적인 도시공간과 도시설계부분, 그리고 한국의 도시에서의 특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²⁾ 하지만 우리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과 성찰 없이 “침묵하지 않기만” 을 지속해온 것이 아닌가 한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설계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비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21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운 ‘도시적 한국성(Urban Koreaness)’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도시조영의 철학과 이념이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세계 도시문화사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출처 : 국토연구원(2006.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 국제공모 관리부분”, 국토해양부

2) Ludwig J.J. Wittgenstein(2006), “Logisch-philosophische Abhandlung”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 각 분야 지식토대의 성장을 고려할 때, 이제는 홉스봄(Eric Hobsbawm)³⁾이 제시한 것처럼 한국의 도시설계 지식체계를 “발명” 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의 도시설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한국의 도시공간과 사회적 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때가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국의 도시에 적합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어왔던 도시적 논의와 지식체계를 포용하면서 또한 그것이 한국적 도시상황에 적합하고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로는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가치추구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 도시의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제시해야 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해방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설계의 특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설계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적·경제적 요구와 도시적 상황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사회상황과 그 결과 만들어진 공간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외형적인 설계기법이나 공간적 특성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여건에서 진행된 논의를 해석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한국도시의 상황적 여건과 지금까지의 도시설계 특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한 도시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3)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그의 책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고색장연한 마차를 타고 의회 개원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TV방송들이 한결같이 ‘천년의 전통’을 제시하지만 실은 이들 선진국들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이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전통이며, 또한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각양각색의 켈트가 모두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는 사실을 제시했다.

출처 : Eric Hobsbawm(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만들어진 전통(2004), 박지향, 장문석 역, 휴머니스트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도시설계에 대한 특성을 도시별로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설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도시에서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선정하지만 그러한 공간적 설계가 이루어지게 한 정치·경제적, 인문적 배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차원을 검토하는 것에 의해서 한국적 도시설계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와 도시설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가지는 의미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의 틀을 한정하고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고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현황과 최근의 이슈에 대한 모색을 통해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제시해야하는 논의의 방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을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고찰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서 도시적 정체성을 찾고 장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조사하고 실제 도시를 사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과 도시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적 도시설계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공간적 범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에 대한 도시설계 내용과 그 공간구축의 방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도시는 대략 84개 정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방이후 도시설계에 의해 조성된 도시들과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가지면서 점차 변화해 온 도시로 나누어서 도시공간을 분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뉴먼과 켄워시(Newman & Kenworthy)는 경제나 사회조직 등의 특성변화에 따라 도시유형을 1) 전통적인 전근대적 보행도시(traditional pre-modern walking city), 2) 산업적 교통도시(industrial transit city), 3) 근대적 자동차 도시(modern automobile city), 4) 탈 근대적 지속가능한 도시(post-modern sustainable city)로 구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방이후 도시설계에 의해 조성된 도시들을 대략 시기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1) 첫째는 1960~70년대 국가개발 및 경제개발 시기에 1세대 도시 계획가들에 의해 전국의 산업화 거점에 신도시가 조성된 시점이고 2) 둘째는 80년대 택지개발촉진법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조성된 시점이며 3) 셋째는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에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신도시들이 조성되는 시점이 본 연구에서 구분한 시기별 그룹이다. 물론 이들의 사이에도 도시들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국토의 개발과정을 볼 때, 이들은 대략 20년 간격으로 구분되는 개발 패턴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60~70년대 조성된 신도시 중 경북도청이 이전한 창원시를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1980년대 말에 조성된 수도권 신도시 중 대표적인 분당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현상설계나 건축가들의 참여와 같은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진행된 2000년대의 새로운 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선정했다.⁵⁾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가지면서 점차 변화해 온 도시로서는 조선시대 성곽의 흔적이 도로망의 형태로 남아있으면서 가로망이나 필지와 같은 기존의 도시구조 및 조직이 보존되어있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신시가지 조성 과 같은 현대적 도시구조가 중첩되는 도시로서는 전주시를 선정했다.⁶⁾

4) Mike Jenks외(2000),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E & FN Spon

5) 이들은 각 시기를 완전히 대표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의 대표성을 가지는 도시들로 선정한 것을 연구의 한계로 삼고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6) 한국 도시공간의 고유성을 전통적인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찾는 것은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

이와 별도로 해외의 도시에서 고유한 도시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설계 사례로서 미국 시애틀과 프랑스 파리에서의 도시설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들 해외사례는 국내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 참고할 만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그림 1.1〉 분석대상도시 항공사진 (전주시, 창원시, 분당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표 1.1〉 분석대상도시 개요

| 대상 도시 | 구분 | | 동 (행정동) | | 면적 (km ²) | 인구 (명) | 특 성 |
|-----------|----|---|---------|----|-----------------------|----------|---------------------------|
| | 읍 | 면 | | | | | |
| 전 주 시 | - | - | 33 | 53 | 206,26 | 624,849 | 근대이전(성곽도시)-일제-근대-현재까지의 중첩 |
| 창 원 시 | 1 | 2 | 12 | 61 | 292,70 | 503,881 | 70년대 조성된 신도시 |
| 분당신도시 | - | - | 21 | | 19,60 | 390,000* | 80년대 말 조성된 신도시 |
| 행정중심 복합도시 | - | - | - | | 73,00 | 500,000 | 2000년대에 조성된 신도시 |

자료 : 국토해양부(2007), “건설교통통계연보-I.일반통계-2. 행정구역현황”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한국토지공사

* 분당신도시의 경우는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작성

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보다 소규모의 단지계획단계의 연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 이론적 고찰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도시 분야의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보고서와 논문, 국내외 저널 등의 자료를 참고로 최근 도시설계 분야에서의 이론적 경향과 국내외 동향을 추출해서 정리한다. 다음으로 이들 이론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친다.

기존연구들⁷⁾에서는 도시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로 서구에서 논의되었던 근대적 도시패러다임의 쇠퇴 이후 20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들을 소개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탈공업화·탈산업화에 의한 도시변화, 세계화, 민주화, 포스트모더니즘, 협력적 계획체계 등과 같이 이미 서구의 도시적 환경에서 논의되어 온 상황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한국의 도시적 상황이 서구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도시적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는데⁸⁾, 이러한 기존의 도시적 문제점은 각 나라와 도시마다 다르고 인문·사회적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에서 해방이후 진행되어 온 도시설계 과정과 최근 한국적 도시상황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다.

□ 도면분석 및 현지답사

이론적 고찰에 이어서 실제 도시설계안에 대한 이해와 도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면분석 및 현지답사를 진행한다. 실제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 및 도면분석은 각 연구대상 도시들에 대해서 1)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과 같은 디지털 자료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형성과정을 조사

7)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희연 외,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1999, 경실련), 강흥빈 외,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2006, 대한주택공사), 문정호 외,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2006, 국토연구원), “한국적 도시재생 패러다임” (2008, 도시재생사업단)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2장을 참고

8) Madanipour, A (1996), “Design of Urban Space”, London: Wiley, pp.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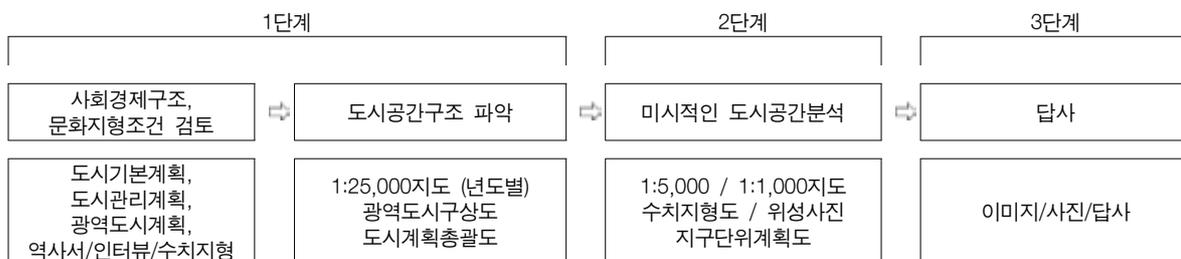
하고, 2) 답사를 통해 실제 공간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과 도시경관 등을 조사한다. 도면을 통한 도시 분석은 계획도면, 1:25,000,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석대상 도시의 변화상황을 10년 단위로 검토하여 도시공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광역차원의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의 특성 도출을 위해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25,000지도와 도시계획총괄도를 기본 분석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도시공간정책과 실천적 공간사례를 검토하였고 인구, 산업 등의 통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분석의 일반현황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각 도시별로 중요한 변화지점과 광역지도에서 찾아지는 특징적인 도시공간에 대해 미시적 공간수준에서의 도시공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도로가 같이 표기된 수치지형도 및 1:5,000 지도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이용패턴과 필지·도로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를 병행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원적 공간구조가 실제 공간환경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경관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실제 도시를 답사하고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2〉 연구의 방법(도시사례분석부분)



〈예시: 전주시〉

도시의 팽창에 따른 철도역사의 이전 (이전적지에 시청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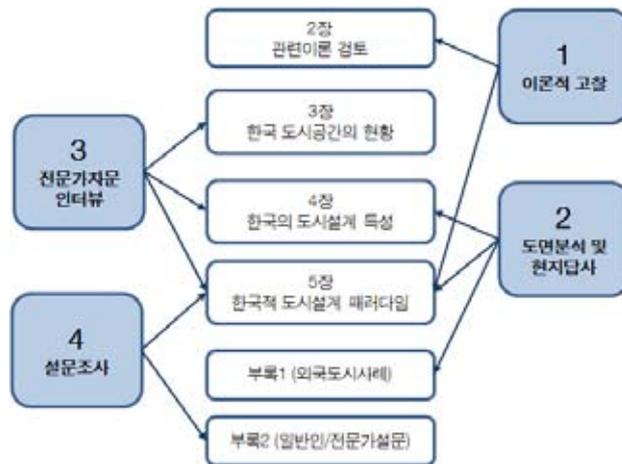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한국적인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한국적인 도시설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설계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논의방향을 모색한다. 동시에 관련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계획과정을 통해 이러한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도시설계 과정에서 작용한 논리와 배경을 조사한다.

□ 한국적 도시의 인식과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방향에 대한 설문

이러한 이론조사 및 실제 도시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실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실제 도시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인의 경우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가의 경우 향후 도시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도시 분야 학자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논의 이외에 실제 도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설계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도시설계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한국적 도시에 대한 인식부분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한국의 인구통계와 유사한 모형을 바탕으로 8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별도로 기관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도시·건축·조경분야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그림 1.3〉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 2장: 한국 도시설계 패러다임 연구의 흐름 및 정체성에 대한 논의검토

연구의 목적이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므로 기존의 한국 도시설계 분야에서의 논의의 흐름과 한국적 도시패러다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이러한 도시설계분야의 흐름에 대한 조사는 해방 이후 진행되어온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경향과 최근의 논의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한국의 도시상황과 도시설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삼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적”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도시적 관점에서의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한국에서도 70~80년대에 전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국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으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인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가로막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조명래 교수는 “정체성으로서 한국성은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을 통해 구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성의 재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살아갈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현실의 실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발전시켰고⁹⁾, 정기용은 “어느 나라도 일본성, 불란서성, 이집트성을 찾아야 현대건축이 발전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리고 무엇을 찾건 간에 그 발견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의 측면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현실에서 간곡히 요청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성을 주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면서¹⁰⁾ 과거의 모색보다는 미래의 창조적 가치에 한국적인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한국의 도시설계적 특성과 도시상황을 분석하는 틀로 삼도록 한다.

□ 3장: 한국 도시공간 외적 상황 및 경향 파악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단계로서 우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도시들이 처한 상황과 현황

9) 조명래(1999.10), “중소도시에서 한국성”, 월간 건축문화, v221, pp.106-108

10) 정기용(1987.9), “한국현대건축: 한국성의 재발견2/설문”, 공간, v241, pp.37

을 살펴본다. 패러다임의 성격상 과거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상황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한국의 도시들이 처한 상황과 현황에 대한 고찰은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은 실제 도시공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인구저성장이나 탈중심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 시민사회의 성장 등 인문,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를 위해서 i) 도시에 거주하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변화, ii) 도시를 조성하고 만들어온 공급자 측면에서의 변화, iii) 이들을 포함하는 도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변화, iv)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적인 측면의 변화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이어서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서 실제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도시설계 경향을 분석하며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도시설계 분야의 주요이슈를 정리한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기존 도시질서의 보전 및 활용, 전문가간의 협업체계 및 상향식 계획 패러다임, 또한 모더니즘 도시설계 경향에 대한 반성 등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최근 들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경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i) 새로운 가치체계, ii) 도시설계의 참여주체, iii) 계획의 수립체계, iv) 도시설계의 경향의 체계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 4장: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분석

이러한 한국의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 및 최근 주요이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시기별로 대표적인 4개의 사례 도시에 대해 도시설계적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설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은 도시가 조성된 시점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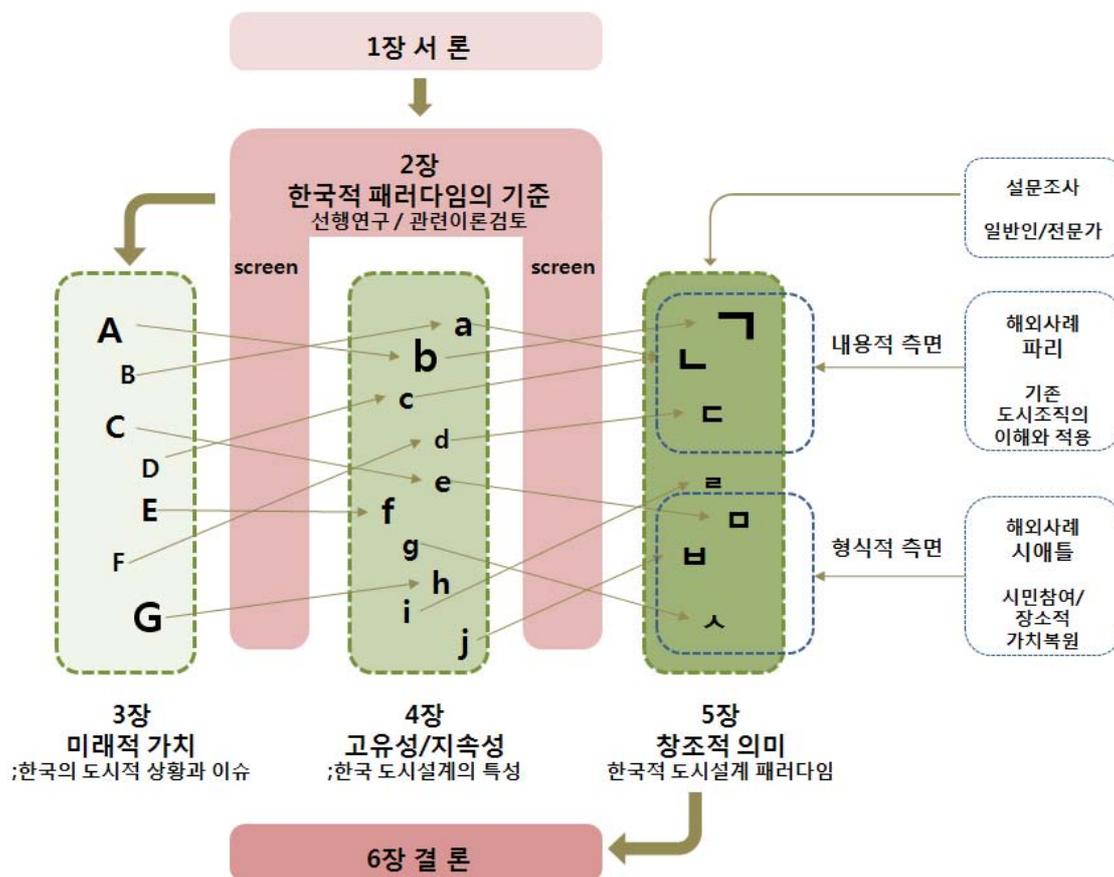
예를 들어 창원시의 경우는 산업화가 국가의 주요이슈가 된 시대에 설계된 신도시이며, 당시 모더니즘 설계이론을 습득한 도시설계가에 의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의 상징가로에 대한 설계방식과 중심축에 대한 접근, 건축과 도시가 시장체계보다는 상징체계에 의해 조정되고 계획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지체계나 도로체계, 건축물의 형식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반을 둔 해석을 정리한다. 또한 나머지 3개의 도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를 형성 혹은 변화시키는 중요 상황에 따른 당시의 설계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5장: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모색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도시설계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향후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3장에서 검토한 한국 도시의 여건변화 및 주요 이슈 부분은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미래적 가치에 해당되며 4장에서 검토한 한국의 도시설계 특성 부분은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있어서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모색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도시설계 패러다임은 우선 실제 도시설계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도시설계의 과정과 방법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부분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향후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를 위한 내용과 형식의 방향을 제시한다.

□ 연구의 흐름



〈그림 1.4〉 연구의 흐름

II.

관련이론 검토

1. 도시설계분야의 주요패러다임 변화
2.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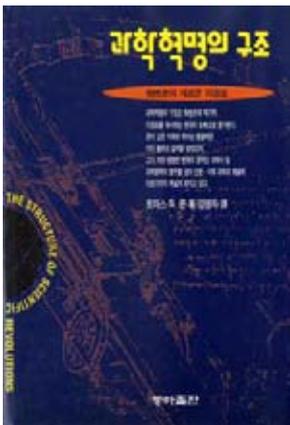
(a u r i

관련이론 검토

1 도시설계 분야의 주요패러다임 변화

1) 도시설계 분야에서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요즘 각 영역에서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 일상용어가 되었지만 실제로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1962)’ 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부터 50년 밖에 되지 않는 개념이며 처음에는 과학사에서 과학적 진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그림 2.1〉 과학혁명의 구조(토마스 쿤, 1962)

패러다임에 대한 사전적 정의¹¹⁾는 ‘패턴 pattern’ , ‘전형 example’ 혹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틀 a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framework’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음에 토마스 쿤이 제시한 과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집합 ‘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고정된’ 전형 ‘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의 속성 또한 변화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의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후에는 패러다임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탐구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 하고 이것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

11) 웹스터온라인사전 :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definition/paradigm>

속되지 않고 생성·발전·쇠퇴·대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적 진보의 계기가 되는 변화(혁명)는 하나의 이론구조라 할 수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포기과 그 자리를 (기존의 패러다임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과학사가 일정부분 '비누적적인 발전' '메커니즘으로 발전해왔다는 주장이었으며, 때문에 기타 학문분야까지 많은 파급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파급효과만큼이나 논의도 활발했는데, 이를 보면 '패러다임' 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쿤 스스로가 이 책에서 '패러다임'의 정의에 대해 각기 다른 부분에서 적어도 22개의 서로 다른 용례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를 의식해서 쿤 스스로가 이 책의 2판 후기에서 패러다임의 용어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¹²⁾

“패러다임은 어느 주어진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다임은 그런 집합에서 한 유형의 구성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형이나 또는 예제로서 사용되어 정상과학의 나머지 수수께끼에 대한 풀이의 기초로서 명시적 규칙들을 대치할 수 있는 구체적 수수께끼-풀이를 나타낸다.”¹³⁾

이처럼 파급효과만큼이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으며,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지식체계와 다른 새로운 체계의 종합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는 것”과 “이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지식체계”를 지칭할 때 논의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정리된다.

이를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보면 “기존의 도시설계의 틀이나 방식과 다른 가치체계”이며 “한국의 현 시점에서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의 사고를 지배하는 방법적 틀과 내용적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론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형태적인 측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계획분야 연구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적 패러다임은 협력적 계획이론(Harbermas; 1981)과 같이 계획의 참여주체와 권력에 대한 과정적인 논의와 근대도시계획이론 이후 제기된 탈 중심적, 탈근대성(Harvey; 1990)등과 같은 이념적인 논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설계분야에서는 도시공간을 그러한 방향으로 조성하게 하는 원

12) Thomas S.Kuhn(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1992), 동아출판, pp.247~302

13) Thomas S.Kuhn, 위의 책, pp.248

인과 근거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볼 때,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형성된 도시구조가 있을 것이며, 또는 단기간에 양질의 주거를 공급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현재의 주거양식과 주택시장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필지와 도로체계를 적용한 도시설계 패턴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와 관련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1990년대 말부터 서구 이론의 중심은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논의로 계획자인 전문가와 이용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대안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었다. 물리적인 형태만을 다루는 논의는 줄어들었고,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제적 지속성이나 도시문화에서 찾아질 수 있는 창조성 등의 관련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Collaborative planning」(Patsy Healey, 1997),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Fainstein, 2000),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Mike Jenks, Elizabeth Burton, Katie Williams, 2001), 「Sustainable urban design paradigm : twenty five simple things to do make an urban neighborhood sustainable」(Bashir A. Kazimee, 2004)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적인 팽창에 비교하여 도시공간의 질적인 가치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적 체계와 방법적 틀을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으로 한정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설계 분야의 주요 패러다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2000년대 이후 도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관련 주요연구 내용 (해외사례)

| 연구명 | 연도/연구자 | 패러다임 내용 | 성격 |
|---|--|---|------------------|
| Collaborative planning | 1997, Patsy Healey | 전통적 계획이론의 대상인 도시시스템과 계획 과정으로서의 가버넌스를 통합시키는 대안을 제시 | 방법적 논의 |
|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 2000, Fainstein | 현재 세계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에서 인간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대안적인 계획모형으로 의사소통모형(Communicative rationality model),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정의로운 도시(Just City)의 3가지 모형을 제시 | 내용적 논의 |
|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¹⁴⁾ | 2001, Elizabeth Burton, Mike Jenks, Katie Williams | 컴팩트도시를 통하여 논의되었던 밀도중심의 도시론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제시 지속가능한 형태에 대한 논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추진을 위한 전략, 디자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방식을 제시 | 내용적 논의 |
| Sustainable urban design paradigm | 2004, Bashir A. Kazimee | 25개의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예술과 과학의 재발견 과정을 조사 | 방법적 논의 내용적 논의 |

2) 도시설계 분야에서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

□ 1960-70년대 : 근대적 도시설계의 도입

현재 한국 도시공간의 상당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두 번의 도시계획적인 구획정리사업이었으며, 현재에도 기존 도시조직의 큰 골격은 이 당시에 이루어진 근대적 도시개편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이 당시에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는 첫째로 철도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도시공간구조를 일차적으로 변화시켰고, 둘째로는 두 차례의 구획정리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도시구조를 근대적인 구조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적 구조를 지방에 전달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서구의 도시와 같이 상업과 생산, 시민 사회적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구조나 근대적 도시개조 등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며, 일본에 의해 진행된 근대적 도시개조는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일정부분 왜곡되었다.(손정목, 1996)¹⁵⁾

해방이후에는 국가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국토개조 및 개발에 관한 논의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당시 모더니즘 교육을 받고 귀국한 도시학자들에 의해 60~70년대의 한국 도시설계의 주류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1961년 이후 진행된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사회·경제·국토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1962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6년 도시재개발법,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모더니즘 도시설계이론의 도입, 산업화 패러다임과의 연계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초기의 산업화 시기에는 긍정적

14) 영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01년에 발표, 도시형태, 도시정책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에 대해 정리하였음

15) 1920~1940년까지 한국의 도시화율은 3.35%에서 18.5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착취적인 통치방식 때문에 농촌에서 이탈한 생산인구는 도시의 산업인력으로 전환되기보다 대다수가 국외로 이민 가는 길을 택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로서의 국토경영을 위해 전통적인 지방권력의 중심지였던 도청소재지 몇몇을 옮기면서 식민지형 신도시를 건설했다.

출처 :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이처럼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적 도시공간으로의 개편사업은 식민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도시공간이라기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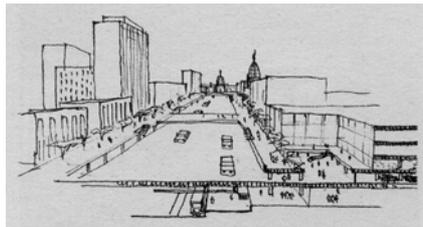
출처 : 박세훈(2001), “1930년대 경성부의 도시사회정책 연구-정동회, 교화사업, 방면위원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학 박론/ 염복규(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전통적 가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기회를 산업화와 경제화의 논리 속에서 상실하게 되었으며, 또한 서구의 근대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한국의 것으로 정착하게 된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대표적인 연구와 도시설계 사례로는 서울에서 진행된 여의도와 강남의 도시설계가 있고 지방에서는 창원, 구미, 반월과 같은 공업도시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의 도시설계분야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로는 박병주 교수나 안영배 교수 등에 의해 근린주구이론이 실제 신도시 설계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내글러(Oswald Nagler)가 단장으로 있던 HURPI(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 건설부 주택,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실)에 의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근린주구 설계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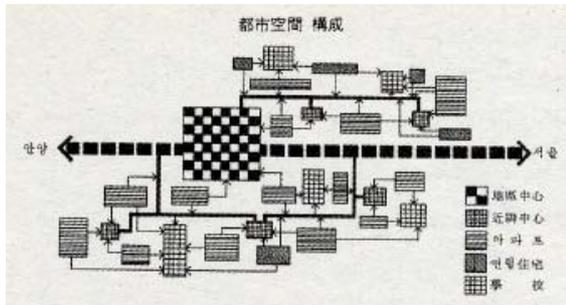
〈그림 2.2〉 만리2동 주거지구
재개발계획(HURPI,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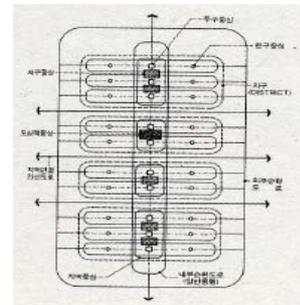
〈그림 2.3〉 세종로 스케치(안영배)
출처 : 공간, 19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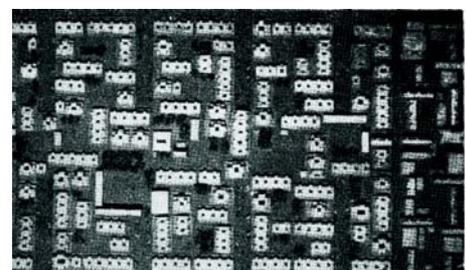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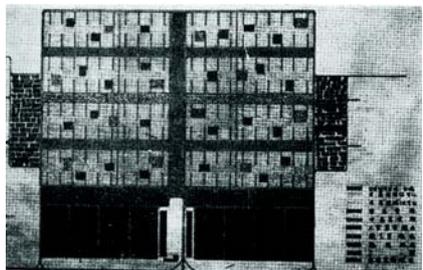
〈그림 2.4〉 여의도 도시계획(김수근)
출처 : 공간, 1969.4



〈그림 2.5〉 과천신도시 공간구상도



〈그림 2.6〉 목동신시가지
공간구상도



〈그림 2.7〉 25만 도시설계, 근린주구 오픈스페이스 스터디(HURPI, 1967)
출처 : 공간, 1967.7

□ 1980~90년대 한국화된 도시설계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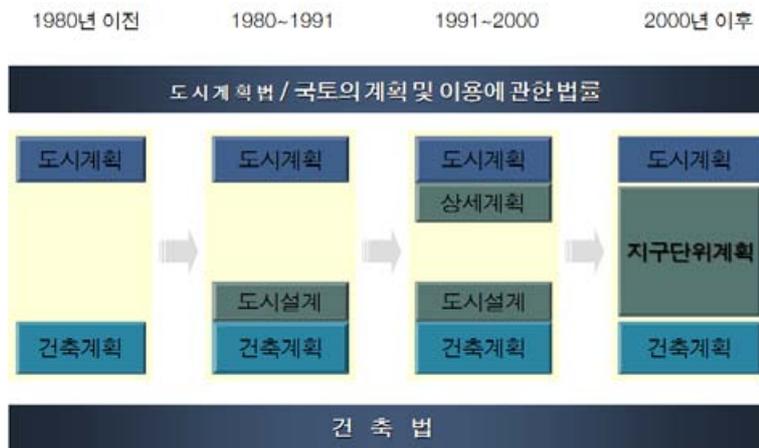
이후 한국의 도시설계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1982년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된 도시설계 연구¹⁶⁾와 이에 이어 80년대 후반 이루어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른 신도시 설계에 있었다. 도시설계 연구는 도시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최초의 연구로 제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1991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체계도 정리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지금까지 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를 대표하고 있는 제도로써 도시와 건축분야를 연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3차원적인 도시설계의 정성적인 내용과 밀도, 용도 등 법적 지침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재로서 가장 한국화 되어있는 도시설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애초의 1)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취지가 훼손되고 2) 지나치게 정량적인 지표계획에 치중하면서 실제 도시공간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잘 읽혀지지 않으며, 3) 참여주체가 한정적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⁷⁾



〈그림 2.8〉 도시설계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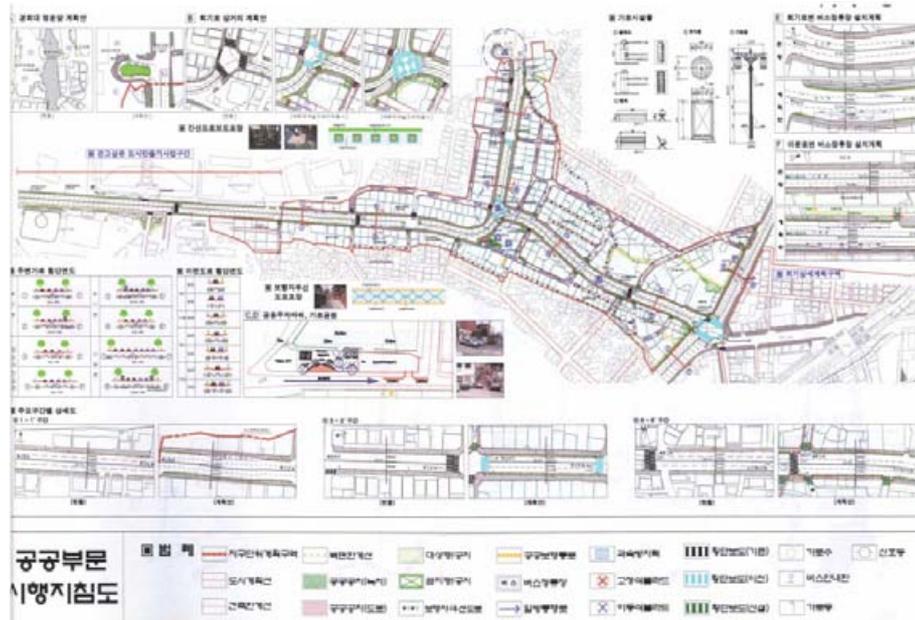
〈그림 2.9〉 지구단위계획의 체계

16) 권원용, 안건혁(1982), “I 권. 범위와 지침에 관한 연구, II 권. 사례적용연구, III 권. 지구계획 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7) 현재 한국에서의 대표적으로 제도화되어있는 도시설계인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일부 연구진들에 의해 진행된 바가 있으며,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2.10〉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도 사례



〈그림 2.11〉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도 사례

한편 80년대 후반 진행된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건설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도시의 도시설계는 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모더니즘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한국적 상황에 완전히 정착하

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도시에 대한 도시설계가 용도지역구분, 토지이용계획, 주택배치, 근린주구 중심의 기능적 계획에 집중되면서 도시적 담론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으나(조명래; 2002) 중앙녹지공원의 도입이나 시설녹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도시설계의 변화, 광역교통체계와 건설시장에 적합한 도시구조의 제안 등 다양한 부분의 도시설계에 있어서 당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패러다임을 생산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림 2.12〉 분당신도시 개발계획도



〈그림 2.13〉 일산신도시 개발계획도

이러한 80~90년대의 변화는 1987년 이후 군사정부의 종식과 시민사회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집권 등을 통해 정치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과정과 연계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인구증가기조가 점차 감퇴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외국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 포디즘과 같은 인식론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회패러다임이 탈발전적 논의로 변화되면서 사회 발전적 패러다임이 탈발전적 논의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조명래; 2002) 이 과정에서 1992년 성수대교의 붕괴와 1994년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는 탈발전적 도시패러다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성수대교 붕괴(1992)



〈그림 2.15〉 남산외인아파트 철거(1994)

□ 2000년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당시 서구 이론을 이끌던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생활자로서 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복원, 시민들의 참여, 계획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들 연구들은 계획 주체 권한이양 등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와 계획의 절차, 위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로서 주로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경실련에 의해 진행된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황희연 외, 1999),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된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문정호 외, 200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박재길 외, 2005), 공공기관 및 학회 등에서 진행된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개발」(국토도시계획학회; 신동진 외, 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대한주택공사; 임서환 외, 2006),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국토연구; 이수장, 2006),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국토연구; 김홍순, 2006) 등이 있다.

〈표 2.2〉 2000년대 이후 도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관련 주요연구 내용 (국내사례)

| 연구명 | 연도/연구자 | 패러다임 내용 | 성격 |
|------------------------|------------------------------|--|------------------|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1999 경실련 황희연 외 | 가능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평면적 관리에서 입체적 관리체계로 가능분리 토지이용에서 기능통합 토지이용으로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등 21개 항목 | 방법적 논의 내용적 논의 |
|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2006, 국토연구원, 문정호 외 | 이론적 요소 1) 사회발전유위한 합의와 실천과정 2) 의사소통에 의한 사회적, 절차적 합리성 3)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통한 개방된 참여시스템 실천적 요소 1)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정의 구현 2) 참여적 계획가와 거버넌스 구축 3) 사전적 합의시스템, 갈등관리시스템 등 시민 사회간 거버넌스 구축의 시스템화 | 방법적 논의 |
|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 2006 주택공사 임서환 외 | 유연한 계획 패러다임 | 방법적 논의 |
| 한국적 도시재생 패러다임 | 2008 도시재생 사업단 강홍빈 외 | 1) 분야별 분립주의에서 장소중심의 통합주의로 2) 기성시기의 적극적인 재활용 3) 정부지도하에서 지역사회 주축의 파트너십 4) 물리적 개선을 넘어선 '지속가능발전' 조건의 구축 5) 대단위 단순개발에서 소단위 복합개발로 6)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의 보호 | 방법적 논의 내용적 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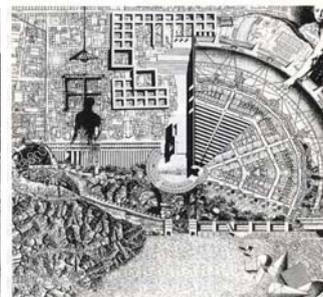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계획적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이외에 지속가능성, 뉴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등 포스트모던 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도시공간이나 설계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주로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한국적 도시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도시계획의 신조류」(국토연구원; 마쓰나가 야스미쓰, 2006),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김찬호, 이창수, 우윤석, 2006)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더니즘 도시설계이론에서 포스트모던 논의가 진행되면서 도시 및 건축학자 들에 의해 진행되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서구에서는 이미 70~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논의들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도시설계과정에서 현상설계 등이 진행되면서 실제 도시설계과정에서 재현되는 논의들이 있다. 예를 들면 David Harvey는 Jane Jacobs(1961), Robert Venturi(1972), Peter Blake(1974) 등의 포스트모던 도시이론가들에 의해 모더니즘 도시이론에 대한 비판과 해석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David Harvey(1990),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sm") Charles Jencks는 Pruitt-Igoe(1972)주거단지 폭파를 통해 사회적 가치변화를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로 해석해 낸 바 있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Colin Rowe의 도시적 맥락과 배경-도상, Kevin Lynch의 도시이미지, Aldo Rossi의 유비적인 도시, Christopher Alexander의 네트워크 이론, Rem Koolhaas의 다원성에 대한 논의 등 근대 이후 도시이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이론들은 소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한국의 도시설계이론으로 반영되거나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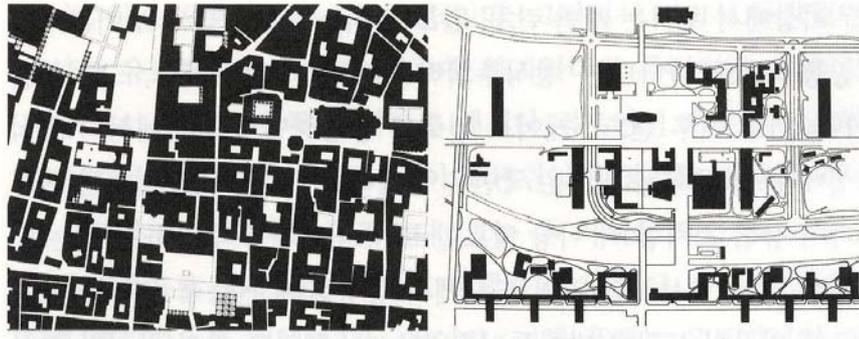
한편 최근에는 일본의 건축가 등에 의해서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도시적 양상에 대해 일본적인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등(Momoyo Kaijima 외, "Made in Tokyo")가 진행되는 등 도시적 정체성을 현재 있는 그대로의 관점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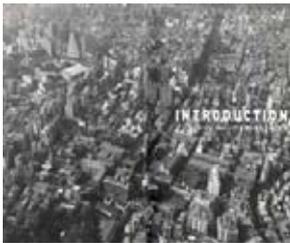
〈그림 2.16〉 프루트이고(Pruitt-Igoe)주거단지 폭파(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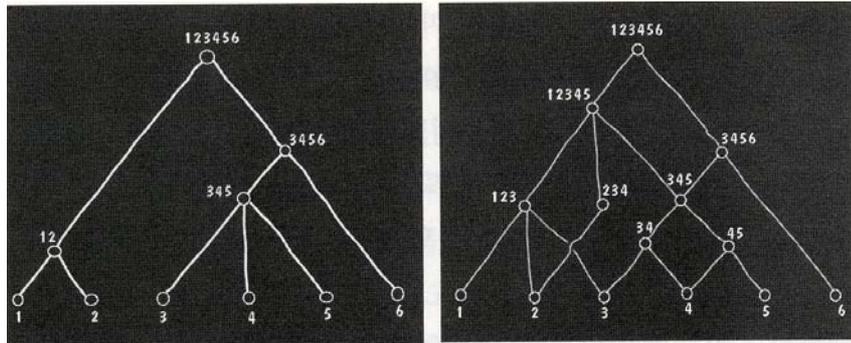
〈그림 2.17〉 유비적인도시(Analogous City)(Aldo Rossi,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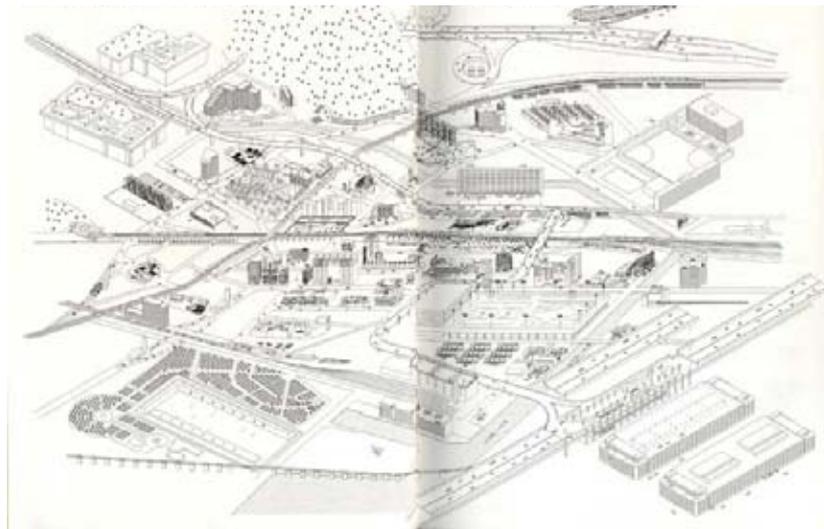
〈그림 2.18〉 전통도시구조와 근대도시구조(Colin Rowe)
출처 : 정인하(2006),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재인용



〈그림 2.19〉 동경의 현재 모습
출처 : Momoyo Kaijima외(2001), “Made in Tokyo”, 鹿島出版社



〈그림 2.20〉 나무형 구조와 반격자 구조의 다이어그램(Christopher Alexander)
출처 : 정인하(2006),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재인용



〈그림 2.21〉 동경의 건축과 도시 경계부분 양상에 대한 연구
출처 : Momoyo Kaijima외(2001), “Made in Tokyo”, 鹿島出版社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2

1)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그렇다면 과연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있어서 “한국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한국적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며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인문, 사회, 경제,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한국적”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것 이상으로 정체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철학자인 소흥렬은 한국성에 대해 전통적인 성격 이상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성격으로 규정하여 전통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해야 함을 지적했다.(소흥렬, 1987) 또한 탁석산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에 대한 인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성(동시대성), 대중성, 주체성의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탁석산, 2000)¹⁸⁾

"사머니즘은 원래 동북아시아의 시베리아 지방에서 생겨난 것으로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사머니즘의 시원은 우리가 아니다. 왜 사머니즘이 한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가? 시원이 문제가 아니라면 세월이 흘러 천 년 후쯤에는 기독교 정신이나 이슬람의 정신이 한국 문화의 터줏대감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토착화의 주역이 되는 정신이나 문화는 가변적이다.정체성은 개성이며, 개성은 고유성과 창의성의 합이라고 본다면, 고유성과 창의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곧 정체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50년이나 100년 후쯤에는 민요 혹은 대중요라는 이름으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나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왜 두곡이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¹⁹⁾

그렇다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을 왜 찾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서 시작해 보자. 예를 들어 한복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80~90년대에 만들어진 개량한복을



〈그림 2.22〉 글로벌리즘
(최정화 작품, 2002)
(출처 : 진중권(2007),
"호모 코레아니쿠스",
웅진지식하우스, 재인용)

18)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19) 탁석산, 위의 책, pp.102~109



〈그림 2.23〉 전통한복과
외국패션쇼에 출품된 한복

아직까지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건축분야에서 70~80년대에 논의된 전통에 대한 논쟁은 “전통적인 것이 무엇이고 왜색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만을 거듭하다가 오히려 그 이후로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짓는 토대를 만들어버렸다.²⁰⁾ 그렇지만 한국이 가지는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인 도시상황과 사회상황에서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한 탐구는 필요하다.



〈그림 2.24〉 부여박물관(김수근)



〈그림 2.25〉 프랑스대사관(김중업)



〈그림 2.26〉 공간사육(김수근)

20) 심지어는 “한국성은 현대에 인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거나(송민규, 1987, 공간), “한국적인 건축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도 않으며, 이를 애국과 동일시하는 자체가 불손하다.”(최창규, 1987, 공간)는 등의 한국적인 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예전의 형태적·양식적인 것의 차용을 통해 우선 “한국적인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자 했던 근대적 사유체계에 기반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성이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의 재조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할 성격이며, 삶의 유형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장석원(1990, 미술세계)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²¹⁾



〈그림 2.27〉 외국인인 보는 한국적 도시의 모습
출처 : 매그넘(2008), “Magnum Korea”, 한겨레신문사

21) 장석원(1990,9), “현대의 한국성과 예술혼에 관하여”, 미술세계 70호, pp50~55

2)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 패러다임 논의의 규정

도시공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기존의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들이 전통적인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갇혀서 현실의 상황에 의미 있는 창조적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는 무엇을 위해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나가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경제·사회적 발전단계에 있어서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한국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사회발전단계에 있어서 탈산업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적 도시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에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탈 근대적 발전 패러다임이나 포스트 모던적 도시이론에 대한 논의가 이미 한국적 상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국가주도 개발시기의 도시공간패턴이나, 현재의 도시적 삶의 패턴이 재현되고 있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에 대한 현재적 가치에 대한 이해 등도 현재에 있어서의 한국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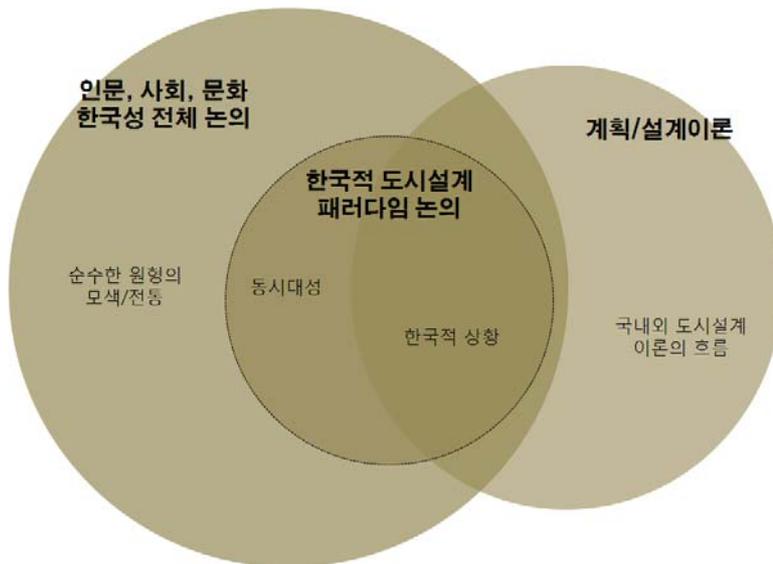
〈그림 2.28〉 평촌신도시 전경



〈그림 2.29〉 서울 강남 전경



〈그림 2.30〉 서울 북촌 전경



〈그림 2.3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논의의 규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적 논의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는 “한국적”이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앞으로 한국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한국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분야에 있어서 어느 양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 일회성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그 시대와 장소에서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기준으로서 첫 번째는 한국의 도시공간 내지는 도시설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나 최근의 경향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및 변화와 연계되어 그것을 반영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주거양식인 한옥의 경우 한국의 자연적 재료인 나무와 황토를 사용하여 한국의 기후에 적합한 공간방식과 한국의 자연과 조화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높은 것이고, 그것이 아프리카의 사막이나 유럽의 어느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의 원칙을 뒷받침한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현재적 도시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산업화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도시의 구조에서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그것이 당시 도시공간이나 주거방식의 생성방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충분히 그 당시 한국적 도시설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항상 한국의 도시상황을 지적할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논의되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숲이나 상업지역의 간판과 같은 모습은 일정부분 계속되어 왔고, 그것이 사회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축 성장을 통한 산업화 시대를 거친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외국의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고 실제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도시적 상황에서 반복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는 개선의 대상일 것이다.



〈그림 2.3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이긴 하나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일 수는 없는 상황
(좌 : 무질서한 다세대주택, 우 : 창원 상남동 상업건물)

III.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1. 한국 도시의 여건변화
2. 한국 도시의 최근 이슈
3. 소결

(a u r i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1 한국 도시의 여건변화

1)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1)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교역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고, G20정상회담에도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구체적인 지표와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섰으며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수준 증가와 그에 맞는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공간환경이 외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와 비교하여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서 평균 6.3으로 나타났다.²²⁾ 이처럼 경제규모와 산업여건에 비해 도시공간환경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2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수립연구",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표 3.1〉 현재 거주도시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6.17 | 6.39 | 6.37 | 6.13 | 6.66 | 7.00 | 6.05 |

* 전체 평균(10점 척도)

출처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수립연구",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표 3.2〉 현재 거주도시 경관의 문제점 인식 설문조사 결과

| | | 한국고유의 특색이 없다 |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 없다 | 도시와 건축이 어울리지 않다 | 없다 | 계 |
|----|--------|-----------------|-------------------|--------------------|--------|----------|
| 전체 | | 45.8(%) | 32.4(%) | 20.8(%) | 1.0(%) | 100.0(%) |
| 지역 | 서울 | 52.6 | 23.9 | 22.6 | 0.9 | 100.0 |
| | 부산 | 47.0 | 27.7 | 24.1 | 1.2 | 100.0 |
| | 대구 | 48.1 | 33.3 | 16.7 | 1.9 | 100.0 |
| | 인천 | 37.7 | 41.0 | 21.3 | 0.0 | 100.0 |
| | 광주 | 34.4 | 46.9 | 18.8 | 0.0 | 100.0 |
| | 대전 | 27.3 | 63.6 | 6.1 | 3.0 | 100.0 |
| | 울산 | 31.8 | 45.5 | 22.7 | 0.0 | 100.0 |
| 연령 | 20-29세 | 42.0 | 37.0 | 21.0 | 0.0 | 100.0 |
| | 30-39세 | 44.9 | 39.0 | 15.3 | 0.8 | 100.0 |
| | 40-49세 | 51.7 | 25.8 | 20.8 | 1.7 | 100.0 |
| | 50-59세 | 47.6 | 24.4 | 26.8 | 1.2 | 100.0 |
| | 60세 이상 | 42.1 | 34.2 | 22.4 | 1.3 | 100.0 |

출처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수립연구",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이러한 도시공간환경의 질적인 가치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도 최근 들어서는 질적인 가치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총괄본부’ 와 같은 조직은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도시공간환경의 생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도시환경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 과 이 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이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공공디자인이나 공간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시민참여 증가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가는 실제 조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크게 시민들의 직접참여와 시민단체와 같은 NGO를 통한 참여, 그리고 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와 같은 사업에 지역주민으로서의 참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약 2/3 (66%) 정도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도시공간 조성과정 참여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 조사(200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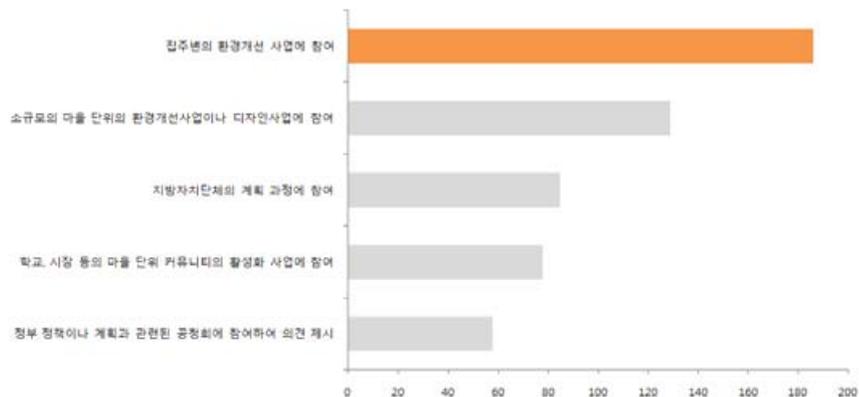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만 들어가는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조금 있다
- ③ 모르겠다
- ④ 거의 없다
- ⑤ 전혀 없다



문12-1)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정부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과정에 참여
- ③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
- ④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
- ⑤ 학교, 시장 등의 마을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
- ⑥ 기타()



시민들의 직접 참여 및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는 한국의 도시환경에서는 1995년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6년에 출범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가 있으며 이어서 ‘부평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1996)’, ‘종로북촌가꾸기회(1999)’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활성화 되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참여형 도시공간조성은 이전의 저항운동이 아닌 대안 제시형 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시민단체가 과거의 투쟁·반대형에서 대안형 혹은 혼합형(Sampson et al., 2005)으로 변화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도시·마을 만들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²³⁾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 혹은 시민이 직접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데, 예비 거주민들이 모여서 단지 조성과정에 직접 참여한 파주시 헤이리 아트벨리 건설 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이 가로환경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서울시 홍대앞 놀이터 조성사업 등이 있다.



〈그림 3.2〉 헤이리 주민회의 모습



〈그림 3.1〉 부평 문화의 거리 살고 싶은 거리 동아시아 마을 만들기 공동워크숍 (2008.10)

23) 진영환, 권영상 외(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국토연구원, pp.36

〈표 3.3〉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 구분 | 서울시 북촌 | 헤이리 아트벨리 | 홍대지역 | 부평 문화의 거리 |
|----------------------|---|--|---|--|
| 유형 특징 | · 주민-정부 협력 · 전통마을조직 보전 | · 주민주도 단지개발유형 | · NGO와 상인이 협력한 인디문화 지역 | · 상인주도의 상가활성화 |
| 중심리더/집단 | · 서울시청 주택과 · 종로북촌가꾸기회 | · 헤이리아트벨리건설 위원회 | · 공간문화센터 · 상인연합회 · 클럽 데이 추진 위원회 | · 상가번영회 |
| 주체별 역할 | 민 | · 마스터플랜수립 · 단지개발 · 건축코디네이터 운영 | · 클럽합법화 요구 | · 상인과 노점상의 공생전략 마련 |
| | 관 | · 가로정비 등 각종 기반정비 · 관련 법제(조례)정비 | · 문화지구지정추진 | · 거리정비/조성 |
| | 전문가 | · 한옥개보수 참여 · 북촌가꾸기기본계획 | · 주민교육 · 도서설계 · 건축디자인을 주민과 협의하여 진행 | |
| | 기타 (시민 단체) | · 북촌문화투어기획 | · 문화행사개최 | · 상인-관간의 이해 조정 대안제시 |
| 네트워크 정도 (상호협력) | · 주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미흡 | · 민 ·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 진행 | · 민 · 관 · NGO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 | · 상가주와 노점상 및 행정이 협의체를 구성 |
| 현안/이슈 | · 사업지속성확보 · 관련법규정개정 · 주민참여확대 | · 사업모델적용의 확대 · 원형지공급의 특혜논란 | · 대규모 자본침입 · 퇴폐문화 유입 | · 대형유통업체 입지에 따른 상권 쇠퇴 |
| 과정상 갈등 및 한계 | · 개별건축허가 · 한옥매입한계 · 한옥재건축의 문제점 · 한옥의 상업화문제 | · 주변의 오해(개발사업) · 토지공사와 협의과정 · 마을조성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갈등 | · 업종간 경쟁심화 · 과도한 임대료 상승 | · 상인과 노점상간 갈등 · 유지관리 주체의 부재 |
| 문제해결방법 (참여/공론화작업) | · 지자체의 중재와 대안 제시 · 재산 가치 상승 | · 재산가치가 균등한 도시설계기법 · 매주 1회 이상 주민협의 및 지속적 교육 | · 문화지구 지정 추진 및 클럽 합법화 | · 부평시에서 상인 요구 수용 · 상인과 노점상의 타협 |
| 목표달성정도/ 지속가능성 | · 한옥멸실감소 · 주거환경개선 · 재산가치증가 | · 거주민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조성 | · 한 · 일 댄스 클럽제 · 클럽데이 개최 · 사운드데이 개최 | · 상가활성화 · 상인공동체 형성 |
| 시사점/특이사항 | · 시민의 문제제기 이후 지자체가 적극 대응하여 대안제시 · 계획과정에서 주민 배제로 갈등 야기 | · 간담회, 교육 등에 의해 공감대 형성 · 도시설계를 통한 갈등해소 방안제시 | · 인디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 확보 · 관민파트너십성공 | · 상인과 노점상간 공생방안 마련 · 민관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 제시 |

출처: 진영환, 권영상의(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국토연구원, pp.176~177 재구성

(3) 주거에 대한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

이처럼 도시환경의 질적 가치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적인 도시상황에서 주거를 재산 가치로 인식하는 상황은 여전하며, 이를 배제한 논의는 사실상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IMF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자본에 의한 개발압력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시민이나 도시 및 주택의 공급주체인 공공부문과 시공회사 등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자본 논리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 과 ‘구조’ 로 순환되는 고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러한 자본과 부동산 중심의 도시공간에 대한 태도는 단기간의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이나 주민들이 주도하는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한국의 도시공간환경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최고급 주거형태 및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정 없이는 한국적 도시공간의 이해과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재개발 승인이 어떠한 가치보다 앞서서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인식되고 아파트 재건축 밀도 상향에 대한 개발압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상황 역시 여전한 도시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 강남 재건축아파트 전경



〈그림 3.4〉 강남 타워팰리스 전경



〈그림 3.5〉 강남 재건축예정 아파트 모습



〈그림 3.6〉 재건축에 대한 개발압력 사례

〈표 3.4〉 주거의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에 대한 언론 사례

| 기사명 | 날짜 _보도매체 | 내용 요약 |
|---|---------------------|---|
| 지분쪼개기에 발목 잡힌 재개발 | 2008.11.20 _매일경제 |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던 서울 일부 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지을 아파트보다 조합원 수가 많거나 비슷해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거나 사실상 1대1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속출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5구역 재개발조합은 아파트 가구 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 일부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대신 현금을 보상하는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
| 재개발 이권 둘러싼 서울 곳곳 '분쟁 몸살' | 2008.10.23 _조선일보 | 무려 49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은평구는 소송에 휩싸이지 않은 동네를 찾기 힘들 정도.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 조합 내부의 비리와 분쟁이 더 늘어나는 추세 |
| "뉴타운사업으로 원주민 27만5000세대 쫓겨날 판" | 2008.10.14 _데일리안 | 뉴타운사업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을 뉴타운과 은평뉴타운(1지구)만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대거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 |
| 서민 울리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시공사 돈벌이로 전략 | 2008.09.04 _경향닷컴 | 사업 독점... 공사비 부풀려 폭리 분양 공사비는 3,3㎡당 378만원으로 사업초기 시공사가 제시한 가격 260만원보다 46%(118만원)나 늘어났다. 총공사비로 따지면 1개 사업지당 평균 821억 원이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이 가운데 210억 원 정도는 과다 계산한 것 |
| '놀부 심보' 조합에 터진 뺨긴 순화동 주민들 | 2008.08.04 _한겨레 | 조합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작은 평수 아파트를 없애고 큰 평수로만 짓겠다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탓에, 상당수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렸음 |
| 서울도심 재개발 비리 또 적발 | 2007.11.22 _한국일보 | 용산 집창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주 청탁과 함께 역대 금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추진위원회 부조합장 등 간부 4명과 돈을 준 업체 대표 1.3명 등 7명을 기소 |
| '지분 쪼개기' 투기 극성...원주민 피해 우려 | 2007.10.08 _한겨레 | 인천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법 허점 악용, 140명이 30평 공유해도 140명 모두 입주권 가능 "SK건설, 원주민 배제 외지인과 손잡고 사업진행" |
| 알박기 여섯 달 13억 챙겨...건설업체 대표 1.구속 | 2006.11.10 _국민일보 |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9일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주요 지역의 땅을 매입한 뒤 알박기를 통해 1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 모 씨(45)를 구속기소 |
| 아파트 명칭, 대기업 이름을 선호 | 2005. 2 _SBS | 아파트 명칭을 건설사로 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학자들이 무수한 반대와 개정을 요구했고, 현재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로 대기업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음. "아파트 명칭을 낙천대에서 롯데캐슬로 바꿔주세요 |

2)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 만들기 확산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진행

최근 한국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시작 이후 지방정부에 의한 도시정비나 도시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 및 커뮤니티 개선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조직해서 도시공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표 3.5〉 지자체별 도시디자인관련 조직현황 (2008.3 기준)

| 구분 | | 조직 및 구성 | 구분 | 조직 및 구성 |
|-----|------------------------|-------------|------|---------|
| 서울시 | 본청 | 1본부 3담당 13팀 | 경기도 | 1본부 2팀 |
| | 강동구 | 2와 7팀 | 강원도 | 1본부 1담당 |
| |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중구 | 1과 4팀 | 제주도 | 1담당 |
| | 강남구, 성북구 | 1실 3팀 | 강릉시 | 1과 5담당 |
| 대전시 | 본청 | 3담당 | 김해시 | 1과 3팀 |
| | 중구, 대덕구 | 1팀 | 구미시 | 1과 3담당 |
| 인천시 | 본청 | 2와 7담당 | 원주시 | 1과 3담당 |
| | 연수구 | 1과 5팀 | 안동시 | 1과 6담당 |
| | 계양구 | 1과 4팀 | 포항시 | 1팀 2담당 |
| | 서구, 동구 | 1과 3팀 | 춘천시 | 1과 3담당 |
| 부산시 | - | 1과 3팀 | 동해시 | 1과 3담당 |
| 대구시 | - | 1팀 3담당 | 남양주시 | 1팀 |
| 광주시 | - | 3담당 | 고양시 | 1팀 |

출처 : 오민근(2008.6), “공공디자인 포럼 자료집”, 김해시

〈표 3.6〉 지자체별 도시경관조례 제정현황

| 구분 | 지자체 수 | 비율(%) |
|-----|-------|-------|
| 제정 | 56 | 22.7 |
| 미제정 | 167 | 67.6 |
| 무응답 | 24 | 9.7 |
| 계 | 247 | 100.0 |

자료 : 국회건설교통위원회(2007.4.13),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제정에 관한 공청회자료”

〈표 3.7〉 지자체별 향후 경관조례 제정계획

| 구분 | 지자체 수 | 비율(%) |
|------|-------|-------|
| 있음 | 54 | 30.2 |
| 없음 | 58 | 32.4 |
| 추후고려 | 28 | 15.6 |
| 모름 | 29 | 16.2 |
| 무응답 | 10 | 5.6 |
| 계 | 179 | 100.0 |

자료 : 국회건설교통위원회(2007.4.13),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제정에 관한 공청회자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정비는 서울시의 경우 도시갤러리 사업 등을 통한 자체적인 사업화 과정을 거치는 사업의 사례가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중앙정부에서 필요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정책에서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공간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도시공간관련 정책방향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7〉 서울시 도시갤러리 사업 사례
 (좌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우 : 동십자각 지하보도)
 출처 :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http://www.citygalleryproject.org>)

〈표 3.8〉 2007~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국토해양부)

| 구분 | 추진주체 | 응모 | 선정 및 지원계획 | | | | |
|-----|-----------|-------|-----------|------|----------|--------|--|
| | | | 선정결과 | 지원계획 | 총지원액 | 비고 | |
| 07년 | 시범도시 | 기초지자체 | 89개 | 5개 | 15~20억 원 | 80억 원 | |
| | 계획비용 지원도시 | | | 6개 | 5억 원 | 30억 원 | |
| | 시범마을 | 주민 등 | 49개 | 25개 | 1~2억 원 | 32억 원 | |
| 08년 | 시범도시 | 기초지자체 | 47개 | 6개 | 13~18억 원 | 85억 원 | |
| | 계획비용 지원도시 | | | 6개 | 3억 원 | 18억 원 | |
| | 시범마을 | 주민 등 | 34개 | 20개 | 1~2억 원 | 30억 원 | |
| 합 계 | | | 219개 | 68개 | | 275억 원 | |

출처 :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표 3.9〉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 | |
|---|--|
| <p>어울려 사는 건강한 마을 (필벽 문화마을), 경기 부천시</p> | <p>꼬불꼬불 이야기 있는 골목길 따라, 대구 삼덕동</p> |
|  |  |
| <p>한평공원에서 마을로, 살고 싶은 북촌 만들기</p> | <p>마을환경 개선사업, 경북 김천시</p> |
|  |  |

〈표 3.10〉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 지자체 | 사업명 | 지자체 | 사업명 |
|--------|---------------------------------------|---------|---------------------------------|
| 전북 전주시 |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2단계사업 | 경기 시흥시 | 일터, 쉼터, 놀이터로 어우러지는 매화동 호조들녘 만들기 |
| 부산 금정구 | 역사와 생태 되살림을 통한 산상마을 만들기 | 경기 안산시 | 중앙동 상가거리를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
| 대구 북구 | 주민참여형 친환경 수변공원만들기-침산동 두물머리습지 재활력 프로젝트 | 청북 청주시 | 완충녹지 생태공원화 사업 |
| 인천 부평구 |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서울 금천구 | 걷고 싶은 마을, 함께하는 자연 |
| 광주 광산구 | 첨단 주민이 하나되는 '가족, 이웃,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서울 마포구 |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살고 싶은 망원마을 만들기 |
| 경북 김천시 |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아파트 골목 만들기 | 부산 해운대구 | 복지네트워크, 자연친화 생태마을 조성 |
| 대전 서구 | '열린 공간' 정병이 미래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 경기 수원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코에듀빌리지' 만들기 |
| 전남 순천시 | 기존도심 재생을 위한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 | 부산 영도구 | 7Happy 상리마을 만들기 |
| 광주 남구 | 골목연기 속에 피어나는 초록감성 야생화가 있는 송암동 만들기 | 강원 속초시 |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마을만들기 시범사업 |
| 경북 상주시 | 철로변 녹색공간 조성사업 | 대전 중구 | 무수천하 전통테마마을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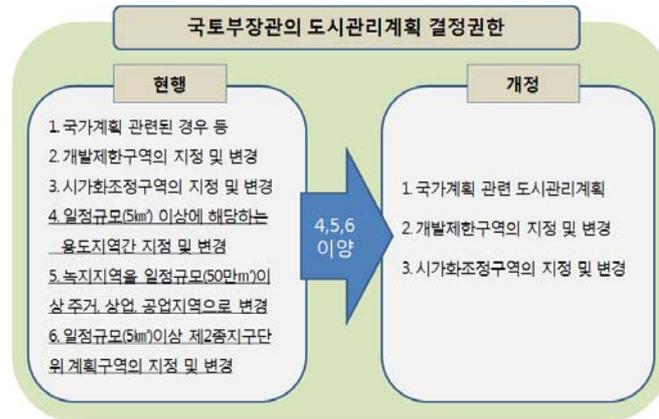
출처 : 도시포털(<http://www.city.go.kr>)

(2) 도시개발과정의 지자체 이양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진행되면서 도시공간환경 정비와 도시개발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8. 4)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권한에 대한 과도기적 이전시기를 거쳤고 2003년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2008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전반적인 도시공간의 전략과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²⁴⁾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수립권한의 지자체 이양부분은 관련법 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²⁵⁾,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요구, 다양한 시민운동의 전개 및 상향식 계획패러다임의 전개,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중앙정부의 공간정책과 갈등, 지방자치권한의 불완전한 이행, 난개발과 같은 선심성 도시공간정책추진 등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나,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도시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그림 3.8〉 도시개발과정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2008.4)

24)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기간·비용 절감”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 예고), ①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4.25) 일부 발췌

25) 김상조, 신동진, 문채(2003), “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국토연구원, pp.24~33

3) 도심부 쇠퇴 및 인구저성장 진행

(1)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는 성장과 확장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들면서 기존도시의 낙후 및 쇠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기존 도시에 대한 낙후 및 쇠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이다.

도시의 낙후 및 쇠퇴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²⁶⁾, 최근 들어서는 한국적 도시상황에 있어서 도시의 쇠퇴는 그 동안 한국사회가 견지해 온 급속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전략에서 찾아지고 있다.²⁷⁾ 특히 한국의 도시는 근대화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읍성이나 구도시에서 새로운 근대화 도시로 성장해간 사례가 많고 급격한 도시성장을 위해 도시의 외곽부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개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가 한국의 도시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서의 기존도시 쇠퇴문제에 대해 한국적 국가개발론에 따른 압축성장이 큰 이유였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화과정의 특성에 따라 국토와 도시 두 차원에서 모두 불균등성장이 ‘생산’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의 외연적 팽창은 낙후/ 쇠퇴지역의 지속적인 생산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매우 열악한 초기상황에서 출발하여, 불어나는 도시 시설의 수요를 대규모 신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메커니즘의 속성이며, 급속한 도시성장을 추동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신개발과 기성시가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질적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신개발은 유효 수요를 대상으로 진행됨으로서, 신 개발지는 유리한 학군과 결별하여 교육수준의 격차를 벌이는 등 신개발과 기성시가지 사이에 소득과 사회계층의 격차를 만들어냈다.”²⁸⁾

26) 도시의 낙후 및 쇠퇴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론으로는 (1) 도시공동화의 원인으로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지목하는 연구(김해천, 2002, 2003), (2) 도시쇠퇴지역의 등장을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전이지대’의 생성과정으로 이해하는 도시생태학적 관점, (3)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균등공간을 ‘생산’ 하며, 그 위치와 성격은 축적양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조절론적 정치경제학적 입장(최병두, 2007; 조명래 2003, 2007), (4) 경제세계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확대와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개편에 따른 탈산업도시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입장(Scott, 1988) 등이 있다.

출처 : 강흥빈(2008),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2차년도 연구결과보고서, pp.153

27) 강흥빈, 위의 책, pp.153

28) 강흥빈, 위의 책, pp.153



대전시

- 1995-2005 인구 11.7% 증가
- 쇠퇴지역 - 도시중심부
- 쇠퇴원인 - 외곽 신시가지, 관공서 이전, 개발규제
- 쇠퇴양상 - 건물퇴락, 방치, 영세민유입



김천시

- 1995-2005 인구 -7.8%감소 - 전국 1위
- 쇠퇴지역 - 중심부 재래시장
- 쇠퇴원인 - 유통구조변화(대형마트), 외곽 신시가지
- 쇠퇴양상 - 영업중단, 영업부진, 건물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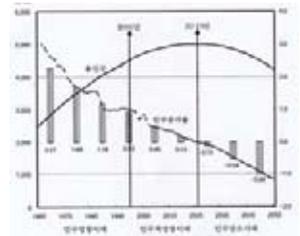
〈그림 3.9〉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 사례

자료 : 도시재생사업단(2008.10), “도시재생의 과제와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집”, 도시재생사업단,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전주시

(2) 인구저성장 구조의 진행

또한 향후 한국의 도시공간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도시인구에 있어서 향후 점차 인구저성장 추세로 예측되는 것 또한 향후 한국의 도시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이미 한국의 인구변화 추세를 볼 때, 인구의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4,995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⁹⁾ 현재도 84개 전체 도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개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기준)

이러한 인구저성장은 도시인구의 성장률 하락 및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변화,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및 하락, 학교, 문화시설 등 시설수요에 대한 변화, 도시개발재원의 부족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⁰⁾



〈그림 3.10〉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

(출처 : 전국추계인구, 통계청
(<http://kosis.nso.go.kr>))

〈표 3.11〉 도시의 인구변화 추이

| 년도 | 전체 도시 | 인구감소 도시 | 비율 | 도시명 |
|---------|-------|---------|------|---|
| 1970-74 | 29 | 0 | 0.0 | |
| 1975-79 | 32 | 0 | 0.0 | |
| 1980-84 | 38 | 1 | 2.6 | 동해 |
| 1985-89 | 53 | 2 | 3.8 | 태백, 제천 |
| 1990-94 | 62 | 11 | 17.7 | 경기(1개/과천) 충청(1개/공주) 전라(5개/나주, 김제, 남원, 목포, 군산) 경상(2개/마산, 밀양) 강원제주(2개/태백, 서귀포) |
| 1995-99 | 84 | 21 | 25.0 | 경기(4개/서울, 안양, 광명, 부천) 충청(3개/논산, 보령, 공주) 전라(3개/김제, 나주, 남원) 경상(9개/문경, 상주, 영주, 밀양, 안동, 사천, 통영, 부산, 영천) 강원제주(2개/태백, 삼척) |
| 2000-04 | 84 | 37 | 44.0 | 경기(3개/서울, 과천, 광명) 충청(5개/논산, 보령, 제천, 충주, 공주) 전라(8개/정읍, 김제, 나주, 남원, 여수, 군산, 익산, 목포) 경상(15개/문경, 상주, 영천, 영주, 밀양, 안동, 사천, 김천, 경주, 통영, 부산, 창원, 포항, 마산, 진주) 강원제주(6개/삼척, 태백, 동해, 강릉, 속초, 서귀포) |

* 굵은 글씨체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출처 : 행정안전부, 각 연도, 한국도시연감; 통계청, 각 연도, 전국주민등록통계

29)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 “2005 전국추계인구”

30) 이왕건, 김중은, 박경현(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pp.38~49

4) 탈집중화 시대의 공간 양극화

(1) 탈산업화 창조도시로의 이행

한국의 도시는 기존도시나 신도시 모두 60~70년대 국가주도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경제개발 및 국가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조성되어왔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정비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 및 발전전략이 공영개발방식³¹⁾을 취해왔고, 그 결과 개발주체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특별법이나 대규모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도시정책을 추진해왔고, 이 모든 상황은 국가가 주도한 국토개발과정에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수도권주변의 신도시나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단기간에 진행되어왔고 사회적 재원은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부분에 투입되기 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공간조성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도시설계는 가장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일반 건설사나 공공부문의 개발회사(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택지규모나 블록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도로체계와 획지구조가 결정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현재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 변화는 있지만 이러한 시장체계에 맞춰서 진화된 도시설계기법과 도시설계 엔지니어링사무소, 공무원, 택지개발 공기업들에 의해서 이러한 도시공간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31) 공영개발방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토공, 주공 등)이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개발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계획에 적합하게 직접 개발·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공급하고, 또한 공급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 1980년 초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이후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의 사회 정책적 목표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택지가 아닌 아파트의 경우, 공영개발이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개념인 민간공급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70~80년대 강남권 신도시와, 강북의 상계 신시가지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택지지구나 일부 서울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곤 그동안 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압축적인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제한적인 사회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은 도시공간에 있어서 획일적인 공간구조와 불균형 등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주거공급, 산업발전, 교통 및 유통체계정립 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주체간의 협의, 광역도시계획과의 연계, 광역도로체계와의 연결, 환경영향평가 등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도시를 이전의 산업화 개발도시에서 탈산업화 도시로의 전환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 대안으로 최근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된 도시공간, 경쟁력 있는 도시의 조성, 창조적인 도시주체의 성장³²⁾과 같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논의되는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확보부분은 클러스터형성이나 도시네트워크 구축전략과 같은 도시경제학적 측면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공간의 어메니티 증진이나 거주환경의 질적 개선,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조성과 같이 도시·건축적 측면의 논의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의 핵심은 삶의 질과 도시의 매력을 높여서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이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2)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이러한 도시공간에 있어서 도시쇠퇴 및 탈 중심화 경향과 병행해서 최근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중에 최근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공공청사나 철도, 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의 이동과 이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설계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공간재편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2) 대표적인 논의는 도시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인데,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에 대해 기술한 Richard Florida(2004)는 현재와 앞으로의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세력은 과거 산업시대의 자본가나 노동자 계급과는 달리 건축가, 예술가, 혁신적 기업가 등 창조적 집단이며, 이들은 각기 개성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적인 삶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창조적 계급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창조도시로서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 Richard Florida(2004),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



〈그림 3.11〉
아시아문화전당 위치

이러한 사례 대부분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진행되거나 시설노후, 인구변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때 진행된다. 철도 부지나 공공청사의 변화는 개별시설의 이동이지만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관되어져서 계획되는 것으로 도시공간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도에 진행된 전남도청 이전부지에 조성이 진행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나 1982년에 진행된 전주시 철도 및 철도역사 이전과 같은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도 과천정부청사의 이전, 광화문지역의 기무사 이전부지의 활용문제나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이전 등이 중요한 도시공간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
광주 구도심 전경



〈그림 3.13〉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당선안 (우규승, 2005)
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2006), “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경기”

한국 도시의 최근 이슈 2

1)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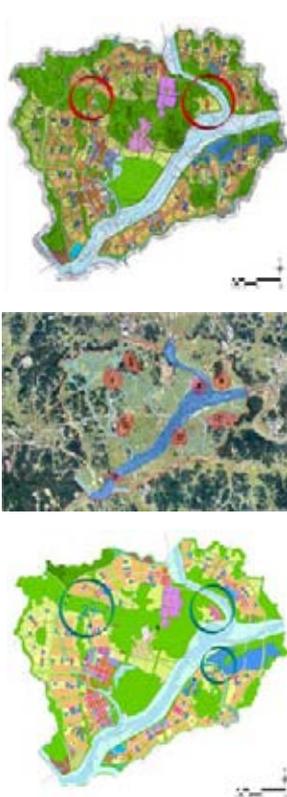
(1) 환경친화형 패러다임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이러한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의 변화 속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몇 가지 새로운 가치체계가 등장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도시설계분야의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도시설계에 있어서 기존에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내용들 중 대표적인 것은 지속가능성(sustainable)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친환경, 기존도시질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등이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실제 도시설계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UN의 회의에서 제시한 논의에 의하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소로서 1) 경제적 발전, 2) 사회적 발전, 3) 환경보호, 4) 문화다양성”을 제시³³⁾하고 있지만, 한국의 도시설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항목은 환경에 대한 고려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도시개발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실제 도시공간의 설계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지나치게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것에 대한

33)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①경제적 발전, ②사회적 발전, ③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이후 문화다양성이 네 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있었던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연합 분과에는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Demographics, 농업Agriculture, 에너지Energy,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부터 주거환경Human Settlements, 교육Education and Awareness, 산업Industry, 기술Technology, 과학Science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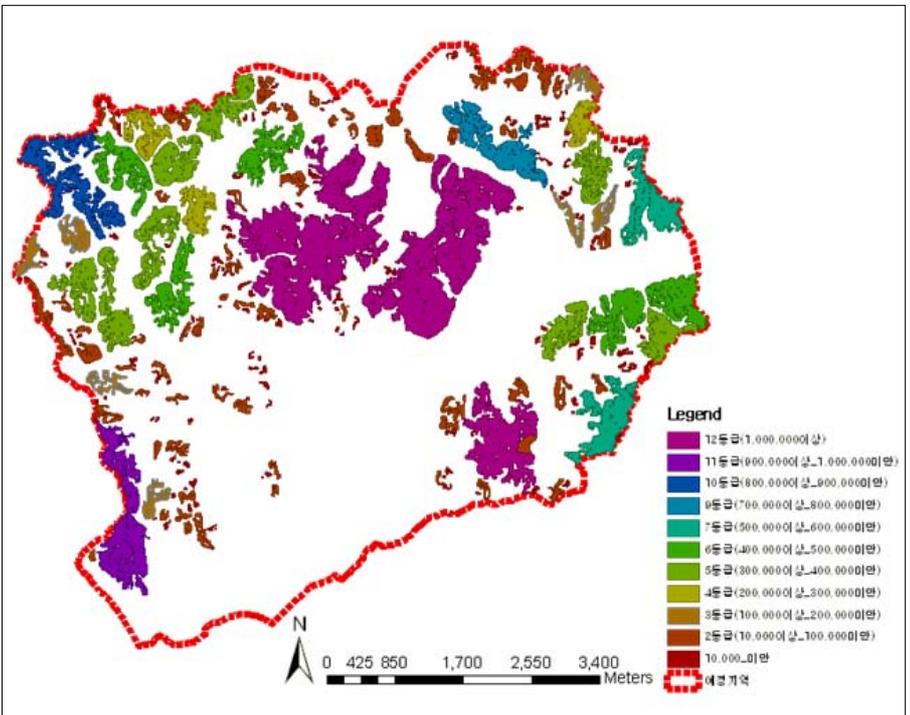


〈그림 3.14〉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 따른 도시설계
변화과정 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
(상: 사전환경성 검토 전
중 : 환경부 검토 보존지역
하 : 사전환경성 검토 후 변경)

반성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안에 따라서 난개발과 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도시설계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많은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환경 친화적 패러다임은 도시설계 과정보다 우선하여 도시개발과정 자체에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설계과정에서 과도한 지형의 훼손이나 성·절토 공사를 피하고 환경생태등급조사를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협의과정을 통해 도시설계과정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도시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형 패러다임은 보전형 방식이외에도 적극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에서 중앙공원을 조성하거나 녹지계획에 있어서 연결녹지나 경관녹지를 도입하는 등의 도시설계기법들이 일반화되는 것도 이러한 영향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림 3.15〉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한 보전지역 사례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림 3.16〉 분당신도시 중앙공원
(좌: 항공지도, 우: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3.17〉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생태보존축 설정 개념도

〈그림 3.18〉 행정중심복합도시
시설녹지 구상도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후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규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도시설계기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분야에서의 접근은 크게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도시설계 기법을 개발 방안이나(동탄2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추진 중), 2) 건축물 차원에서 그린홈 개발 사업(한국형 그린홈 100만호 건설계획) 및 저탄소형 대중교통 시스템 제안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녹색산업성장과 연계될 수 있다.

(2) 기존도시질서의 보전에 대한 관심

한편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전 낙후되어 정비의 대상이 되었던 기존 도시질서와 역사적 컨텍스트들을 보전할 수 있는 도시설계 기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도시조직을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서 소규모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길과 골목이 가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려는 도시설계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주시나 수원시와 같이 구 성곽지역이 있는 도시의 구도심 지역이나 서울의 북촌과 같은 전통적 도시질서가 유지되어있는 지역에서의 도시정비방향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도시설계적 기법과 노력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요소와 앞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의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1순위로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36.4%)과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15%)을 뽑고 있다.(문5)) 이러한 도시공간의 장소성 회복이 특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 최근 도시공간조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관심대상 분야<전문가 설문조사>

문5)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가, 발달과 같은 상업시설
- ②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 ③ 학교,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소규모 공동체시설
- ④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 ⑤ 초고층 빌딩, 박물관과 같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 ⑥ 역사적인 건축문화재 (ex. 궁궐, 서울역, 구한말사당 등)
- ⑦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 ⑧ 가로등, 표지판, 보도, 벤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 ⑨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
- ⑩ 기타()



〈그림 3.19〉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출처 : 전주시(2006),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보완”

34) 설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 2-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 참고

2) 전문가의 협업 및 통합화 확산

(1)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 확산

한편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설계 분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시, 건축, 조경, 산업디자인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설계 작업이나 관련된 담론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건축,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각 분야의 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67.7%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소통과 협업은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야 간 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지적되었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전체의 20.0%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공간환경을 다양하게 하고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설계과정에서 현상설계나 MA, MP방식이 도입되면서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도시설계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구단위계획단계에서의 3차원적 공간구상 요구로 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해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경이나 산업디자인 분야도 공간환경에 대한 질적 가치 인식과 함께 공동으로 설계 및 계획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과주운정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서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부분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진행했으며, 주택, 공원, 녹지기본계획 및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부분은 건축사사무소에서 담당했고, 전체 사업에 대한 MP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분야 교수들이 진행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계획된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대규모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도시설계과정이 지나치게 2차원적인 토지이용구상과 기능적인 설계안 작성에 대한 반동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창조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계획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다. 분야 간의 협업

※ 도시설계 관련 분야 간 전문가 협업 및 소통현황에 관한 인식 <전문가설문조사>

문7)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계획과정에 거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② 일부 과정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3.20>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체계 사례 -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계획수립체계

확산은 2000년대 이전 한국의 도시설계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점차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표 3.12〉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사례(행정중심복합도시)

| 구분 | 참여자 | 전문분야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공모지침 및 코디네이터 | 국토연구원(안건혁, 이왕건, 권영상 등), 양병이, 김진애, 승효상 | 도시, 건축, 환경 |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심사위원 | David Harvey, Nader Tehrani, Winy Mass, Arata Isozaki, 윤영태, 민현식, 박삼욱 | 인문, 도시, 건축 |
|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스터플랜 | 국토연구원 및 13개 연구기관 | 도시, 환경, 교통, 정보, 환경, 교육, 문화, 복지, 건축 등 |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 해안건축+발모리(1등), Nicolo Privileggio(2등), 승효상(3등) | 조경, 도시, 건축 |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원 | 해인조경(1등), 김중규(2등), 민현준+권영상(3등) | 조경, 건축, 도시 |

〈표 3.13〉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사례(파주운정지구)

| 용역명 | 용역업체 | 과업내용 |
|----------------------------------|--------------------------------|--|
| 지정제한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 (주)건화엔지니어링 | 파주운정2 지정제한서 작성, 사전환경성 검토 |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종합용역 | 건화엔지니어링(주) 청석엔지니어링(주) | 교하종합개발계획검토 택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하천(소리천)정비기본계획변경 홍수재해영향분석 |
| 파주 신도시 환경 친화 경관형성계획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신도시 경관 가이드라인 |
| 파주운정지구 주택, 공원·녹지기본계획(마스터플랜) 설계용역 | (주)디에이종합 건축사사무소 | 신도시 개발 미래상 제시 신도시 전체 입체적인 계획 수립 경관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자료 주택, 공원녹지 지침작성 및 홍보자료 |
| 운정신도시 상업지역 등 도시설계 및 개발방안 수립용역 | (주)아키플랜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수건축사사무소 |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 조사, 도시설계, 개발전략 PF사업 타당성 분석 및 최적사업계획 수립 |
| 파주운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 건화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 |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검토 및 자료조사 2) 지장물조사,지반조사 및 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대지조성 및 토공설계 4) 지반조사결과 지반 (연약지반, 기타지반 등) 처리 및 설계 5) 사업지구내 택지조성공사 및 지구의 도로 실시설계 6) 호수(유수지) 및 소하천 협의, 인가 및 설계 7) 우·오수, 상수도 등 지구 내·외 공급처리 관로 공사 설계 8) 도시기반 구조물 검토 및 설계 9) 교량설계 10)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11) 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견적 (조감도 및 3D시뮬레이션 포함) 12) 각종 건설폐기물 수량산출 및 견적 13) 기타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토서, 현황판 및 시설 설계 14) 상기 과업내용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사항 |
| <p>파주운정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p> | <p>건화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검토 및 자료조사 2)지장물조사,지반조사 및 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3)대지조성 및 토공설계 4) 지반조사결과 지반 (연약지반, 기타지반 등) 처리 및 설계 5) 사업지구내 택지조성공사 및 지구의 도로 실시 설계 6) 호수(유수지) 및 소하천 협의, 인가 및 설계 7) 우·오수, 상수도 등 지구내·외 공급처리 관로공사 설계 8) 도시기반 구조물 검토 및 설계 9) 교량설계 10) 택지개발사업을 위한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11) 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견적 (조감도 및 3D 시뮬레이션 포함) 12) 각종 건설폐기물 수량산출 및 견적 13) 기타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토서, 현황판 및 시설 설계 14) 상기 과업내용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사항 |
| <p>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 | <p>(주)동일기술공사 (주)청석엔지니어링</p> | <p>제2자유로 12.5km 제2자유로연결5.5km (강매IC ~ 삼암IC)</p> |
| <p>김포관산간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 | <p>(주)대한건설탄트</p> | <p>김포-관산간도로 7.6Km</p> |
| <p>운정지구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 | <p>(주)한석엔지니어링 (주)홍익기술단</p> | <p>제2자유로연결도로 4.9Km (운정지구-대회!C)</p> |
| <p>파주운정지구 대지조성공사</p> | <p>(주)중합엔지니어링 다인그룹</p> | <p>파주운정지구 대지조성관련 전기설계용역</p> |
| <p>파주운정2지구 대지조성공사</p> | <p>(주)기람엔지니어링</p> | <p>파주운정지구2단계 대지조성관련 전기설계용역</p> |

(2)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이러한 협업체계의 확산과 함께, 도시공간 설계분야의 각 분야 간에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발주제도의 경직성과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각 분야 간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는 일부 작품성이 있는 현상설계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담론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례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예로 들면 전체 도시구조와 도시이념을 선정하기 위한 도시개념국제공모(2005)에서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대다수 당선작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정부청사블록에 대한 현상설계(2007)에서는 조경전문가의 계획안이 당선되었고 중앙부 공원에 대한 현상설계(2007)에서는 건축전문가의 계획안이 2등과 3등으로 당선된 사례가 있다.



〈그림 3.2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3등작 :
건축가+도시설계가(민현준,
권영상 외)
자료 : 권영상



〈그림 3.22〉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블록 당선작 :
해안건축 + 조경설계가 Balmori

3) 상향식 계획방식의 등장

(1) 시민과 NGO의 참여

최근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경향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계획주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가주도로 도시개발 및 계획이 진행되어온 한국의 도시계획 주체가 도시 관련 패러다임에 관한 정책연구나 정책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방식의 등장은 사실상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Habermas나 Healey와 같은 도시이론가나 커뮤니티의 복원을 주장한 영미권의 뉴어버니즘 논의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한국적 도시상황을 감안할 때,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도시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한국적 삶의 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이후 정치 분야에서의 권력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등장과 연계되었고,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선지방자치의 영향으로 최근의 도시 분야 정책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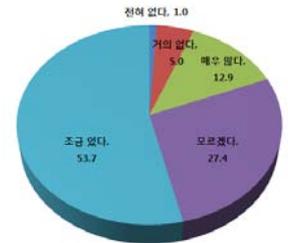
상향식 계획방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직접 시민과 시민단체가 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진행된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 단계에서의 참여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설계과정이나 도시 만들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헤이리와 같은 경우는 예비 거주자들이 미리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전체 마을 계획안을 도출해 냈고, 서울시의 북촌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한옥마을의 조직과 도시경관을 유지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성된 도시공간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당시의 거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형태의 도시설계가 진행되거나, 혹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같은 정책과제를 통해서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과 NGO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 만들기에 직접 참여 의사가 66.6%(매우 많다. 12.9%, 조금 있다 53.7%)에 달하고 그 참여 분야도 집주변이나 소규모 마을단위의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정도로 현실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만들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도시설계 및 도시조성에 시민참여의사(일반인 설문조사)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조금 있다.
- ③ 모르겠다.
- ④ 거의 없다.
- ⑤ 전혀 없다.



문12-1)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정부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과정에 참여
- ③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
- ④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
- ⑤ 학교, 시장 등의 마을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
- ⑥ 기타 ()

(2)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의 등장

이러한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는 합리성과 이성적 종합계획에 기반하고 있는 근대적 계획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한국의 도시 상황에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Taylor(1999)는 20세기 후반 도시계획분야 이론으로서 가장 큰 변화로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연구의 진전을 지적하고 있고, Fainstein(2000)은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에서 공간적 질을 개선하는 대안적인 계획모형 중 하나를 의사소통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의 초기적인 형태로는 Davidoff의 옹호론적 계획론(Advocacy Planning)에서 시작하여 Habermas의 의사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ning)이나 협력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으로 발전하여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패러다임은 Healey(1997)가 지적한대로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보다는 특정한 전문가 계층이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진행되는 문제점이나 혹은 주민들의 공공성을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하거나 혹은 계획의 지연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하향식의 획일화된 설계프로세스를 지양하고 실제 거주민들에 의한 장소성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체계의 문제점으로 획일화된 도시경관과 커뮤니티의 훼손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은 한국의 도시설계 상황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표 3.14〉 전통적(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특성 비교

| | 전통적(합리적) 계획 | 협력적 계획 |
|----------|----------------|--------------|
| 참여 | 이슈가 못됨 | 광범위한 참여 |
| 의사소통 | 전문가로부터 의사결정자에게 | 상호주관적 |
| 계획가의 역할 | 기술적 전문가 | 협상가, 촉진자 |
| 권력 | 기획부서에 집중 | 분절되고 분산되어 있음 |
| 통제의 형식 | 암묵적 | 명시적 |
| 계획의 유형 | 경험적 산물 | 물입 패키지 |
| 주요 강조 논리 | 기술적, 과학적 논리 | 의사소통적 논리 |
| 인과관계 | 주요 이슈 | 중요치 않음 |
| 효과성 | 목표 1.달성 정도 | 합의 도달 정도 |
| 투명성 | 전문가에게만 | 참여자들에게 전부 |

출처: Woljer(2000), pp.20, 문정호, 양화백, 김선희, 장은교(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35에서 재인용

4)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1) 탈 중심적, 탈위계적 도시설계 등장

한국에서 도시설계분야의 발전은 주로 미국에서 근대적 도시설계 교육을 받고 돌아온 전문가 그룹에 의해 진행되어왔으며, 그 결과로 근대의 모더니즘 설계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전단계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근대 도시이론을 습득한 일본의 도시계획전문가에 의해 식민지의 왜곡된 형태로 조선시까지 계획이 진행되었고 해방이후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개선되었으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근대 도시이론에 기반한 도시설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도시설계 분야는 크게 세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근대적 도시설계이론의 적용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건축가들에 의한 초기 도시설계 그룹으로서 김수근이 이끌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 KECC)와 아시아재단에 의해 지원되었고 건설부 소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강홍빈, 김진균 등에 의해 진행된 HURPI(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 건설부 주택,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실)였다. 두 번째는 1978년에 발족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지역개발연구소팀에 소속되어 강홍빈, 안건혁, 황기원 등에 의해 진행된 그룹으로 대표적인 설계안으로는 행정수도 계획안이었다. 이후 KIST의 해체와 국토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설립, 그리고 박병주, 주종원, 나상기, 윤정섭을 비롯한 도시계획가 그룹에 의해 진행된 창원, 반월, 구미, 신제주, 여의도, 잠실 등의 도시설계 과정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Jane Jacobs(1961), Robert Venturi(1972), Peter Blake(1974)등 포스트모던 도시이론가에 의한 대안 모색이 진행되었고(1990;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sm) 최근 Colin Rowe나 Kevin Lynch, Christopher Alexander 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탈 근대적 다원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이론들이 국내에도 소개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서 기존의 모더니즘에 기반한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이고 위계적인 도시설계기법에서 점차 탈중심적이고 탈위계적인 도시설계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구조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대안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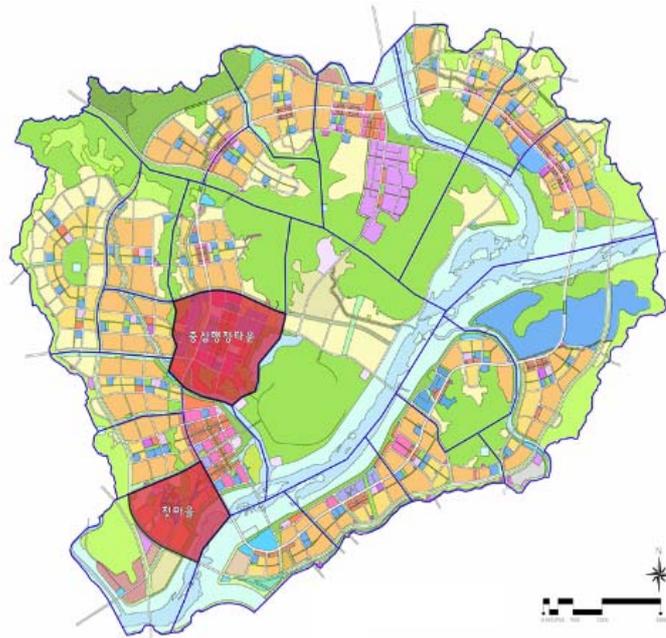
이러한 근대이후의 도시설계 이론의 국내도입은 기존의 조닝제도에 기반한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유연한 모색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는 도시개발단계에서의 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안적으로 특별설계구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3차원적 설계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식 계획허가제도입과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계획의 공공성과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도시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3.15〉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설정 현황

| 구분 | 동탄 | 파주(1,2) | 판교 | 광교 | 김포 | 양주 | 동탄(2) |
|---------------|------|---------|------|-------|------|------|---------|
| 특별계획구역개수 | 1 | 1 | 2 | 11 | 4 | 1 | 6 |
| 특별계획구역면적 (만㎡) | 11.5 | 15.7 | 26.2 | 359.9 | 32.3 | 34.1 | 1,153.7 |
| 특별계획구역비율 (%) | 1.3 | 1.6 | 2.8 | 31.9 | 3.0 | 4.9 | 48.1 |



〈그림 3.23〉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계획구역

3 소결

지금까지 최근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주요이슈들을 살펴봤다.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상황은 정치적 민주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국가주도의 도시개발 및 공간전략 체계에서 점차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간조성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과 인구저성장이나 탈산업화와 같이 사회, 경제구조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겪게 되는 도시적 상황에서의 대처와 같은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주요이슈들은 세계화, 지방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체계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도시설계 참여주체와 수립체계와 같은 과정에 대한 논의와 탈근대적인 인식체계와 같은 논의로 정리되었다.

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한국 도시공간의 여건변화와 최근이슈

|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
|-----------------------|----------------|--------------------|----------------------------|
| 한국 도시의 여건 변화 | 정치구조의 변화 |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시민참여 증가 |
| | | | 주거에 대한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 |
| | 민주화 권력이동 |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 만들기 확산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진행 |
| | | | 도시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 |
| | | |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 |
| 산업,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탈산업화 | 도심부 쇠퇴 및 인구저성장 | 기존 도시의 낙후 및 쇠퇴 | |
| | | 인구 저성장 구조의 진행 | |
| | | 탈산업화 창조도시로의 이행 | |
| 한국 도시의 주요 이슈 | 가치체계 | 지속가능한 가치체계 등장 | 환경 친화 패러다임 |
| | | | 기존도시질서의 보전과 문화적 지속성 |
| | 도시설계 주체 | 전문가 협업 및 통합화 확산 | 도시설계관련 분야 간 협업 확산 |
| | | |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 |
| | | | 시민과 NGO의 참여 확대 |
| | 이즘 |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의 등장 |
| | | | 탈 중심적, 탈위계적 도시설계 제시 |
| | | | 탈 탈근대적 토지이용제도(조닝제도)에 대한 대안 |
| | | | 탈 탈근대적 토지이용제도(조닝제도)에 대한 대안 |

IV.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1.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2.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3. 소결

(a u r i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1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1)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경향

(1) 1900년대 이전 전통적인 도시구성원리

□ 성곽(城郭)과 도성(都城), 읍성(邑城)

한국 기존도시의 경우 근대 이전에 형성된 성곽이나 읍성과 같은 도시들의 경우 지형적인 조건, 방어적인 목적과 풍수지리, 주례고공기 등의 원형적인 도시구성원리들이 도시공간의 큰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으며 특히 수도로 기능했던 도시들의 경우 이러한 원리가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학계에서의 연구로는 1) 중국의 도성원리, 2) 풍수적 원리, 3) 성곽의 형태, 4) 입지적 성격, 5) 지형적 환경, 6) 행정구역적 특성(5부제 등)이 도시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도시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회나 대학에서 진행이 되어왔는데, 관련분야의 연구는 70~80년대에 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서울(한성부), 지방의 읍성, 마을단위로 크게 도시구성원리가 조사 분석된 것으로 조사된다.³⁵⁾

35) 기존의 전통마을 및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200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된 “한국적 도시공간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원영환 교수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이상구 교수의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구자훈 교수의 「경성부 공간구조의 형성 변천에 관한 연구」, 주종원 교수의

이들 연구 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상구(1983)³⁶⁾는 조선시대 도시공간 계획의 이념적 배경으로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주례고공기의 도성제’를 주요 요소로 분석하였다. 전봉희(1992)³⁷⁾는 씨족마을을 연구대상으로 고유한 내재적 질서를 ‘씨족마을의 형성 및 성장과정’, ‘위계적 구성’ 등에서 추출하였고, 이것을 건축물의 규모, 입지 및 좌향 등의 물리적 현상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원리를 현대적인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 및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광재, 김성우, 박희영(2002)³⁸⁾는 ‘풍수지리’, ‘전통마을에서의 길’, ‘전통마을의 생태’, ‘전통마을에서의 경관’, ‘전통마을에서의 영역’ 등을 주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전영옥, 이상문(2004)³⁹⁾은 조선시대 전통 도시계획이나 공간조성관련 문헌사료를 분석하여 도시조영의 단계별로 입지단계, 도시기반계획단계, 단지조성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고려하여야 할 한국형 생태도시계획의 항목과 요소를 도출하였다. 한편 권영걸(2005)⁴⁰⁾의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공간조영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양과 한국의 도시공간 조성 기법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에서 한국적 도시설계의 특징적 요소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은 1) ‘도성의 구성 원리로서 주례’, 2) ‘풍수지리와 입지적 요인’, 3) ‘5부제와 같은 행정구역상의 공간구조’, 4) ‘마을단위의 사회적 위계질서’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 유교적 도시구성원리로서 주례고공기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곽도시(읍성)와 마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곽도시의 조영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유교적 질서체계로 이행되고 있고 중국의 수도를 만드는 원리로 적용되어온 주례고공기를 들 수 있다.⁴¹⁾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전봉희 교수의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창석·남진 교수의 「서울시 도심부 공간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권영상 박사의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등을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조사되었다.” 권영상 외, (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기존 담론과 연구의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30

36) 이상구(1983),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문

37) 전봉희(1992), “조선시대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문

38) 박광재, 김성우, 박희영(2002.10), “한국 전통주거의 계획개념을 응용한 공간구성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39) 이상문, 전영옥(2005), “한국형 생태도시계획을 위한 전통도시 생태원리의 현대적 해석”, 국토계획, 제30권 7호, 통권146호, pp.153~165

40) 권영걸(2006), “한중일의 공간조영”, 국제



〈그림 4.3〉 중국 북경 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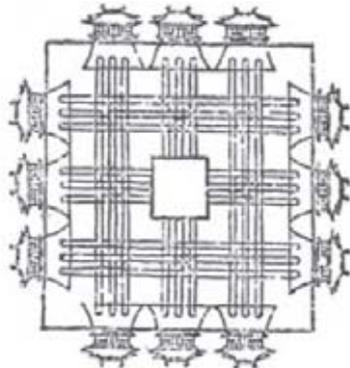
〈그림 4.4〉 신라 경주의 도성추정도



〈그림 4.5〉 발해 상경의 추정도

주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구조는 이상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으며, 방형의 격자체계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계획은 9리(里) 4방(方)의 크기로 하여 4방에 3개씩 문을 두고 도성내에는 동서 9, 남북 9개의 도로를 설치 도성의 중앙에 궁궐을 두고 그 좌측에는 종묘를 그리고 우측에는 사직을 세우며 궁궐의 전면에 조정을 위치하게 하고 시장은 궁궐의 뒤쪽에 설치 하되 그 크기를 일부(一夫)의 땅으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원리는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격자형으로 조성된 도시들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왕조실록 등에서 좌묘우사(左組友社)와 같은 원칙이 등장하고 있으나, 정도전에 의해 계획 될 당시에만 철저히 지켜졌고 태종대 이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주례의 원리와 풍수적 원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1〉 삼례도의 왕성도



〈그림 4.2〉 경복궁 북궐도형

- 41)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례고공기에 의한 도성원리의 큰 원칙을 크게 6개 정도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도성(首都都城)의 각 면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을 설치하여, 이 12개의 문을 연결하여 도성영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9등분 하여 간선도로(幹線道路)를 정한다. ② 궁궐구역(宮闕區域)은 도성영역을 9등분한 중앙에 위치시킨다. ③ 궁궐구역의 남방전면에는 민가(民家)가 들어서는 것을 금한다. ④ 궁궐구역의 남쪽 반을 조정(朝廷)의 자리로 하고, 그 북쪽 반을 궁성(宮城)으로 한다. 그리고 궁궐구역의 밖의 도성내 북방, 즉 궁궐구역 외부의 바로 북쪽 구역에 시(市)를 설치한다. ⑤ 궁궐구역 외부의 북쪽에 종묘(宗廟), 서쪽에 사직(社稷)을 두든지 또는 종묘의 위치를 궁궐정전(宮闕正前)의 바로 남쪽에 통하는 어도(御道)의 동쪽에 주거나 하여, 어떤 경우라도 좌묘우사(左組友社)가 되게 한다. ⑥ 바둑판 모양으로 9등분으로 구획한 각 구중(區中), 궁궐구역 외부의 도성구역 내 위치하는 동쪽의 삼(三)구, 서쪽의 삼구 총 6개의 구(區)의 지역을 민가존재구역(民家存在區域)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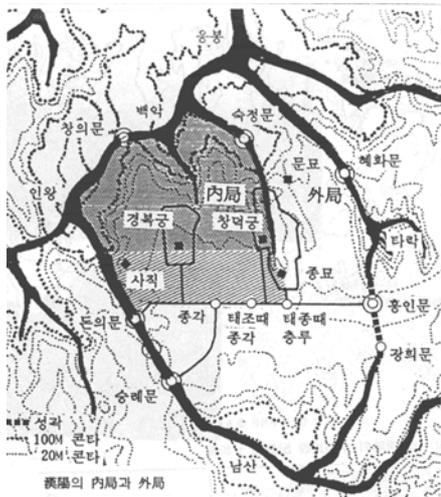
- 42) 본 연구에서의 해석은 이상구의 논문(1983)에서 인용하였다.

□ 풍수적 원리, 지형적 환경, 입지적 성격

풍수는 생명의 유지와 직결되는 물과 기후는 토지 및 거주지를 선정하는 데 필수적 조건으로 그와 관련되어 축적된 경험이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을 풍수로 정의한다.⁴³⁾ 한국에서 풍수가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게 된 것은 오래된 농경문화와 관련하여 자연의 변화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체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택구성 및 도읍지 선정, 도시구조의 결정에 주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풍수적 원리는 땅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입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길지를 판단할 때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것으로 산, 물, 방위를 통해 나타나는 지세를 통해 나타나며 주변의 산맥에서 가장 멀리 있고 높고 큰 산인 조산(組山)과 가까이 있으면서 높은 산인 종산(宗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방식이 대다수의 전통마을에서 발견된다.

이상구(1983)의 연구에서는 조선중기의 읍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읍성 내부의 주요간선도로의 유형을 5개 중분류의 10개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곽내의 주요한 행정시설 앞에서 시작되는 T자형 도로와 화성 등에서 나타나는 십자형 도로가 주를 이루는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림 4.6〉 서울(한성부)의 입지체계도
출처: 이원교(1993)



〈그림 4.7〉 풍수지리명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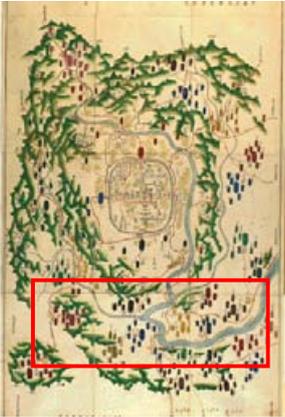
43) 최창조(1978),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 양기풍수를 중심으로”, 지리학 제17호, pp.24

□ 행정구역적 특성(5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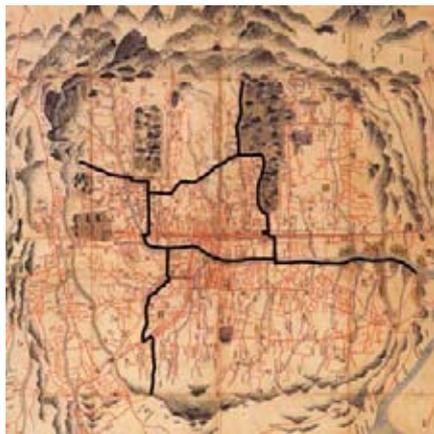
한편, 고대국가부터 내려져 온 부족국가로서의 전통과 사머니즘적 전통에 따라 도시의 내부공간을 5개의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음양오행과 같은 가치체계와도 연계되어 한국의 전통적 도시의 틀을 형성해온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경찬(2005)⁴⁴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단위를 구성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조선조의 도읍(都邑)과 외읍(外邑)의 행정구역 조직은 기본적으로 방리제(坊里制)에 기초한 동심원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성부의 경우 그 관할구역은 성곽을 중심으로 도성내에 해당하는 오부(五部)지역과 그 주변의 성저십리(城底十里)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오부(五部) 지역은 방(坊)으로,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은 면(面)으로 세분하고 그 하부에 동, 리를 구획하였다. 이러한 방리제에 기초한 행정구역 체계는 각 읍에도 적용되었지만 오부제는 도읍에만 실시되었다. 지방 각 읍은 읍내와 외촌으로 구별되고 읍내는 다시 성내와 성저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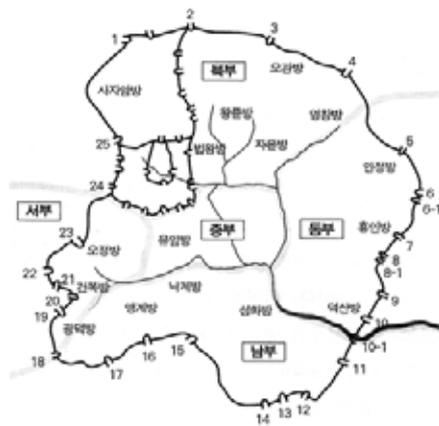
방리제는 신라시대의 읍성의 계획원리로 사용되었고 현재 경주의 중심지에서 수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고려 개성과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던,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은 하부단위로 방(坊), 리(里)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 고지도에 표현되고 있는 5부제의 전통은 1872년 지방도의 경우, 주요 읍성을 주변으로 오방색을 배치하거나 여지도 등에서는 경기지역은 중앙의 황색,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적색으로 강원도는 청색, 황해도와 평안도를 백색으로 함경도를 흑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8〉 지방도(1872) 중 전주부
좌:전주부 전도,우:부분확대
출처 : 규장각



〈그림 4.9〉 고지도에 나타난 서울(한성부)의 5부 경계
출처: 한양도성도(1770), 호암미술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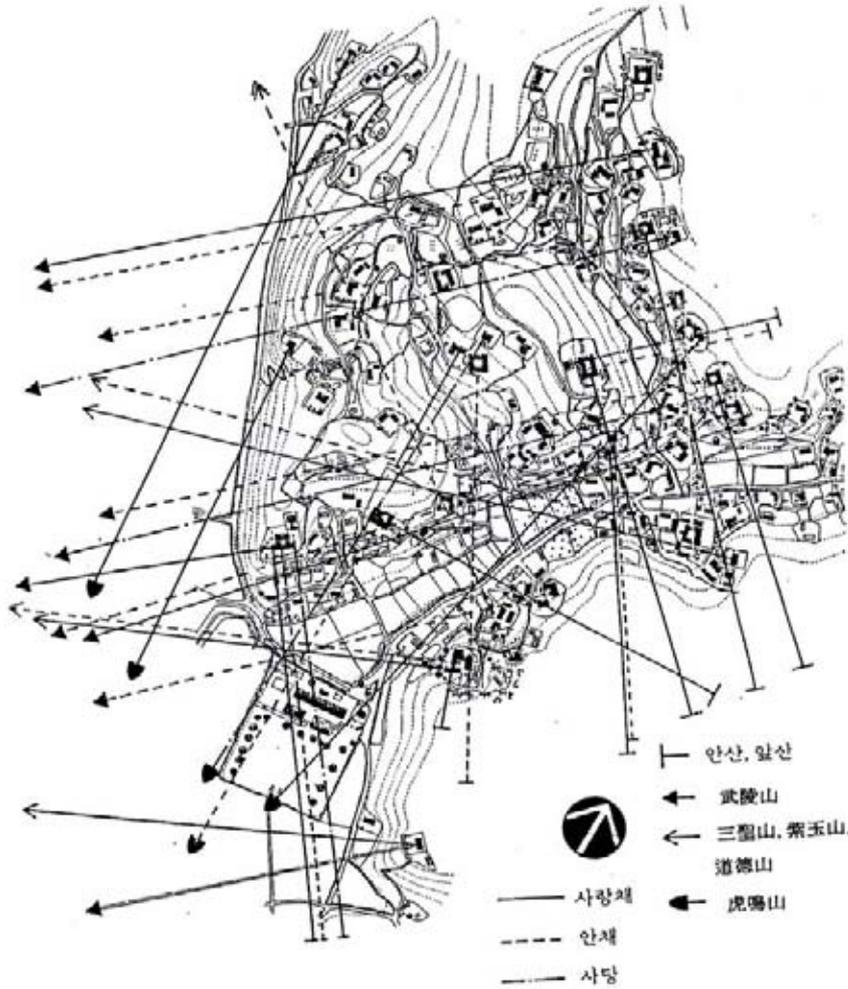


〈그림 4.10〉 고려개경의 행정구획 추정도
출처: 한국역사연구회(2002)

44) 이경찬, (2005),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 중세의 도시형태”, 건축역사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42호, pp.170~197

□ 마을단위의 내재적 위계질서

한편 자연촌락이나 집성촌과 같은 경우 도성이나 읍성과 같이 정형적인 공간질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지형체계에 순응하고 마을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도시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13〉 마을단위의 내재적 도시질서에 대한 연구사례 : 양동마을 주요 건축물의 안대
출처 : 전봉희(1992)



〈그림 4.11〉 의인섬마을 배치도
출처 : 울산대학교(1976)



〈그림 4.12〉 하회마을 항공사진
출처 : 구글 어스

(2) 일제강점기 도시구조의 변화

□ 왜곡된 방식의 근대 도시설계 기법 적용

이후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적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 되는데, 근대적 도시설계 기법이 적용되었지만, 식민지적인 상황에 따라 그것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도시들이 현재의 한국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로 구축되었다.⁴⁵⁾

대표적으로는 성곽의 해체와 철도 및 도로구축사업을 통해 철도역사 주변 등의 지역에 대해 대규모 도시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필지 및 도로체계의 정비 사업을 통해 지형에 맞춰서 구불구불하고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있던 도시구조가 직선 체계와 균등한 간격으로 조정되었다.

당시 조성된 대표적인 도로체계는 격자가로망을 바탕으로 방사형가로망이 계획되고 중심축의 주요결절점에는 광장을 계획하는 방식이었다. 이 당시 계획되었던 진해의 경우, 격자가로망이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동서방향으로 간선도로 역할의 축이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축의 방향은 구역마다 다른데 이것은 지형에 따라 가로망이 계획되었다.⁴⁶⁾

이들 도시들은 1912년 ‘시구개정사업’ 및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등 두 차례의 대규모 도시개조사업을 통해 기존 도시에 대한 대규모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던 필지나 도로체계가 변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이나 전주와 같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도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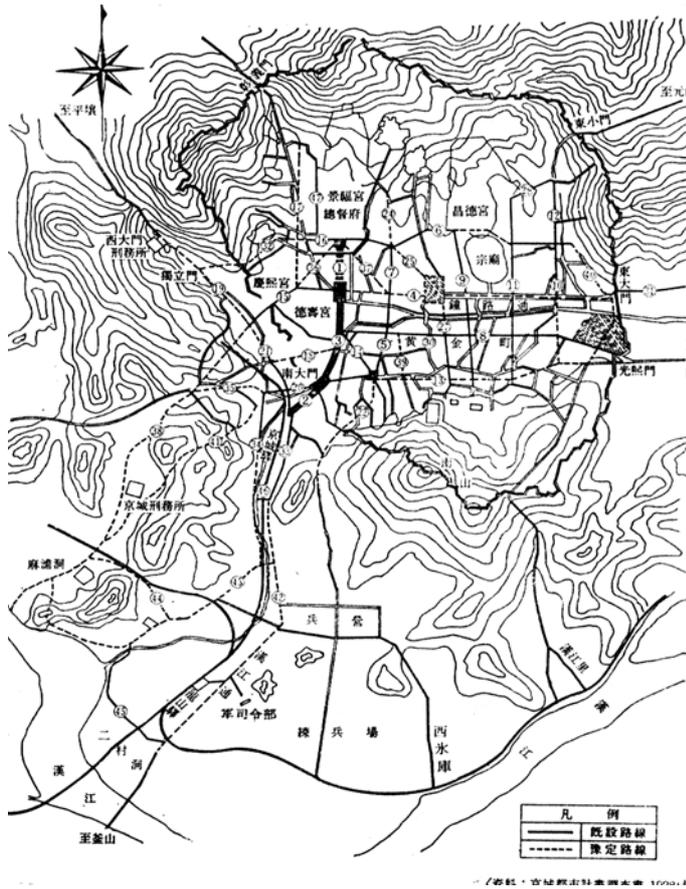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의한 도시구조 재편

또한 일본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도시 및 국토개조사업에 따라 중심도시의 변화 및 핵심관청들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해당 도시들은 공간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 도시기능이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구분되어 영역이 나누어지고, 격자형의 가로구조와 새로운 교통체계로서 항만, 도로, 철도가 들어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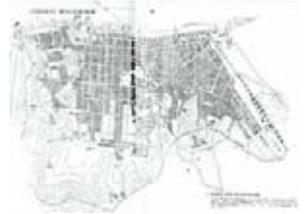
대표적으로는 군산시 같은 경우가 일본의 식민지 국토전략의 중요한 거점도시가 되면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가로와 철도의 개설, 항만시설이 입지하게 되었고 이들의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는 경부, 호남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각 도시에 철도와 철도역사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시구조의 재편이 진행되었다.

45)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정목(1986),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가 있다.

46) 정호균, 최종현(2008.12), “진해의 형성과 성장에 따른 개발방향 연구”, 도시설계, 제9권 제4호, pp.231~244



〈그림 4.16〉 서울, 경성시구개수예정노선도 (1928년 총독부고시)



〈그림 4.14〉 군산신시가가지도(1920년)
출처 : 손정목(1986)



〈그림 4.15〉 진해시가가지도(1916년)
출처 : 정호균 · 최종현(2008)



〈그림 4.17〉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철도역사 주변의 방사형 도시구조 (전주시)

2) 기존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1) 사례개요

〈표 4.1〉 전주시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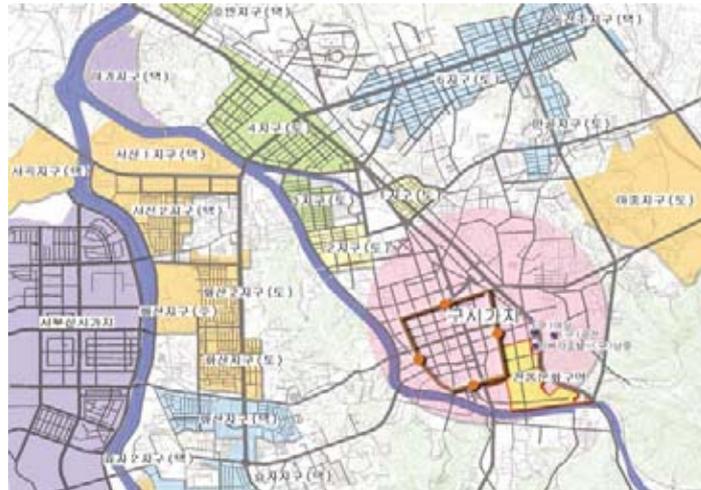
| 내 용 | 분 석 | |
|---------------------|---|--------------------------------|
| 면적 | 206,24km ² 서울의 1/3규모 | |
| 인구 | 622,180명 (192,960세대) 60만에서 답보상황 | |
| 행정 시설 | 1896년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리되면 조선시대의 태조어진이 봉안된 경기 전이 위치 | |
| 역사 요소 | 전주성곽, 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영이 원도심지역에 존재하고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 일제강점기 성곽해체, 기독교 천주교 관련 시설이 입지 |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원도심지역의 재활성화 사업이 진행중 |
| 인문 · 자연 환경 | 시가지의 동남 서방에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 전주천은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방에서 북서방으로 관통 | 전주천을 통한 도심내 주요 공원으로의 활용 |
| 도시 정책 | 중앙정부와 관련하여 전통문화도시사업이 추진 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원도심지역 활성화 | 기존의 문화자산을 활용 |

출처 : 전주시
시정백서(2007) 재정리

□ 사례분석도시 : 전주시

전주시는 통일신라시대 완산주의 주치(州治)였고, 후백제의 도읍,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 전라도를 통합한 중심지로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성격을 지속하여 왔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되었던 중요한 도시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군산과 전주를 잇는 도로의 개설과 철도부설로 내륙지역이 수탈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전통적인 도시공간구조가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해방이후에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서 50만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성곽’이 있던 자리와 내외부 필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진행된 계획적 시가지 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및 주택지 조성사업,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기존 구시가지 면적인 5,000,000m²의 3배에 달하는 16,217,844m² 규모로 확장되어왔다.⁴⁷⁾

따라서 전주시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전통적 도시질서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변화, 그리고 해방이후 근대화과정에서의 도시정비, 그리고 최근의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시재생과 한옥정비사업 등 한국의 도시가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림 4.18〉 전주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현황

출처 : 전주시(2000.12)

47) 전주시(2000.12),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 전주시 도시설계 특성 및 변화과정

현재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성곽내의 4대문을 연결하는 ‘+자형 도로망’을 기본으로 하나 조선시대에는 원래 중심부에 중심시설로서 객사가 위치하고 있어 북쪽으로는 도로가 크게 강조되지 못하고 중심도로는 T자형을 형성되었다. 1872년 지방도(군현지도)를 살펴보면 중심가로망은 공공시설물인 객사와 전라감영, 전주부영, 경기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근대시기에는 1907~1908년까지 군산을 기점으로 전주서문까지 전군도로가 개설되고 4단계에 거쳐 시구개정사업⁴⁸⁾으로 격자형 가로체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로는 1911~1912년에 우편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대문을 +자형으로 연결하고 경찰서, 재판소, 도청 등의 공공시설이 입지했으며 2단계로는 1913~1923년에 일본에 의해 철거된 성곽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후 3단계로는 1924~1933년에 성내 중·횡관도로 개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34~1937년에 주요 도로 포장, 역전에서 북문까지 도로가 개설되었다. 1937년은 성곽이 철거된 이후의 상황으로 성곽의 흔적은 사라지고 전주역 앞으로 삼지창의 도로구조가 나타났다. 1938년의 근대적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고 있다. 오늘의 금암동, 인후동 지역으로의 확장과 팔달로의 개통 및 진북동, 금암동, 태평동, 덕진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와 제1공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시구개정 전후로 도로체계는 격자형으로 변경되었고 전주역에서 도성내부로 이어지는 중심가로가 형성되었고 성곽을 중심으로 내외부로 구분되었던 도시공간의 구조는 위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근대이후로는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위한 철도와 고속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등장과 대규모 체육시설로서의 공설운동장 건설,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거점들이 기존도시의 외곽지역에 입지하게 되면서 도시는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 2002년에는 월드컵경기장, 도청이전 등을 통한 도시공간의 확장과 동시에 기존도시의 쇠퇴에 따른 도시활력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1〉 전주시 시구개정 전후의 비교
출처 : 장명수(1994)



〈그림 4.19〉 대동여지도, 전주지역일부



〈그림 4.20〉 지방도(1872) 중 전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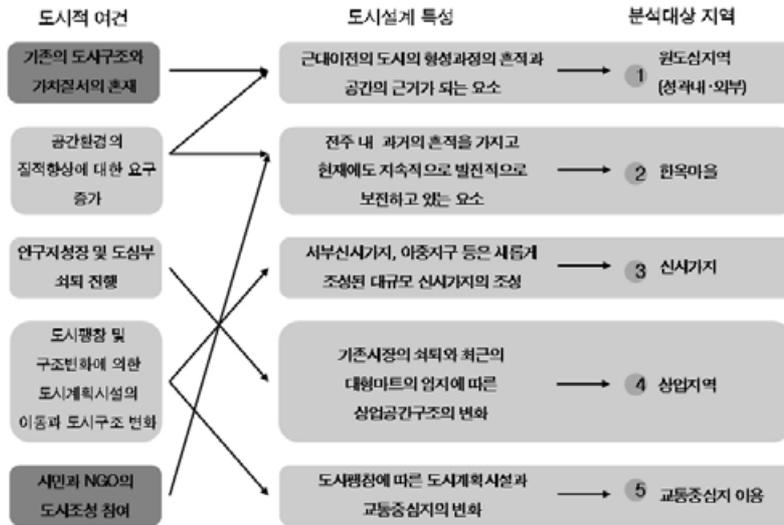
〈그림 4.22〉 전주시 시가지계획평면도(1938년)
- 전주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 첨부지도
출처 : 박선희(2007)

48) 시구개정사업이 실시된 도시는 수도 경성을 포함한 5부(대구, 부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와 전주를 포함한 5면(전주, 진해, 진주, 해주, 송림, 함흥)이다.

〈표 4.2〉 전주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구 분 | 도시공간의 주요변화 |
|---|------------|
| <p>1945~8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원도심부를 남북으로 잇는 팔달로 개설(1962) - 철도노선 외곽이전으로 기존 철로는 기린로로 변경 - 기존 전주역은 교통 중심지에서 행정중심지로 변경 (전주시청으로 변경) - 전주 원도심부를 동서로 잇는 총경로 개설(1982) | |
| <p>1983~9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가로 개설 - 전주역 앞 백제로 개통으로 동서방향으로의 도시성장 촉진 | |
| <p>1991~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지역과 이증지구에 대규모 주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는 동서축으로 확장되고 더 외곽으로 월드컵경기장 조성 - 전라북도 도청이 이전(2005) / - 혁신도시 서부지역 입지(2007) | |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서의 특징적 부분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공간을 살펴보면 1) 기존도시의 성격이 시대적인 변화과정을 통한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성곽내외부의 원도심지역 2) 근대시기에 조성된 당시부터의 생활의 유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옥마을 3) 급격한 도시성장과정에서 조성된 택지 위주의 신시가지 4) 기존상권과 새로운 유통망의 관계로 상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재래시장 5) 외부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도시외곽의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중심지 등이다.



〈그림 4.23〉 전주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그림 4.24〉 전주시 분석대상지역 (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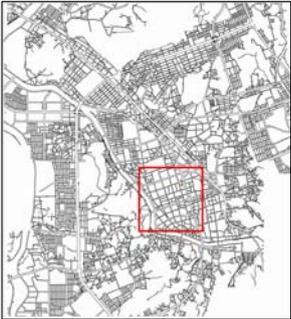
(2) 도시공간별 특성 분석

① 원도심지역

□ 전통적 도시공간의 파괴와 근대적 도시공간의 병존

전주시의 경우 조선시대 전주부로 있었던 지역에 성곽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성곽을 철거하면서 도시조직의 전반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다. 성곽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성곽이 있을 때 중심가로였던 T자형 가로 외에도 성곽내부와 바깥을 연결하는 도로 등이 생겼으며, 특히 기존의 도로가 아닌 중심가로가 ‘+자형’으로 변화되었다.

기존의 성곽이 있던 자리는 도로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주요 건축물인 경기전, 객사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동서남북 각 방향의 문 주변에는 동문시장, 남문시장, 서문지역(현, 웨딩거리 주변가로) 등은 현재까지 도로체계나 폭, 경관 등 장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해방이후 전주역이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은 전주시청으로 변화되었지만 방사형의 도로체계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성곽도시(서울, 수원 등)의 내부 필지구획 체계를 비교하였을 때, 전주의 경우, 비교적 평지지형으로 직교형의 가로체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성곽 주변으로는 기독교적인 요소로 전통성당과 성심여중교, 서문교회 등이 위치하면서 전통적 경관과 근대적 경관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 4.25〉
전동성당(전주시) 전경



〈그림 4.26〉 전주시 시구개정
전후의 비교
출처 : 장명수(1994)



〈그림 4.27〉 전주시의 전통적 도시구조(전주역, 구성곽, 내부도로체계)

□ 기존도시질서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

원도심지역에는 오랜 역사적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다. 근대이전 시기에 조성되었던 경기전, 풍납문, 객사에서부터 근대시기의 서문교회, 전동성당 및 한옥마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성을 가진 건물뿐만 아니라 생활사적인 전통문화로서 전통음악을 비롯한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무형의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중심도시로서의 성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쟁력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청사가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서부시가지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기존도심공간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가로 공간의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화거리, 차이나거리,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동문거리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각 테마거리는 전통적 문화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문화요소로서 영화를 활용하여 영화제 개최 등을 통한 문화산업으로 연계하려는 노력과 상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웨딩거리, 동문거리 등이 있다.

〈표 4.3〉 전주시 도심재생 관련 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도시공간의 주요변화 | 사업내용 |
|-----------|------------|---|
| 한옥마을 조성사업 | ①전통문화 거리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장터 및 태도조로 정리('02) ●은행나무 길·가리내길·골목길 정비('06) |
| | ②문화시설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02) ●공예품전시관·명품관('02) ●문화마당·테마한옥민박·관광안내소('04) ●공예공방촌·최명희문학관('05) |
| | ③전통문화 구역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신축 및 수리, 담장·대문·골목길 정비('03~'09)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정비 |
| 구도심 활성화사업 | ①특화거리 조성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2004년까지 7개소의 특화거리 중 3개소 (걷고 싶은·차이나·영화거리) 완료 ●총사업비 59억 원 소요 ●웨딩거리사업 진행(4억) |
| | ②보조금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총75건, 7억 원 소요 ●해당 지역 내에서 신축, 건물내부 수선시 30%범위 안에서 1,000만원까지,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시 30%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
| | ③공영주차장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202면의 주차공간 정비 ●사업비, 44억 원 소요 |
| | ④경관조명 시설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4억 원 소요 - 가설 2회 및 고정설치 추진 |

출처 : 윤정란(2007), “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심사업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v.42 n.3(통권15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8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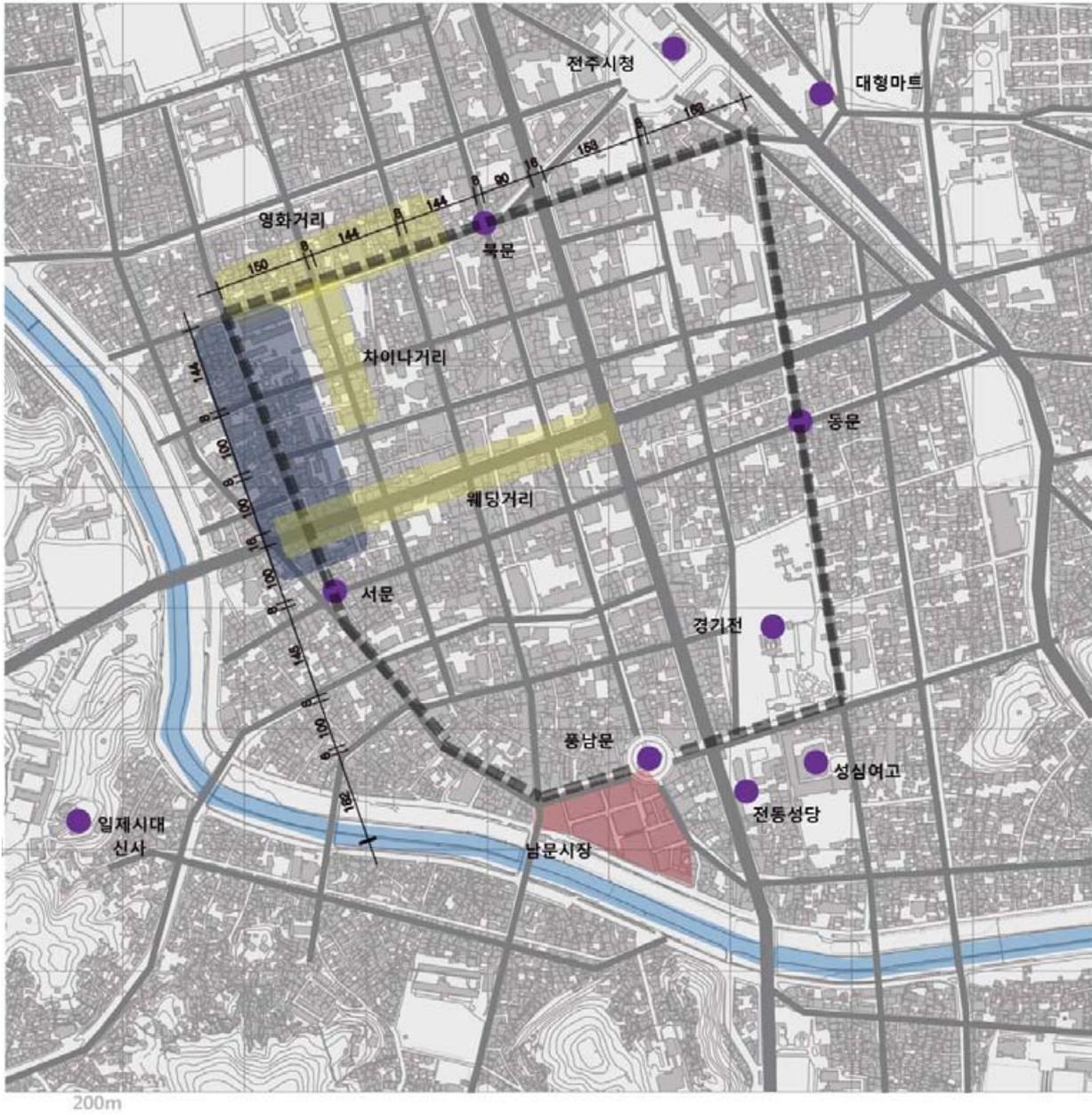
〈그림 4.28〉 전주시 영화거리



〈그림 4.29〉 전주시 차이나거리



〈그림 4.30〉 전주시 걷고 싶은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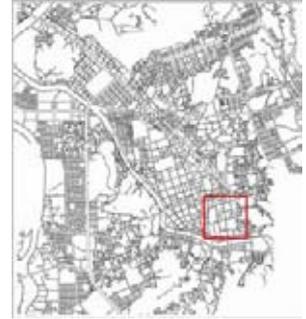
〈그림 4.31〉 전주시의 원도심 지역

② 전주 한옥마을

□ 한옥마을 조성

한편 성곽 동측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은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조성하기 시작한 지역으로⁴⁹⁾ 최근 전통적인 도시경관과 도로체계 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전통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점으로 도심재생전략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전주 한옥마을은 1910년부터 형성된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옥을 도시조건에 맞도록 축소하거나 변형하여 건립하였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 맥을 이어 왔다. 1938년에는 일본의 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가로망 골격이 완성되었고 도시계획도 기능성과 확장성을 반영한 상태였으나 이후 교동·풍남동 일대의 도시한옥을 보존하고자 1977년부터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1987년부터는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건축물의 보존이 추진되었으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과 주민지원 대책,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의 미비로 1997년 미관지구의 폐지가 결정되어 현재는 한옥보존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 없이 전주시의 공원구역 주변의 고도제한계획(1997년)에 따라 고도지구(5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국내에는 유일하게 면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와 문화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전통문화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이 1999년에 작성되었고 2002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결정되었고 2006년에는 전통문화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정계획이 진행되었다.



※ 전주 한옥마을 일반현황

· 행정구역상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및 풍남동 3가 일대(275,511m²)로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천변로에 인접하여 이들 도로에 둘러싸인 형상을 하고 있음

· 전주한옥마을에는 강암서예관, 동학혁명기념관 등의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정비되었음

·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은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증진시키고 관광 거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표 4.4〉 한옥마을 조성과정 및 관리체계변화

| 지역 | 개요 |
|---|--|
| 1987년, 미관지구로 변경 | 이전까지 이곳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전통한옥의 원형대로만 신축 또는 수선하도록 하는 동결적인 보존 행정이 지속되다가 도시개발의 확산과 주거문화의 변화, 한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으로 주민 반발이 많이 발생하자 2층 이하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다. |
| 1995년 미관지구폐지 |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지정되면서, 한옥마을에 3층, 5층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재건축 되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
| 1999년 "전통문화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 2000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 한옥지역의 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주민 스스로의 한옥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한옥경관의 보전을 통해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49) 전주시사편찬위원회(1986), “전주시사 100년”, 전주시



〈그림 4.32〉 한옥마을 내 서비스시설(왜곡된 형태의 한옥모습)



〈그림 4.33〉 전주시 전통가로 조성사업
위 : 기린로, 아래 : 태조로

한편, 한옥마을에 인접하여서는 전제적인 경관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로 고층의 호텔과 3-4층의 양옥건물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성이후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도의 변화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도시 관리의 문제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으로 도시사업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34〉 전주한옥마을 전경
출처: 전주시청 내부자료

□ 전통적 가로공간 개선

한옥마을의 필지는 격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한옥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가로에서 마당으로 바로 진입되면서 공간구조를 느끼기에는 힘들게 되어 있고, 보행가도와 차도가 중첩되어져 옛 한옥가로의 모습을 유지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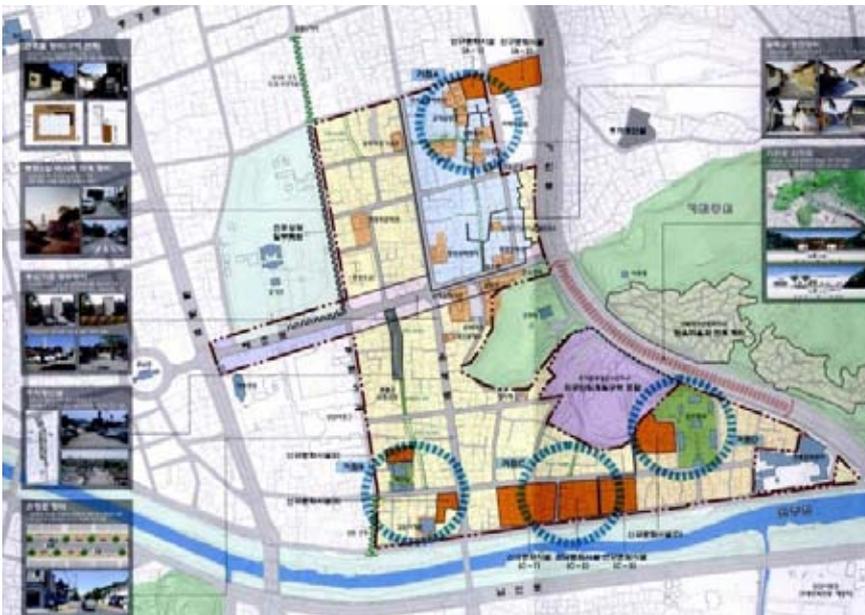
〈표 4.5〉 전주한옥마을의 용도지역·지구계획

| | 전통한옥지구 | 태조로 지구 | | 전통문화지구 | 향교지구 | |
|-------|------------|------------|---------|------------|------------|---------|
|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 | |
| 용도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 70%이하 | 60%이하 | 60%이하 | |
| 용적률 | 60%이하 | 120%이하 | 140%이하 | 180%이하 | 60%이하 | |
| 층수 | 1층 | 2층 이하 | 2층 이하 | 3층 이하 | 1층 | |
| 높이 | 7m이하 | 10m이하 | 10m이하 | 15m이하 | 7m이하 | |
| 형태 | 한옥, 목조 | 한옥 | 한옥 | - | 한옥, 목조 | |
| 보조금 | 신(증,개)축 | 최고 오천만원 | 최고 삼천만원 | 최고 삼천만원 | 최고 오천만원 | 최고 오천만원 |
| | 수선(대수선) | 최고 오천만원 | 최고 삼천만원 | 최고 삼천만원 | 최고 일천만원 | 최고 오천만원 |
| | 문화 시설 | 최고 이천만원 | 최고 이천만원 | 최고 이천만원 | 최고 이천만원 | 최고 이천만원 |

〈표 4.6〉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

| 구분 | | 면적(m ²) | 구성비(%) | 비 고 | |
|-------|------------------------|---------------------|----------|----------|----------|
| 총 계 | | 269,038.5 | 100.0 | | |
| 주거용 지 | 단독주택 · 공간, 다중 · 다가구 주택 | 171,022.8 | 63.57 | 전 지역 | |
| | 상업용지 | 8,787.0 | 3.27 | 경기로지구 | |
| 공용공지 | 공원 | 4,643.6 | 1.73 | 경기전, 오목대 | |
| | 문화재 | 10,357.0 | 3.85 | 향교 | |
| | 문화시설 | 기존문화시설 | 11,500.8 | 4.27 | 풍남동 3가 |
| | | 강암서예관 주변 거점정비 | 1,326 | 0.49 | 풍남동 3가 |
| | | “한옥다운 한옥” | 3,224 | 1.24 | 교동 |
| | | 천변 거점정비 | 3,950.0 | 1.47 | 교동 |
| | | 소 계 | 15,037.3 | 7.47 | |
| | 광장 | 민속장터/놀이마당 | 1,489.9 | 0.55 | 풍남동 3가 |
| | 주차장 | | 3,808.3 | 1.42 | |
| | 도로 | | 39,186.5 | 14.57 | 소로 3류 이상 |
| | 학교 | | 5,099.0 | 1.90 | 중앙초등학교 |
| | 계 | | 80,635.1 | 29.97 | |

출처 : 전주시(2006),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보완, pp.153



〈그림 4.35〉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출처 : 전주시(2006)

※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

- 1) 역사문화자산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을 통해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
- 2) 일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문화 시설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한옥 마을의 균형발전 유도
- 3) 가로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성 향상
- 4) 한옥마을과 연계한 주변의 경관 마을정비 강화
- 5) 제도 및 지원체계의 정비 및 보완과 주민 참여 확대 강화

□세부내용

- 1)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보전정비육성이라는 측면이 강해 전통한옥마을과 도시한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해외의 주택보전사례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2) 도시한옥이나 지구특성이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지구를 중심으로 보존육성하고 기타 지구는 보전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 3) 보전지구는 건축물이나 지구형상의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되 내부공간의 주민의 삶의 편의에 맞게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
- 4) 전주한옥마을을 크게 전통한옥지구, 전통문화지구, 태조로 지구, 향교지구의 4개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고 도시한옥이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된 전통한옥지구와 태조로 지구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

출처 : 전주시(2006),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보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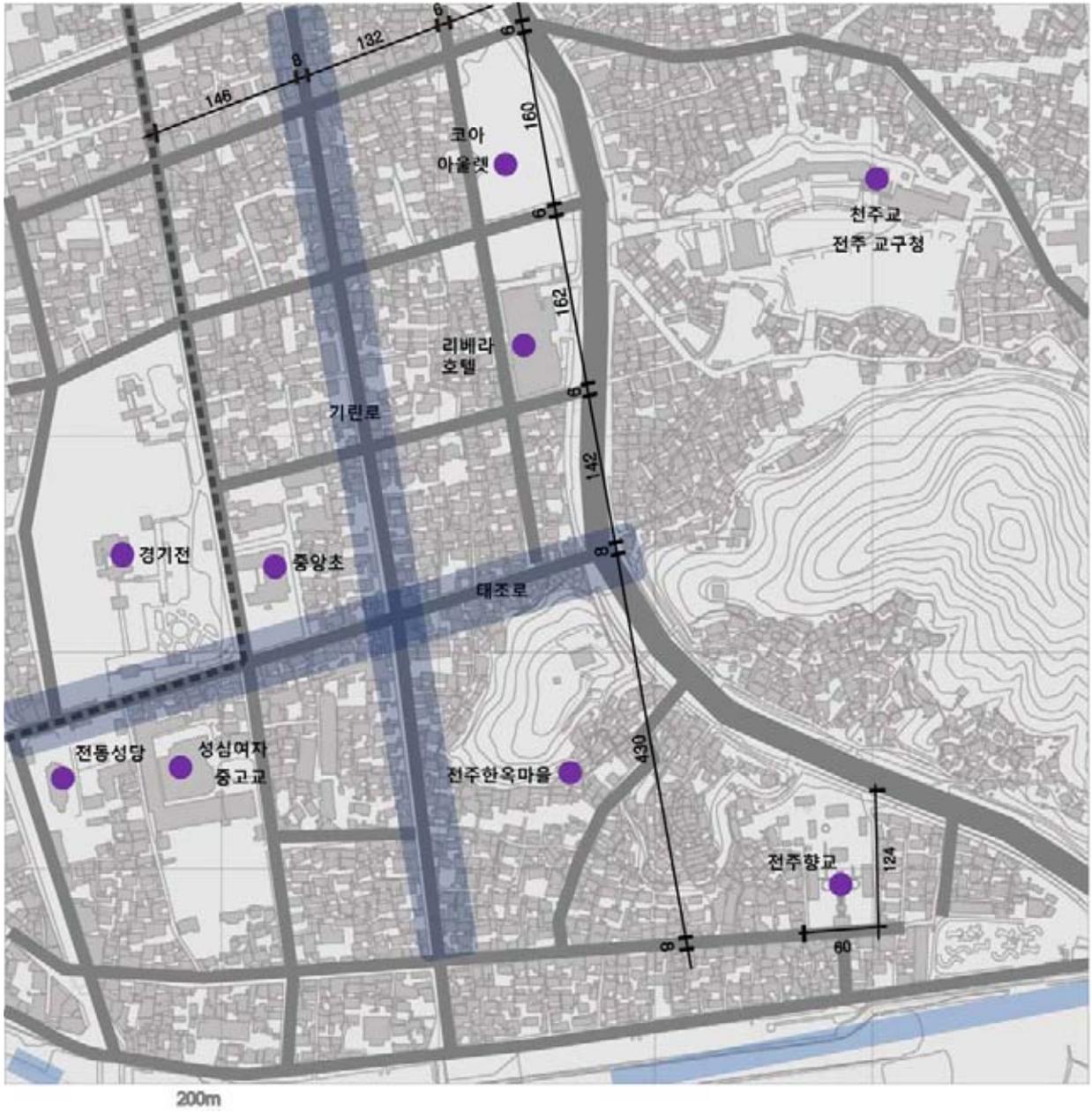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전주시 전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도시’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 전남도청사 건물을 한스타일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기존건축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 내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린로 가로공간의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한옥마을의 이미지와의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문제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문화예술도시, 주민참여, 살고 싶은 도시

전주시는 문화예술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아트폴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 5개 분야에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건축디자인, 도시경관 관리,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옥마을 간판정비사업, 서부신시가지 미관광장 실개천 생태호수 조성, 태조어진봉안행렬 반차도 재현 및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등 8개의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전주 한옥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관과 도시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는데,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향교마을 주변에 대한 계획은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되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2007, 2008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⁵⁰⁾

50) 주요사업 내용은 한옥 건축물 정비,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실개천 조성을 통한 향교길 가로 조성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과 유사하다. 하지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 한옥마을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가로변 꽃길 조성, 정원 및 마을꾸미기, 전통음식박람회 및 김장축제, 한옥마을해설사, 한옥마을 오픈하우스, 향교앞전통광장 조성, 학인당 주변 거점정비, 맞춘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의 실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2007.3.21), 보도자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5개, 시범마을 25개 선정”



〈그림 4.36〉 전주한옥마을

③ 신시가지

□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신시가지의 조성과 구시가지 쇠퇴

전주에서 신시가지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 제정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요구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되면서 10개 지구 4,816천㎡이 개발되었다.

단순한 주거지역 조성 이외에 업무시설인 완주군청, 조달청, 농협,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보건소, 우체국 등의 대규모 이전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과 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증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은 곧 기존시설이 위치하였던 지역의 쇠퇴 원인이 되었다.⁵¹⁾

특히 2005년 전북도청의 이전으로 새로운 신시가지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시청, 전남도청은 이전이 완료되었고 경북도청은 이전지가 선정되어 진행중이나 기존의 도시에 대한 고려보다는 도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도시 주변부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규모 단지계획 기법의 무미건조한 반복

대규모 단지의 배치가 정남향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파트의 거주방식이 익숙하였던 대도시에서는 남향의 배치 외에도 다양한 배치방식이 시도되었으나, 초기단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랜 생활방식과 문화로 인하여 정남향의 배치가 나타났다. 신시가지에 대한 도시설계는 1980년도 말을 시작으로 서울지역과 신도시건설에 일부 적용되면서 최근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적용되었고 전주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대부분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대규모 단지의 조성방식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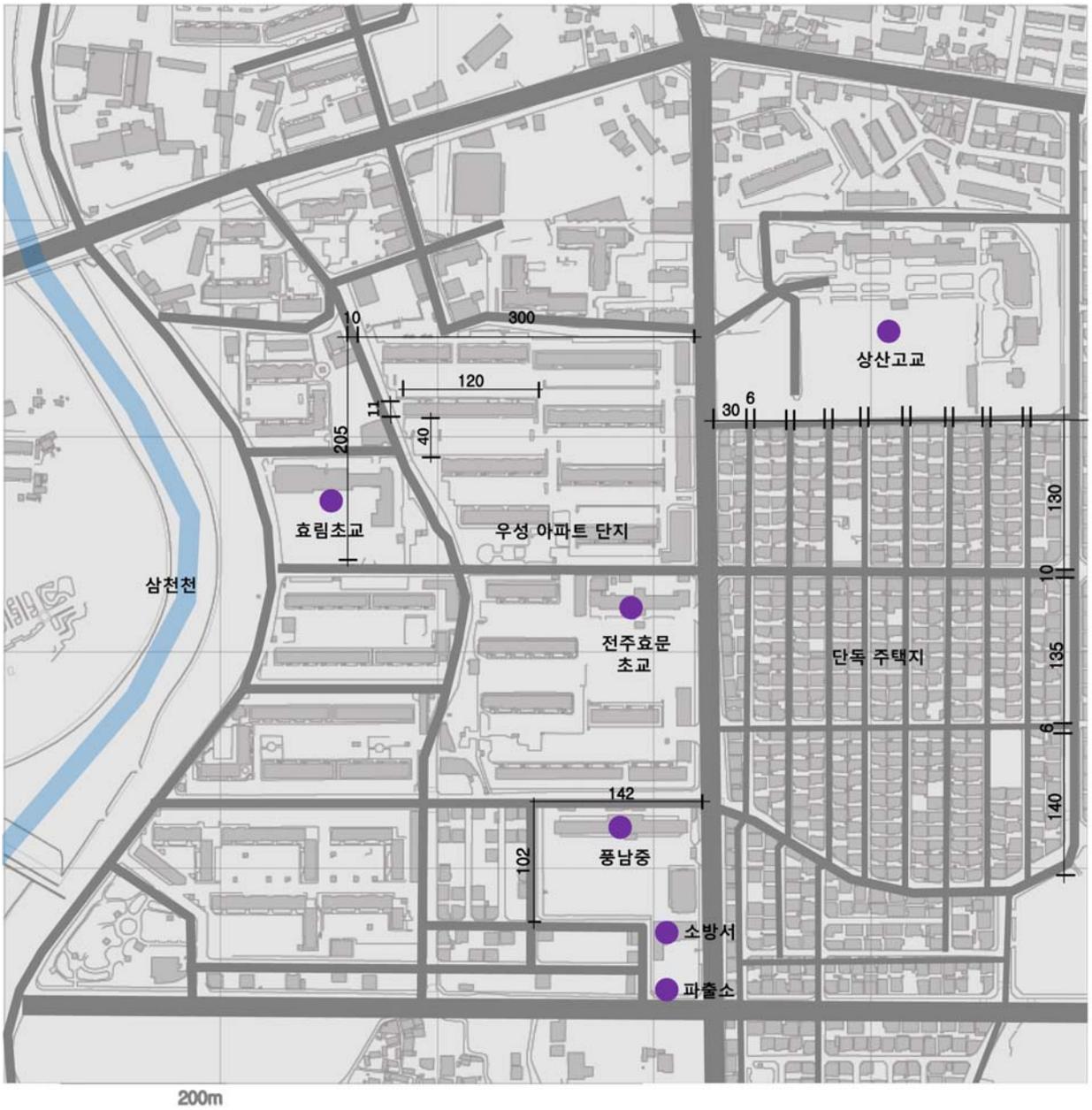
아파트의 내부공간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대도시 아파트의 보편적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건설의 대다수가 대형 건설사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점에서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⁵²⁾ 따라서, 단지, 도시차원의 확장된 논의에 있어서도 지역성의 반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그림 4.37〉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전경

51) 정광민, 곽희중, 김현숙(2007), “중심가로를 통해본 역사도시 전주 구도심의 형성, 변형, 쇠퇴, 재생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865~877

52) 최병숙(2006.6), “전주시 아파트 주거의 평면적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56호, pp.102~111



〈그림 4.38〉 전주시 신시가지

④ 재래시장_구도심지역 ‘시장’의 장소적 가치와 재구성

□ 외래상권과 재래시장, 대형유통상가와 재래시장의 충돌

전주시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 성곽이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필지에 대한 가로계획이 정비되면서 성곽내부 공간에 특징적인 서문내부와 남문외곽에 상업가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양분구도는 일제강점기에는 상업공간의 민족별 분리현상으로 이어졌다⁵³⁾

최근에는 기존의 도심부와 모래내 시장의 구상권 지역과 인접한 기린로 대로변에 대형유통상가(홈플러스)가 입지하게 되면서 대형유통상가와 재래시장으로 상권이 다시 분리되고 있다. 전주소심부의 기존 대규모상가들이 서부신시가지 조성 이후 대부분 도산위기에 처해 현재까지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의 재활용 이외에 또 다른 대형유통상가의 신설은 기존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마저 쇠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아케이드형으로 변형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한 공용주차장 마련 등의 물리적인 개선에만 그치고 있다.

□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공간활용의 지속성

한편, 남문시장은 남문(풍남문) 바로 아래쪽에 면해서 일제시기에는 격자형태의 대규모 시장부지를 계획하여 보통시장, 공설시장, 어시장, 야채시장, 곡물·유가증권의 현물시장 등을 설치하여 근대적 시장을 설치했다. 이 남문시장은 최근, ‘공공작업소 심심’은 동문거리의 가로 디자인 사업을 시작으로 남문시장 하늘공원 조성사업⁵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시민과 계획가를 연결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가, 디자이너, 문화기획자들이 개입하여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시민의 역할을 대변함과 동시에 전문가적 지식을 적용하여 사업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한국적인 특징은 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생활공간 주변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적 차원에



〈그림 4.39〉 전주시 남부시장 전경



〈그림 4.40〉 전주시 모래내시장 전경



〈그림 4.41〉 남문시장 하늘공원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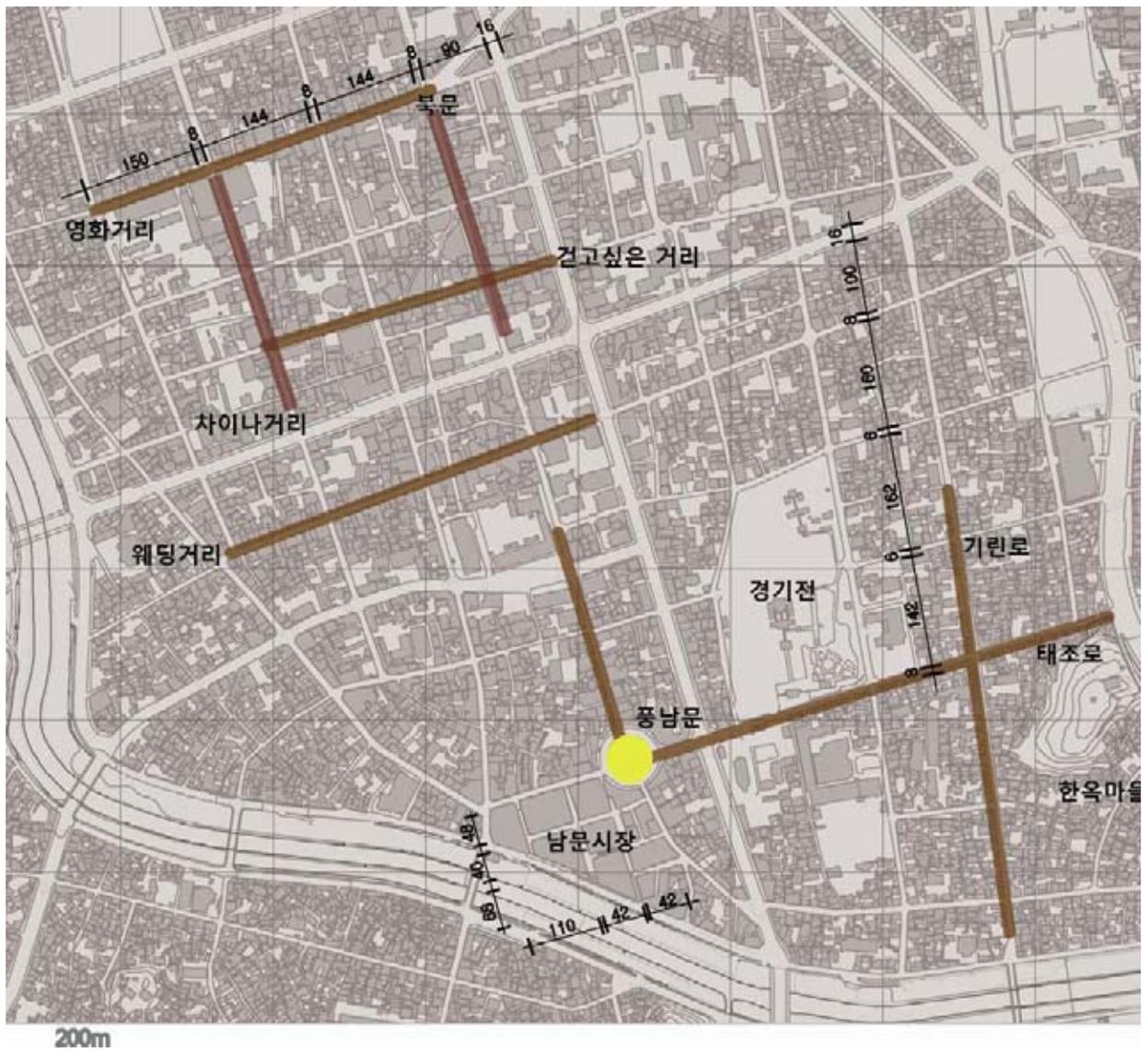
〈그림 4.42〉 전주시 비보이광장

53) “대정통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상업공간이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상업공간이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 남문시장은 조선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전주의 도심은 일본인의 상업공간이었던 大正通(현재, 웨딩거리)을 중심으로 서문부근에서 점차 중심가로(현재, 우체국)까지 확장되어 갔다.”
출처 : 박선희(2003),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pp.754~768

54) 윤정란(2007.6), “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심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3호, pp89~107

55) 토지공사의 ‘초록사회만들기’ 지원으로 남부시장에 지역의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공간계획인 ‘남부시장 하늘정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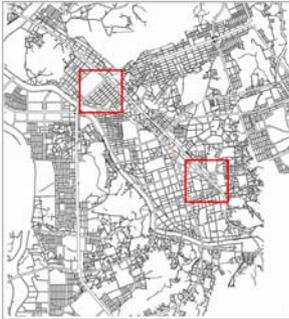
서 활성화함으로써 가치를 높인다는데 있다. 사업의 진행이 중앙에서 계획요소가 지역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는데 비하여 사업의 아이템을 지역에서 발굴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바에서처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상권과 도시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테마거리 - 영화거리, 차이나거리,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4.43〉 전주시 상업지역(시장)의 도시공간분석지역

⑤ 도시 확장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동

□ 시청, 철도역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동



전주시의 경우 점차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시청이나 철도역과 같은 주요 도시계획시설이 이동하면서 전체 도시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설계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기존도시들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거나 혹은 쇠퇴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새롭게 이전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 이전하고 난 이전적지와 주변에 대한 도시설계가 기존 도시구조를 재편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설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전주시의 경우도 철도노선과 철도역이 이전하면서 전주시청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겪었다.

현 전주시청의 경우 기존 전주역 위치에 배치되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기존도시조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시청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역사 앞 공간을 대규모 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철도노선은 전주시 중심을가를 관통하는 주요한 중심가로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림 4.44〉 전주시청 전경



〈그림 4.46〉 전주시청 앞 광장



〈그림 4.45〉 전주시 옛 철도노선



〈그림 4.47〉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재편
(전주시: 전주역의 이전과 전주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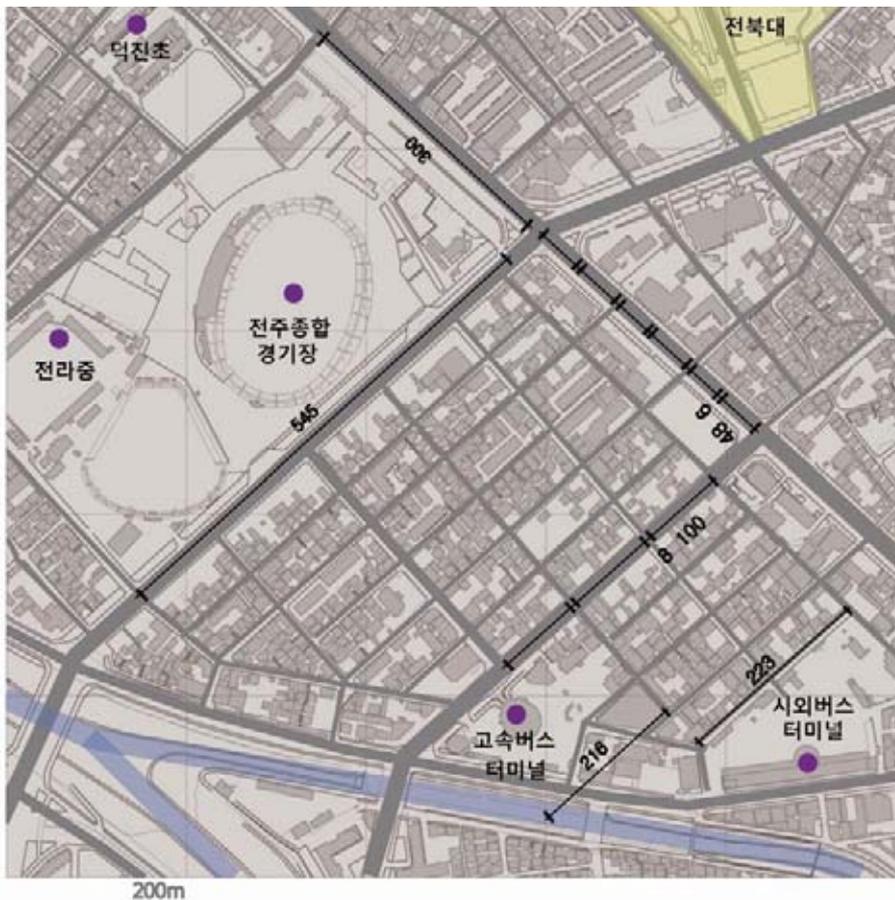
□ 대규모 이벤트에 의한 도시공간의 확장

주요 도로가 건설되게 된 것은 1963년 덕진공설운동장(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성으로 도시환경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당시 건설된 팔달로는 북쪽으로는 확장에 따른 간선도로 기능과 전주 주변의 도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변으로 시청, 전북은행본점, 시민문화회관, 아카데미백화점 등의 주요 공공건축물이 입지하게 되었다. 19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다시 동서의 간선 관통도로 충경로가 개설되었다.

남북축의 팔달로와 전주역에서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백제로로 구분되는 각 블록은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서쪽 블록은 100m×40m의 블록들로 균일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아 택지계획이 이루어진 반면 북동쪽 블록은 옛 블록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48〉 전주종합경기장 주변



〈그림 4.49〉 도시계획시설의 이동에 따른 도시구조 개편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2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

1) 신도시 도시설계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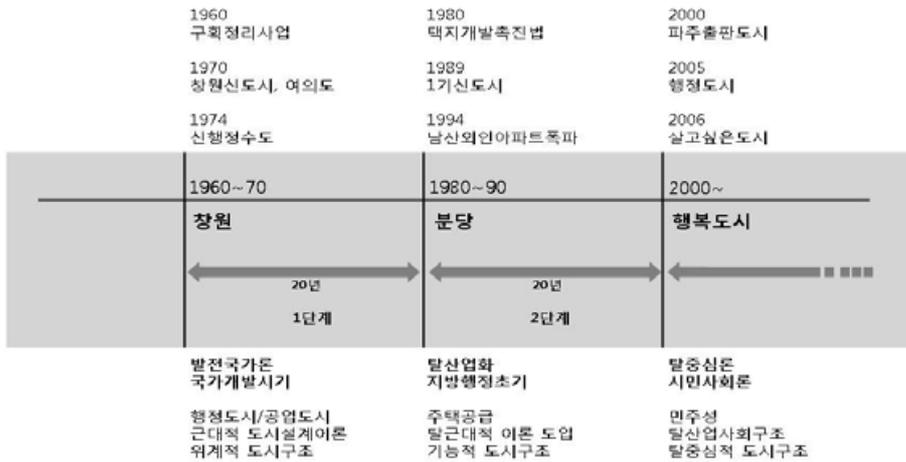
한국에서 신도시 도시설계는 60~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국가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를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한 산업도시 및 공업도시나 국토균형발전 및 전략적 거점 마련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계획부터 한편으로는 서울과 같은 기존도시의 신시가지 설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후 80년대 수도권 신도시의 집중적인 개발, 2000년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신도시 도시설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신도시 들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도시들에 대해 설계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 그리고 실제 도시설계에 포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실제 이용되는 상황을 분석한다.

신도시 도시설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로 도시들을 구분해 본 결과 이들 도시의 조성시점과 사회적 상황,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 전문가에 따라서 대략 세 개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당, 일산 등의 수도권 신도시의 설계가 진행되었던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시기와 그 이후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 1960~70년대는 발전국가론 국가개발시기로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조성된 도시는 근대적 도시설계이론을 바탕으로 위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고 도시공급의 목표가 행정도시, 공업도시로 맞추어 졌다. 2) 1980~1990년대는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가 조성되던 시기로 탈산업화, 지방행정초기 시기로 탈 근대적 이론이 도입되며 기능적인 도시구조가 만들어졌고, 도시공급의 목표가 주택공급에 있었다. 당시 도시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일산, 중동-가 있다. 3) 2000년대 이후는 탈중심론과 시민사회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던 도시 분야에서도 살고 싶은 도시사업들이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도시로는 파주출판도시, 행복도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에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설계에 대해 조성된 배경과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른 공간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도시를 선정해서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림 4.50〉 한국의 신도시 도시설계 특성 연구대상

〈표 4.7〉 한국의 신도시 개요

| 구분 | 건설목적 | 신도시 | 설계자 | 비고 |
|----------|-------------|----------|----------|--------------------------------|
| 1960~70 | 행정수도 | 신행정수도 | 강홍빈 외 | 계획안 |
| | 산업도시 | 창원 | 나상기/박병주 | - |
| | | 안산/반월 | 나상기 | - |
| | | 구미 | 박병주 | - |
| | 지방발전 | 신제주 | 주중원 | - |
| | 수도권 정비 | 새서울백지계획 | 박병주 | 계획안 |
| 서울도시기본계획 | | 윤정섭 | - | |
| 여의도 도시계획 | | 김수근 | - | |
| 강남개발계획 | | 박병주 등 | - | |
| 1980~90 | 수도권집중 완화 | 분당신도시 | 안건혁 | - |
| | | 일산신도시 | 안건혁 | - |
| | | 평촌신도시 | 안건혁 | - |
| | | 산본신도시 | 김진애 | - |
| 2000 | 국토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 안건혁 외 | 건설중/전체마스터플랜 이후 세부계획은 별도로 진행 |
| | | 혁신도시 | 안건혁 외 | 건설중 |
| | 수도권 집중완화 | 판교신도시 | 민범식 | 건설중 |
| | | 동탄신도시 | 안건혁 | (동탄2 신도시 계획 중) |
| | | 파주신도시 | 임서환 | - |
| | 민간참여 | 기업도시 | 민간 엔지니어링 | 계획 중 |
| | | 송도신도시 | 렘 콜하스 | 건설 중 |
| 헤이리아트벨리 | | 김홍규 | - | |
| | 파주출판도시 | 민현식 | - | |

* 이외에도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나 대표적인 것만 기술했으며 설계자는 현재 알려져 있는 개인으로 조사했으며, 기관 명칭은 생략함하도록 함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의 경우 KIST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했으나, 연구책임자였던 강홍빈 교수로,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했으나, 연구책임자였던 안건혁 교수로 기술함)

(1) 1960~70년대 : 산업화근대화 시기의 도시설계

□ 사회적 상황

해방이후 진행된 신도시의 첫 번째는 60~70년대 산업화와 국가주도의 국토 개발시기에 진행된 지방의 산업도시들과 해방이후 진행된 신도시의 신도시들의 형성 및 서울의 여의도, 강남 등이 개발되던 시기의 도시설계 과정이다. 이 당시는 그야말로 해방과 전쟁 이후 국가를 근대적 선진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모든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하여 이러한 역량을 계획에 반영하던 시기였으며, 도시설계과정에 있어서도 국가의 권한과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림 4.51〉 창원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나상기박병주, 1974)
출처 : 창원시(1988)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62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1966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6년 도시재개발법,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이 시기의 도시개발을 지원했고 이 당시 도시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유학을 통하여 근대적 도시설계를 접하고 귀국한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시 도시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참여전문가 및 주요도시



〈그림 4.53〉 서울 잠실 종합개발계획 (박병주, 1974)
출처 : 손정목(2003)



〈그림 4.52〉 새서울백지계획 (박병주, 1966),
출처 : 손정목(2003)

이들에 의해 진행된 대표적인 도시설계 프로젝트들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윤정섭, 1966), 새서울백지계획(박병주, 1966), 여의도 도시계획(김수근, 1969), 강남개발(? , 1968~1973), 창원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나상기/박병주, 1974), 반월신공업도시개발계획(나상기; 건설부고시 제 53호, 1977), 구미신도시개발계획(박병주, 1973), 서울잠실개발계획(박병주, 1974), 신제주개발계획(주종원, 1976), 신행정수도 백지계획(강홍빈 외, 197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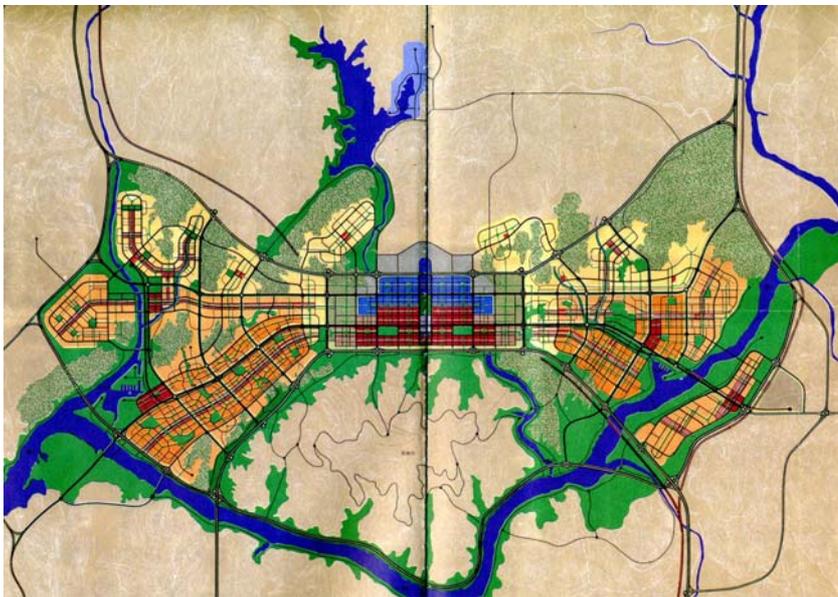


〈그림 4.54〉 서울 영동신시가지 개발조감도 (1971)
출처 : 손정목(2003)

□ 도시설계의 특징

70년대 한국의 신도시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그 하나는 공업단지 조성 및 산업화 국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한 도시가 대규모 공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인 반월(안산), 창원, 여천, 구미 등의 신 공업도시⁵⁶⁾나 학원 및 연구 단지성격의 대덕 신도시였다. 2) 두 번째를 목표로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산업 재배치 성격의 과천(1979)이나 신행정수도백지계획(1977)이 진행되었고 기존 도시에 대한 신시가지 조성의 성격으로 서울 강남개발(영동지구)과 잠실지구 개발(1973) 등이 진행되었다.

70년대에 설계된 신도시 대부분이 근대 도시계획이론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모뉴멘탈리티가 도시구조에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당시 군부독재체제하에서의 사회분위기가 당시 설계된 도시들이 가지는 행정도시의 성격상 이러한 위계적인 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주거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근린주구계획이나 교통동선계획 등 근대적인 도시설계 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4.55〉 신행정수도 백지계획(강홍빈 외, 1977)

출처 : 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기본구조계획 (1978)

56) 신 공업도시는 공업 용지를 공급하되 노동자를 위한 주택지도 함께 공급하여 자족적인 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시였다.

출처 : 건설부(1991),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

(2) 1980~90년대 : 한국적 도시설계 체계구축시기의 도시설계

□ 사회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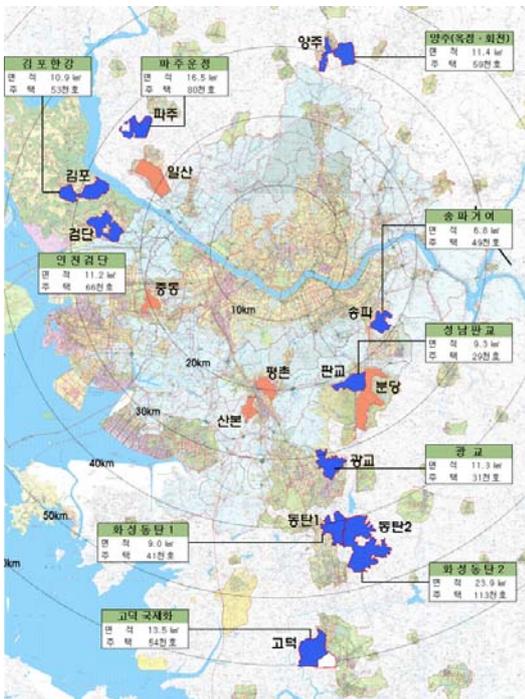
두 번째 시기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시점인 80년대 말이다. 이 시기는 1987년 6.29선언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가주도의 개발 패러다임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조성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이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로서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국가주도의 사업추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설계 분야의 대표적인 사건은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었다. 대규모 주거지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들 신도시들은 한국적인 신도시 건설의 선도적 모델이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최단기간에 200만 세대라는 엄청난 주택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사업을 추진한 공공공사, 국책연구기관, 도시설계 엔지니어링 기관들은 한국적 도시개발 및 설계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 참여전문가 및 주요 도시

1기 신도시 도시설계에 참여한 그룹은 60~70년대 도시설계에 주도했던 그룹들 밑에서 도시설계 경력을 쌓아왔던 해외유학파들로서 대표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당시 국토개발연구원)과 주택공사 등에 의해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들에 의해 진행된 대표적인 도시설계 프로젝트들은 분당신도시(1989, 안건혁), 일산신도시(1989, 안건혁), 산본신도시(1989, 주택공사, 임서환, 김진애) 등이 있다.

이 당시 도시설계에 참여했던 도시설계가 들은 정책연구와 도시설계를 병행하면서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를 위한 제도와 틀을 만들면서도 도시설계가로서 활동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시기에 신도시를 위한 제도적 틀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설계에 참여했던 도시설계가들이 정책 및 제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제 실무와 연계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림 4.56〉 수도권 신도시 현황

□ 도시설계 특징

이러한 80년대 한국의 신도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1) 하나는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의해 진행된 수도권 신도시 계획으로서 60~7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방식과 참여인력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당시에 건설된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의 수도권 5개 신도시이며 필지구획패턴이나 도로체계, 환경계획부분 등 최근까지 한국적 신도시 설계의 원형으로 이해된다. 2) 또한 한편으로는 80년대에 건축법에서 제도화되면서 70년대에 선도적으로 진행되었던 도시설계가 한정적이지만 제도화되어서 진행되게 되었다. 1983년 서울 4대문 안 고층건물 통제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유도를 위하여 서울 도심부 간선도로에 도시설계가 진행되었고, 잠실, 목동, 인천 구월, 을지로 2가 재개발지구에 도시설계가 실시되었다.

80년대 설계된 신도시들의 경우 70년대와 마찬가지로 근대 도시계획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엘리트들에 의해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70년대 도시설계 과정에도 참여를 하면서 외국에서의 근대적 도시설계 방식에 한국적 시장상황에서 도시설계 방향을 몸소 체득한 전문가들이었다.

이 당시에 설계된 계획안들을 보면 70년대 보다 구체화된 생활권에 대한 구상과 조직화된 도로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환경에 대한 고려, 2) 자동차 보급과 서울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 분야의 강화, 3) 건축과 결합된 시범단지의 건설, 4) 시설녹지 등 기능적 도시계획시설의 도입, 5) 커뮤니티의 복원을 위한 복합화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등 기존의 도시설계 경향에 비해 환경과 공동체 부분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6) 기존의 대규모 획지 방식의 상업지 설계가 아니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획지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58〉 일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4.57〉 분당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3) 2000년대 : 민주화, 다원화, 탈산업화 시기의 새로운 도시설계

□ 사회적 상황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국가 전체가 탈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개발중심적인 도시정책에 대한 반성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92년 성수대교 붕괴, 96년 남산아파트 철거, 98년 IMF위기 등을 통해 도시개발 및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당시 서구 도시이론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다양한 ‘포스트’ 논의들이 도입되면서 한국사회 전체를 다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진행되면서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80~90년대와 연결되는 변화가 진행되는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도시설계가 진행되었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파주출판단지과 같이 소규모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2005년에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진행되고, 95년 이후 진행된 민선지방자치제도이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지방의 택지개발, 도시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도시설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디자인 등 도시의 디자인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구도심의 재생과 같은 논의도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참여전문가 및 주요도시

이들 도시설계에 참여한 그룹은 도시설계분야에서는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 의해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2005, 안건혁), 동탄신도시(안건혁), 판교신도시(민범식, 국토연구원), 헤이리아트벨리(김홍규) 등이 있고, 건축가나 조경건축가에 의해 진행된 파주출판도시(민현식), 송도신도시(렘콜하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2007, 해안건축/발모리) 등이 있다.

□ 도시설계 특성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신도시 도시설계는 크게 1) 판교, 송파, 동탄, 김포, 김단과 같은 수도권 2기 신도시와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와 같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방 신도시, 3)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된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규모의 도시설계 등으로 진행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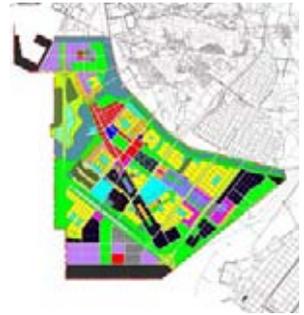
이들 신도시 도시설계는 이전 시대에 비해 건설목표가 다양해지면서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공급이 목표인 만큼 생활권에 대한 구상이나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녹지·공원체계에 대한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방에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수용하여 도시설계도 수도권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좀 더 기능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주체가 다양해지고 기존의 도시설계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건축가나 조경설계가가 설계과정에 참여하거나 이 분야의 설계이론 및 담론이 도시설계과정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도시설계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권의 규모와 각 생활권에 포함되는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요도 변화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양식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개발되면서 필지의 구성과 형태의 변화가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개별 아파트 필지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나 시장성의 측면에서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이에 따라 도로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도로에 별도의 대중교통체계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로설계가 진행되는 등 점차 기능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가치, 공공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거나(송도신도시, 2007) 한국적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도시특화연구를 시행(동탄2신도시, 2008)하는 등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중요도와 담론생산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2000년대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설계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타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들은 그 개수가 많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없고, 일부 외국 건축가에 의해 제안된 신도시(송도 신도시)의 경우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외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나 헤이리 아트벨리와 같은 경우 새로운 담론들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도시설계의 특성으로서 2000년대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그리고 2000년대 조성된 신도시들의 경우 아직 건설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4.59〉 송도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4.60〉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국제공모



〈그림 4.6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2) 60-7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의 사례 : 창원시

(1) 사례개요

□ 사례분석도시 : 창원시

창원시⁵⁷⁾는 1960-70년대 정부정책차원에서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산업육성을 위한 공업도시로 건설된 대표적인 신도시이며 경남도청이전을 위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설계 경험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주도의 대규모 도시 및 공업, 주거단지 건설 사업에서 진행과정에서의 상황과 모습과 현재의 도시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70년대의 도시설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 초반 경남도청 및 교육청과 법원관련 시설이 이전하면 자족적인 성격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 람사르 총회 개최, 자전거 도로 등을 확충하는 등 기존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친환경도시로 도시전략을 변화하고 있다. 초기단계의 인구는 30만 명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높은 도로율, 공원면적, 저밀도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4.62〉 창원시 도시개발계획 조감도 (1977)
출처 : 창원시(1988)

57) 이 당시 건설된 도시는 1960년대 온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반월(안산), 구미, 여천, 창원 등이 있었다. 이들 도시는 1973년 ‘중화학 공업화 선언’에 의하여 구미는 전자공업, 창원은 기계공업, 여천은 석유화학공업으로 추진되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계획에 이르는 과정에는 청와대 내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즉 청와대 경제수석팀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일본에 용역회사에 구체적인 계획 및 배치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

출처 : 유영휘(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 창원시 도시설계특성 및 변화과정

70년대 중화학 기계공업 육성의 국가정책사업으로 계획된 신도시로 공업기지 건설로 시작되어 배후도시조성 등이 계획되면서 단지로 계획되었다. 당시 모델은 캔버라를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주의 캔버라와 창원시의 항공사진을 동일한 크기로 비교하여보면 강력한 중심축을 선정하여 주요시설을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풍부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도시설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은 브라질리아와 같은 유형으로 모더니즘적 도시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건축가가 건축물의 형태까지 세밀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창원시가 처음 설계된 이후 도시공간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 사회적 여건변화가 발생하는데, 1) 산업화과정에서 철도의 중요성 증대 및 급속한 도시확장에 따른 철도노선 변경, 2)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거지 건설, 3) 탈산업화 경향 이후 상업지역의 추가 건설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변화상황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1)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경남도청과 중앙로 일대, 2) 최근에 조성된 일반적인 커뮤니티 단위, 3) 주거 및 상업지역과 창원만의 독특한 공업지역을 구분하는 창원대로 주변, 4) 각 용도지역을 대표하는 상남동 상업지역, 5) 공업지역 등이다.



〈그림 4.63〉 캔버라와 창원시
항공사진 : 범위 10km
출처 : 구글 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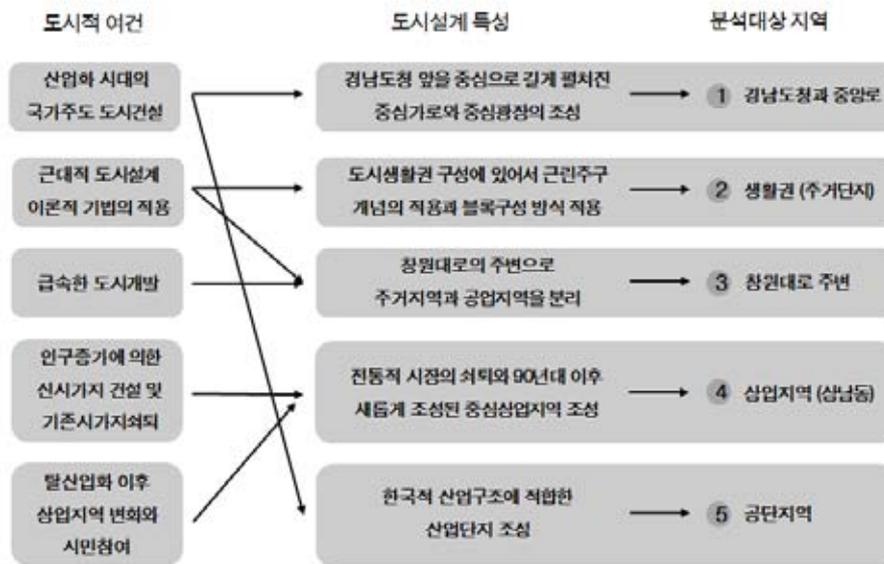
〈표 4.8〉 창원시 일반현황

| 내 용 | | 분 석 |
|----------|--|--------------------------|
| 면적 | 292,70km ² | 서울의 1/3규모 |
| 인구 | 503,950명 (172,670세대) | 96년 이후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음 |
| 행정시설 |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1983년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이전 1992년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이전 1993년 한국은행 이전 | 경남행정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 |
| 역사요소 | 선사시대 유적 일부 발굴 | 특별한 도시생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
| 인문, 자연환경 | 마산, 김해시와 인접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 울산, 부산, 마산, 창원을 연결하는 남동임해 중화학공업지역 중 하나 | - |
| 도시정책 | 1970년대 말 초기단계의 도시계획 개념 적용 1995년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구역확장으로 도시 확장 최근,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연담도시 구상이 진행 중에 있음 친환경도시 전략을 펴하고 있음 | - |

출처 : 창원시(2008), 창원시 시정백서

〈표 4.9〉 창원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구 분 | 도시공간의 주요변화 |
|--|--|
| <p>1976~8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가로 조성 및 필지정리작업 진행 |  |
| <p>1981~9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 건설 및 택지개발 시작 - 공장입지 시작 - 철도이설 - 주요가로의 개설 - 철도이설 부지 도로화 - 서부지역 택지개발 사업 |  |
| <p>2000~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남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 동쪽지역 대규모주거단지 조성 - 남창원역 2006년 여객업무중단 |  |



〈그림 4.64〉 창원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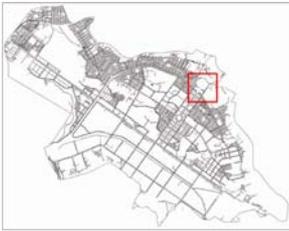


〈그림 4.65〉 창원시 분석대상지역 (5개소)

(2) 도시공간별 특성 분석

① 경남도청과 중앙로

□ 근대적 상징성 : 모뉴멘탈리티



창원시의 도시설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은 경남도청을 정점으로 하여 70m에 이르는 상징거리와 중앙에 약 210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중앙광장이다. 이 중앙광장은 거대한 교통로터리 광장으로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가로가 연결된다. 중앙광장 주변으로는 창원시청과 대형마트들이 입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공간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66〉 창원시 창원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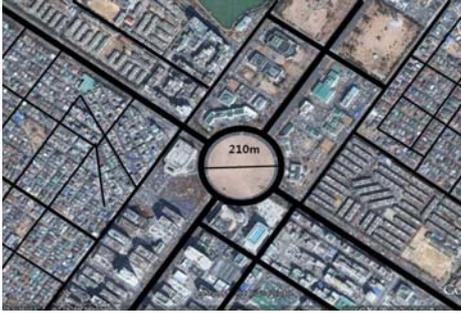


〈그림 4.67〉 창원시 중앙광장 전경
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



〈그림 4.68〉 창원시 경남도청

창원이전에 조성된 울산공업도시에도 교통로터리 광장이 위치하고 공업탑이 조성되어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현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신제주 개발 계획-노형지구(주종원, 1976)에서도 주요 교통의 중심점에 중앙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고 있으나 주종원의 초기계획안에서 없었던 안이 시행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다른 주체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그림 4.69〉 창원시 중앙광장



〈그림 4.70〉 신제주 중앙광장

□ 건축과 결합된 대형 상업필지구상

경남도청을 시작점으로 형성된 근대적 상징체계인 중앙로 주변에는 1983년 도청이 이전하고 도청일대에 경찰서, 창원KBS, 소방서 등의 행정관련시설이 집중되면서 중심타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시 도시설계 패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상징적인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서 중앙로는 창원 시내 도로 중 가장 넓은 70m도로로 도청에서 직선으로 2.6km, 10차선의 중심도로이나 주요 동선에서 벗어나 가장 넓은 도로임에도 이용률이 낮은 도로였다. 또한 도시설계 당시 상업필지는 900평(90×30m)로 구획되었는데, 당시 지방의 시장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크기의 상업필지크기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면이 좁은 세장형 필지로 건물의 정면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에 무리가 생기게 되었다.⁵⁹⁾

58) 주종원(1985.9), “신제주 건설종합계획 및 설계 A master Plan and Design for New-cheju City”, 건축문화 제52호, pp.39

59) “당시에는 서울의 테헤란로와 같은 분위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으나 당시에는 무리가 있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큰 건물들이 들어와서 일부에서는 잘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출처 : 안건혁 교수 인터뷰(200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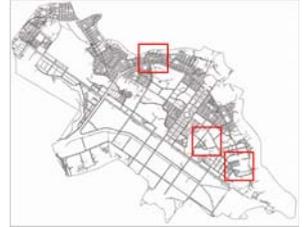


〈그림 4.71〉 창원시 상징가로축과 대형필지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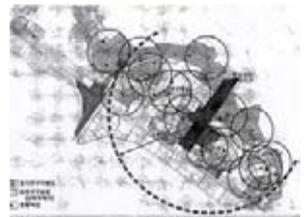
② 생활권 및 주거지역 도시설계

□ 근대적 근린주구계획

1978년의 초기계획(창원신도시도시설계, 1974)을 보면, 이 당시 신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도시설계 기법인 근린주구계획이 도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의 경우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15개 근린주거로 구성하였고 도시중심의 도시의 핵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했다. 당시의 근린주구 계획은 현재보다 다소 작은 규모인 1~2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각 1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근린생활시설(준주거지역), 1개의 운동장과 공원 녹지를 가지며, 반경 1km내의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4.74〉 창원시 생활권 구상도(항공사진에 다시 작업)
출처 : 창원시(1988)



〈그림 4.72〉 창원시 생활권 구상도 (원본)



〈그림 4.73〉 창원시 근린지구계획도
출처 : 창원시(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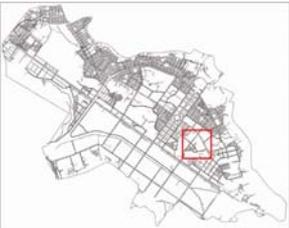
□ 단독주택지와 자생적 주거지

또한 당시에는 지방까지 아직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단독주택 필지를 설계과정에서 많이 배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주요 패턴으로는 격자형, 루프형, 혼합형이 사용되었고, 간선도로와의 교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였다. 세부 가로는 cul-de-sac과 격자형을 혼합하여 계획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단독주택지역의 근린생활권은 평지형인 경우 격자형과 루프형을 결합한 근대적인 도시계획기법에 의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 구릉지역과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인 비정형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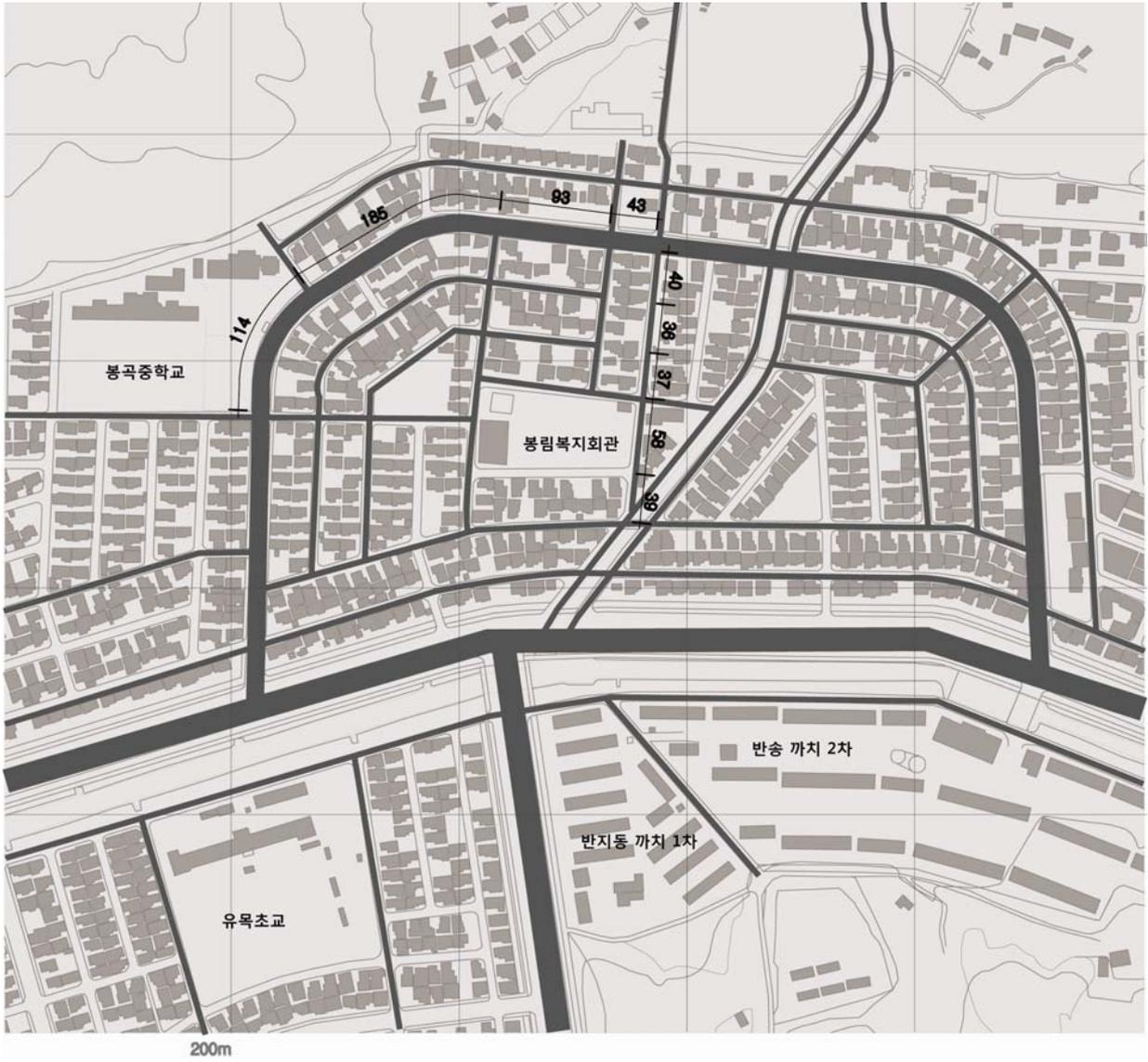
〈그림 4.75〉 창원시
단독주택지 전경



〈그림 4.76〉 창원시 단독주택지역 근린생활권 사례(구릉지형)



〈그림 4.77〉 창원시 아파트지역 근린생활권 사례



〈그림 4.78〉 창원시 단독주택지역 근린생활권 사례(격자형+루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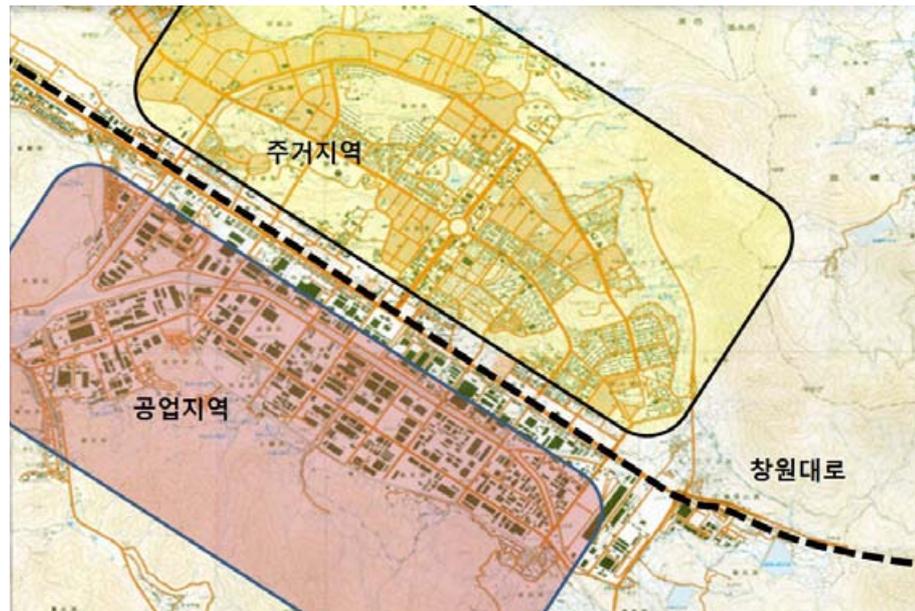


③ 창원대로 주변 도시설계

□ 이분법적인 도시기능 체계

도시의 기능을 주거와 공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창원대로는 폭 50m로, 길이 12.8km로 당시에는 동양최장 도로로 계획되었으며 마산, 진해, 부산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통과도로의 성격을 가진다.

도시설계 측면에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기능과 배후기능(상업, 주거, 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의 도시구조를 선택했다는 측면이었으며, 기능분리 방식의 계획체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9〉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녹지와 이면도로

〈그림 4.80〉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이분법적 도시구조

□ 대규모 시설녹지

대로변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녹지대를 조성하였고,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남쪽으로는 도로변에 면하여 600m × 100m의 블록에 인근 공장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200m의 폭을 가진 시설녹지(완충녹지)가 조성되어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대규모 녹지시설은 프로그램이 있는 공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생활권 계획당시 소생활권에 근린공원을 중생활권에 용지공원, 체육관 시설을 배치하고 있어 창원대로 변에 별도의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81〉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공간분포



〈그림 4.82〉 창원시 창원대로 주변 도시설계

④ 재래시장 및 상남동 상업지역

□ 재래시장의 쇠퇴와 상업구조의 변화



분석대상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남시장은 창원지역에서 제일 큰 장터였던 상남장이 열렸던 곳으로 재래시장과 저층의 주택지가 존재하였던 상남동은 1990년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2001년 기존의 재래시장을 3층 규모로 현대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창원시의외버스 정류장 부지에 일시적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나 2007년 시외버스터미널 준공이후 사라지게 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상남시장 상가의 2층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재래시장이 개설되며 옛 5일장의 모습을 지속하고자 하면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재래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 4.83〉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전형적인 상업건축)

한편 창원에는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시티세븐 몰,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회사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창원의 거주자들이 마산의 상권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역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전까지 중심상권을 형성하던 마산과 진해의 상권을 대체하면서 기존 도시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의 상남동 지역은 기존의 도시상권이 현재의 도시적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1)기존도시조직의 유지 및 점진적 변화와 2)자본의 논리에 의해 일괄적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공존하고 있는 사례이다.

□ 걷고 싶은 상업거리와 전형적인 한국적 상업건축의 복합



〈그림 4.84〉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내 공공공간설계 (공공디자인)

상남동 지역은 중앙로의 중앙광장에 인접하여 있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미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초반 상업용지로 개발되었다. 7-8층 규모의 상업건물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남쪽지역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변의 주거단지와 중심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경남 최대의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다.

개발단위 필지블록의 크기는 135m×30m(4,050㎡)의 규모로 개발되었다. 중앙로변의 필지는 146m×80m(면적 11,680㎡)의 절반정도의 크기이다. 블록 내에는 4~6개의 건축물이 2열로 입지하고 있다.

최근 간판개선사업 등의 사업진행을 통해서 소비적인 업종에 대한 개선안 보다는 미관개선사업에만 그쳤으나 지역의 건축과 교수 및 전문가, 행정가 등이 참여하여 보행자 위주로의 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 최근, 지식묘와 같은 기존의 지역문화자산과 연결하여 분수광장 등이 조성되면서 점차 공공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가고 있다.



<그림 4.85>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⑤ 공단지역

□ 국가주도형 경제개발기지로서 도시설계모델



창원은 70년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단계에서 이를 견인하기 위한 공업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창원시 전체 생산의 84.4%, 경상남도 생산의 34.4%를 차지하는 중심산업단지이다. 창원공단의 주요 업종은 초기에는 해외수출을 위한 기계류 생산 공장으로서 시작하여 현재는 두산중공업(주) 창원종합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발전설비·송변전기(送變電機器)·산업기계·정밀기계·방위산업·원동기·자동차 부품 등을 각기 생산하는 235개 업체가 입지하여 있고 대부분 수출위주의 산업이라는 성격으로 수출을 위한 항만시설이 인접하여 있다.

이러한 도시프로그램은 국가주도의 중공업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도시설계에 대한 고려는 블록의 구성을 가능한 한 슈퍼블록(350m×600m)으로 분할하였는데 공해의 피해를 줄이고 공단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풍향을 고려한 배치를 하기 위함이었다.⁶⁰⁾

최근, 공단지역내의 필지부족문제와 생산위주의 생산방식에서 기술 및 인적개발 등의 소규모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공장의 형태로 아파트형 공장 등이 건립되고 있다. 서울의 구로디지털단지는 이러한 사례의 예로 현재 거의 주된 시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화되었고 기존의 대규모 공장시설은 의류유통상가 등으로 변화하였다. 창원의 경우는 기계공업 위주의 생산체제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변화는 없으나 기술개발, 공단지역의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산업 등의 등장으로 기존 도시설계 모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4.86〉 창원시 공단지역 가로변 전경

60) 이우배(2003.12), “창원 신도시 사례로 본 남약신도시 개발의 현안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5~45



〈그림 4.87〉 창원시 공단지역 건축물 배치형태



〈그림 4.88〉 창원시 공단지역에서 바라본
상업지역



〈그림 4.89〉 창원시 공단지역 도시설계 패턴

3) 80-9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 사례 : 분당신도시

(1) 사례개요

□ 사례분석도시 : 분당신도시

분당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요 대체를 위해 건설된 신도시로서 5개 신도시중에 대표적인 도시사례로 꼽힌다. 초기 목표 인구는 42만 명으로 계획되었으나 개발가능지의 부족 등의 이유로 39만 명으로 조정되었다. 서울 의존적인 도시에 대한 우려로 자족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업, 업무기능을 유치하였다.⁶¹⁾ 계획수립당시 기본방향으로 한국적 신도시 개발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⁶²⁾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다른 다양한 수법이 도입되었다.



〈그림 4.90〉 분당신도시 조감도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61)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62) 한국토지공사, 위의 책, pp.271

□ 도시설계특성 및 변화과정

분당의 경우 70년대까지 있어왔던 장엄한 상징 축과 같은 설계에서 벗어나 고자 했지만, 일정부분 분당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축과 대칭성의 패턴이 큰 영향을 미쳤다.⁶³⁾ 또한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체계의 기울기와 곡물들이 결정되었다. 또한 서울과의 연계나 자동차의 보급 영향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두 개의 고속화도로와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였으며 각 생활권에는 전철역을 배치하는 등 서울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한편 도시가 완성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 큰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90년대 들어 진행된 서현역 주변의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그것이다. 이는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짐에 따라 주거개발 압력에 의해 변경된 측면이 있으나 한국최초의 주상복합단지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80년대 설계당시의 분당과 90년대 변형된 분당을 가장 극명하게 구분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설계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과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변화상황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1) 현재 한국의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서현역 일대의 중심상업업무지역과 2) 도시설계와 건축설계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커뮤니티복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시범단지, 3) 최초의 대형 중앙공원이라 할 수 있는 분당중앙공원, 4) 90년대에 조성된 주상복합단지, 5) 역시 대표적인 한국적 주거경관으로 상징되는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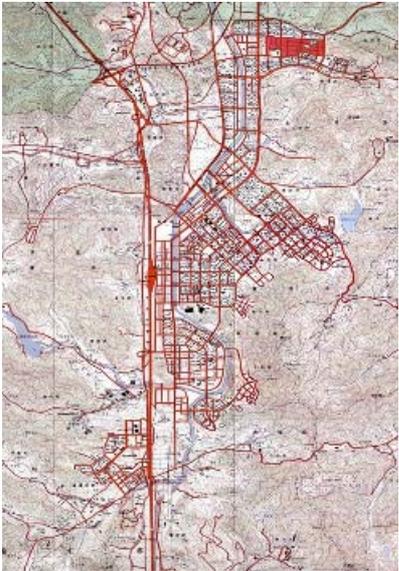
〈표 4.10〉 분당신도시 일반현황

| | 내 용 | 분 석 |
|-------------|--|-------------------------------|
| 면적 | 19,63km ² | 서울의 1/30규모 |
| 계획인구 | 390,320명 (97,580세대) | |
| 행정시설 | - |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업무, 기관 유치 |
| 역사요소 | 극히 일부로 선사시대 유적으로 일부 지석묘가 발굴된바 있음 | |
| 인문, 자연환경 | 서울도심에서 동남측 25km반경 내에 위치하며 서울 강동구, 강남구와는 10km이내에 위치 남북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고 동서방향으로 6개의 지류가 연결됨 | 서울에 인접 |
| 도시정책 | | |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개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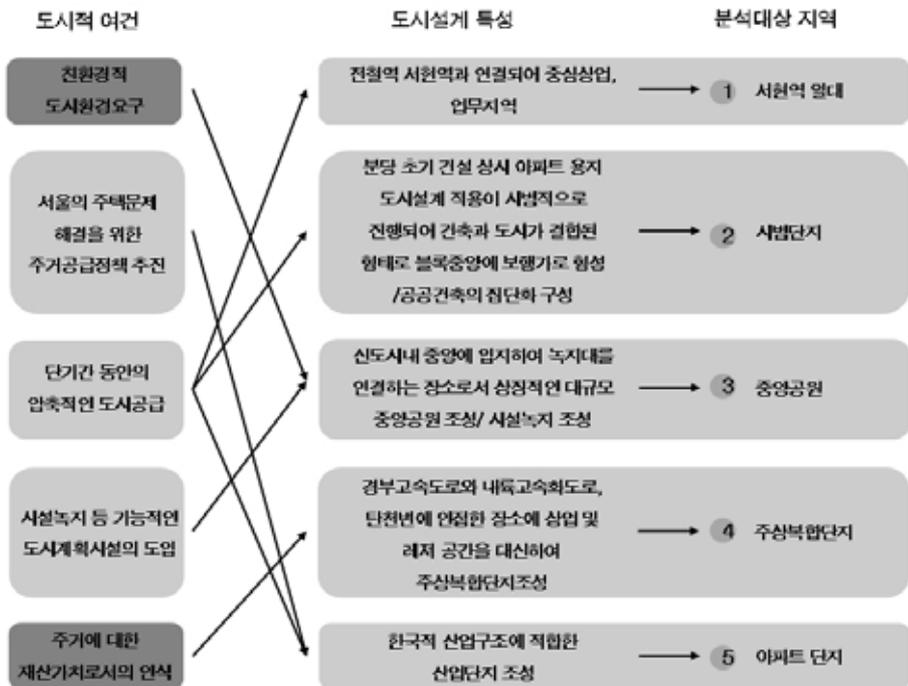
63) 안건혁 교수 인터뷰 내용(2008. 9. 10)

〈표 4.11〉 분당신도시 도시설계 및 변화과정

| | | |
|--------------|---|--|
| 구 분 | 1989~1995년 도시조성이 1차로 완료 서쪽지역 및 서남쪽의 개발이 일부진행 | 1995~2002년 도시성숙단계 서울톨게이트 주변 주상복합단지 건설 |
| 도시 공간의 주요 변화 |  |  |



〈그림 4.91〉 분당신도시 분석대상지역



〈그림 4.92〉 분당신도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2) 도시공간별 특성 분석

① 서현역일대 중심 상업, 업무지구

□ 탈산업사회의 자본의 脫走 : 상업과 자기 과시

분당은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되었으나 주요업무시설이 서울에만 집중화되어 단순한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업무용지의 비중을 높이는(8%) 도시설계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업무시설보다는 과도한 상업시설의 집중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상업건축물이 자기 과시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의 사례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에서의 도시적 삶의 패턴과 토지가 소비되는 유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의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업시설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들 상업건축물이 공공디자인이나 가로환경에 대한 사적 건축물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성됨에 따라 가장 상업적인 건축물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한국적 상업가로의 모습이 되었다.

최근, 분당 주변지역의 신도시건설로 인한 대형 상권 조성이 진행되면서 상권이 위축되자 상가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언론매체와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자체적인 간판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관이 주도하는 개선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스스로의 공간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93〉 분당신도시 서현역 상업건축물



〈그림 4.94〉 분당신도시 서현역 주변 시민참여형 가로정비 추진상황



〈그림 4.96〉 분당 서현역 상업가로



〈그림 4.95〉 분당신도시 서현역 건축물 사이공간

□ 차량과 보행의 분리

한편 신도시 설계과정에서 보차분리와 같은 근대적 논의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단지의 레벨을 조정하는 과정에 도로의 레벨보다 주택용지의 레벨을 높이는 도시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입체가로화 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분당의 서현역 주변은 이러한 상황이 극대화되어서 차량과 보행의 분리가 지반레벨의 조정뿐만 아니라 건축과 합쳐진 형태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로레벨을 0m라 하였을 때 보행자도로의 높이는 8m로 구분하였고, 저층부는 공원과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분수광장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기본구상 당시의 도시적 개념을 건축분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4.97〉 분당신도시 서현역 앞 분수광장



〈그림 4.98〉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도로/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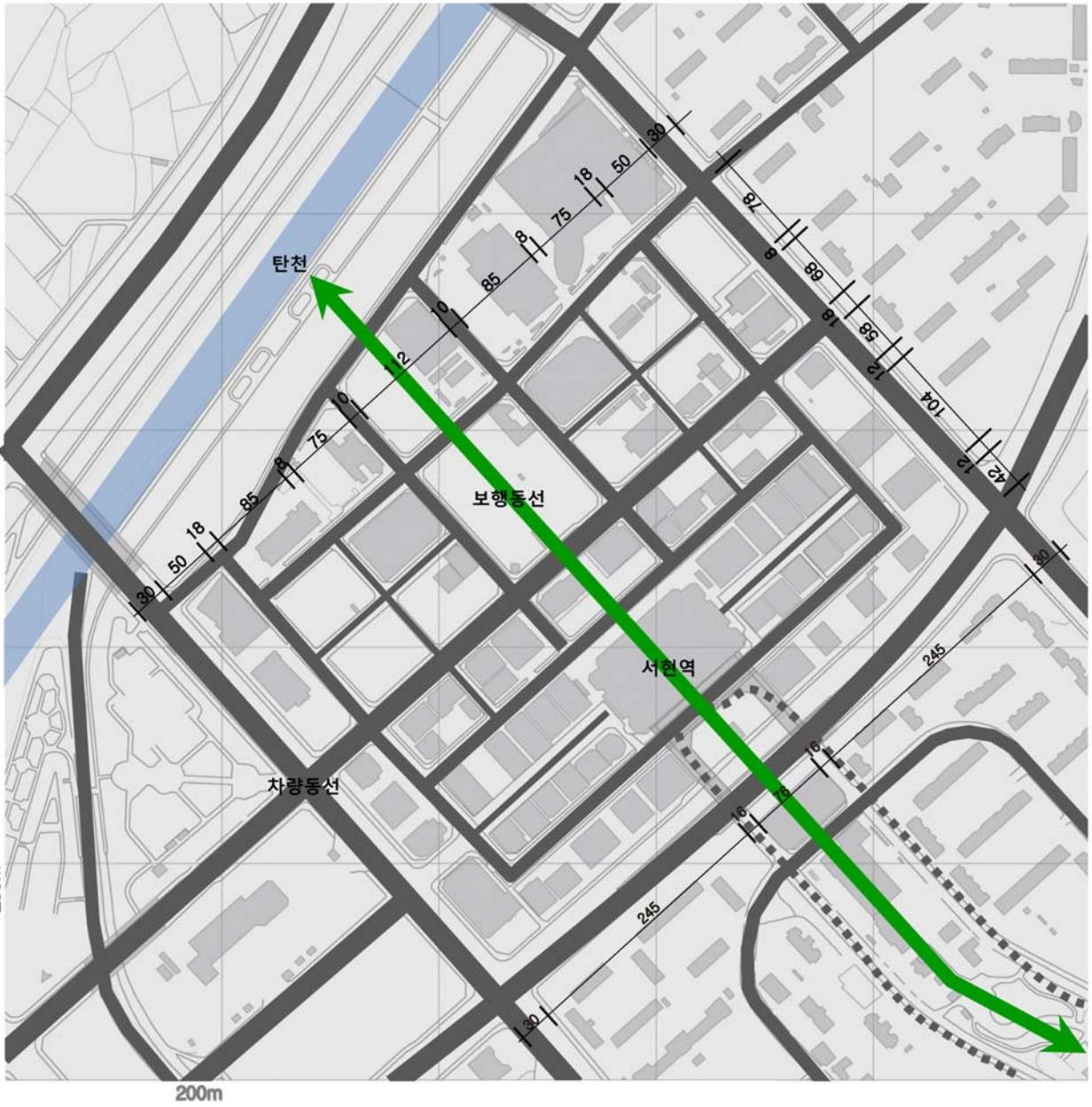
〈그림 4.99〉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공원/보행



〈그림 4.100〉 기본구상 당시 분당신도시 서현역 주변 도시설계 구상도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그림 4.101〉 분당신도시 서현역 입체가로



〈그림 4.102〉 분당신도시 서현역 일대 중심상업지구의 도시설계

② 시범단지

□ 도시·건축의 복합화 구상-보행가로와 복합커뮤니티 구상



분당시범단지는 사업초기에 도시, 건축이 복합된 방식으로 현상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보행가로, 도로축, 근린상업시설,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하는 중심서비스 축을 중심으로 순환도로가 복합화 되는 공간구조를 구상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방식에서 건설사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⁶⁴⁾

당시 분당시범단지 계획과정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설계지침으로 주요하게 제시한 것은 중심 서비스축에 대한 도시설계측면에서의 수용이었다. 당선작은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전체 도시축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30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를 도입했으며, 보차분리계획과 초고층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박공지붕 형태 계획 등의 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가 통일된 건축물 외관을 가지는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범단지의 구성은 중앙에 근린상업시설 및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이 선형으로 배치되면서 복합화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주거지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됨으로써 신도시에서의 완결된 생활권 설계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4.103〉 분당시범단지 중심부 서비스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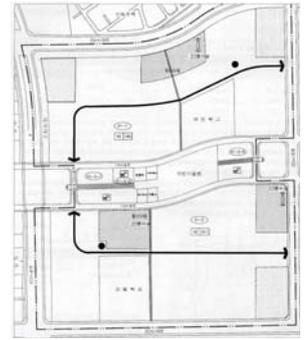
〈그림 4.104〉 서현역과 시범단지의 고층아파트

64) 분당 시범단지는 한국의 대표적 주택단지 조성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평가받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였으며, 1989년 7월 29일 실시하여 총 22개 업체에서 18작품이 응모되어 1989년 9월 9일 ‘현대산업개발’의 작품이 당선되어서 시범단지 토목공사 시공권과 주택건설구획부지 우선 선택권을 받았다.

출처 :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개발사", pp.258.



〈그림 4.106〉 분당시범단지 보행가로와 복합커뮤니티 구상



〈그림 4.105〉 분당시범단지 도시설계 지침도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 독립된 생활권 설계를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 구상

분당시범단지는 현상설계 지침을 통해 80년대에 적합한 독립된 생활권에 대한 규모 지침을 제시했는데, 대략 세대수 7,500세대와 인구 30,000명의 규모로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약 80.4만㎡(약 24.3만평)의 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이를 위해 2개의 초등학교와 각 1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시설 기준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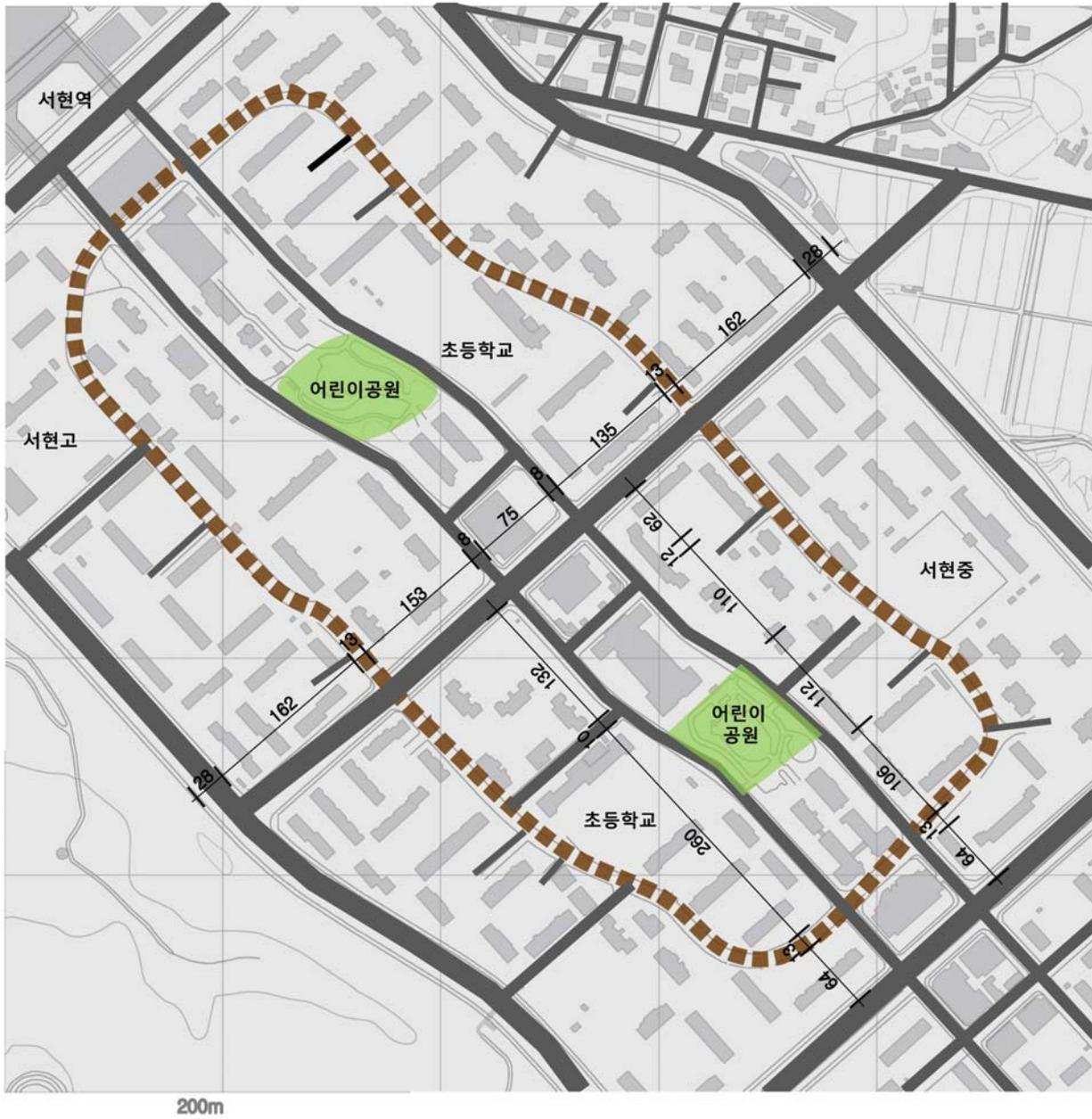
한편 아파트의 주동의 길이와 인동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지의 폭은 150~200m의 폭에서 최적화된 규모가 선정되었고, 학교와 어린이공원이 가깝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림 4.107〉 분당시범단지 복합커뮤니티



〈그림 4.108〉 분당시범단지 상업서비스축의 아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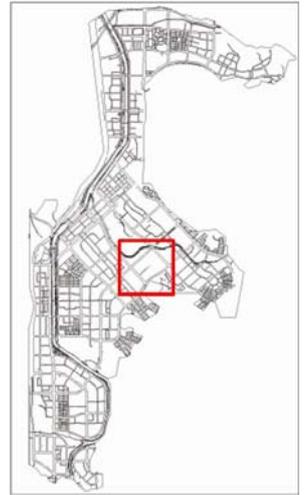
〈그림 4.109〉 분당시범단지 생활권 설계

③ 중앙공원과 시설녹지

□ 대규모 신도시 중앙공원 및 녹지네트워크 구상

분당신도시는 설계당시 중앙부에 약 47만㎡(약 14.2만평)규모의 대규모 중앙공원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신도시 도시설계과정에서 중앙공원을 배치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었다. 조성당시 중앙공원에 존재하던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미의 전승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전통조경양식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한국형 공원과 근린공원의 현대적 편의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당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적 이미지로서 정자, 연못 등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녹지네트워크 구상이 본격화되어 중앙공원과 불곡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쪽의 녹지대를 연결되는 녹지통로를 확보하고 위로는 중심상가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통하여 탄천의 녹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녹지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계획되었다. 종합적인 녹지 체계망 중 하나의 부분으로 각 주거단위와의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한 녹지체계 연결로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그린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특히 중앙공원과 청계산, 불곡산을 연결하는 녹지를 구상함으로써 도시에서 녹지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상한 것이 특징적인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4.112〉 분당신도시 중앙공원의 녹지네트워크



〈그림 4.110〉 분당신도시 중앙공원



〈그림 4.111〉 생태교량에서 바라본 분당시범단지

□ 시설녹지계획

한편, 환경의 질적 가치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해 환경보전법⁶⁵⁾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에 따라 도시설계의 내용이 협의·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당의 경우 도시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항은 시설녹지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건축물 직각배치와 같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내용들이 결정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도로변 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를 5:1 수준까지 띄우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의 기준을 감안할 때, 도시설계에서도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분당지구에서 공동주택블록의 규모와 이격거리, 평균층수(15층, 높이 약 45m)임을 고려할 때, 5:1로 이격할 경우 225m를 도로에서 이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시경관을 고려하거나 도시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한 지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만약 이 규정에 의할 경우 1개 블록 내에 1개동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을 환경처에 알리고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⁶⁾ 또한 도로변 시설녹지의 폭도 필요이상으로 많은 폭의 시설녹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도로에 시설녹지를 10~50m까지 확보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건축물의 배치도 직각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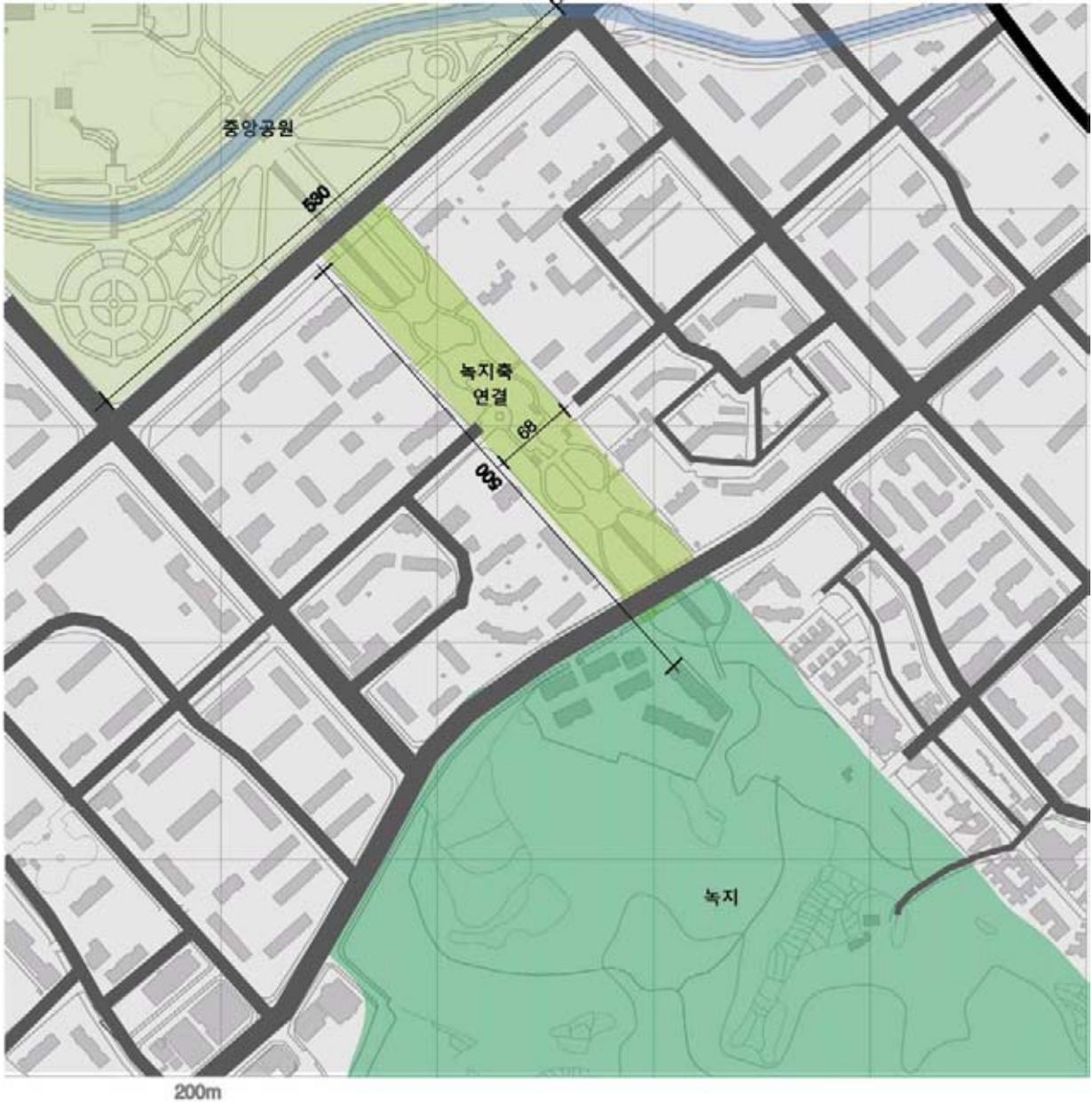
〈표 4.12〉 분당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중 미이행 항목부분

| 구 분 | 주요협의내용 | 확인결과 이행사항 | 비고 |
|-----|--|--|-----------------|
| 폐기물 | 발생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운송도로 확보 및 적환장 설치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적환장 1개소(2만 4,180m ²)확보 쓰레기 운송도로 미확보 | 미이행 (이행촉구불가) |
| 소음 | 도로변에 건설할 건물은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가 5:1 정도가 되도록 배치하여 소음을 저감하여야 함 | 도로변 건축물 이격거리 불일치로 전차 측구결과 이행계획서상 불가 통보하였음 | 미이행 (이행촉구불가) |
| | 이용시 사업지역의 소음저감대책 수립실시 방안으로 지구내 대로 2류 이상의 도로변에 시설녹지 설치, 거리이격, 아파트 직각배치, 담장 및 이중창 설치 등 제시(평가서 p.409) | 대로 1,2,3류 지역 및 기타 일부지역에 시설녹지 확보계획이 미흡하며, 건축물 이격거리가 협소함 | 미이행 (이행촉구불가) |

65) 환경보전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이 199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으로서 한국의 도시설계과정에서 도시구조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66)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개발사”, pp.216-217

이처럼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인식은 80년대 이후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도시설계에서 넓은 폭의 시설녹지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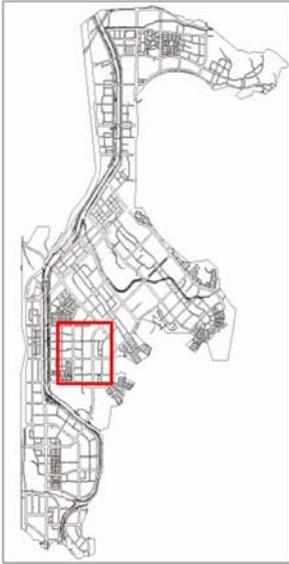
〈그림 4.113〉 분당신도시 녹지계획

④ 아파트 단지

□ 한국의 대표적 주거패턴으로 아파트의 정착

한편 분당의 경우 일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 주거패턴으로 아파트를 정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기간 내에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최적화된 아파트 단지설계의 모델이 80년대 후반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들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택지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지는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등을 고려하여 한 가구단위를 600×400m로 설정하였다. 각 생활권의 중심은 어린이공원, 학교시설로 구성되었다. 합리적인 공간사용을 위하여 최적화된 개발단위를 찾고자 노력 하였다. 아파트의 단지는 대체로 공동체성을 느끼고 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ㄷ자형으로 계획되었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단지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파트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대규모 블록단위가 여러 단지로 구분되어 건설업자에 의해 개발되어서 통일감을 가지기 위하여 종합적인 설계지침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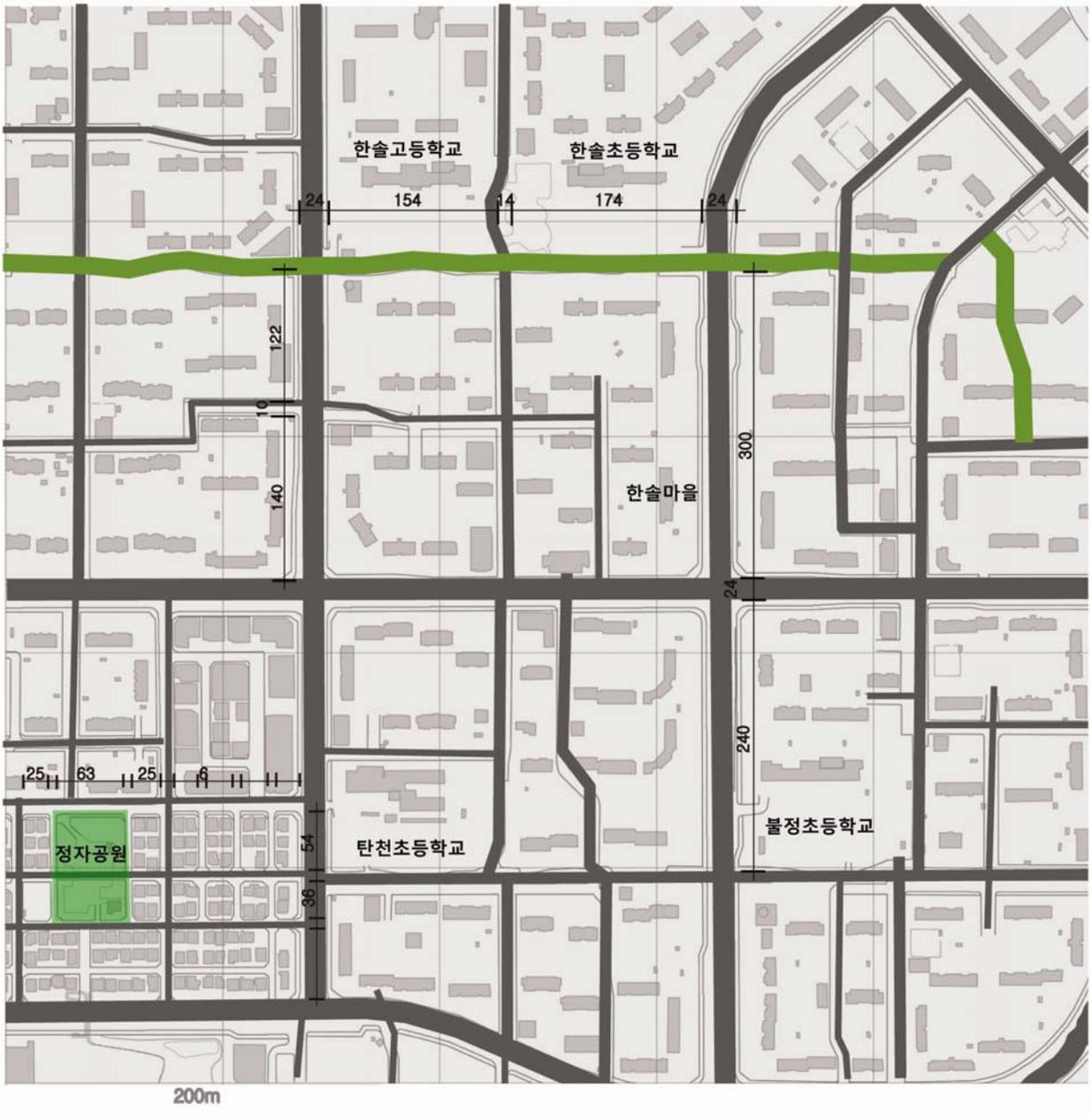
〈그림 4.114〉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사례 - 도로변



〈그림 4.115〉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사례 - 탄천변



〈그림 4.116〉 분당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도시구조 비교



〈그림 4.117〉 분당신도시 일반아파트 단지의 도시설계 패턴



⑤ 주상복합단지

□ 주거패턴의 변화 :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

주상복합단지는 분당 지역의 6개 상업지구-야탑, 서현, 수내, 정자, 미금, 오리지구- 중 하나인 정자지구에 2000년 5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확정되면서 정자역 일대에 주상복합촌이 들어서게 되었다. 정자지구는 6개의 상업지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계획당시에는 서울의 업무 분담을 위한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 용지로 계획되었으나 당초 계획 하였던 공공업무시설 16개중 8개만이 개발이 완료되어 자족도시 기능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도시설계 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집중되었다.⁶⁷⁾ 최근에는 유럽식 블록형 주거단지로 계획된 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4.118〉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그림 4.119〉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그림 4.120〉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정자지구)

〈표 4.13〉 분당신도시 상업-업무지역 배분현황

| 구 분 | | 야탑지구 | 서현지구 | 수내지구 | 정자지구 | 미금지구 | 오리지구 | 계 |
|----------|---------------------|---------|---------|---------|---------|--------|--------|-----------|
| 사업 용지 | 면적(m ²) | 70,189 | 83,860 | 54,062 | 213,214 | 62,252 | 18,864 | 507,441 |
| | 비율(%) | 13.8 | 16.5 | 10.7 | 42.0 | 13.3 | 3.7 | 100.0 |
| 업무 용지 | 면적(m ²) | 43,090 | 88,075 | 84,452 | 259,933 | 16,144 | 40,231 | 531,925 |
| | 비율(%) | 8.1 | 16.6 | 15.9 | 48.9 | 3.0 | 7.6 | 100.0 |
| 합계 | 면적(m ²) | 113,279 | 171,935 | 138,514 | 473,147 | 83,396 | 59,095 | 1,039,366 |
| | 비율(%) | 10.9 | 16.5 | 13.3 | 45.5 | 8.0 | 5.7 | 100.0 |

67) 이용성, 정석(2008.4), “참여주체 관점에서 특화거리의 활성화 요인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09~519

□ 저층부 상업시설의 도입 : 카페골목

이들 주상복합단지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과 달리 저층부를 상업시설로 계획함으로써 용도복합과 도시적 활동을 유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공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권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공간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주상복합건물들이 연이어 배치됨으로 인해서 분당만의 특별한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도시와 가로분위기를 활기차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림 4.123〉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의 도시설계 패턴



〈그림 4.121〉 분당신도시 정자지구 주상복합 현황



〈그림 4.122〉 분당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전경

4) 2000년대 신도시 도시설계 사례 : 행복도시

(1) 사례개요

□ 사례분석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설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1) 도시공간 전체의 구성을 제시한 도시구조 부분과 생활권 등 도시전체에 대한 구상부분 2) 부분 계획으로서 첫 번째 현상설계로 진행된 첫마을 부분,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용되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공모로 진행된 정부청사 블록부분, 4) 일반 생활권에 대한 부분, 5) 마지막으로 도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중앙부의 공원에 대한 설계내용을 검토한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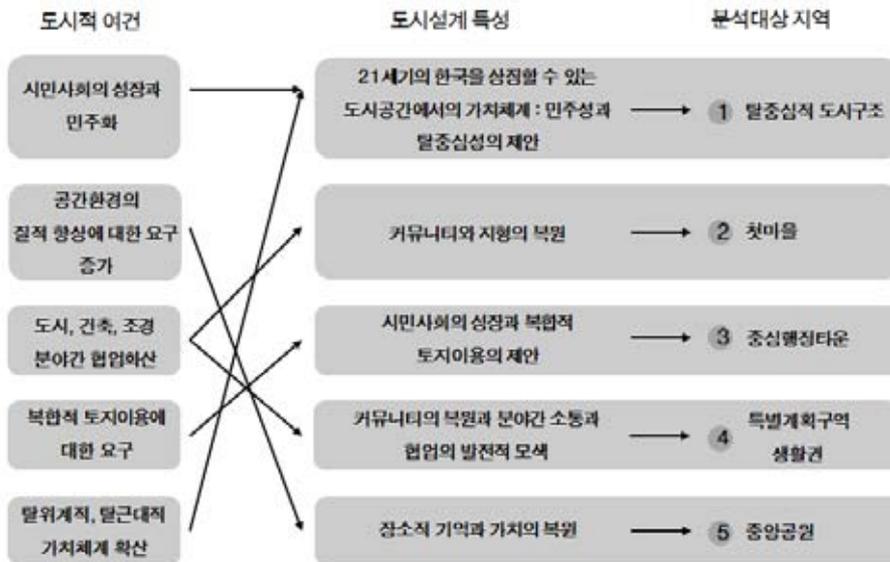
〈그림 4.124〉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당시 조감도

〈표 4.14〉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 내 용 | | 분 석 |
|----------|--|-----------------|
| 면 적 | 72.91 km ² | 서울의 약 1/30규모 |
| 계획인구 | 500,000명 | |
| 행정시설 | | 국가중심 행정기관 이전 예정 |
| 역사요소 | 산성, 향교, 사원, 정자, 묘지, 보호수목등이 산재 | |
| 인문, 자연환경 | 장남평야일대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고 있음 | |
| 현 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 중 | |

출처 : 국토연구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68) 이들은 2005년부터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계단계별로 중요한 도시설계 프로젝트들을 선정한 것이며, 향후 계획안이 변경되고 조정됨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중요하게 선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선정한다.



〈그림 4.12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적 여건과 도시설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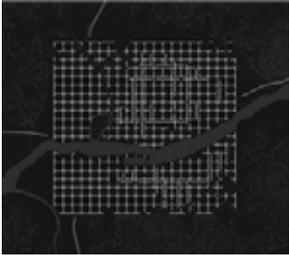


〈그림 4.126〉 행정중심복합도시 분석대상지역

(2) 도시공간별 특성 분석

① 도시구조

□ 21c 한국 도시에서의 가치체계 : 민주성과 탈중심성



〈그림 4.127〉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작
위: 뒤릭(Duerig),
아래: 아우렐리(Aurelli)



〈그림 4.128〉

행정중심복합도시 스케치
(안건혁, 민범식, 권영상 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전체의 구조와 비전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시개념국제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도시의 비전은 탈중심성과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민주성에 대한 확보였다. 심사과정에서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도시 설계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5개의 당선작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들 당선작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내용은 도시공간에서 민주성과 탈중심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안이었다.

이후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전체구조는 중앙부를 비워놓는 환상형태의 구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탈 중심적인 도시구조는 계획 당시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참여연구진 및 추진위원들⁶⁹⁾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행복도시의 도시구조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환상형태의 도시구조로 결정된 이후에는 기본·개발계획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주거공급방식과 도로체계, 공원·녹지기준과 같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법규적인 요소, 주요시설의 입지기준과 배치계획에 대한 협의, 적정한 생활권의 규모, 기존의 보전해야 하는 도시질서, 지형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 등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도시설계 기준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개발계획이 완성되었다.

도시구조와 이념이 결정된 이후 세부적인 도시설계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들 중에서 기존의 도시설계방식과 차별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1) 도시기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분산배치 2) 백두대간에서부터 연결되는 광역적인 녹지축의 보호 3) 생활권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정의 4) 인간중심의 대중교통중심체계 등이었다. (민범식, 2006)⁷⁰⁾ 이러한 새로운 도시설계 내용들은

69)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연구단장은 서울대학교 안건혁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계획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김안제 교수, 경원대학교 최병선 교수, 부산대학교 서의택 교수 등이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진애 박사, 승효상 건축가, 은영태 교수, 제해성 교수, 권용우 교수, 황희연 교수, 양병이 교수 등 도시, 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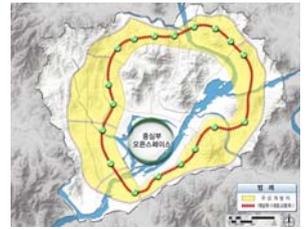
출처 : 국토해양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국토해양부

70) 민범식(2006.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 제시”, 『월간국토』, 296호, pp.6-16

한국적 도시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 측면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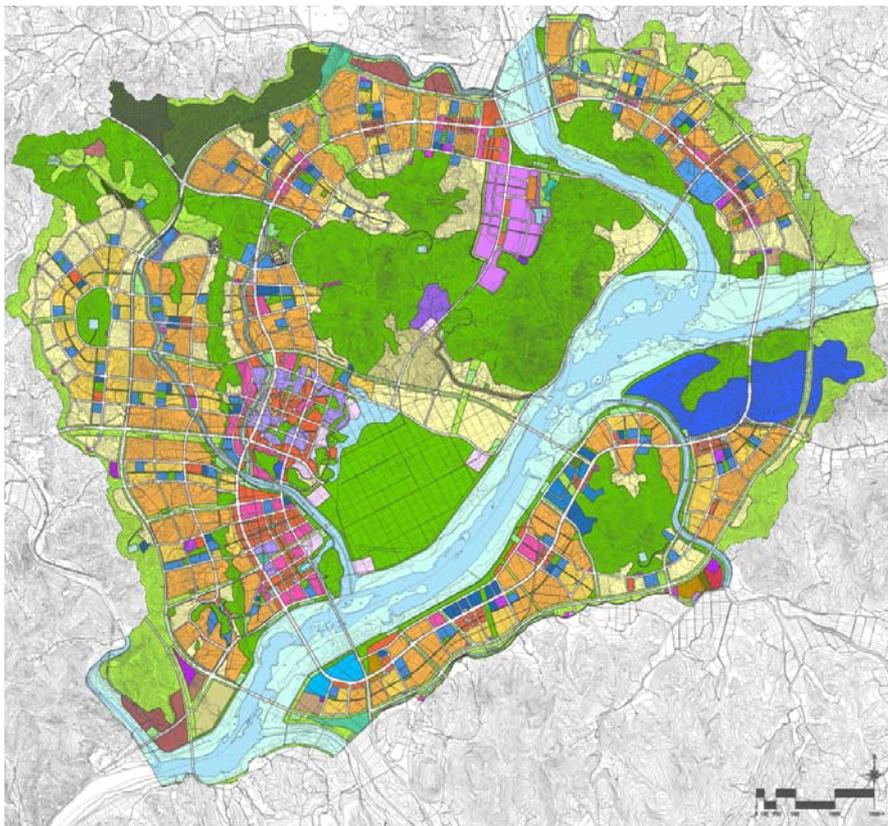
예를 들어 기능의 분산배치와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구조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민주성이나 평등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 논의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였고, 광역녹지축의 보호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요구였지만 자연지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이기도 했다. 당시의 논의에서 국사봉에서 전월산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 부분은 사실상 보존의 가치가 높지 않은 녹지축이었으나 백두대간에서부터 연결되는 광역녹지체계였기 때문에 복원형 보존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활권의 규모와 성격은 인구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커뮤니티의 복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련시설을 복합화 하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형식의 도시설계를 제안했고 교통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4.129〉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그림 4.130〉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② 첫마을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복원



이어서 부분의 계획으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진행된 첫마을에 대한 현상설계였으며, 이는 22개 생활권 중 하나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역시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설계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에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논의들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발견되는데 1)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과 2) 한국적 요소를 도입하고 마을마다 테마가 있는 공간조성 및 장소별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첫마을을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과정에 걸쳐서 주요 항목으로 제시된 부분이었는데, 결국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설계 방안과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적 배치를 요구한 것이었다.⁷¹⁾



〈그림 4.131〉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 구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2006)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지역생활 중심형 공공시설을 근린공원, 민간시설(판매시설, 병원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창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건설·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을 복합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은 당시 계획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바, 도시전체의 설계개념에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와 생활권의 완결성을 통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검토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⁷²⁾

□ 지형에 대한 복원 :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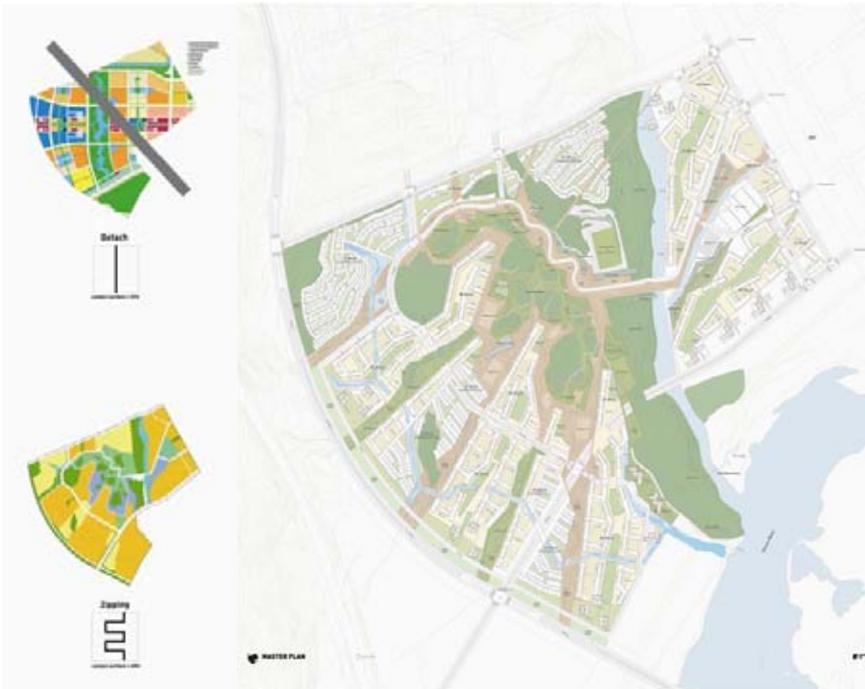
당선작(건원건축 안)의 경우 ‘열린터’ 라는 공간개념을 제시해서 생활권내에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는 제안하고 보행자 도로로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커뮤니티공간의 복원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지형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고유한 경관과 장소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땅과 건축물이 복합되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형태의 공공시설들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중앙부분의 지형을 보전함으로써 고유한 장소적 가치를 유지하고 이곳에 주민들이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대적 토지이용체계는 뒤틀려서 비정형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제시했다.

71) 대한주택공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국제설계공모 지침서-개발목표부분”, pp.18
72) 국토연구원(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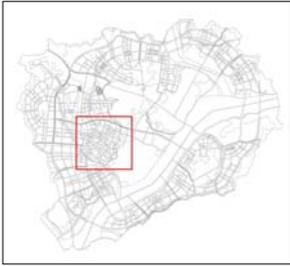


〈그림 4.132〉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계획안 - 지형에 대한 보전계획
자료: 건원건축



〈그림 4.133〉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자료: 건원건축

③ 중심행정타운 | 정부청사



□ 시민사회의 성장 : 시민친화적 행정기능

이어서 진행된 중심행정타운의 도시설계 부분 역시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첫마을의 규모보다 약 2.5배 정도 컸으며 담는 프로그램도 일반 생활권 단위의 시설들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도시단위의 문화시설을 담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고,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녹지공간과 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당시 공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행정기능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도시전체의 이념인 민주성 및 시민친화성을 도시설계를 통해 반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여건이 민주화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획된 내용이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2) 탈 중심적이고 분산·분권화되어있는 도시전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도시설계안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도시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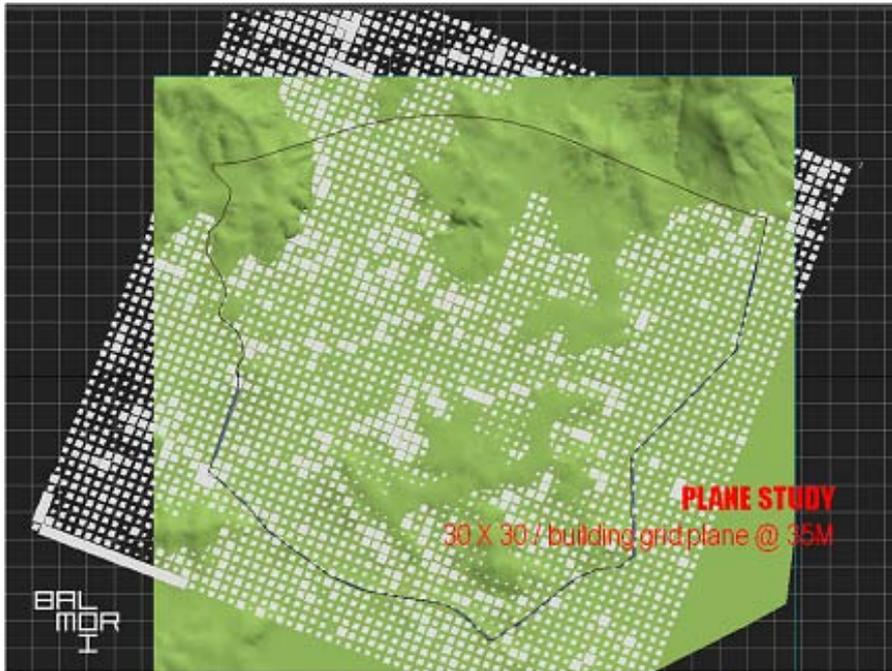
□ 근대적 조닝체계에서의 탈피 : 복합적 토지이용

이어서 마지막으로 3) 행정기능, 주거기능, 상업·업무·녹지 등이 통합적으로 복합되는 개념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근대적 토지이용계획에서 벗어나는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공모지침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도시설계의 새로운 모습을 얻고자 한 주최측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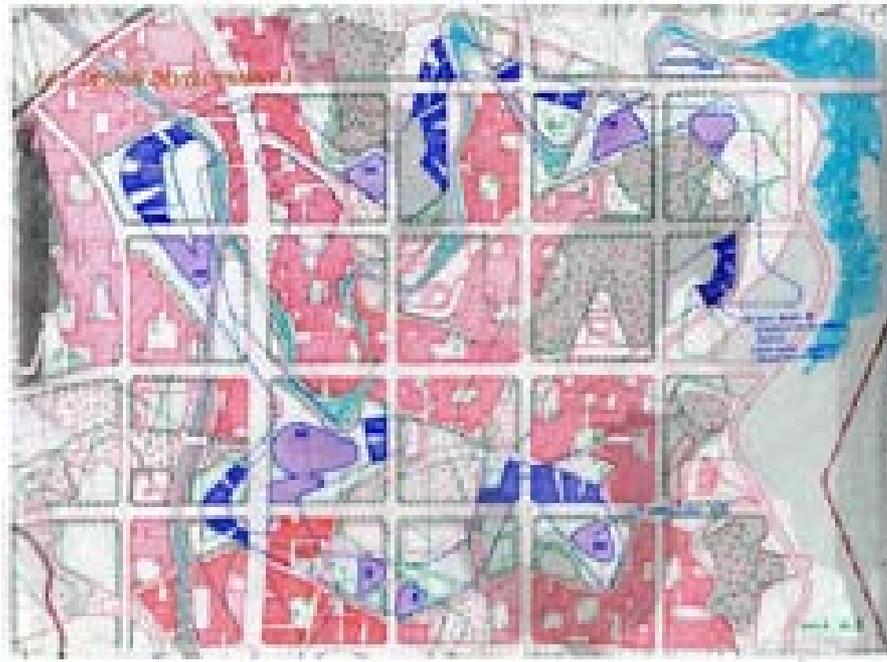
한편 이 공모의 당선작(해안+밭모리)의 경우 이러한 공모지침의 요구에 더해 몇 가지 설계 개념을 추가로 제안했는데, 첫째로는 지형과 건축물이 상호관입하는 방식으로 평평함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음’ (정부청사와 주요시설과 같은 건축적 요소)과 ‘양’ (도시가로망과 같은 인프라 체계)의 체계로 다시 구축하여 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정리하면 지형에 대한 보전과 음-양과 같은 구성 체계였는데, 일정 부분 한국의 고유한 계획체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협업체계의 구축

한편 중심행정타운에 대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서는 건축사무소와 조경설계사무소가 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지형에 대한 고려나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림 4.134〉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계획안 - 지형에 대한 보전계획
자료 : 해안건축



〈그림 4.135〉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계획안 - 음과 양의 복합
자료 : 해안건축

④ 생활권의 도시설계

□ 커뮤니티의 복원 | 복합커뮤니티

이러한 두 개의 선도적 생활권에 대한 현상설계 이후 각 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들 각 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에서는 앞서의 경우와 같은 설계공모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존의 도시설계에 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일반 생활권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필지계획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신도시에서 건설회사에 분양하는 필지와 같은 유형으로 배분되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도시를 형성해가는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아파트 선호와 건설회사의 주거생산구조가 일정부분 패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도 각 생활권별로 커뮤니티의 복원을 위한 도시설계에 있어서는 다른 신도시의 경우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학교, 공원, 동사무소 등의 시설을 인접해서 배치하고 근린상업시설과 연계한다거나 중앙부분에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형식을 □자형의 중정형으로 계획한다거나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개발계획에서부터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커뮤니티의 복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36〉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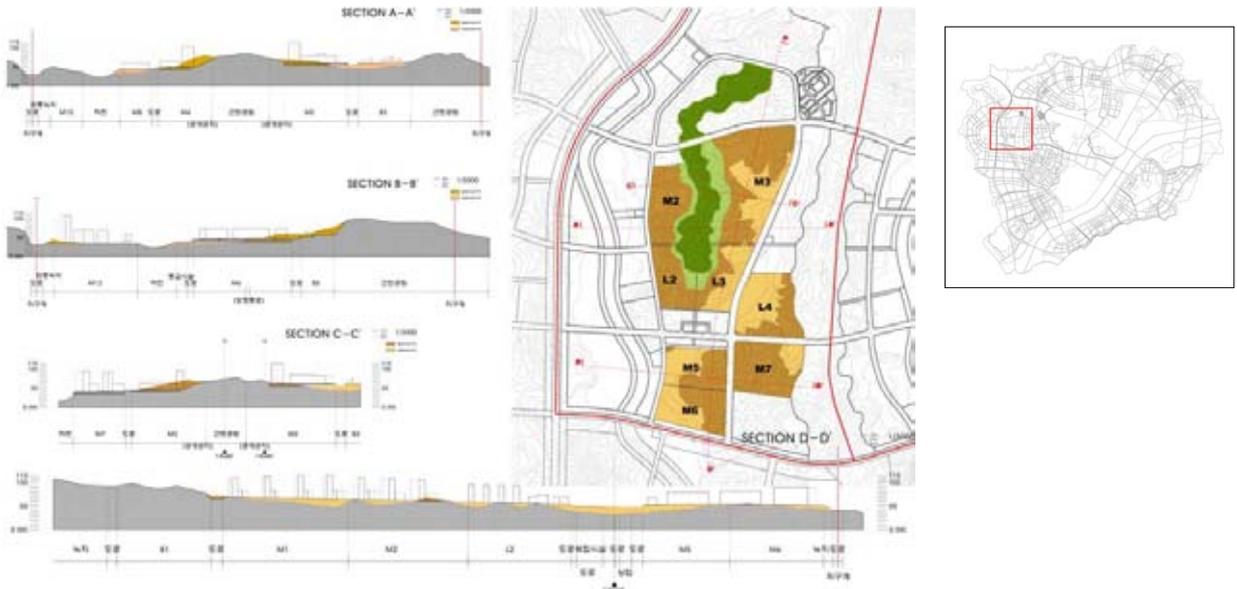


〈그림 4.137〉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 구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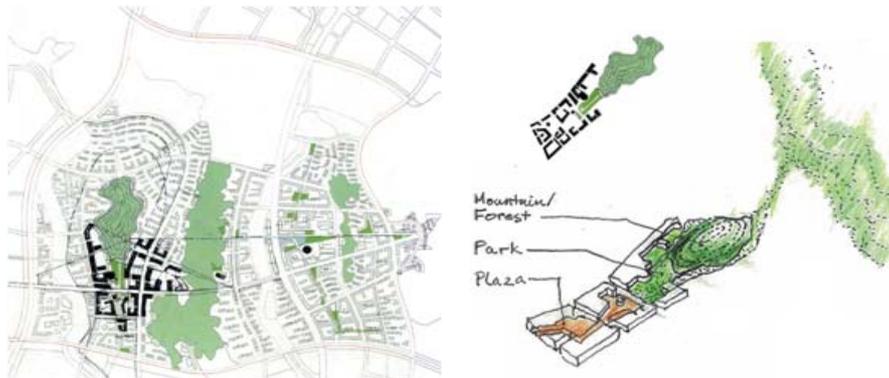


□ 분야 간의 소통과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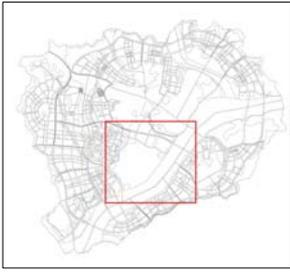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는 일반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 건축, 조경분야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발주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나 도시-건축-자연이 만들어내는 장소적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한 점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38〉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와 건축분야의 협업에 의한 장소 만들기 - 지형과 건축의 조정
자료 : 한아도시건축



〈그림 4.139〉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와 건축분야의 협업에 의한 장소 만들기 - 건축배치에 의한 블록조정
자료 : 한아도시건축



⑤ 중앙공원

□ 장소적 가치의 복원

마지막으로 도시설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구조상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 중앙녹지공원 현상설계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으며, 과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내외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설계가가 다수 참여했다.

당선작 대다수가 기존에 논의었던 대상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안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역사적 기억과 장소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당선작의 경우(acient future) 중앙부 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고, 심지어 기능적으로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제방까지도 제거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도시에서의 역사적 기억과 장소성을 최대한 복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40〉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원 현상설계 당선작(2007)
한국, 노선주(해인조경),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작품집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도시개념에서도 중앙부의 눈을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도시가 장소적 가치를 기억하기를 원했고, 이를 참여작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당선자의 설명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이 장소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하여 온 우리 자연의 일부이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도시의 한 부분이자 우리 역사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땅이 좋은 자연 환경 안에서 스스로 발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연 환경인 흙, 물, 동물, 숲과 나무 등은 인간이 만드는 문화 환경을 포함하며, 우리는 이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다. 최대한의 생산보다는 나눔을 위한 생산을, 풍요로운 소비보다는 자족적인 소비를,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한 기대들을 중시한다. 우리는 나눔과 공존이라는 오래된 지혜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담기를 희망한다”.

-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 설계개념 중 (2007)

□ 타 전문분야의 참여와 담론의 융합

한편 이 국제공모에서 최종적으로는 조경설계가 당선되었지만, 2등과 3등은 건축가가 중심이 된 팀이 당선됨으로써 각 영역간의 소통과 참여가 특징적인 경향으로 인식된다.



〈그림 4.14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3등작
- 건축가(민현준, 권영상 외) 참여, 자료 : 권영상

3

소결

지금까지 한국의 신도시와 기존도시에 걸쳐서 몇 개의 사례도시에 대해 사회적 배경과 요구조건에 따른 도시설계적 특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들 도시의 검토에서 나타난 몇 가지 도시설계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압축적 개발성장에 대한 적응

우선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 해방이후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식민통치라는 시대적 유산에서 출발해서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압축고도성장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국가론적 외적요인을 배경으로 해서 도시가 적응해왔다는 측면이다.

1960년대만 해도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중공업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서울과 위성도시의 개조, 연안권의 중공업도시, 지역거점도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제기되었고, 80년대 후반에는 수도권 부동산안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최단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파트 공화국⁷³⁾’ 이나 ‘무미건조한 도시환경’ 과 같은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도시 설계부터 개발까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국과 같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4.142〉 아파트 공화국

이처럼 소위 ‘발전국가’ 에 의한 도시화 주도과정에서 압축적 개발성장에 대응해온 도시설계적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네 개의 사례도시를 통해 살펴본 항목들은 1) 80년대 까지 진행된 도시설계에서 발견되는 근대적인 상징가로체계와 2) 토지이용패턴 및 도시기능의 분할, 3)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모의 필지규모의 선정, 4) 높아지는 도시환경의 질적개선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 교통 등의 기술적인 부분의 발달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상징가로체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도청소재지나 시청 등이 유치된 도시설계의 경우 대부분이 근대적인 상징 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창원시, 전주시, 분당에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시설계 경향에 대해서는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서구의 근대 도시설계 이론을 접한 부분이었고,

73) 발레리 줄레조(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형태적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들보다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도시의 성격에 대한 공유될 수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계획가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패턴 및 도시기능의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근대적 조닝체계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빠른 시간 내에 도시를 정비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이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필지의 규모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산이나 민간부문의 역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어온 결과가 80년대 말 분당과 같은 도시에서의 필지 규모와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창원시나 반월시와 같은 60~70년대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를 1,000~3,000평씩의 규모로 설계했던 것은 60년대 근대적 계획방식으로 보이나 실제 부동산 상황은 그러한 규모의 필지를 소비할 만한 민간부문의 여력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80~90년대 신도시의 상업용지 필지가 500~1,000평대 규모로 조정되고 도로체계도 여기에 맞게 조정되어 지금의 신도시와 같은 공간구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기술과 연구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중앙공원이나 시설녹지와 같은 개념들이 분당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압축 성장 위주의 도시적 상황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143〉 신도시 주거단지, 평촌



〈그림 4.144〉 초고층주거, 강남 태워팰리스



〈그림 4.145〉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전형적인 상업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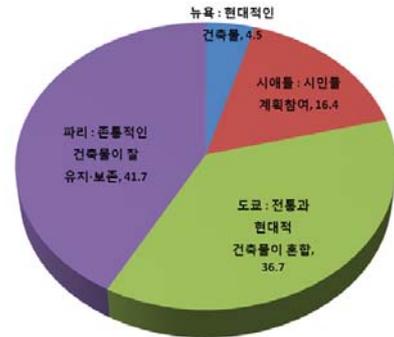
〈그림 4.146〉 분당신도시 서현역 상업건축물

□ 기존도시조직에 대한 양면적 접근

둘째로 한국 도시의 경우 근대화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전통적인 도시들이 점차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들 도시들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의 도시조직과 구조에 대해 양면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이 그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존의 도시조직은 무시되고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격자형의 필지패턴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뉴타운개발이나 도심재개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획에 참여하는 전문가나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뉴타운 지정 해제 요구는 이러한 개발압력에 대해 공동체적 삶의 가치 개선에 대한 인식변화를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설문조사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결과를 보면 서양의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 도시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동경하고 한국의 도시설계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체성이 부족한 한국의 도시공간과 비교해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외국의 사례로서 파리나 도쿄와 같이 전통적인 도시질서와 건축물이 잘 유지 보존되는 도시나 현대적인 건축물과 혼합되어 있는 도시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47〉 한국도시의 모범이 되는 외국의 사례 (일반인)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의 기존 도시조직에 대해 양면적인 해석이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전주시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1) 구성곽이나 한옥마을과 같이 상징성이 있는 경우 예전의 도시조직을 유지,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였으나, 2)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기존의 도시조직은 파괴되고 맥락에 맞지 않은 신시가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도시조직이나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그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도시들 중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

※ 한국도시의 모범이 되는 외국의 사례

〈일반인 설문조사〉

문7) 정체성이 부족한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점과 비교할 때 모범이 되는 외국의 사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파리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이 잘 유지·보존되는 도시
- ② 뉴욕과 같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지어진 도시
- ③ 도쿄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혼합된 도시
- ④ 시애틀과 같이 시민들이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는 도시



파리



뉴욕



도쿄



시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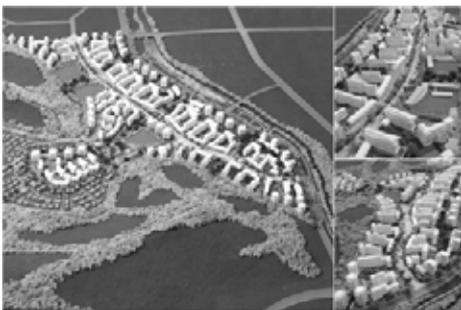
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만 하더라도 북촌이외의 전통도시질서를 가진 지역에 대해 골목길과 같은 기존조직이 유지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둘째로 외곽지역에 대해 기존 도시조직이 파괴되고 신시가지가 건설되는 경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시장상황이나 주민의식 모두 그것을 막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상황이며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도시설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안 제시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4.15〉 기존재개발수법과 소단위재개발수법 비교

| 항목 | 기존 재개발사업 | 소단위 재개발 수법 |
|-------|---------------------------------------|-------------------------------------|
| 면적 | 대규모 지향 | 소규모 지향 |
| 사업 기간 | 장기간(장기/일회적인 환경개선) | 단기가능(단기 그러나 지속적인 환경정비) |
| 소요 자원 | 정량적 접근 철거후 신개발 기존 도시조직 파괴 | 정성적 접근 가능 수복후 자력개발 기존 도시조직 유지 |
| 개발 주체 | 소수 개발업자(다수 토지소유자 소외) | 다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전원참여) |
| 개발 성격 | 신개발 지향형 개발 | 기성노후사가지 정비형 개발 |
| 개발 주체 | 대규모 건설자본 | 건물·토지 소유자 및 주민 주도 |
| 이용 용도 | 경직된 토지이용 및 건물용도 규제 | 유연한 토지이용 및 건물용도 구성 |
| 다양성 | 전면개발로 단순 | 특성별로 수법 도입 |
| 활용도 | 대규모 신개발에 적합한 개발 환경우선시대 도시개발전략으로 한계 | 환경 우선시대의 도시정비전략으로 기성사가지 정비시 장점 부각 |

출처 : 양윤재 외(2000.12),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 연구” ,도시설계, 제1권 제1호, pp.9~35



〈그림 4.148〉 기존의 도시조직을 해체한 뉴타운사례

자료 : 은평 뉴타운 1구역 설계경기, 건원



〈그림 4.149〉 철거예정인 한옥지구 (서울시 종로구)

□ 다양한 건축양식이 중첩된 도시 경관

사례 도시들의 분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도시설계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의 압축개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식과 유형의 도시·건축이 하나의 도시에 등장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년대 벽돌이나 타일외장형식의 건축물에서부터 최근 유행하는 가벼운 유리나 철망과 같은 외피를 가지는 건축물까지 섞여있는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적 도시상황에 맞는 통일된 도시경관을 이루지 못하고 각 시기와 국적의 건축유형들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비쳐질 수도 있으나, 한국의 도시를 도시적 정체성이 부족하고 국적불명의 도시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한국도시공간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수립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현재 거주도시 경관의 최대 문제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 경관의 최대 문제점으로 제일 우선으로 뽑은 것은 ‘한국고유의 특색이 없음’으로 전체 응답의 절반에 해당하는 45.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 없다’로 32.4%가 응답하였다. 각 도시별로는 주요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에서 고유의 특색이 없음을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은 한국의 도시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어왔으며, 연구대상 도시로 선정한 네 군데의 도시에서도 실제로 모두 발견되었으며, 특히 1) 도시 내에서 상업지역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 신도시나 신시가지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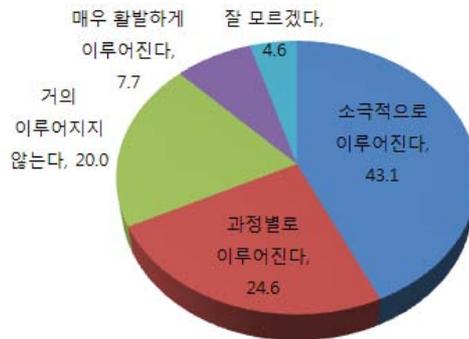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도시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도시에 적합한 도시건축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도시적으로 관리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역시 짧은 기간 내에 도시의 산업화를 이루고 그 이후에 탈산업화를 겪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문 분야 간 단절 및 소통

한국의 도시설계과정에서 찾아지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방재 등 관련 전문분야간의 소통부족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전문분야별로 소통 및 단절에 대한 인식의 폭 또한 다르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차 이들 분야 간의 협업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단순히 도시설계 과정에서 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담론과 이론에 대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국적 도시상황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75.4%로 높게 나왔다.(전문가 설문7)



〈그림 4.150〉 도시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 (전문가)

※ 도시 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 (전문가 설문조사)

- 문7)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계획과정에 걸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② 일부 과정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례도시로 선정한 도시들의 경우 1) 분당과 같이 도시와 건축분야의 분업이 시작된 시초라고 할 정도로 서로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설계의 경우 그것을 연계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 사례(시범단지)가 있는 반면 2) 창원과 같이 도시계획가가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까지 직접 컨트롤한다는 생각에서 필지규모를 대규모로 선정한 경우(중앙로)도 발견되며, 3)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도시, 건축,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면서 도시설계를 진행해낸 사례도 발견된다.



〈그림 4.151〉 창원시, 중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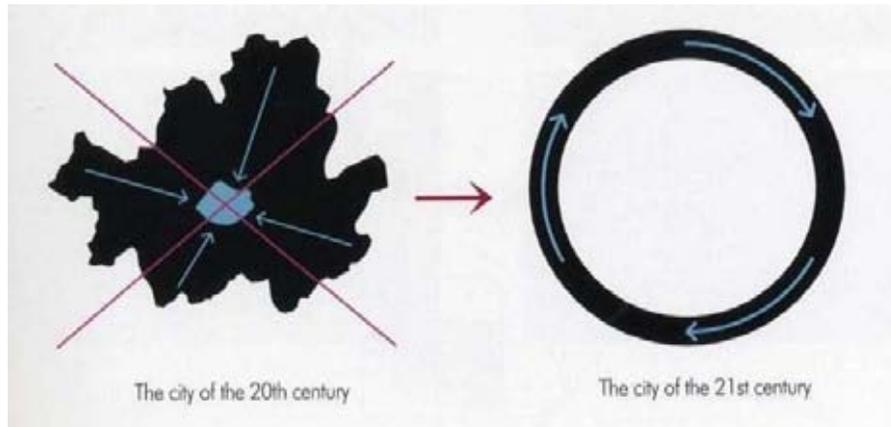
〈그림 4.152〉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그림 4.153〉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건축, 조경분야 참여
 중심행정타운(건축/조경분야의 도시참여, 좌), 중앙녹지공원(건축/도시분야의 조경참여, 우)

□ 탈 중심적 도시공간의 재편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도시화 및 집중화에 이어 자연적인 낙후 및 쇠퇴 혹은 탈산업도시로서의 성격으로서 도시공간이 점차 탈 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 전주와 같은 기존도시에서는 도시쇠퇴나 낙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현재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며 구도심의 도심쇠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 도시설계의 경우 이러한 사회상황과 이론적 담론을 기반으로 미리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림 4.15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의 개념으로서의 탈중심성 (국제공모 당선작)

이 부분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탈산업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탈 중심적 도시공간이라는 변화의 흐름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분석 요약

|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 사 례 |
|----------------------|-----------------|
| 압축적 개발성장에 대한 적응 | 창원시, 분당신도시 |
|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양면적 접근 | 전주시 |
| 도시경관에 있어서 시간적 층위의 적층 | 전주시, 창원시 |
| 전문 분야 간 단절 및 소통 | 분당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 탈 중심적 도시공간의 재편 | 행정중심복합도시 |

〈표 4.17〉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도시설계의 특성

| 도 시 | 지 역 | 도시설계의 특성 |
|------------------------------|------------------------------|-------------------------------|
| 전주시 | 원도심지역 (성곽내·외부) | 전통적 도시공간의 파괴와 근대적 도시공간의 병존 |
| | | 기존도시질서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 |
| | 한옥마을 | 한옥마을 조성 |
| | | 전통적 가로공간 개선 |
| | 신시가지 | 문화예술도시, 주민참여, 살고 싶은 도시 |
| | |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신시가지의 조성과 구시가지 쇠퇴 |
| 재래시장_ 구도심지역 | 대규모 단지계획 기법의 무미건조한 반복 | |
| | 외래상권과 재래시장, 대형유통상가와 재래시장의 충돌 | |
| 도시 확장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동 |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공간활용의 지속성 | |
| | 시청, 철도역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동 | |
| 창원시 | 경남도청과로와 중앙로 | 대규모 이벤트에 의한 도시공간의 확장 |
| | | 근대적 상징성 ; 모뉴멘탈리티 |
| | 생활권 | 건축과 결합된 대형 상업필지구상 |
| | | 근대적 근린주구계획 |
| | 창원대로 주변 | 단독주택지와 자생적 주거지 |
| 이분법적인 도시기능 체계 | | |
| 재래시장 및 상남동 상업지역 | 대규모 시설녹지 | |
| 분당 신도시 | 서현역일대 중심 상업, 업무지구 | 재래시장의 쇠퇴와 상업구조의 변화 |
| | | 견고 싶은 상업거리와 전형적인 한국적 상업건축의 복합 |
| | 시범단지 | 국가주도형 경제개발기제로서 도시설계모델 |
| | | 탈산업사회의 자본의 脫走 : 상업과 자기 과시 |
| | 중양공원과 시설녹지 | 차량과 보행의 분리 |
| 도시건축의 복합화 구상-보행가로와 복합커뮤니티 구상 | | |
| 아파트단지 | 독립된 생활권 설계를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 구상 | |
| | 대규모 신도시 중앙공원 및 녹지네트워크 구상 | |
| 주상복합단지 | 시설녹지계획 | |
| | 한국의 대표적 주거패턴으로 아파트의 정착 | |
| 행복도시 | 도시구조 | 주거패턴의 변화 :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 |
| | | 저층부 상업시설의 도입 : 카페골목 |
| | 첫마을 | 21c 한국 도시에서의 가치체계 : 민주성과 탈중심성 |
| |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복원 |
| | 중심행정타운, 정부청사 | 지형에 대한 복원 : 한국적 랜스케이프 |
| 시민사회의 성장 : 시민친화적 행정기능 | | |
| 생활권의 도시설계 | 근대적 조닝체계에서의 탈피 : 복합적 토지이용 | |
| | 전문가 협업체계의 구축 | |
| 중앙공원 | 커뮤니티의 복원, 복합커뮤니티 | |
| | 분야 간의 소통과 협업 | |
| | 장소적 가치의 복원 | |
| | 타 전문분야의 참여와 담론의 융합 | |

V.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1. 내용적 측면
2. 형식적 측면
3. 소결

(a u r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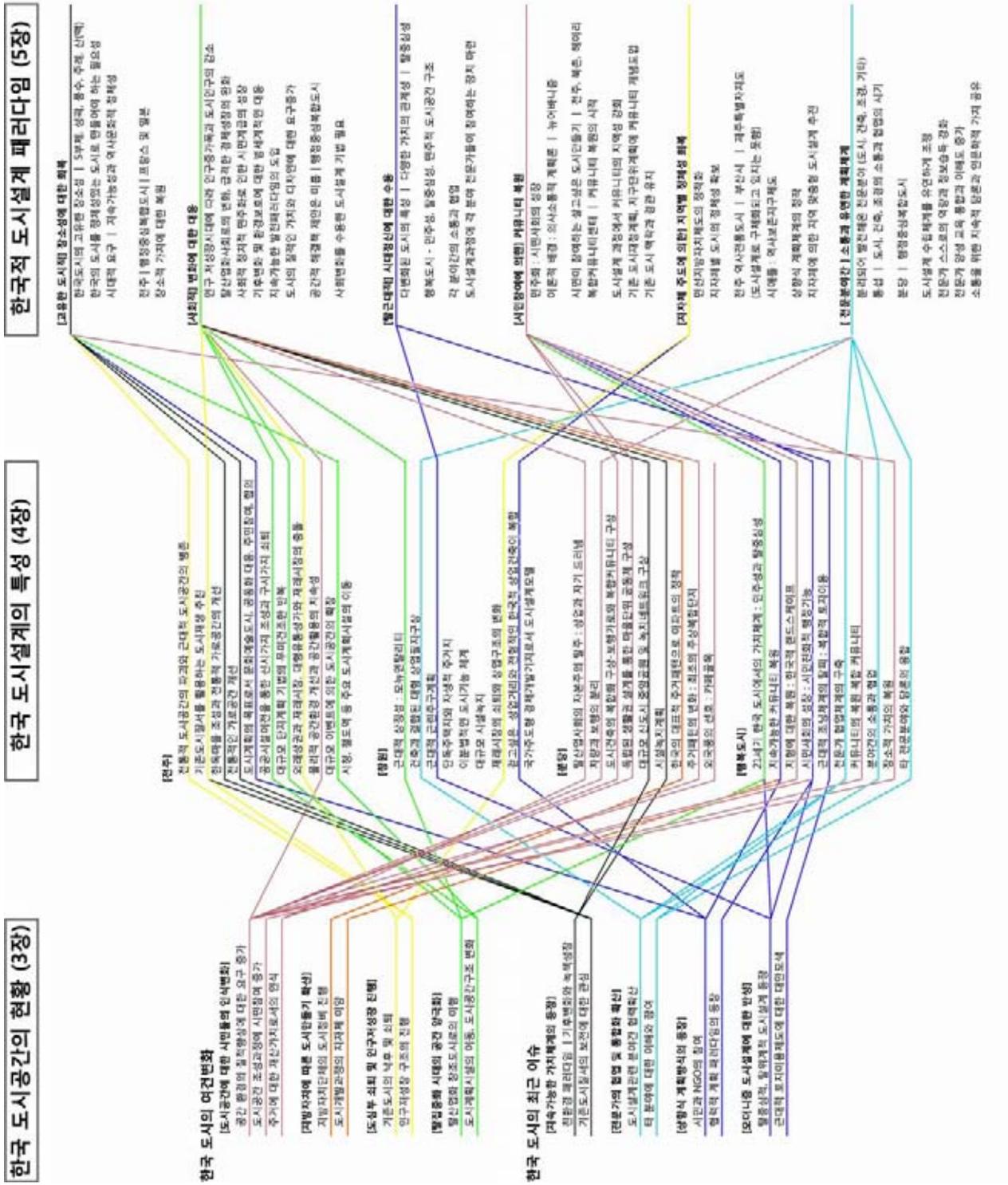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의 관련이론(2장), 한국적 도시의 상황(3장)과 한국적 도시설계의 특성(4장)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들 패러다임은 한국적 도시상황과 현실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다.

도출된 패러다임은 크게 1) 도시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 2)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 3) 탈근대 및 탈산업화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4) 커뮤니티 중심의 시민참여, 5)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계획체계로의 변화, 6) 전문분야간의 소통과 계획의 유연성 등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들 패러다임은 우선적으로 도시설계의 내용적인 측면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형식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그림 5.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 구성요소



〈그림 5.2〉 전체 연구내용

1

내용적 측면

1) (고유한 도시적) 장소성에 대한 회복

(1) 도시적 상황

한국은 역사적으로 서울, 경주와 같이 한 나라의 수도역할을 했던 도시에서부터 수원, 대구, 전주와 같이 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까지 다양한 성격과 조성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도시의 경우 일제시대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근대화과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탈 근대적 상황까지 경험하는 시간적 층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또한,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경향을 보면 60~70년대의 산업화기로서 창원, 반월과 같은 공업도시와 신행정수도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에서부터 80년대 후반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신도시, 그리고 최근 지방에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현대적인 도시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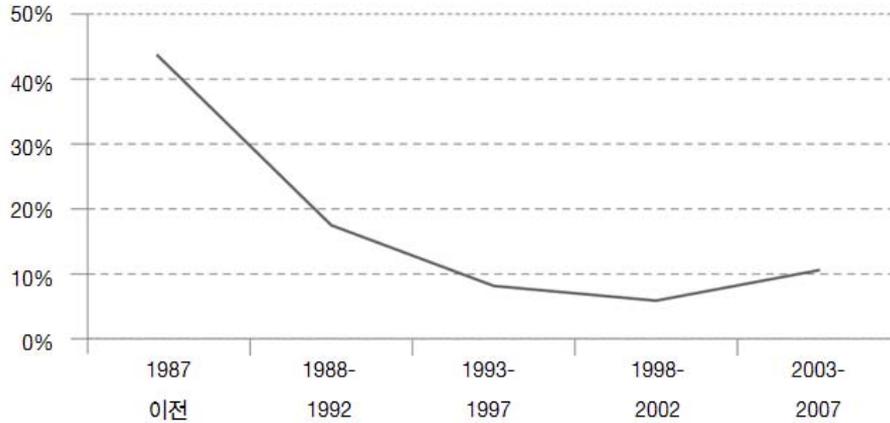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감안할 때, 한국은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갖춘 도시설계 이론 및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는 부족했다. 그것은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국가주도의 개발체계하에서 대부분의 뛰어난 학자들이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차분히 연구를 진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조사결과(권영상, 2007)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새로운 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술이나 외국설계이론의 소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⁷⁴⁾

이러한 한국 도시의 고유한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도시전체의 구조를 결정짓는 주례, 풍수와 같은 원리에서부터 5부제와 같이 정치체제와 결합된 공간적 체계구축방식, 산(맥)과 하천과 같은 자연요소와 결합된 계획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 대

74) 권영상, 염철호, 고은정(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해서 진행되어 있으나,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학문적 발전이나 사회적 합의와 인식공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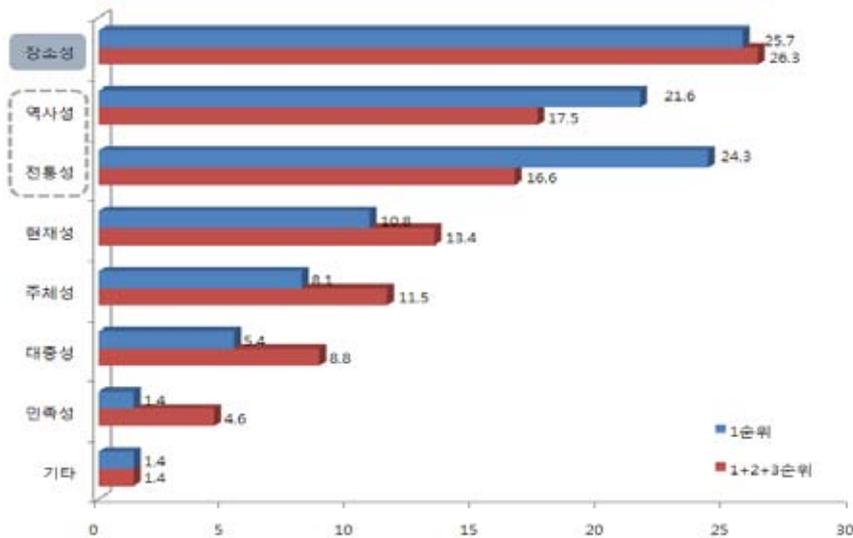
〈그림 5.3〉 도시형태 및 도시조직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현황
출처 : 권영상(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적인 것”에 대해 “장소성”(26.3%)을 “전통성”(17.6%)이나 “역사성”(16.6%)보다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국적이라는 것이 예전과 같이 전통이나 역사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하게 경험되는 한국 도시에서의 장소에 대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가 문3)

※ 한국적인 것의 개념
(전문가 설문조사)

문3) ‘한국적이다’는 개념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서에 상관없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전통성 ② 역사성
- ③ 현재성 ④ 대중성
- ⑤ 주체성 ⑥ 장소성
- ⑦ 민족성 ⑧ 기타



〈그림 5.4〉 한국적인 것의 개념 (전문가)

※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분(일반인 설문조사)

문2) 귀하는 한국 도시의 어떤 모습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와는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순위 (), ◎ 2 순위 ()

- ①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
- ②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③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볼 때
- ④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민주화운동,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 ⑤ 대학로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시의 모습을 볼 때
- ⑥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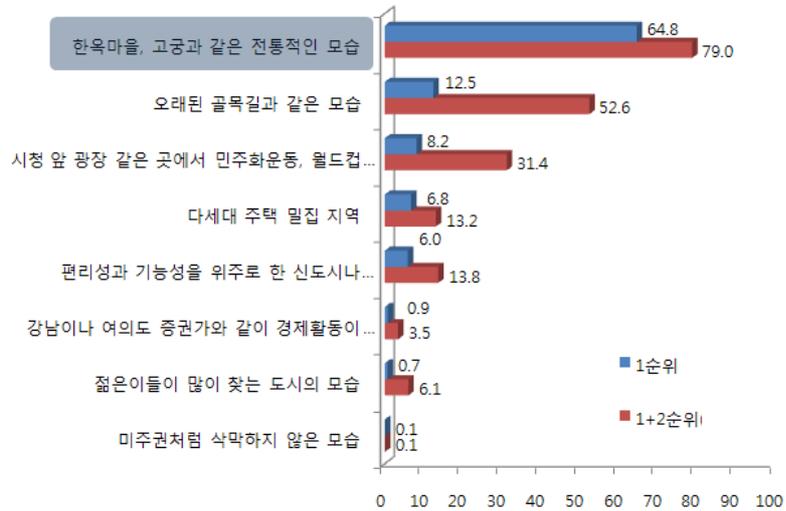
(전문가 설문조사)

문4) 귀하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 도시의 어떤 모습이 '가장 한국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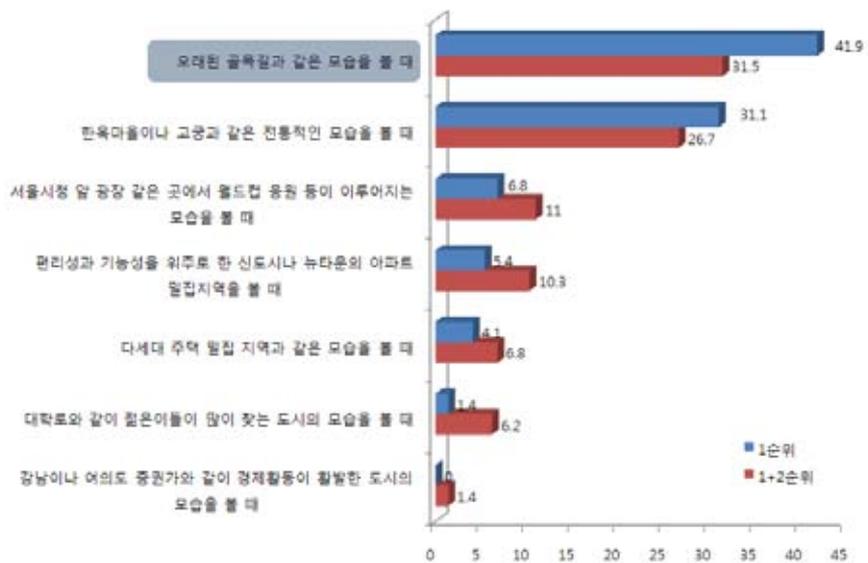
1순위 (), 2순위 ()

- ①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
- ②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③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④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볼 때
- ⑤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 ⑥ 대학로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시의 모습을 볼 때
- ⑦ 강남이나 여의도 증권가와 같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의 모습을 볼 때
- ⑧ 기타 ()

한편, 한국도시의 고유성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약간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떤 모습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는 느낌을 받느냐는 질문에 일반인은 '한옥마을, 고궁과 같은 전통적 모습' 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데 반하여(64.8%)(문2), 전문가는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 을 가장 크게 꼽고 있다.(41.9%)(문4)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의 경우 고유성에 대한 인식의 폭이 일반인의 경우 보다 넓게 형성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5〉 한국도시의 정체성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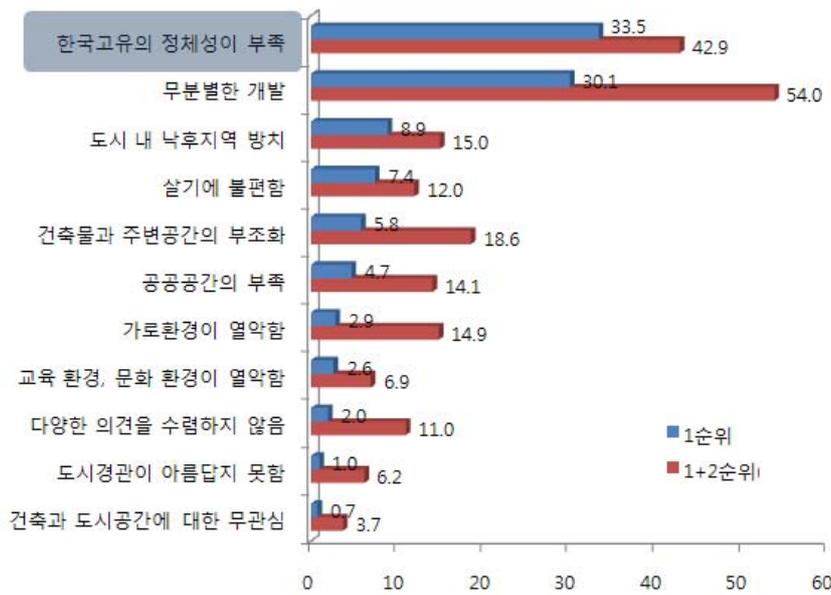


〈그림 5.6〉 한국도시의 정체성 (전문가)

이러한 상황에서 골목길이나 도로체계, 필지구조 등 기존의 도시조직이 가지는 장소로서의 가치는 미래의 도시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발압력에 밀려서 훼손되고 멸실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도시공간에 대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시공간이 미래의 도시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도시조직을 가꾸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유럽의 전통적 도시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우수성과 장소적 가치를 부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공간에서의 문제점은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유한 정체성의 부족을 가장 크게 꼽고 있으며(33.5%), 이와 비슷한 정도로 자연, 문화, 역사 환경의 파괴를 꼽는 것(30.1%)으로 조사되었다.(일반인 설문 3)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과 같은 공간적 자산의 파괴를 가장 심각하게 꼽았고(38.5%)(전문가 설문1), 그 다음이 고유한 정체성의 부족(27.7%)을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의 도시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 발굴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7〉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일반인)

※ 한국 도시의 문제점부분 (일반인 설문조사)

문3) 귀하는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순위 (), ◎ 2 순위 ()

- 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
- ② 살기에 불편함(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 ③ 도시 내 낙후지역이 방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음
- ④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 ⑤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의 열악함
- ⑥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
- ⑦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못함
- ⑧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부족함
- ⑨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이 열악함
- ⑩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함
- ⑪ 도시를 계획할 때 시민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 ⑫ 기타()

〈전문가 설문조사〉

문1) 귀하는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고유정체성이 부족
- ② 살기에 불편함(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 ③ 도시 내 낙후지역이 방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음
- ④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 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 ⑤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의 열악함
- ⑥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이 조화롭지 못함
- ⑦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못함
- ⑧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부족함
- ⑨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이 열악함
- ⑩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함
- ⑪ 도시 계획할 때 시민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 ⑫ 관련분야 전문가들(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간의 소통이 부족함

※ 한국 도시의 정체성의 필요성부분(일반인 설문조사)

문4) 한국의 도시를 다른 나라의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1)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② 한국의 도시문화를 진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 ③ 한국적 브랜드(이미지) 가치를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④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함
- ⑤ 기타()

<전문가 설문조사>

문2)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얼마만큼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떠한 도시정책 및 표현에도 우선한다.
- ② 어떠한 도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표현은 도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계획이나 설계가의 사고에 계획개념으로서 내재될 수는 있으나 실제 구현은 아주 특수한 상징적 대상 이외에는 부정적이다.
- ⑤ 현재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배제되어야 할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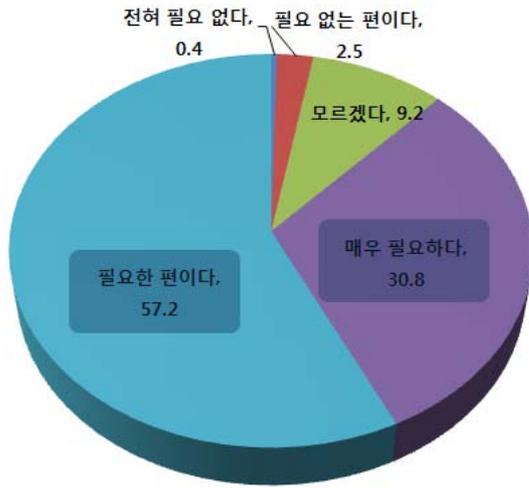


<그림 5.8>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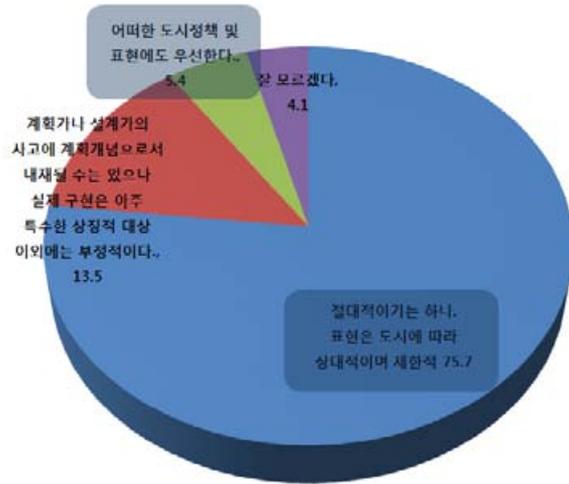
또한 이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도시를 다른 나라의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한 비중은 응답자 중의 88.0%에 달했다(일반인 설문4). 또한 전문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81.1%) (전문가 설문2)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기존의 전통을 무턱대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49.4%)처럼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를 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반인 설문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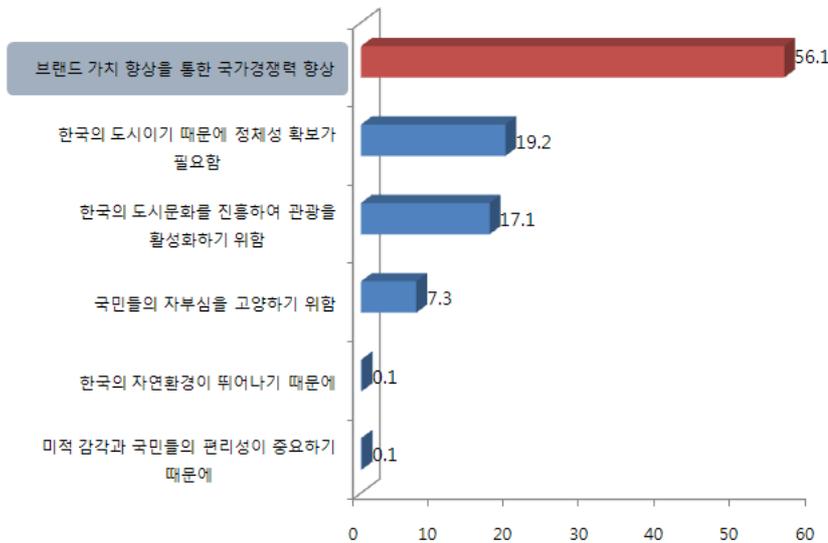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기존의 도시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새로 설계되는 몇몇 신도시에서 고유한 장소성을 회복하고 예전의 도시공간의 질서를 현재의 도시공간에 구현하고자하는 시도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것은 크게는 1) 도시에 대한 특화전략으로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2)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일 수도 있었으나, 기존의 개발위주의 도시설계에 대한 관심에서 한발 물러서서 우리들 자신의 공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0〉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 필요성의 정도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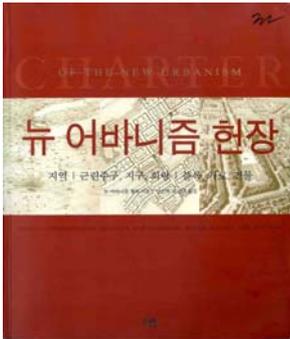


〈그림 5.9〉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 필요성의 정도 (전문가)



〈그림 5.11〉 한국도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 (일반인)

한편 이러한 도시별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문제는 모더니즘 도시이론의 반성으로 나타난 포스트모던 도시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이 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는 대표적인 배경은 1) 뉴어바니즘과 2)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2〉 뉴 어바니즘 헌장(1996)



〈그림 5.13〉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 서밋, 2002)

모더니즘 도시건축이념이 1942년의 아테네헌장(Charter of Athens)을 통해 선언된 것에 대비해서 포스트모던 도시건축이념으로서 1996년에 발표된 뉴 어바니즘 헌장(Charter of New Urbanism)에서는 앞으로의 도시설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도시 형태는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전통도시 및 마을의 설계수법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비록 뉴어바니즘과 관련된 초기 도시설계 작품들이 대부분 교외지역의 신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최근 많은 부분이 도시재생이나 기존 도심부의 재정비 사업에 집중되면서 뉴어바니즘의 논의가 이처럼 기존도시의 도시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낙후된 도시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Walters and Brown, 2004; Deitrick and Ellis, 2004)

또한 앞으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정의 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주요 논의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균형 잡힌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역사지구의 지속성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역사지구의 보전을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촉매로 보는 입장에서 다시금 환경과 주거문제로 지속성을 가진 형태로 변화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장소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늘어가고 있다. (Wallace, 1997) 한국의 북촌과 전주가 점차 상업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소의 가치에 대해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은 기존의 도시설계에 있어서 양적인 ‘공간확보’의 측면에서 질적인 ‘장소조성’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는 ‘현대도시의 일상생활이 생산성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할 때, 인간적 관계는 퇴보하고 인간성의 소외가 야기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양적 공간확보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간이론가 슐츠(C. Norberg-Schulz)는 ‘장소란 곧 구체적 실존으로서 존재적 의미를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지속가능성⁷⁵⁾의 확보에 대

75)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념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시작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6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적 실현을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10년 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서밋)에서 보편적인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동"으로서의 ①경제적 발전, ②사회적 발전, ③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이후 문화다양성이 네 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것은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

한 요구는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역사·문화적 지속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반영을 담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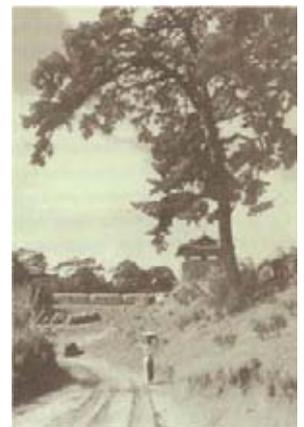
(2) 도시설계 사례

지금까지 한국의 고유한 장소성과 조성원리에 대한 탐구는 건축과 조경분야에서 주로 진행된 경험이 있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최근 들어서는 모더니즘과 같은 외국의 설계이론이나 디자인 경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국 본연의 조형원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경분야에서 최근 들어 한국적 조경설계에 대한 방향모색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이미 이규목(1922)은 1992년에 발간된 **현대한국조경작품집**의 서문을 통해 한국 현대 조경이 '전통조경양식'과 '옴스테드 양식', '모더니즘'이라는 세 가지 갈래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옴스테드 양식과 모더니즘이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묶으면, 결국 한국 조경은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만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조경은 '전통적인 것'과 '국제적인 상황(사조)'가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화'하는 자생적 진화과정으로 '대안적 한국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⁶⁾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도시의 고유한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1) 도시공간이 가지는 장소적 가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전주시의 사례와 2) 고유한 설계어휘의 개발에 대한 추구라는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설계과정을 들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는 기존의 성곽이 있던 지역과 한옥마을이 위치한 지역,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도시구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골목길의 가치들이 도시자산으로 있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치의 복원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



(그림 5.14) 전통적인 경관과 현대 조경에서의 재현 사례 (정영선)
자료 : 조경진

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연합 분과에는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Demographics, 농업Agriculture, 에너지Energy, 기후변화 Climate Change와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부터 주거환경Human Settlements, 교육 Education and Awareness, 산업Industry, 기술Technology, 과학Science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

76) 최정민(2008),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pp.91,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그림 5.15〉 전주시 한옥마을
출처: 구글 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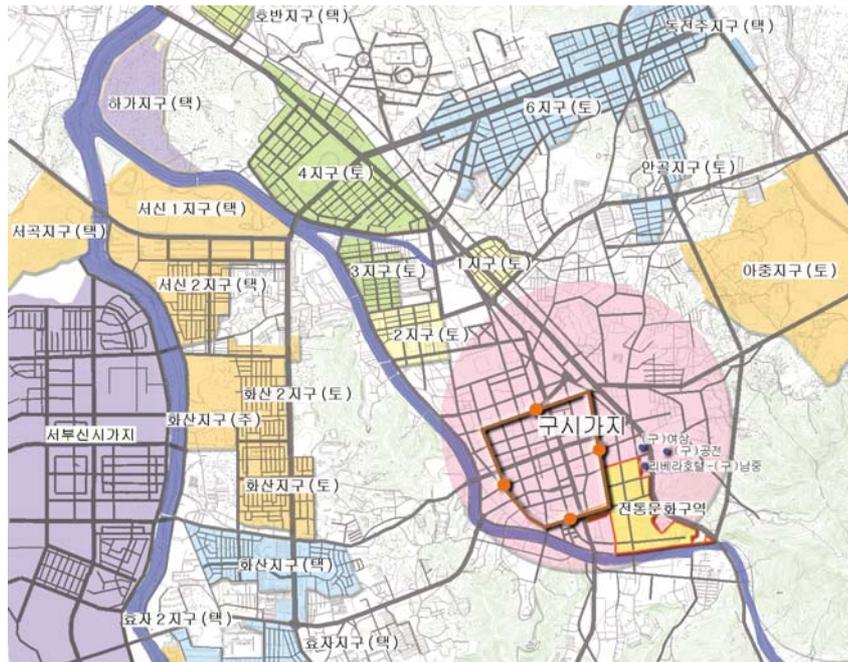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도시의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지는 못하고 일부 구도심 지역에 한정되고는 있으나 장소적 가치에 대한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 성곽내의 몇몇 가로에 대한 수복형 가로정비사업을 통해 골목길로서의 장소성을 복원하고 걷고 싶은 가로로 조성한다거나, 기존의 성곽길에 대한 기억을 유지시키는 등의 내용들을 통해 기존의 도시조직을 보전하고 있고 또한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행정력을 통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기존의 도시조직이 개발압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설계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5.16〉 전주시 태조로



〈그림 5.17〉 전주시
걷고 싶은 거리



〈그림 5.18〉 전주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현황
출처 : 전주시(2000.12),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는 현상설계 단계에서 이미 “도시적 한국성”을 작품에 구현하도록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사진행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무엇이 한국적인 도시공간을 현대화한 작품방식인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다양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해석은 ‘현재적 가치에서의 (도시)공간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문제’였으며, 그 결과 공간의 민주성과 자연과의 공유가 현재에 있어서의 도시적 한국성으로 정리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단계에서도 1) 기존에 있었던 마을 조직을 유지, 참신하면서 새로운 도시조직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논의라든가 2) 전통적인 풍

수의 관점에서 중요청사의 입지 등이 논의되고 3)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방식의 주거유형과 이를 위한 필지 및 도로패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4) 전통적인 커뮤니티를 복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도입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림 5.19〉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1 - 복잡성, 동시대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Jurgen Kunzenmann - 「City in Flow」



〈그림 5.20〉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2 - 민주성, 탈근대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Andrea Perea - 「City of the Thousand Cities」



〈그림 5.21〉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3 - 풍수(전통적 원리)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최현규 - 「비보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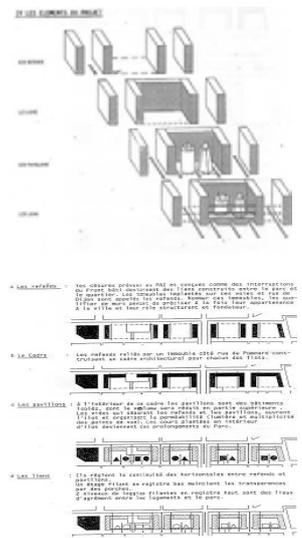
〈그림 5.22〉 한국적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 4 - 전통도시구조, 서울, 5부, 풍수, 중심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이인원+무영 - 「open park city 開園」

한편 외국의 경우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 도시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견되는데, 공공기관과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혹은 설계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도시조직과 경관을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경우 협의개발지구(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와 같은 도시설계 제도 및 정책을 통해 기존의 도시질서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도시설계 과정에서도 주변도시질서를 반영하는 방식의 설계안들이 진행되고 있다.⁷⁷⁾

일례로 파리 베르시(Bercy)지구의 경우 파리의 전통적 도시 형태를 재해석해서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인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의 도시설계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도시설계 지침화해서 건축가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다.

또한 파리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최대 도시개발지역인 파리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ZAC de Paris Rive Gauche)의 도시설계 과정에서도 그 중의 일부인 마세나 구역(Quartier Masséna)의 도시현상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리의 전통적 특수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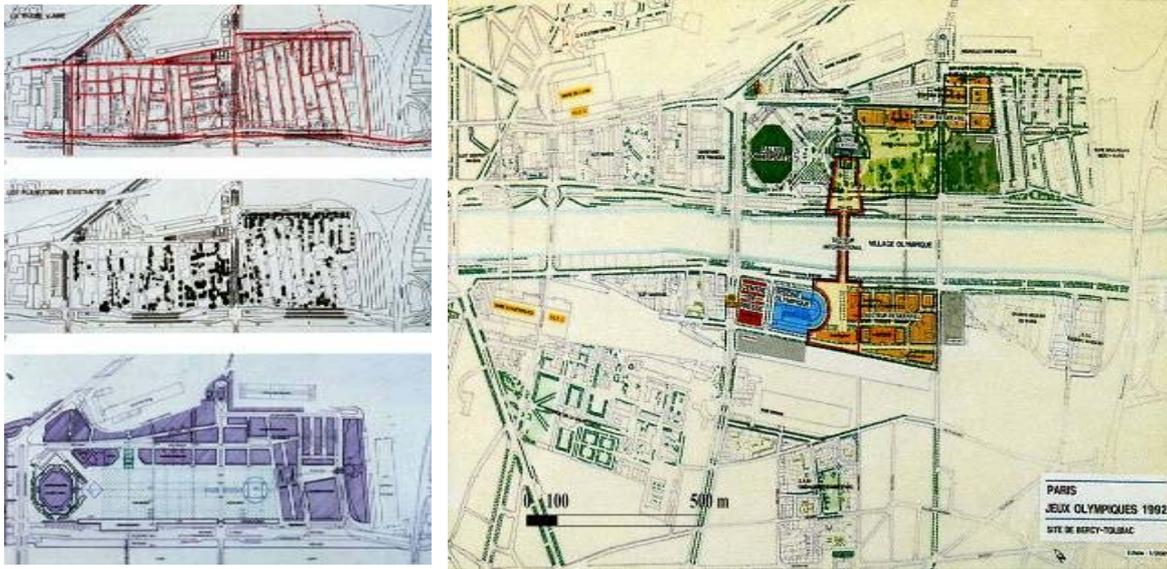


〈그림 5.23〉 파리의 고유한 도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설계 사례 - Bercy지구 지침요소

〈표 5.1〉 파리시 마세나 구역의 전통적 특수성과 장소적 정체성 구현사례 (현상설계안)

| 장소의 맥락에 맞는 도시 형태의 적응을 예상하면서 도시 형태를 만드는 방식 | | | 대지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장소의 기억을 담으면서 현실적이고 전반적인 고찰을 중요시하는 방식 | |
|---|--------------------------|-----------------------------------|--|---|
| 트뢰텔-가르시아 스트뢰텔 | 포잡팍, OMA-쿨하스 | 레몽, 발로드-피스트르, 지라르-이스라엘 | 위에, 카스트로 | 마텍, 이보스 |
| 도시적인 생산의 메카니즘에 기반 | 건물 볼륨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논리를 강조 | 도시 구성 기반으로서 기초적인 참조의 형태를 증가시키고 변형 | 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관심 | 기존 현황을 고려하면서도 땅의 조건들을 다른 해독에서 출발한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 |

77) 프랑스 파리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2.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를 참고하기 바람



〈그림 5.24〉 전통도시조직의 검토를 통한 현대적 적용 : 프랑스 파리의 사례
 좌 : 베르시 구역 도시조직구성을 위한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의 분석연구, 1980년대 중반
 우 : 199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가 제시한 마스터 플랜, 1985
 (자세한 내용은 부록 1-2.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 참고)



〈그림 5.25〉 파리의 고유한 도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설계 사례
 - 마세나지구 현상설계안 : 위에 팀(Huet, Wirtz), 포잠파크 팀(De Portzamparc, Huau)

또한 일본 교토시에서 진행된 마찌야 필지에 대한 도시적인 관점에서의 설계현상설계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주시의 상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교토시에서 진행된 현상설계는 기존의 마찌야 밀집지역에 있는 1개 마찌야 규모의 빈 공지에 “과거의 마찌야가 가지는 도시적 적응방식과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현대의 주택”을 현상설계 하는 것이었으며, 지역주민, 관련교수, 학자, 건축가들이 모두 모여서 새로운 주거형식에 대해 협의하면서 진행된 현상설계였으며, 가장 교토의 마찌야 거리에 적합한 현대의 주거형식을 제안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토 마찌야 주택 현상공모 수상작(외부)

교토 마찌야 주택 현상공모 수상작(내부)

〈그림 5.26〉 일본 마찌야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현상공모

출처 : 국토해양부(2008),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건축 연구”,
권영상 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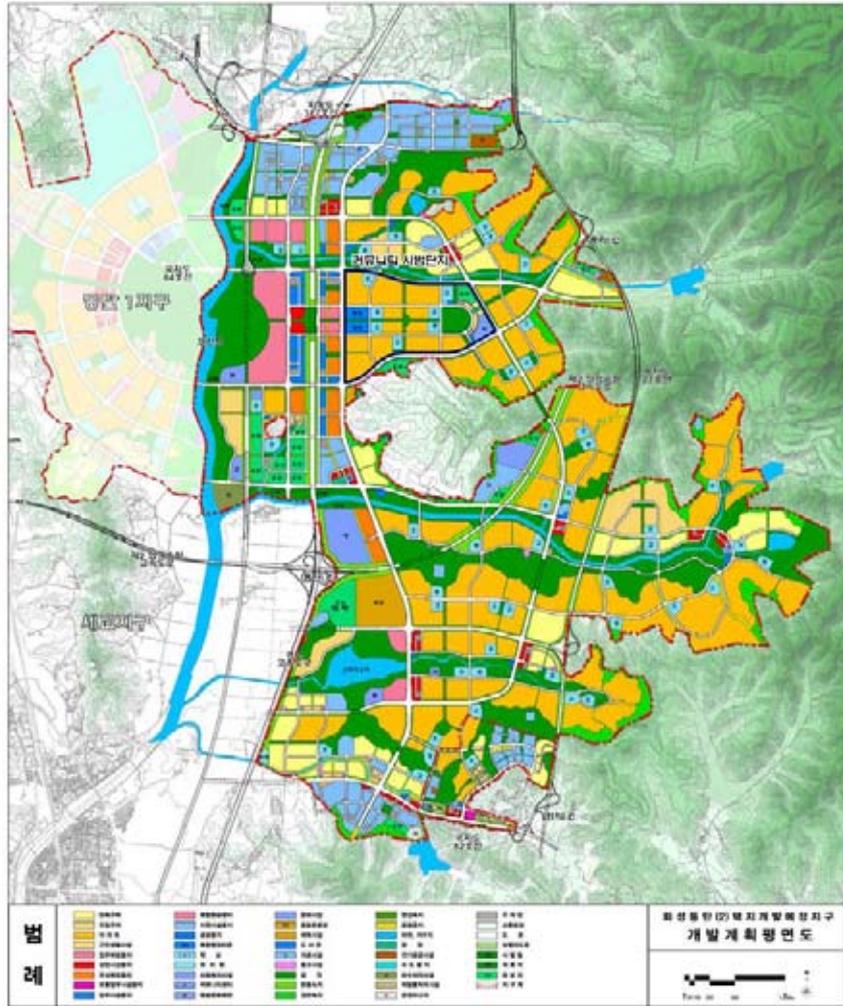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공간에서 장소적 가치가 지니는 의미는 단지 도시적 자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가치, 도시환경의 지속성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서도 그 의미가 점차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에서 도시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구조와 장소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 활성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의 산업화·대중화 연구개발 사업에는 전통적인 마을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동탄2 신도시의 경우 도시특화전략으로서 ‘한국적 뉴어바니즘(Korean New Urbanism)’의 구현이 목표로 설정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78)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장소적 가치에 대한 복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Design Point 2. 한국적 도시이미지와 정체성 있는 주거단지 : 내외부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한국의 전통과 활력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재창출하고 한국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도시랜드를 창출할 것” 79)



〈그림 5.27〉 한국적 신도시를 주제로 한 현상설계(2008)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커뮤니티 시범단지 부분

78) 한국토지공사(2008), 동탄2 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마스터플랜, 현상설계 공모지침서,
79) 동탄2 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마스터 플랜 현상설계 공모지침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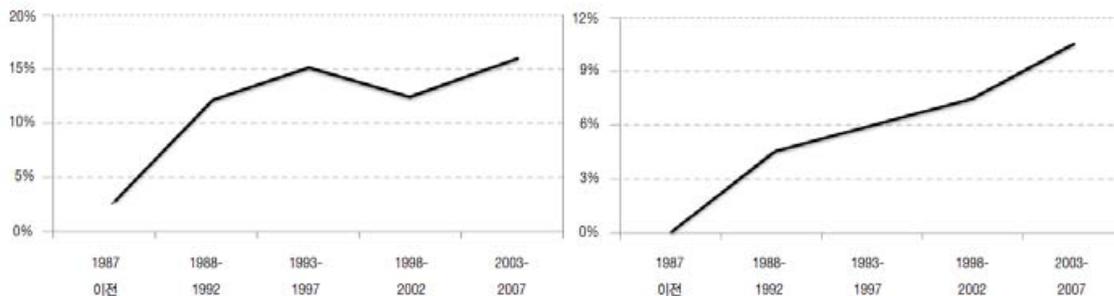
2)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1) 도시적 상황

한국의 도시는 해방이후 약 50년 동안 국가주도의 발전체계와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과정에서 도시구조의 근대화를 이루어왔다. 비록 이 당시에 조성된 도시공간들이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무미건조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도시라는 것이 그 사회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여건의 총체적인 반영체계라고 할 때, 당시의 국가주도 개발체계를 반영하는 도시적 상황이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도시적 상황들은 지금까지의 개발시기와는 다른 사회적 변화에 놓이게 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인구 저성장시대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인구의 감소, 2) 탈산업화 사회로의 변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의 둔화, 3) 사회적·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시민계급의 성장, 4)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 5) 지속가능한 발전패러다임의 도입 등 90년대 이후 들어 점차 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는 변화로의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6) 도시의 질적인 가치와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고려가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곧 도시공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인구의 감소, 도심부 쇠퇴, 학교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쇠퇴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경향은 앞으로 도시 내에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공공시설 등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시재생이나 경관/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증한다.⁸⁰⁾



〈그림 5.28〉 관련주제분야별 연구수 변화
 좌 : 도시경관 및 이미지, 우 :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출처 : 권영상(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80) 권영상 외(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그림 5.29〉 일본 도쿄시 건축 옥상녹화 사례

한편 탈산업화 사회로의 전환은 서울의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제조업 산업단지가 서비스산업 단지로 변화되는 등의 도시구조 재편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계급의 성장은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간정책에서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유지시킬 것이며 예를 들어 공공공간에 대한 확충이나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의 보존에 대한 요구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일례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1순위로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36.4%)과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15%)을 뽑고 있다.(전문가 설문5)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O₂ 절감대책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 등은 도시에 있어서 녹지나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경제, 산업, 도시의 밀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과 옥상녹화 등의 건축물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한국의 도시에서도 진행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도시설계 측면에서의 대응은 언젠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공간조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관심대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문5)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가,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
- ②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 ③ 학교, 동네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소규모 공동체시설
- ④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 ⑤ 초고층 빌딩, 박물관과 같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 ⑥ 역사적인 건축문화재 (ex. 고궁, 서울역, 국회의사당 등)
- ⑦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 ⑧ 가로등, 표지판, 보도, 벤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 ⑨ 골목길과 같은 기존 공간에 대한 보존
- ⑩ 기타 ()



〈그림 5.30〉 최근 도시공간조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관심대상 분야 (전문가)

(2) 도시설계 사례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창원이나 분당과 같은 경우도 각각 조성되는 시점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슈였던 산업화 및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적의 설계방식을 제시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구저성장이나 탈산업화와 같은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간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진주시를 비롯하여 도심부의 인구감소와 쇠퇴라는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산업공단의 이전이나 원도심 쇠퇴와 같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논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도시설계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만간 창원이나 분당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쇠퇴가 진행될 경우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학교시설이나 기존의 인구구조에 맞추어서 계획되어 있는 주택평형공급 등은 변화의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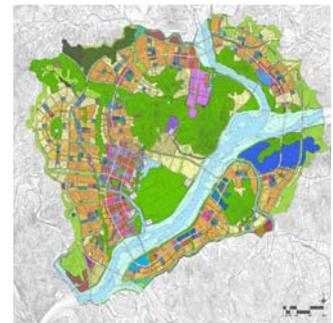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계획시점을 2030년으로 맞추어서 단독세대 및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거나 세대당 인구수를 줄이는 등의 설계를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의 수요가 유동적일 것을 감안하여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 시키는 등의 도시설계를 진행한 바가 있다. 또한 도시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부를 비워놓는 구조를 선택한 것도 도시열섬현상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그림 5.32〉 복합커뮤니티 구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그림 5.33〉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미지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그림 5.3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개발계획)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한국의 사회적 변화양상은 탈산업사회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민주화, 다원화, 인구저성장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보다도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예를 들어 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도시화의 속도는 90년대 초반부터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인구구조 또한 세계에 유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엄동욱, 2005)⁸¹⁾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적 측면에서의 대응도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재생, 첨단정보도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의 도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변화가 구체적인 도시설계 담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책적 논의나 비공간적인 계획이론에 대한 논의로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적 도시상황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도시설계 기법 등이 향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높아지고 있는 삶의 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공간환경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과 정책으로 비춰지거나, 외국사례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인구저성장이나 기후변화협약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국의 도시적 상황에 적합한 도시설계 기법을 개발하고 있음⁸²⁾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도시설계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8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회원국 중 1위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18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었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약 40~70년이 소요되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출처 : 엄동욱, 이상우, 배노조(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6

82) 세타 후미히코, 김광익, 변필성, 왕광익 외(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3) 탈근대적 시대정신에 대한 수용

(1) 도시적 상황

도시설계가 추구하는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사고, 가치관 등은 그 시대의 가치와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2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근대도시이론에서 1960년대 이후의 현대도시이론으로의 변화는 도시를 새로운 창조물로 여기는 근대도시이론가들의 기능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도시의 특성을 조망하고, 도시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화의 시작이 서구에 비해 늦게 시작된 관계로 이러한 근대적 가치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으며, 일부 도시설계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가치가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회적 여건이 탈근대적인 가치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이 나타나는 것이 발견된다. 특히 기존에 도시설계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탈 근대적 공간이론들이 최근 들어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설계공모 등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논의되기 시작하는 상황은 건축과 조경분야와의 소통 및 협업체계 확산에 따라 담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인하 교수(한양대) 등에 의하면 현대 도시이론가들이 근대 도시이론과는 다른 방향의 도시이론을 제안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기능주의로부터 형식주의로, 역사주의로부터 고고학으로, 공간으로부터 장소로, 위계적 관계부터 네트워크적 관계로의 이행을 주장한 바 있다.⁸³⁾ 이들 중 특히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나 렘 콜하스 등의 논의를 살펴보면 탈 중심적이고 비위계적인 구성, 각 요소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구조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⁸⁴⁾, 이는 행정중심

83) 근대도시를 대표하는 것들로는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의 '공업도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루트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berseimer)의 '기계도시', 패트릭 애버크롬비(Patrick Abercrombie)의 '신도시' 등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근대 도시모형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이고 위계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여, 다양한 결합방식을 가지는 도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후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의 이미지', 팀텐(Team X)의 '전이공간', 알도 로시(Aldo Rossi)의 '도시의 건축',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패턴 랭귀지', 콜린 로우(Colin Rowe)의 '플라주 시티' 그리고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맨하탄리즘',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의 '이벤트-시티' 등은 근대 건축가들이 제안한 도시이론들에 반발하여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도시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정인하, "현대 도시이론과 언어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근대 도시이론과 현대 도시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건축역사학회, 제12권 제3호, 통권 35호, pp.65-86

84) 권영상(2005),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공간패턴화",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복합도시 국제공모전 출품작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탈 중심적인 도시를 구성해 가는 방식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현대도시의 계획이론에서 드러나는 탈중심성은 근대이후 조형예술에서 근대이전의 상징적 중심성을 해체하려는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건축 및 도시를 비롯한 공간조형분야에서 고전적인 중심성은 균등성과 다원성, 자율성과 순수성 추구를 통해 근대성으로 대치된다. 일례로 한스 제들마이어는 서양의 근대조형예술에서 중심성의 상실이 종교적 요소의 쇠락에 있다고 분석하였고,⁸⁵⁾ 위르겐 하버마스는 현대예술에 있어서 개념화된 고대에 대한 강조는 탈중심화된 자아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⁸⁶⁾ 또한 도시 분야에 있어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기존의 위계적 도시구조에서 탈위계적 도시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⁸⁷⁾ 자크 라캉은 램 콜하스의 건축도시이론을 논의하면서 그의 작품이론이 이러한 탈중심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확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⁸⁸⁾

그렇지만 이러한 탈 근대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서구의 급진적인 도시이론가, 건축가, 도시 계획가를 통해 논의되는 수준에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도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시작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2000년대 신도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에서의 활동과 움직임이 점차 정보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체 한국의 사회가 탈산업화, 탈 근대화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시대정신이 도시공간에 적용되는 양상은 점차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시설계 사례

앞서 살펴본 사례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계단계에서 논의된 민주성이나 탈중심성과 같은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도시의 도시설계가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이미 공모지침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시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나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 이 도시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집중했던 것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국제공모 당선

85) Hans Sedlmayr(2002), "Verlust der Mitte"-중심의 상실 : 19, 20세기 시대 상징과 징후로서의 조형 예술, 박래경 역, 문예출판사, p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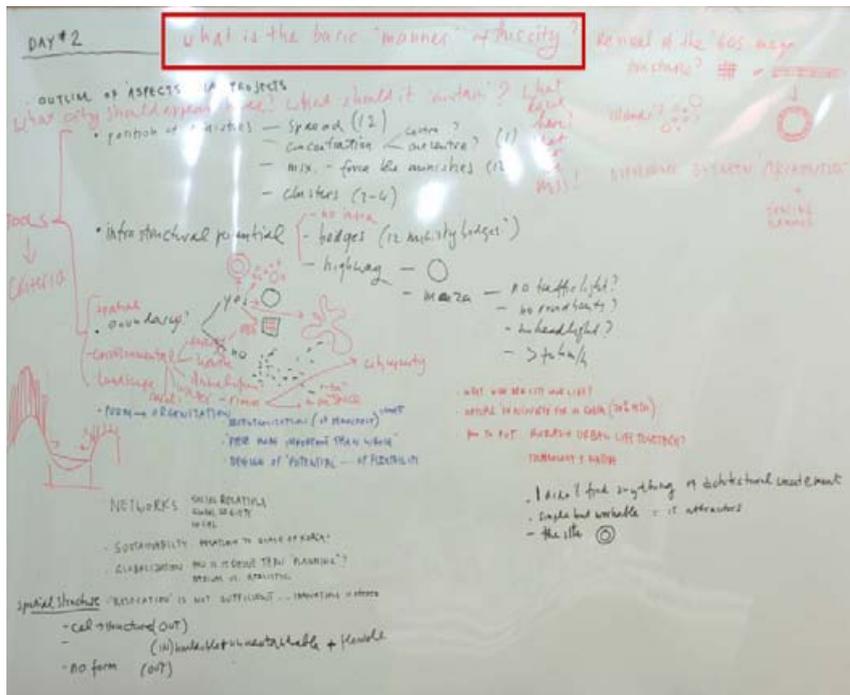
86) Jürgen Habermas(1986),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현대성의 철학적 답론, 이진우 역(1994), 문예출판사, pp.38

87) Alexander, Christopher, "A city is not a tree",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Ockman, Joan(1993),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and Rizzoli, pp.379-388

88) Jacques Lacan, "OMA-Rem Koolhaas", Electa-Moniteur, pp.57

작 및 제출작 등이 제시했던 논의들은 민주적인 가치나 탈중심성에 대한 논의들이 도시설계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많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에 적합한 도시설계로 논의된 바 있다.⁸⁹⁾

또한 이후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민주적 도시공간구조 등을 제시(2006)⁹⁰⁾ 했던 것은 기존의 도시설계에서 제시되었던 위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탈중심화된 민주적인 도시구조를 가장 위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행정도시에서 실현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 5.37〉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심사위원 노트
 what is the basic 'manner' of this city?
 한국에서 이 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져야 할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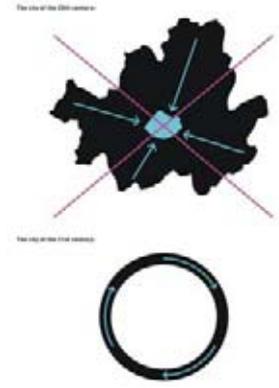
도시설계의 경우 건축이나 조경설계와 달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많은 일반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수용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요구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정과 협의

89) 권영상,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에 나타난 탈 중심적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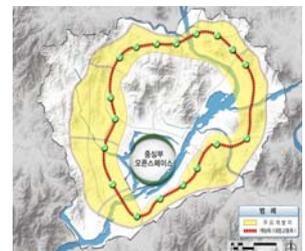
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안) 공청회 자료”

Decentralization

What should be the city structure for the 21st century?



〈그림 5.3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작의 탈중심성에 대한 제안
 - 뒤릭



〈그림 5.3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그림 5.3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건축이나 조경과 같이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논의되는 시대정신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인식과 경향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며, 급속하게 탈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도시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대정신은 앞으로 도시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 및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각 분야의 소통과 협업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건축이나 조경분야 전문가들이 도시 분야 전문가들 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도시설계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체 지식체계를 통해서 논의되는 현재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가치체계가 도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측면 2

1) (시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의 복원

(1) 도시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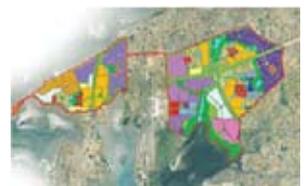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과정과 이에 따른 문민정부로의 이양은 도시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계획수립체계에서 점차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상황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민간부분의 참여는 첫째로는 민간자본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 자체가 시장체제에 순응해가는 과정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강화로 볼 수 있다. 80년대 이전까지 사회적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주도개발을 추구하던 것과 달리 민간부분의 역량이 강화되고 축적된 재원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 진행된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같은 경우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의 개발이익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민간의 개발참여를 정부에서 적극 유치했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도심재개발 프로젝트에 일본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시장중심으로 진행될 우려를 안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생활자로서의 시민이 직접 도시정책이나 도시 만들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민주화의 과정은 결국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졌으며, 국가와 정부에서 주도하던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반영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는 때로는 주변의 도시환경에 대해 가꾸고 다듬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에서부터 도시계획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는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한 도시 내의 개발압력 상승이나 님비현상과 같은 불합리한 측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그림 5.38〉 록본기힐즈
(모리부동산)



〈그림 5.39〉 무안기업도시
구상(안)

출처 : 무안기업도시 홈페이지
<http://www.mecd.co.kr>

※ 도시설계 및 도시조성에 시민참여의사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인 설문조사〉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조금 있다.
- ③ 모르겠다.
- ④ 거의 없다.
- ⑤ 전혀 없다.

문12-1)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정부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과정에 참여
- ③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
- ④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
- ⑤ 학교, 시장 등의 마을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
- ⑥ 기타 ()

도시적 상황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터전인 커뮤니티 단위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조성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적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실제 도시조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66.%(조금 있다 53.7%, 매우 많다 12.9%)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관심분야도 ‘집주변의 환경개선 참여’ (34.6%)로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 (24.0%),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에 참여’ (15.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반인 설문12-1)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시민들이 도시설계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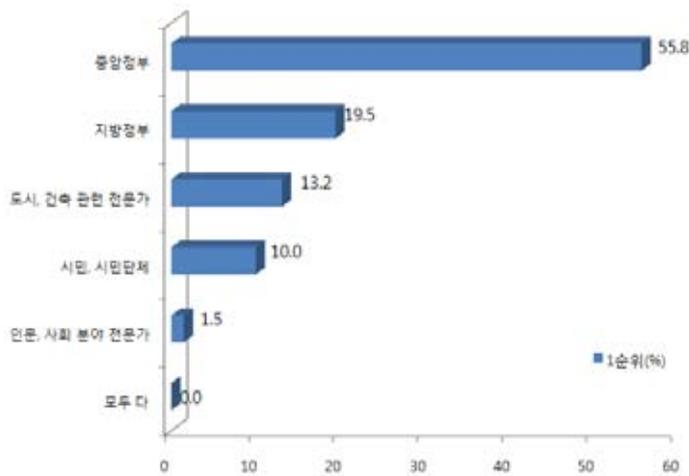


〈그림 5.40〉 도시조성과정에 참여의사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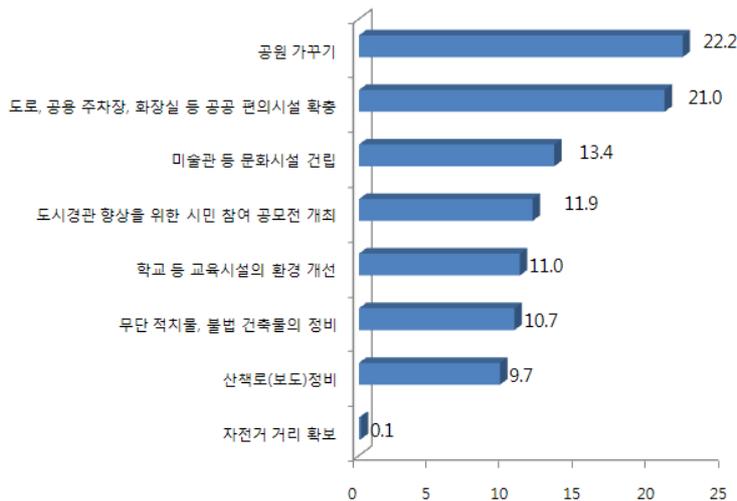


〈그림 5.41〉 도시조성에 참여시 관심분야 (일반인)

한편 일반인들의 경우 한국 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55.8%(1순위 기준)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19.5%로 공공 기관이 75.3%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민, 시민단체(10.0%)들 보다 전문가(13.2%)들을 더 주체로 인식하고 있어서 시민참여가 정부나 공공부분의 역할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도시 가꾸기 우선분야로는 가장 큰 우선순위로 ‘공원 가꾸기’ (22.2%), ‘도로, 공용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21.0%)이 조사되어 생활권 내에 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반인 설문13)



〈그림 5.42〉 한국의 도시조성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주체 (일반인)



〈그림 5.43〉 도시가꾸기 우선분야 (일반인)

※ 도시설계 및 도시조성에 시민참여의사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인 설문조사〉

문10) 앞으로 한국의 도시를 만들어 갈 때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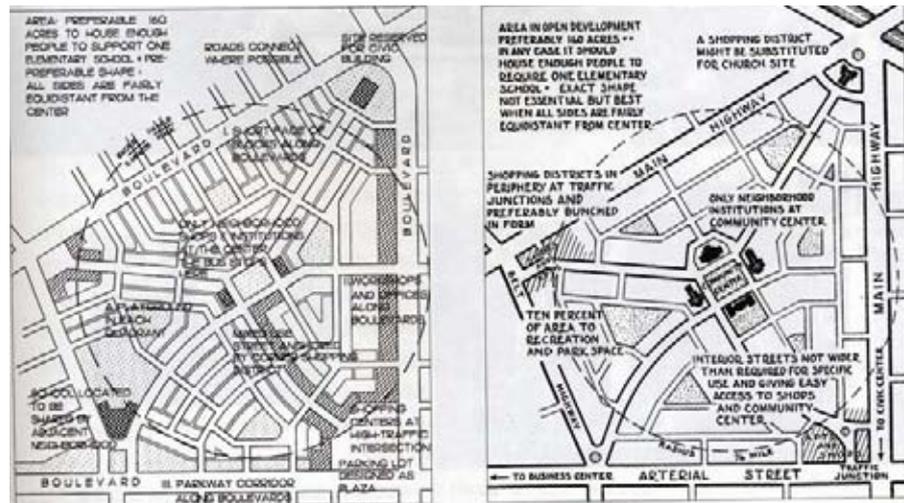
- ① 중앙정부
- ② 지방정부
- ③ 도시, 건축 관련 전문가
- ④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
- ⑤ 시민, 시민단체
- ⑥ 기타()

문13) 거주지역의 시청에서 일정 금액을 확보하여 도시를 가꾸려 합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한다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산책로(보도)정비
- ② 공원 가꾸기
- ③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 ④ 학교 등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 ⑤ 무단 적치물, 불법 건축물의 정비
- 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 ⑦ 도로, 공용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 ⑧ 기타 ()

이러한 시민참여와 커뮤니티의 복원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의사소통적 계획론이나 뉴어바니즘과 관련된 논의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조나단 바넷(Jonathan Barnett), 플래터와 자이버크(Elizabeth Plater-Zyberk) 등에 의해 제기된 뉴어바니즘의 경우 근대적 도시이론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공공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건축을 강조하고(David Harvey, 1997), 장소들이 통합된 커뮤니티의 복원에 집중하며(Jonathan Barnett, 2000)⁹¹⁾, 도시와 공동체 개념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참여부분과 이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을 앞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⁹²⁾



〈그림 5.44〉 근린주구계획 다이어그램

좌 : 듀아니 플래터-자이버크의 도시근린주구 다이어그램, 우 : 페리의 신근린주구계획

출처 : Charter of The New Urbanism(1999), "Charter of the New Urbanism"-뉴어바니즘

현장(2000), 안건혁, 운영태 역, 한울아카데미, pp.93

한편, 다비도프(Davidoff)의 옹호론적 계획론(Advocacy Planning)과 최근의 하버마스(Harbermas)에 의한 의사소통적 계획론(Communicative Planning) 및 협력적 계획론(Collaborative Planning)에 의해 구체화된 의사소통적 계획론은 계획이론 쪽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이론이

91) Charter of The New Urbanism(1999), "Charter of the New Urbanism"-뉴어바니즘 현장(2000), 안건혁, 운영태 역, 한울아카데미

92) 뉴어바니즘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 유토피아니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개념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Harvey,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어바니즘은 도시 활력, 인간적 척도, 공공공간의 질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장소로서 도시개념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박재길 외, 2006)

며 한국적 상황에서도 최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과 관련된 정책과 논의에 소개되어 왔다.⁹³⁾ 일부 계획가나 행정가들의 경우 이러한 1) 시민참여가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개인적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며, 2) 참여의 성과에 비해 계획 지연을 야기하는 문제점과 3)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극단화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도시공간의 특성과 주거환경의 잠재적 가능성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현지의 주민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뒷받침은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이 도시설계 및 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커뮤니티의 복원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 실제 한국의 도시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거버넌스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설계 사례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접근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상당부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면서 대표적으로는 최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같은 도시 가꾸기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전주시 같은 경우 시장의 활성화나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경비 부분은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도시설계가 한국적 도시상황에서도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도시에서 오래된 골목길에서의 도시이미지나 예전 건축물들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경관들은 대표적으로 한국적인 도시경관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이며, 이들은 대부분이 커뮤니티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미지들이라는 사실은 한국적 도시경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복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9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3, 국토연구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2007, 국토연구원),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2006, 주택도시연구원)



〈그림 5.45〉 전주시 웨딩거리 상인정비



〈그림 5.46〉 전주시 재래시장 정비



〈그림 5.47〉 전주한옥마을 커뮤니티공간조성



〈그림 5.48〉 전주시 특화거리 쌈지광장 조성

또한 최근 수립되고 있는 서울 북촌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도 (2009 수립예정) 주민공람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활자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주시에 위치한 헤이리 아트밸리를 설계한 과정은 예비거주자들이 도시설계 및 건축전문가들과 직접 협의하면서 마을을 만들어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⁹⁴⁾



〈그림 5.49〉 북촌 전경



〈그림 5.50〉 헤이리 주민회의 전경

94) 진영환, 권영상 외(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그림 5.51〉 조정되기 전에 작성된 헤이리 도시설계안(초안)

〈그림 5.52〉 실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조정된 헤이리 도시설계안

한편, 이들 시민들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실제 도시공간에 구현되는 양상은 한국적 삶의 방식이 가장 잘 적용된 커뮤니티공간이며, 대형건설사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방식대호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성될 수 있다는 데에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으로서 가치가 있다.

앞서 살펴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설계과정에서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이러한 커뮤니티를 복원하고자 하는 도시설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⁹⁵⁾ 이것은 60~70년대 조성된 창원시나 80년대 말 설계된 분당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커뮤니티의 복원과 시민들의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95)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1999), 계기석, 천현숙(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커뮤니티센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06) 등이 있다.



〈그림 5.53〉 분당시범단지 중앙부
근린상가복합지역



〈그림 5.54〉 분당시범단지 복합커뮤니티의
초기형태
(학교, 동사무소, 문화센터의 복합)



〈그림 5.55〉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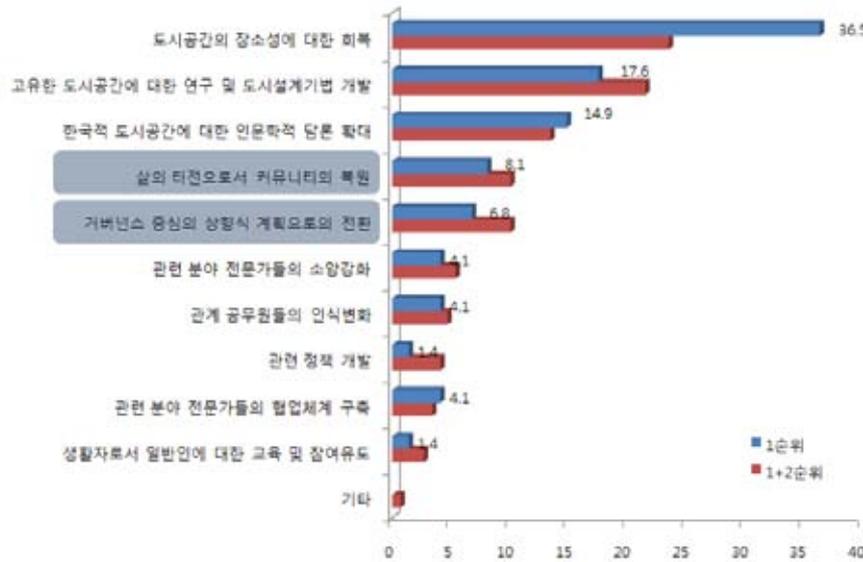
〈그림 5.56〉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민주화 및 시민사회성장이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등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은 계획분야의 패러다임과 논의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1) 일반인들이 가지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로서의 인식, 2) 개발국가체계의 오랜 지속, 3) 일반인들의 의식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해결할 문제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도시내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은 아직까지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적 가치보다는 본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이며, 실제 단지나 도시설계가 진행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기존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저층 주거단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재개발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의 한국적 도시상황에서 당연한 측면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복원은 한국 도시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삶의 방식을 재현하는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도시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복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한 요소로 커뮤니티의 복원(7.7%)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설문 문9)



〈그림 5.57〉 도시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문가)

또한 도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쉬운 일도 아니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설계하거나 뉴타운 개발 사업에 일반시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청회 및 주민공람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수용했던 것보다는 더욱 활성화된 도시설계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도시의 정비나 도시재생을 위해 진행되는 도시설계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힐리(Patsy Healey)나 길로리(R. Gilroy)가 제시한 의사소통적 계획론적 체계에서는 앞으로의 도시설계 진행방향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단서를 제공한다.⁹⁶⁾ 이들은 주민참여와 더불어 계획가를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촉진자로 보고자 하는 견해를 강화하였다. 즉,

※ 도시공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문가 설문〉

문9)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①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
- ②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
- ③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체계 구축
- ④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소양강화
- ⑤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확대
- ⑥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 ⑦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에서 거버넌스 중심의 상황식 계획으로의 전환
- ⑧ 관련 정책 개발
- ⑨ 생활자로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참여유도
- ⑩ 삶의 터전으로서 커뮤니티의 복원
- ⑪ 기타 ()

96) Healey, P. and R. Gilroy(1990), "Towards a People-Sensitive Planning",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5. N.2. pp.21~29

이들은 계획가는 자문가(Advisor)라기 보다는 청취자(Listener)이자 상담자(Counsellor)이며, 촉진자로서 계획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의 의사소통과 협상기술이 핵심적 역량이 된다고 강조한다.⁹⁷⁾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설계 과정에서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관적·문화적 자원이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소 만들기(place making)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조직화와 도시·건축분야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계단계에서는 복합용도개발이나 소단위 적응형 도시설계를 추진하여 기존의 도시맥락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개선시켜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⁹⁸⁾

또한 신도시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생활권 중심의 커뮤니티의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가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의해 가꾸어지는 자연적인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97) 진영환, 권영상 외(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pp.19

98) 계기석, 천현숙(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 (지자체 주도에 의한) 지역별 정체성 회복

(1) 도시적 상황

1995년 이후 진행된 민선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 조세권, 행정권 등 일부 권한에 있어서는 아직 이양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으나 많은 부분이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정책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에 대한 개선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정이나 도시계획수립과정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어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창조적 가치의 추구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정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도시별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그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들은 고도성장의 국가정책하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에 의해 압축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처럼 공급주체가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별로 특화된 도시설계나 경관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도시공간이라면 각 지역별로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며 그 결과 도시별로 모두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와 도시구조, 유행에 따른 동일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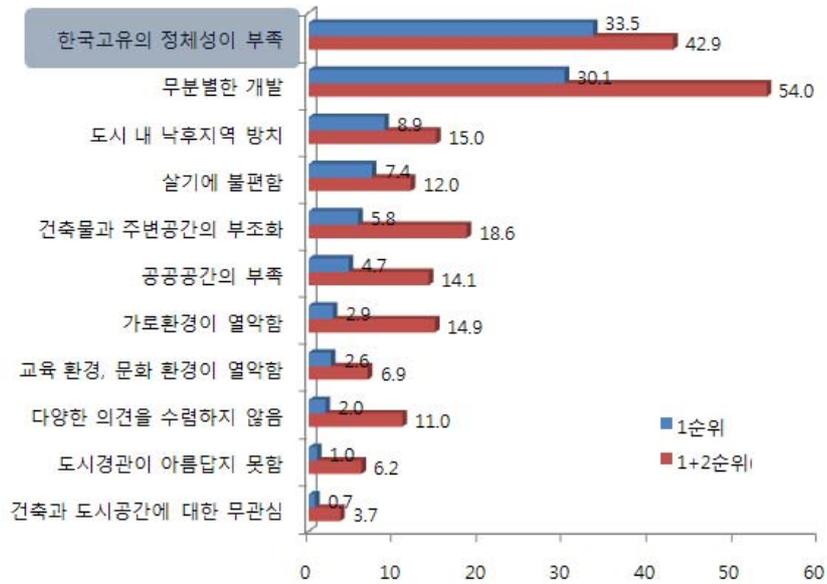
일례로 도시에 대한 이슈들은 어느 도시에 갖다 붙여도 될 정도로 도시별 특색이 없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비전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제”, “첨단” 과 같은 용어에서 최근에는 “문화”, “국체”, “창조” 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반인들도 한국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고유한 정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설문 결과 한국도시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고유의 정체성 부족’ (33.5%)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문화, 역사 환경의 파괴’ 를 꼽고 있다.(일반인 설문3)

※ 도시별 정체성에 대한 설문결과(일반인 설문조사)

문3) 귀하는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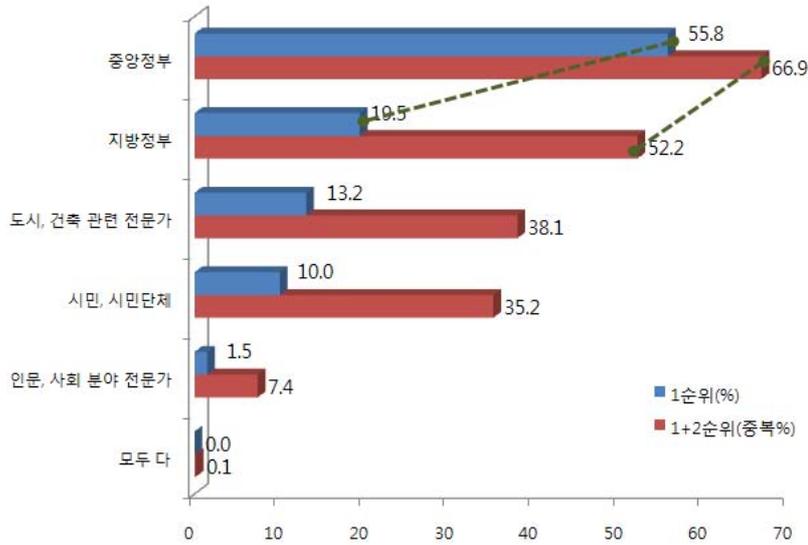
- ① 잘 보존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
- ② 살기에 불편함(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 ③ 도시 내 낙후지역이 방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음
- ④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 ⑤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의 열악함
- ⑥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
- ⑦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못함
- ⑧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부족함
- ⑨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이 열악함
- ⑩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함
- ⑪ 도시를 계획할 때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 ⑫ 기타()



〈그림 5.58〉 한국도시의 문제점 인식 (일반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도시설계의 참여주체와 관심 또한 각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 또한 이러한 어느 도시나 똑같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중앙정부(55.8%)가 지방정부(1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일반인 설문 10)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도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순위까지 포함한 설문결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예산과 행정에 대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각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별 도시정책과 도시설계의 특화방안마련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 도시별 정체성에 대한 설문결과<일반인 설문조사>

문10) 앞으로 한국의 도시를 만들어 갈 때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지방정부
- ③ 도시, 건축 관련 전문가
- ④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
- ⑤ 시민, 시민단체
- ⑥ 기타()

<그림 5.59> 도시조성주체 (일반인)

(2) 도시설계 사례

앞서 살펴본 전주시의 경우 전통 읍성에서 출발한 도시의 성격과 현재 남아 있는 한옥마을과 같은 도시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전통도시로서 특화시키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별도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시 예산을 활용해서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원과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도시정책이 전주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또한 전주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적합한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전통이라는 것이 현재



<그림 5.60> 전주한옥마을 전경



<그림 5.61> 전주한옥마을 종합계획도

의 가치에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체계(Eric Hobsbawm, 1983)라고 한다면 이처럼 각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경향은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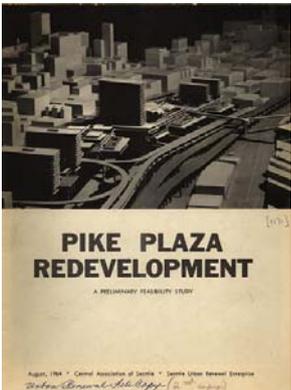


예를 들어 부산시와 같은 경우 ‘부산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산이 “유동성”, “서민성”, “착종성(예전의 전통성과 이식된 근대의 혼재)”, “왜색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모두가 사실상 앞으로의 부산의 발전에 참고할 만한 특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2004)⁹⁹⁾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적·문화적 경관(현기영, 2008)과 신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적 정체성(조명래, 2008)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⁰⁾



그렇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체성 찾기 노력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논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도시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조잡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전통의 차용으로 전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만 재생산해내거나 유행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등을 통해 어느 도시건 같은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는 도시설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도시들이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도시설계 과정에 제시하는 바가 크다.



〈그림 5.62〉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재개발계획안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의 경우 역사보존지구제도의 운영을 통해 파이오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등의 재개발 계획에서 기존의 도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자체차원에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이러한 상향식의 개발 계획 접근법은 지역 계획 프로그램 및 1960년대와 1970년 초반에 걸쳐 일어났던 “시애틀 지역 운동”(Seattle Neighborhood Movement)에 기원을 가진 지역 매칭 펀드(matching fund)와 같은 시애틀 내의 관련 지역 중심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시민중심의 도시재생 움직임은 1960년대 초반의 하향식(Top-down)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의 비인간적 접근방식과,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에 거대한 정부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안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⁰²⁾.

99)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4), “부산 도시이미지”, 부산광역시

100)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2008),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01) 자세한 내용은 부록1-1.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 사례(미국) 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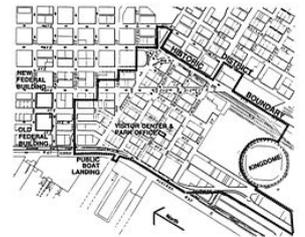
시애틀시는 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 총괄하는 역사보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애틀 내에 존재하는 350여개의 구조물, 역사지구, 선박 등의 역사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역사성에 대한 보존 노력은 1960년대 시민들의 노력으로 도시재생계획 ("Urban Renewal" Plan)에 의해 파괴될 뻔했던 파이크플레이스마켓과 파이오니어 스퀘어를 보존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에 시애틀 시 의회는 파이오니어 스퀘어를 시 최초의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지구 내의 역사적 건축물들의 보존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1973년에 시 조례로서 랜드마크 보존 조례를 제정하여 시애틀의 가치 있는 건축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¹⁰³⁾를 마련하였다.



〈그림 5.64〉 파이오니어 스퀘어 주변 전경

102) O'Donnell, Arthur J.(2004) "In the City of Neighborhoods: Seattle's History of Community Activism and Non-Profit Survival Guide". New York: iUniverse Press

103) 현재 시애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보존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역사보존지구(Historic district)제도와 각종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역사보존지구는 건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이나 건축물들이 집중된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각 보존지구내에 내재된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미국 주정부는 내무부 (U.S. 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의 국립 공원서비스라는 기관을 통하여 연방보존지구를 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보존지구는 국가 등록 역사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주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통하여 보존지구를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들은 엄격한 규제와 보존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애틀에서는 1970년 이래 총 7개 지역이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시애틀의 역사보존지구 : 벨러드 에비뉴(Ballard Avenue)/콜럼비아 시티(Columbia City)/ 포트 러튼(Fort Lawton)/ 하버드-벨몬트(Harvard-Belmont)/ 인터네셔널 디스트릭트(International District)/ 파이크플레이스마켓(Pike Place Market)/ 파이오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 각 지구내의 건축물들은 외관 및 역사적 맥락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시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시민위원회 (Citizen board) 및 랜드마크보존위원회(Landmark Preservation Board)로부터 받게 된다. 한편 인센티브 부분은 1) 용도규제 및 건축규제 예외규정, 2) 도심 랜드마크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3)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등이 있다. 먼저 1) 용도규제 및 건축규제 예외규정(Zoning Code and Building Code Reliefs)은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및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DPD)의 허가를 전제로 특정 토지용도지역으로의 예외적 지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예외적 적용은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사용상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DPD는 랜드마크 건물이나 특별관리지구(special review district) 내의 건축물들에 대한 오픈스페이스, 건축선 후퇴, 건물 폭 및 깊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 도심 랜드마크건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랜드마크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시로부터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 철거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개발권양도제도(TDR)를 활용하여 경미한 밀도 증가를 위한 무분별한 재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권양도제의 적용을 위하여 시는 개발권은행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랜드마크건물에 할당된 개발권의 거래를 활성화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개발권을 구매하여 특정지역에 추가로 개발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며, 반대급부로 개발권 구입비는 랜드마크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어 건물의 보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3)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의 가치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을 면제시켜줌으로써 역사적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유도하도록 지



〈그림 5.63〉 파이오니어 스퀘어-스키드로드 역사보존구역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한국의 경우 1995년 이후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중앙집권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앙집권적 문화와 정치의식, 정치인과 중앙관료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 지역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 2) 시민의식의 성숙, 3) 지방정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실제 각종권한의 지방이양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도시상황도 점차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의 상향식 계획체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시계획 및 정책수립의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산업과 경제, 주민생활의 대부분이 도시계획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2003)¹⁰⁴ 또한 각 지역의 도시적 정체성, 역사, 문제점 등의 상황에 대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맞춤형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체계나 국토발전 전략과 일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도시설계과정에서 있어서는 이러한 상향식 계획체계는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자체별로 이러한 도시계획과 설계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도시설계는 각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특색 없는 도시공간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도시개발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에 계획 및 설계권한을 이양하는 취지에 맞도록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정책과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제도이다.

104) 김상조, 신동진, 문채(2003), “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 방향”, 국토연구원

3) 전문분야간의 소통과 유연한 계획체계

(1) 도시적 상황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도시, 건축, 조경 등 도시설계와 관련된 분야들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도시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들 전문분야들은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국가개발시기에 단기간 내에 국토개발 및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서로간의 협업과 담론을 공유하기 보다는 쏟아지는 건설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대량생산 과정에서 도시 분야의 경우 정부기관과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계획적 차원에서의 도시설계를 진행해왔고, 건축 및 조경분야는 도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세부적인 공간을 구상하는데 참여하도록 분업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풍토가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분리되면서 점차 이러한 분리양상이 재생산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 독자적인 전문영역에서 한국의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점차 고착화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도시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서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만 도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 사회,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Edward O. Wilson, 1998)¹⁰⁵⁾, 도시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분야는 그 통합의 요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서도 점차 이들 전문분야간의 소통과 협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1) 토지이용위주의 2차원적 도시계획에서 점차 입체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부터 조경, 건축, 공공디자인까지 종합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도시공간의 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5) Edward O. Wilson(1999),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 -지식의 대통합 : 통섭(2005), 최재천,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 도시 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와 전문가 협업의 필요성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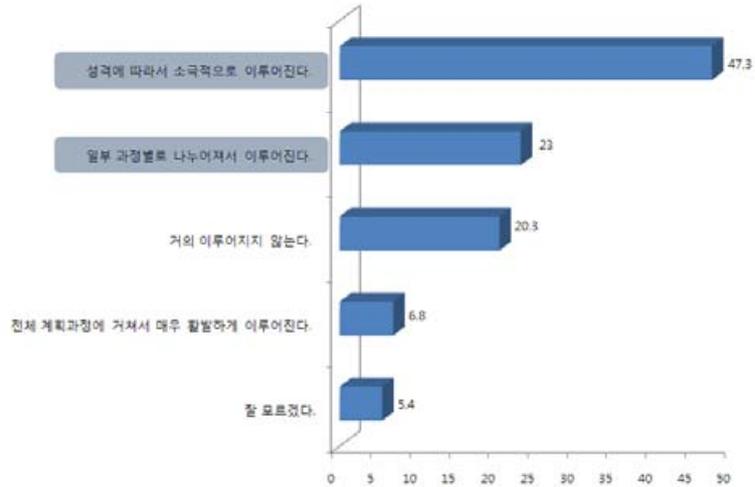
문7)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계획과정에 거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② 일부 과정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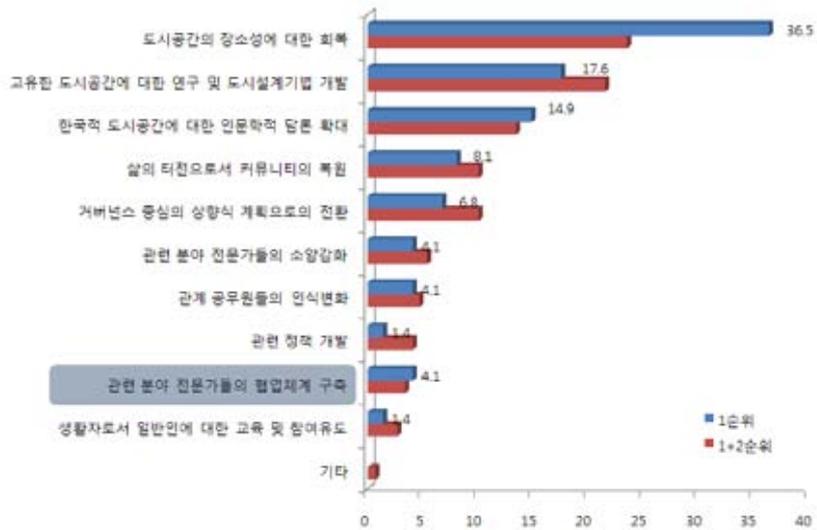
문9)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
- ②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
- ③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 구축
- ④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소양 강화
- ⑤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확대
- ⑥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 ⑦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에서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계획으로의 전환
- ⑧ 관련 정책 개발
- ⑨ 생활자로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참여유도
- ⑩ 삶의 터전으로서 커뮤니티의 복원
- ⑪ 기타 ()

실제로 최근에는 개략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 공간계획이나 구체적인 공간이용패턴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는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먼저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 간의 인식에 있어서도 점차 이들 관련영역간의 역할분담 및 창조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65〉 도시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정도 (전문가)



〈그림 5.66〉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 (전문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하여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도시적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영역간의 소통과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건축분야 현상설계에 지나치게 많은 외국건축가들의 참여와 오히려 역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건축가에 대한 의존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분야에서는 이들의 참여를 통해 그나마 분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이러한 분야 간의 소통과 협업은 학문 간의 소통 및 다양한 중간영역의 학문발전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창조적인 영역에 있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Richard Florida, 2002)¹⁰⁶⁾ 또한 인문,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 통합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Edward O. Wilson, 1998)¹⁰⁷⁾는 측면에서 한국의 도시설계 과정에서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도시설계 사례

최근에 진행된 도시설계의 경우 이러한 전문영역간의 분업과 소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본 사례들 중에서 1) 분당의 경우는 도시계획과 건축 간의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고,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의 전문영역이 서로 협업하고 때로는 서로의 영역과 통합되면서 도시설계안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분당의 상업가로와 시범단지 는 도시설계단계에서 시장에서 수용될 만한 적당한 규모의 필지규모와 건축규모를 먼저 선정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후에 민간단계에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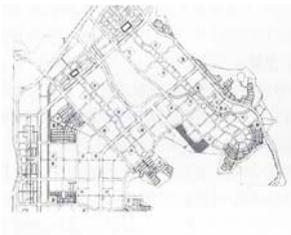
비록 민간부분에서 도시설계 콘트론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상업지역의 건축물 경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성되긴 했으나 시범단지에 대해 저층형 건축형식과 도시필지패턴, 도로체계가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

106) Richard Florida(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길태 역(2002), 전자신문사

107) Edward O. Wilson(1999),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지식의 대통합 : 통섭(2005), 최재천,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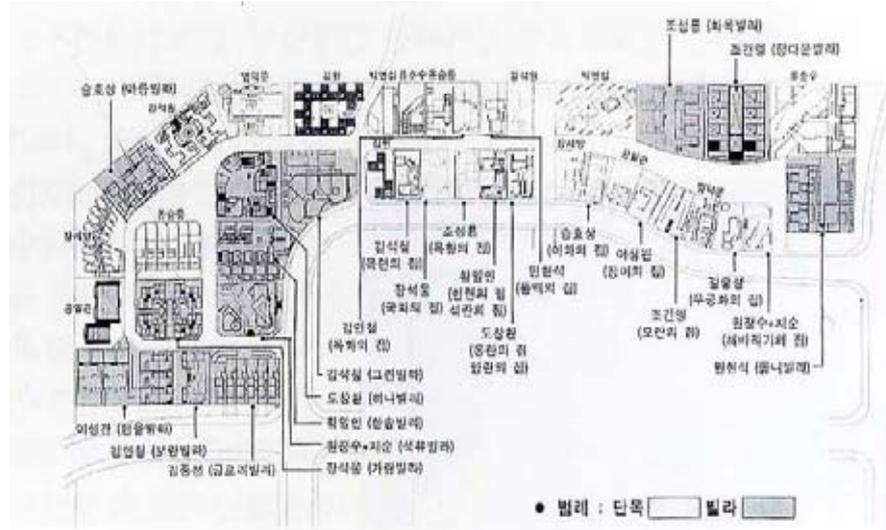


〈그림 5.67〉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시범단지



〈그림 5.68〉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위치

은 80년대 후반의 도시적 상황에서 진행된 분야 간 소통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가들이 주로 참여한 단독주택 시범단지와 중앙공원에 대한 설계, 이후 90년대 들어 진행된 주상복합단지의 설계에 있어서도 분야 간 협업이 일정부분 진행되었다.



〈그림 5.69〉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전시회

이어서 2005~2007년에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이들 전문영역이 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도시의 기본적인 이념과 구조를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설계과정의 소통으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진행된 몇 건의 부분적인 국제설계공모과정에서 도시, 건축, 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의 영역에서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도시설계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협력했다.

이처럼 한국의 도시설계 과정에서 점차 전문 분야 간 참여와 협업이 일반화되어가는 상황은 외국의 경우는 일상화되어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도 도시설계를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우선적으로는 70년대 행정수도계획에 참여한 일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의 사례나 90년대 인천 송도의 도시설계 현상설계에 참여한 네덜란드 건축가 램 콜하스 등이 한국의 도시설계에 참여한 타 분야의 전문가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70〉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조경설계가 발모리)



〈그림 5.71〉 송도마스터플랜
(건축가 뱀콜하스)

(3) 향후 도시설계 방향

이러한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1) 이들 전문 분야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수립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2)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전문가들 스스로의 역량과 정보습득을 강화해야 하는 것, 3)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합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 4)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담론과 인문학적 가치인식을 공유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¹⁰⁸⁾

첫째로 도시설계과정에 있어서의 수립체계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능적인 도시계획 후 건축계획 식의 기능적이고 수직적인 체계에서는 도시가 가지는 통합적인 경관이나 장소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토대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설계를 위해 발주하는 용역

108)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된 「아우리건축 도시포럼 - 도시와 건축 발전적 소통」의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 발주순서와 발주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도시설계를 통해 실제로 구현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입체적 계획을 통한 한국의 도시로서 장소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MA,MP제도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 도시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며, 경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전문가나 개인정원을 설계해온 조경전문가에게 사회적 공공성과 시장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도시 프로젝트에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전문영역의 특수성과 교육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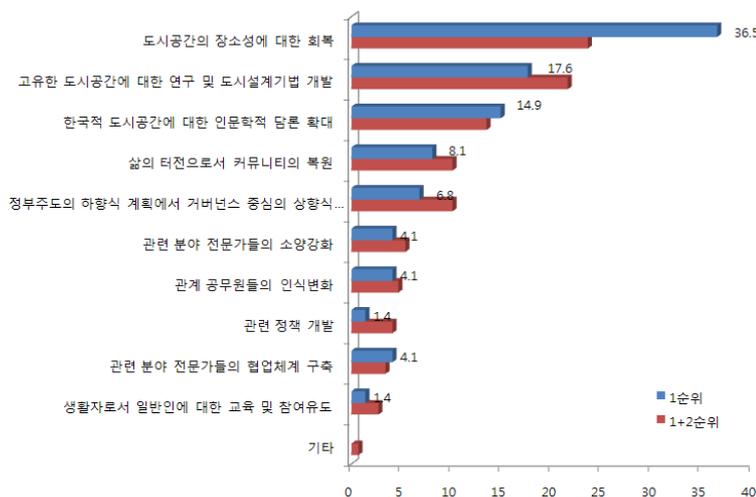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의 외형적 통합보다도 한국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인문·사회·역사적 통찰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 3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한국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항목으로 제시한 내용은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1) 물리적 환경과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한국의 고유한 장소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2)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고령화, 저성장, 환경 등 향후 진행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략마련, 그리고 3) 탈산업화, 탈 근대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적응을 살펴봤다.

또한 이를 위한 도시설계의 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위해서는 1) 시민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들에 의해 자연적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복원에 대한 요구와 2)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른 지역별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3) 각 전문 분야 간 소통과 유연한 계획체계의 수립을 통한 세부적이고 3차원적인 공간에 대한 검토 등이 검토되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장소성의 회복이나,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설계기법이나 인문학적 담론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이들 항목들에 있어서 도시공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서 논의되고 여기서 형식성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림 5.7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중요도 (전문가)

VI.

결론

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의의
2. 향후 연구 및 정책추진 방향

(a u r i

결 론

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의의

□ 한국의 도시적 상황

한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발전국가론적 입장에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해왔고, 사회적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압축 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집중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쳐 왔다. 이러한 상황의 국가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간의 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미흡한 도시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발전과정에서 세계 유례없는 도시설계 경험을 가졌고, 그 저변에는 그 이전시기부터 이 땅에 도시를 건설해 온 고유한 경험과 도시공간에 대한 함의적 가치체계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설계 과정들과 그 결과물에 대해 무작정 비판이 아닌, 그 사회적 배경에서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또한 한국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데 있어서의 창조성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는 이미 도시, 건축, 조경 분야에서 70~80년대에 겪었던 소모적이고 무의미했던 논쟁에서 벗어나서 동시대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찾자는 데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무작정 전통에 대한 잣대를 적용한다거나 외국계획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삶의 방식에서 가치 있는 창의적인 생산가능성에 의미를 두었다.

서론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현 시점에서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견해와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과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한국의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정치·경제·인문적 배경과 도시 분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은 이러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들 중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는 3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점차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에서 주거나 도시에 있어서 부동산의 자본적 가치를 무시하고서는 도시 분야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피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두 번째로 지방자치체도의 발전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이 자기의 도시공간을 가꾸고 계획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이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거나 잇따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확인된 부분이며, 아직 행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지자체체도가 완전해지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세 번째로는 급격한 압축 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심쇠퇴 및 인구저성장 기조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예측과 4) 수반되는 탈 집중화시대에 따른 도시공간의 양극화에 대한 예측이다. 이러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변화요인은 도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향후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 분야의 이슈들은 1) 지속가능성 2) 전문가의 협업 및 소통확산 3) 상향식 계획방식(거버넌스체제)에 따른 설계의 주체 및 과정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모더니즘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등으로 정리가 되었다.

□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이러한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도시설계 특성을 파악한 결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는 1) 국가차원의 압축적 개발성장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었다. 그 과정에서 필지와 도로체계의 설계 모델이 최적화되어갔고, 그 밖에 기반시설 및 조닝에 대한 개념도 확정되어져 갔다. 2)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삶의 흔적이자 도시문화의 근원으로서의 기존 도시조직은 양면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한편으로는 배척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소의 가치에 대한 추구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3) 도시의 경관은 시간적인 층위가 계속 적층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조성되어 왔는데, 외국 설계이론이나 유행이 급격히 도입되는 한국의 특수성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라마틱한 도시경관을 연출해내는 악순환

을 거듭했다. 한편 4) 도시설계분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초기의 단절 및 분업에서 점차 소통 및 협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몇몇 도시에서는 5) 탈 근대적 도시담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설계의 특성은 자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국한되어 의미를 갖는 것들이었다.

□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과 그 의의

이처럼 1) 한국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배경 및 최근의 논의들과 2) 한국의 도시설계들이 이러한 배경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앞으로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해 방향을 찾았다. 그것은 크게 3장과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질 수 있었는데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며, 1) 한국의 고유한 장소성(전통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며, 2) 그 과정에서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탈산업화 시대의 탈근대적 논의와 같이 앞으로의 시대정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이었다.

한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1)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내 커뮤니티의 복원, 2) 지자체의 주도를 통한 지역별 정체성의 회복, 3) 전문가간의 소통을 위한 유연한 계획체계 수립을 통해 전문가간 협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시설계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제시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은 향후 도시설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선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별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도시를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정체성 있는 도시로 구현하는데 의미 있는 전통적 가치나 현재적 가치에서의 논의들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탈위계성이나 복합적토지이용과 같이 아직 실험적이거나 한국적 도시상황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도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리된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은 향후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도시설계과정에 적용되어 기존의 한국 도시설계 논의와 실제적 경험에서 의미 있는 연장선을 형성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도시들을 정체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 및 정책추진 방향

2

1)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도시공간이 사회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공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와 공공기관은 도시설계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적 도시설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적 도시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도시를 건설해왔고, 최근 들어서도 활발한 도시건설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분야의 기술이 우수한 국가에서 도시설계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설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향후 한국적 도시설계 이론과 다양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설계 분야 지식체계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시설계 어휘를 제시하거나 실제 설계안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계기법과 지침을 제시하는 세부적인 실천연구로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반론적인 도시설계 기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수해로서 어떤 대상도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설계공모 지침에 적용될 내용들을 정리하는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대표할 만한 도시를 선정해서 분석한 것에 대해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반드시 모든 도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전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¹⁰⁹⁾ 본 연구에서는 대상선정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다른 도시의 검토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09) 이러한 것을 합성의 오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드컵에 진출할 팀을 구성하기 위해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각 포지션의 최고선수들을 모은다고 전체가 최고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한국을 구성하는 개인 모두의 정체성을 모은다고 해서 한국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체성 중 하나로 제국주의를 들고 있으나, 많은 미국인들은 제국주의자가 아님에도 미국의 정책이 대체로 제국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다.

출처 :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pp.39. 책세상

2) 정책제언

※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분야(전문가 설문분야)

문9)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
- ②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
- ③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체계 구축
- ④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소양강화
- ⑤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확대
- ⑥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 ⑦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에서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계획으로의 전환
- ⑧ 관련 정책 개발
- ⑨ 생활자로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참여유도
- ⑩ 삶의 터전으로서 커뮤니티의 복원
- ⑪ 기타 ()

(일반인 설문조사)

문6) 한국의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는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한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 ②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
- ③ 한국적 느낌을 주제로 한 건축·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마련
- ④ 한국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홍보 및 예산지원
- ⑤ 시민들에 대한 홍보·교육 및 도시공간조성과정에서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 ⑥ 기타 ()

□ 지자체 별 도시정체성 추구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시가 정체성을 찾고 한국적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설계가 발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내용 중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자체별로 도시정체성에 대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간의 경쟁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각 지자체간에 서로 특색 없는 반복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도시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 문화적 다양성은 떨어지고, 비록 외형적으로 발전했을지라도 또 다른 방식의 무미건조한 동일성이 한국의 도시문화를 후퇴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생성과정에서부터 특색 있는 지형적 조건, 입지적 특성, 도시구성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적 자산 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장소성과 특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각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회가 점차 다원적이고 탈산업화된 구조로 이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장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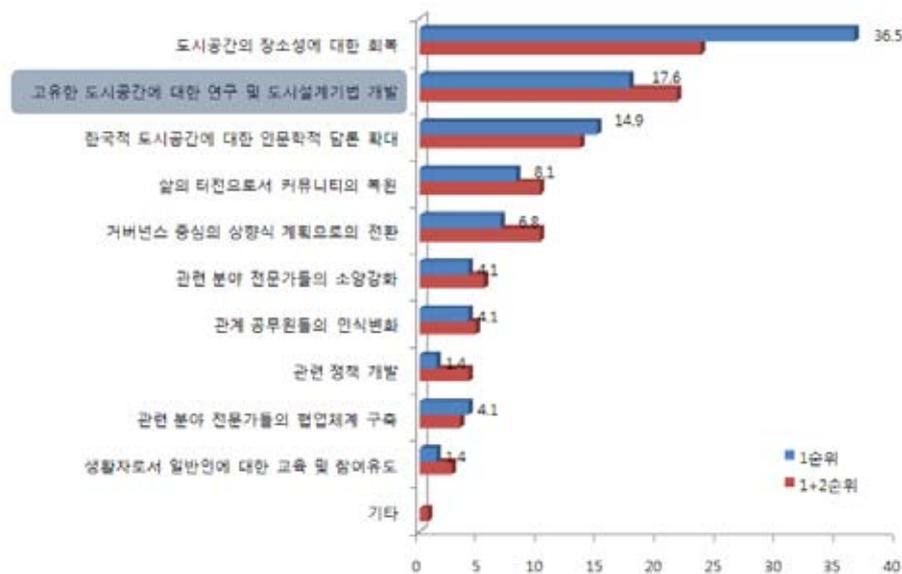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해당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작년엔 통과된 ‘건축기본법’을 통해 법제화되고, 도시와 건축공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제고와 문화적 가치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었다.(건축기본법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인 논의에서 의무적인 단계로 넘어간 상황으로 법적인 실행력을 담보로 진행될 토대가 구축되었다.

비단 이러한 법적인 토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외에도 자발적인 역량의 결집과 효과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지속적인 연구지원 및 담론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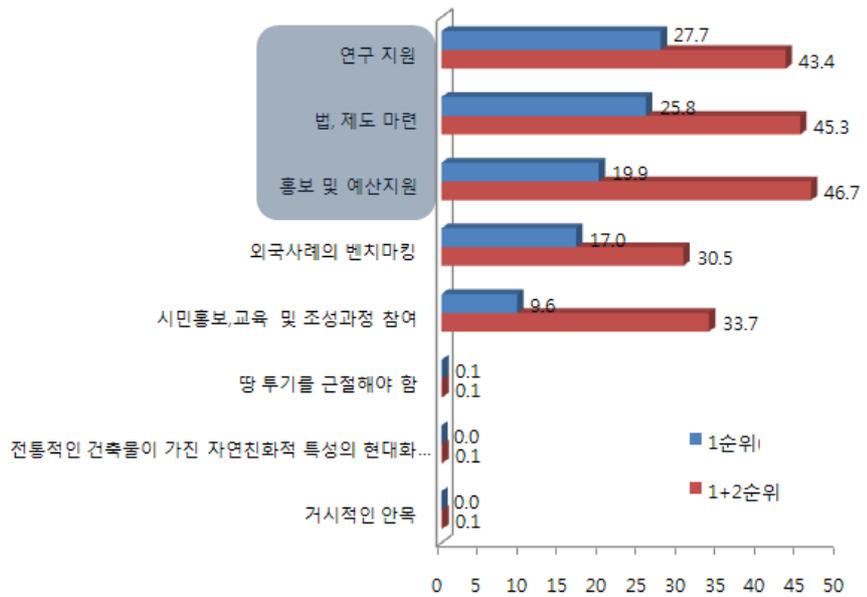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지난 70~80년대처럼 잠깐 논의되다가 사그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범 지식사회에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도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험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실천력을 갖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민간에 촉발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적용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을 지적한 바 있다. 110)



〈그림 6.1〉 향후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항목 (전문가)

110) 다만 본 연구의 5장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는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관련분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관련 연구의 지속” 부분은 6개 패러다임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6.2〉 한국의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일반인)

한국 도시의 한국성에 대해 일반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논의하고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러한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관련분야전문가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전연구 성격으로 기존의 한국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담론의 경향들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20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본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 후속하여 진행될 세부 실천연구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을 정체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1-1.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미국)

1-2.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

2-1.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일반인)

2-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전문가)

(a u r i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실련(황희연 외)(1999),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성각
- 고시자와 아키라, 장준호 역(2006), 「도쿄도시계획담론」, 구미서관
- 김병진외(2005),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있다」, 해토
- 권영상(2005),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공간패턴화”, 한울
- 마쓰나가 야스미쓰(2006), 「도시계획의 신조류」, 국토연구원
- 매그넘(2008), 「Magnum Korea」, 한겨레신문사
- 손정목(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한울
-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 (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1986), 「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 염복규(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 장명수(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출판사
- 정인하(2006),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 조명래(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 진중권(2007), 「호모코레아니쿠스」, 웅진지식하우스
- 전주시편찬위원회(1986), 「전주시사 100년」, 전주시

- 창원시(1988), 「창원도시개발사」, 창원시
- 한국도시지리학회(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
- 한국역사연구회(2002), 「고려의 황도 개성」, 창작과 비평사
-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한국토지공사
- 한필원(2004),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 Alexander, Christopher, "A city is not a tree",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Ockman, Joan(1993),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and Rizzoli, pp.379~388
- Charter of The New Urbanism(1999), "Charter of the New Urbanism"-뉴어바니즘 현장(2000), 안건혁, 운영태 역, 한울아카데미
- David Harvey(1990),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sm"-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2005), 박영민, 구동희, 한울
- Edward O. Wilson(1999),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 -지식의 대통합 : 통섭(2005), 최재천,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 Eric Hobsbawm(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장문석 역(2004), 휴머니스트

- Hans Sedlmayr(2002), "Verlust der Mitte"-중심의 상실 : 19, 20세기 시대 상징과 징후로서의 조형 예술, 박래경 역, 문예출판사
- Jürgen Habermas(1986),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역(1994), 문예출판사
- Katie Williams(2000),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 E&FN Spon
- Ludwig J.J. Wittgenstein(1921), "Logisch-philosophische Abhandlung"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2006), 책세상
- Madanipour, A (1996), "Design of Urban Space" , London: Wiley
- Mike Jenks외(2000),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E & FN Spon
- Momoyo Kaijima외(2001), "Made in Tokyo" , 鹿島出版社
- Patsy Healey, "Collaborative Planning"-협력적 계획, 권원용 역(2004), 한울
- Richard Florida(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길태 역(2002), 전자신문사
- Thomas S.Kuhn(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1992), 동아출판, pp.247~302
- Waltjer(2000), "Consensus Planning: The Relevance of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in Dutc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dershot:Ashgate

2. 보고서·정부간행물 등

- 강홍빈(2008),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도시재생 사업단 총괄과제 2차년도 연구 결과보고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2008),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건축 연구」,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6), 「건설기술문화선진화 실천전략수립연구」
- 건설부(1991),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
- 계기석, 천현숙(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 국토해양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4.25),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기간·비용 절감」, 국토해양부
- 권영상, 염철호, 고은정(2007),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권영상(2003),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기획단(19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기본구조계획」
- 김상조, 신동진, 문채(2003), 「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
 전략 수립연구」,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2008),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도시재생사업단(2008.10.), 「도시재생의 과제와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집」, 도시재생사업단,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전주시
 문정호, 양화백, 김선희, 장은교(2005),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2006), 「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경기」
 박광재, 김성우, 박희영(2002.10.), 「한국 전통주거의 계획개념을 응용한 공간구성기법에 관
 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4), 「부산 도시이미지」, 부산광역시
 세타 후미히코, 김광익, 변필성, 왕광익 외(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
 화와 정책대응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엄동욱, 이상우, 배노조(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울산대학교(1976),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보고서:의인-섬마을」, 울산공대 건축학과
 유영휘(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이상구(1983),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이왕건, 김중은, 박경현(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은엽(200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커뮤니티센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국토해양부
- 임서환, 이영은, 김옥연, 박준영, 박신영, 흥연각(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진영환, 권영상 외(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 전봉희(1992),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전주시(2000),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 전주시(2006),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보완」, 전주시
- 전주시(2007), 「전주시 시정백서」, 전주시
- 최정민(2008),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안) 공청회 자료」

3. 연구논문·저널

- 김찬호, 이창수, 우윤석(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42 n.2(통권 15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49-68
- 권영상(2007.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 나타난 탈중심적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83-392
- 민범식(2006.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 제시”, 「월간국토」, 296호, pp.6-16
- 박선희(2007),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pp.58~76
- (2003),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pp.754-768
- 양윤재 외(2000.12),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 연구”, 「도시설계」, 제1권 제1호, pp.9~35
- 윤정란(2007), “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심사업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v.42 n.3(통권15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89-107
- 이경찬,(2005), “전주의 도시형성과과정과 고대, 중세의 도시형태”, 「건축역사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42호, pp.170~197

- 이우배(2003.12), “창원 신도시 사례로 본 남약신도시 개발의 현안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5~45
- 장석원(1990.9), “현대의 한국성과 예술혼에 관하여”, 「미술세계」, 70호, pp.50-55
- 정광민, 곽희중, 김현숙(2007), “중심가로를 통해본 역사도시 전주 구도심의 형성, 번영, 쇠퇴, 재생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865~877
- 정기용(1987.9), “한국현대건축:한국성의 재발견2/설문”, 「공간」, 241호, pp.37
- 정인하(2003), “현대 도시이론과 언어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근대 도시이론과 현대 현대 도시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건축역사학회」, 제12권 제3호 통권 35호, pp.65~86
- 정호균, 최종현(2008.12), “진해의 형성과 성장에 따른 개발방향 연구”, 「도시설계」, 제9권 제4호, pp.231~244
- 조명래(1999.10), “중소도시에서 한국성”, 「건축문화」, 221호, pp.106~108
- 주종원(1985), “신제주건설 종합계획 및 설계”, 「건축문화」, 52호, pp.39
- _____(1988),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중소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23 n.1(통권50호), pp.21~34
- 최병숙(2006.6), “전주시 아파트 주거의 평면적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56호, pp.102~111

최창조, 박영한(1978.6),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양기풍수를 중심으로”, 『지리학』, 제 13권 제1호, pp.21~39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87), “Paris Projet, n° 27-28 : L' aménagement de l'Est de Paris”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90), “Paris Projet, n° 29 : L' aménagement du secteur Seine Rive Gauche”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93), “Paris Projet,n° 30-31 :Espaces publics”

BUFFI Jean-Pierre(1990), “Zone d' aménagement concerté Bercy. 1 : Plan masse des îlots du parc. 2 : Plan des rez-de-chaussée des îlots du parc. 3 :Plan des contraintes des îlots du parc. 4 :Prescriptions architecturales des îlots du parc.” , Ville de Paris, SEMAEST

BUFFI Jean-Pierre, MILLET Fabrice, “Développement du Plan d' Aménagement de zone de Bercy” , Ville de Paris, SEMAEST, s.d.

Healey, P. and R. Gilroy(1990), "Towards a People-Sensitive Planning",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5, N.2, pp.21~29

PORTZAMPARC Christian de(1999), “Paris Rive Gauche. Secteur Masséna. Cahier des charges particulières d' urbanisme et d' architecture” , Ville de Paris ; SEMAPA

PORTZAMPARC Christian de(1999), “Paris Rive Gauche. Secteur Masséna. Cahier des charges des espaces publics” , Ville de Paris, SEMAPA

PORTZAMPARC Christian de(1994), “La ville Age III” , Paris, collection les mini PAn° 5, Pavillon de l’ Arsenal

Susan S. Fainstein(2000), "New direction in planning theory", Urban Affairs Review Vol. 35, No. 4. pp.451-478

Ville de Paris(1995) “Consultation Masséna. Quartier des Grands Moulins” , Ville de Paris, SEMAPA

Ville de Paris(1995), “Consultation Secteur Masséna. Deuxième phase : Note de présentation” , Ville de Paris, SEMAPA

Ville de Paris(1994), “Consultation Secteur Masséna” , Ville de Paris, SEMAPA

Ville de Paris(1987), “ZAC Bercy. 12ème arrondissement. Plan d’ aménagement de zone. Rapport de présentation et règlement” , Ville de Paris;Direction de l’ aménagement urbain

Ville de Paris(1987), “Rapport de présentation. ZAC Bercy, 12ème arrondissement. Plan d’ Aménagement de Zone”

Ville de Paris(1987), “Zone d’ aménagement concerté Bercy. 12ème arrondissement. Dossier de création. Etude d’ impact” , Ville de Paris ; Direction de l’ aménagement urbain

WERQUIN Ann-Caroll, MAURER Paul, PELISSIER Alain(1997), “La consultation Masséna. Projets d’urbanisme pour un nouveau quartier de Paris” , Paris, Ed. d’artAlbert Skira

4. 웹사이트

국토해양부 건설교통통계연보 :

<http://www.moct.go.kr/DataCenter/StatisticData/07sta/main.htm>

도시포털 : <http://www.city.go.kr>

무안기업도시 홈페이지 : <http://www.mecd.co.kr>

웹스터온라인사전 :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

통계청 : <http://kosis.nso.go.kr>

summary

Study on Korean Urban Design Paradigm

Kwon, Young Sang
Um, Woon Jin

Until recently from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top priority of any policies of Korea was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velopment, which enabled the nation to achieve rapid economic growth over past decades. Spati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were also geared to restructuring the urban and territorial environment towards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experiences in urban design have been accumulated for both existing cities and New Towns.

In the meantime, amid recent changes in urban circumstances, new urban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on quality improvement are presently taking place domestically. As part of the trends, people are raising the need to reflect on the physical growth of the cities which have been formulated without considering the spatial structure, image and creation principles of the Korean city, and to examine the identity of Korean cities. In other word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at is true urban space of Korea and what identity Korean cities have, which marks the starting point of exploring future urban design paradigms of Korea.

The study aims to present urban design paradigms suitable for Korean cities in the future. This presupposes that the new paradigms should embrace the urban discussions and knowledge system so far, and at the same time, should be suitable for the urban circumstances of Korea and conducive to formulating a Korean urban space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lated theories and conducts the analysis of actual urban spaces, expert consultations and interviews, and survey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professionals, along with case studies of urban design paradigms overseas. For the analysis of actual urban spaces, the study examines existing cities of Korea including Jeonju City and Changwon City, and New Towns including the Bundang New Town and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For foreign case studies, the research analyzes Seattle of the U. S. and Paris of France.

The study first reviews the changing trends in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n cities. Then,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patial design appearing in connection with and as a consequent of these socio-economic backgrounds. Lastly, the study explores Korean urban design paradigms of the future based on the urban circumstances and urban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indicate that first of all,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development was carried out in the way to effectively adapt to the system for compressed development and growth at the national level. Secondly, for the urban design of a city with a traditional urban structure, the existing urban structure was considered as two-sided in terms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ird, the urban landscape has been formulated in the way the time layers

are continuously accumulated, and as a result, there exists traditional and modern landscapes mixed with each other in the urban landscape. Fourth, experts involved in urban design are gradually pursu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nstead of disconnection and division as in the early stage. And lastly, some of the cities have been recently attempting to gradually materialize the urban discussion on deindustrialization and demodernization in their cities.

The paradigms of urban design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social status and the consequent characteristics of urban design in Korea include restoration of 'Placeness' of a city, adaptation to the social circumstances of Korea, response to the paradigms of demodern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communities, shift to a bottom-up planning system centering around local governments, and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in planning. Some of these paradigms are related to the contents of urban design and the others to formal discussions on urban design.

These paradigms for Korean urban design can be applied to the local urban designing process in the future. They will make a meaningful extension of existing discussions on Korean urban design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addition, these paradigm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ransforming Korean cities into a city with identity and competitiveness.

Since the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Korean urban design paradigms, suggestions of specific urban design terms and guidelines to be applied to practical design proposals are excluded from the study as future research tasks. Accordingly, it is recommendable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on specific design techniques and guidelines based on the directions presented in the study.

Lastly, the study presents policy suggestions to ensure continuity and implementation capacity for the Korean urban design paradigms as follows: first,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explore the placeness and characteristics Korean cities have had from the beginning and pursue urban identity. Second, in order to transform people's and public workers' awarenes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re essential. Lastly, discussions and research on Korean urban design should take place from a long-range and consistent perspective.

Keywords: Korean, Korean urban, urban space, urban design, paradigm

부록 1-1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미국)

시애틀의 도시 역사성 및 지역성 보존 노력과 의미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미국)

시애틀의 도시 역사성 및
지역성 보존 노력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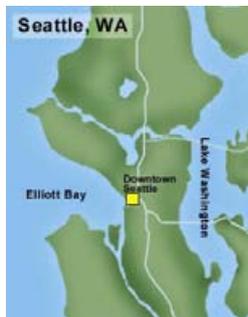
〈손동욱〉(홍익대학교 교수)

1) 시애틀의 역사와 성장 배경

시애틀은 태평양 연안의 퓨젯사운드(Puget Sound)와 워싱턴호(Lake Washington) 사이의 좁은 육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워싱턴호 너머로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남쪽으로는 올림픽산(Mt. Olympics)이 놓여진 이 지역은 호수와 바다, 산악지역이 접한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애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1850년대 초기 이주민들의 유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드위미시족이라는 인디언 부족의 거주지였다. 초기 정착지는 알카이(Alki) 부근이었으나, 그 후 알카이 지역보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안전한 엘리엇 베이(Elliott Bay) 근처로 도시 근거지가 옮겨지게 되었으며, 이지역이 현재의 시애틀 다운타운 일부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 도시로서의 시애틀은 목재 및 어업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목재들은 샌프란시스코와 퓨젯사운드 전역으로 수출되었다.



〈그림 1〉 시애틀 지도



〈그림 2〉 초기 시애틀(1870) 전경
(출처: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1869년 도시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인구 2천명의 시애틀시가 성립하게 된다. 1870년대 초반에는 대륙횡단철도의 서부 터미널 개발지가 시애틀 남부 40마일 거리에 위치한 타코마(Tacoma)시로 결정되면서 도시 성장에 타격을 입기도 하였으나, 이후 임업 및 석탄산업과 더불어 연안어업, 포경업, 조선업, 해운업이 발달하면서 시애틀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성장은 1889년에 발생한 대화재로 인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하였지만, 이때의 화재는 도시 중심부의 광범위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화재복구기간 중에 도로의 확장, 소방서의 건설, 공중수도망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건축물의 화재 예방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부에는 철재 및 벽돌조 건물들의 신규 건축만이 허용되게 된다.

1890년대에는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경제공황으로 도시의 성장이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1897년 캐나다의 유콘지역 클론다이크(Klondike) 강 일대와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도시는 다시 한 번 급격한 성장세를 타게 된다. 특히 알래스카는 시애틀과의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접근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시애틀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림 3〉 시애틀 대화재 (1889)
- 매디슨 거리 근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애틀의 인구 구성은 급격히 다양화된다.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어업과 임업에 종사할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흑인 철도 인부와 웨이터, 일본인 호텔업 종사자들도 증가한다. 아시아계 이주민 그룹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International District”도 이 때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애틀은 유래 없는 대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은 이 시기부터 시애틀지역 내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도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에 필요한 고속도로들이 개통되고, 이는 다시 자가용교통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스프롤(sprawl)로 연결되면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시애틀의 전통적 가치인 자연경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도시의 전통적 가치와 환경 파괴에 대해 비판적이던 시민그룹의 노력에 의해 도시의 보전과 도시문제의 해결을 담당하기 위한 METRO¹⁾라는 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또한 1962년에는 쇠퇴하

고 있는 시애틀 다운타운을 희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박람회 “Century 21 Exposition”을 위한 박람회장을 다운타운 북쪽지역에 건설한다. 이곳에는 현재 시애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스페이스니들(Space Needle), 박람회장, 과학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다운타운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라인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박람회장의 건설은 도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도시 중심부를 재생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시애틀 지역에는 보잉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이전해오면서 또 다른 부흥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정보산업과 관련된 고급인력들이 유입되고, 정보기술(IT) 연관 산업들이 성장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엄청난 도시경제의 성장을 이끌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림 4〉 스페이스니들 (우:1961년 완공당시 모습)

2) 시애틀 도심의 역사성 및 지역성 보존 노력

(1) 역사보존지구의 지정과 파이오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의 보존

파이오니어스퀘어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전통적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목구조로 지어져있었으나, 1889년의 시애틀 대화재 때에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는

1) METRO는 나중에 킹카운티 정부에 의해 흡수됨

그 이후에 새로운 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 건축된 석조와 벽돌조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 건축된 건물들의 대부분은 초기 빅토리아양식이나 로마네스크양식을 차용하였으며, 이러한 외관적 특성이 현재의 파이오니어스퀘어 지역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역사보존운동과 마찬가지로 시애틀에서의 역사보존에 대한 인식의 성장 역시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의 손실-시애틀호텔의 파괴(1961)와 이를 대체하는 “침몰하는 배(sinking ship)” 모양의 주차장의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알라스칸 고가도로(the Alaskan Viaduct) 개발로 다운타운과 수변지역이 단절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의 파괴와 이에 이어진 몰지각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의 파괴는 시애틀 시민들로 하여금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와 도시에서의 역사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도시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에 대한 반성은 파이오니어스퀘어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이어진다. 시애틀 역사보존운동을 주도한 빅터 스타인브룩(Victor Steinbrueck)은 파이오니어스퀘어 지역 내의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관리 목록을 1969년에 작성하였으며, 이어 1970년에는 지역 내 다수 블록이 국가등록지역(National Register District)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현재 파이오니어스퀘어 일대는 시조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를 통해 고유의 역사 및 건축적 특성이 엄격히 보존되고 있다.



〈그림 5〉 도심과 수변공간을 가로지르는 알라스칸 고가도로



〈그림 6〉 파이오니어스퀘어 퍼골라 (1914)
출처: Photograph courtesy Seattle Municipal Archives

〈참고자료: 시애틀의 역사보존 프로그램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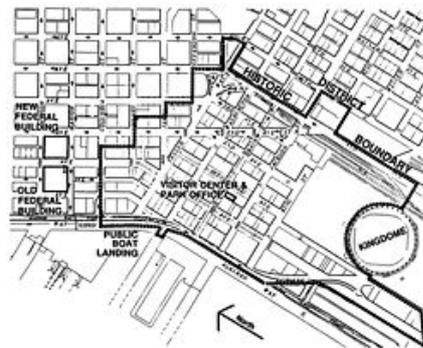
〈그림 7〉 파이오니어 스퀘어 주변 전경

시애틀시는 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 총괄하는 역사보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애틀 내에 존재하는 350여개의 구조물, 역사지구, 선박 등의 역사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역사성에 대한 보존 노력은 1960년대 시민들의 노력으로 도시재생계획 ("Urban Renewal" Plan)에 의해 파괴될 뻔했던 파

이크 플레이스 마켓과 파이오니어 스퀘어를 보존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에 시애틀 시 의회는 파이오니어 스퀘어를 시 최초의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내의 역사적 건축물들의 보존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1973년에 시 조례로서 랜드마크 보존 조례를 제정하여 시애틀의 가치 있는 건축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시애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보존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역사보존지구(Historic district)

역사보존지구는 건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이나 건축물들이 집중된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각 보존지구에 내재된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계



〈그림 8〉 파이오니어 스퀘어-스키드로드 역사보존구역

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미국 주정부는 내무부 (U.S. 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의 국립 공원서비스라는 기관을 통하여 연방 보존지구를 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보존지구는 국가 등록 역사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주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통하여 보존지구를 지정하

며 이렇게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들은 엄격한 규제와 보존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애틀에서는 1970년 이래 다음과 같은 총 7개 지역이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벨러드 에비뉴(Ballard Avenue)/콜럼비아 시티(Columbia City)/ 포트 러튼

(Fort Lawton)/ 하버드-벨몬트(Harvard-Belmont)/ 인터네셔널 디스트릭트(International District)/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파이오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

각 지구내의 건축물들은 외관 및 역사적 맥락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시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시민위원회 (Citizen board) 및 랜드마크보존위원회(Landmark Preservation Board)로부터 받게 된다.

◦ 각종 인센티브

1) 용도규제 및 건축규제 예외규정

(Zoning Code and Building Code Reliefs)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및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DPD)의 허가를 전제로 특정 토지용도지역으로의 예외적 지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예외적 적용은 역사적 건물의 보전과 사용상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DPD는 랜드마크 건물이나 특별관리지구(special review district) 내의 건축물들에 대한 오픈스페이스, 건축선 후퇴, 건물 폭 및 깊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2) 도심 랜드마크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랜드마크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시로부터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 철거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개발권양도제도(TDR)를 활용하여 경미한 밀도 증가를 위한 무분별한 재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권양도제의 적용을 위하여 시는 개발권은행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랜드마크건물에 할당된 개발권의 거래를 활성화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개발권을 구매하여 특정지역에 추가로 개발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며, 반대급부로 개발권 구입비는 랜드마크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어 건물의 보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세금감면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의 가치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을 면제시켜줌으로써 역사적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유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파이오니어 스퀘어 북향 신축건물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약〉

- 출처: Pioneer Square Preservation Board

○ 목표

1. 파이오니어스퀘어 내에서의 신축건물과 주변 컨텍스트와의 조화
2. 대상지 내에서 신축건물이 갖추어야 할 디자인의 질, 안전성, 보행자에 대한 배려, 주변 토지이용과의 연계성, 범죄 예방적 설계(CPTED)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컨텍스트

- A. 지역 내의 모든 개발은 다음의 컨텍스트를 따라야 함.
1. 대상지역은 파이오니어 스퀘어 보전지구에 위치하고 있음
 2. 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은 주거, 북쪽은 상업과 업무용도지역임
 3. 대상지의 동쪽부분은 경사지 및 철도를 기준으로 International Special Review District와 인접하고 있음.
 4. 세이프코필드(Safeco Field) 야구장과 퀘스트필드 (Quest Field) 미식축구장에서 경기가 있을 경우 이 지역은 보행자들의 주된 이동로가 됨.
 5. 킹스트리트 정거장은 교통 허브로서 기능함
- B. 지구내의 중요 특징적 건축요소
1. 현재 지구내에 위치한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2-8층 높이 건물들이 주류를 이룸
 2. 역사적 건물들은 건축선 후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3. 북쪽 블록 내의 건물들은 크기가 대략 110ft X 108ft 정도로 4채의 건물인 한 블록을 구성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킹스트리트센터는 건물 하나가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함.
 4. 주변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벽돌조의 건축재를 사용함
 5. 표준규격의 벽돌과 아치, 테라코타, 석조 디자인 디테일, 철재장식구조물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 스케일의 건축 외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건물 정면 입구부분은 다양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치장함.
 6. 파이오니어스퀘어 역사보존지구의 건물들은 기초와 층간 구분을 수직적 분할을 통하여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임. 입면에서는 열주의 반복적 사용을 통하여 수평적 분할을 실시하고 이렇게 분할된 각 공간들은 창틀의 배열 기준이 됨. 또한 장식적인 상점 전면부와 정면 입구, 동일한 창문의 반복적 사용 등의 입면 설계적 특징이 있음.

◦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형태(Massing): 높이나 입면 디자인 측면에서 주변건물과의 형태적 조화를 고려할 것.
2. 높이규정: 건물의 높이 및 각 층의 층고는 주변 건물들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가벽이나 발코니 등 외관적 표현을 통한 시각적 연계는 허용되지 않음 (층고를 명확히 주변과 연계해야 함)
3. 건축선 후퇴: 생활가로 유도를 위하여 건축선 후퇴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허용되지 않음. 건축선 후퇴는 15피트-30피트 허용.
4. 스케일: 건물 입면은 보행자 스케일에 맞추어야 하며 보행자와 접하는 바닥레벨에서의 디테일에 주의할 것.
5. 스트리트월(Street Walls): 도로변과 접하는 측면의 건물 입면은 주변과의 연속성 및 역사적 건축물들과의 높이 측면에서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6. 벽측면설계(Non-Street Wall Elevations): 모든 면의 건물 벽의 디자인 및 재료의 질적 수준이 주변의 건물들과의 조화를 저해해서는 안 됨.
7. 입구방향: 건물 전면에 각 상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외에 명확히 구별되는 정문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식이나 디테일 (예: 캐노피, 바닥장식포장, 조명, 건축적 모델링, 간판 등)을 활용할 것
8. 지상층 전면 디스플레이: 상점 전면 유리는 반사성이 없고 내부가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 유리로 할 것
9. 상층부 전면 유리: 반사성이 없고 내부가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 유리로 할 것
10. 발코니: 발코니 설치를 권장하며, 발코니는 건물의 수직 수평적 표현에 기여해야 함
11. 보행 친화적 디자인: 가로변의 보행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 수법을 적용할 것
 - 잘 보이는 보행 접근로
 - 보행자 스케일의 입구와 창문
 - 색상, 텍스처, 패턴의 사용
 - 보행자 스케일의 조명
 - 자동판매기 설치구역의 지정
 - 보행자 스케일의 간판 및 안내 표지판 등
 - 시각적 혐오시설을 가려주는 조경 등의 활용
12. 환경 친화 디자인: 에너지 효율과 건물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권장

(2) Pike Place Market의 보존 과정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전통시장이다. 1907년 처음 개장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영세상인과 농부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뒤섞여 활기찬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시애틀의 대표적 명소이기도 하다.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엘리엇 베이(Elliott Bay)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의 끝부분으로 시장, 식당, 고가구판매점, 기념품매장 등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시장 콤플렉스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은 민관 합동 운영기구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보존 및 개발 위원회 (Pike Place Market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Authority-PDA)가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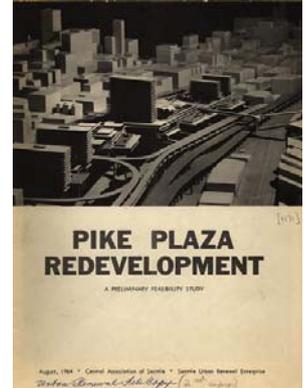
〈그림 9〉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재개발 압력 등의 영향으로 시장주변에 대한 전면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1963년 제안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의 재래시장을 헐어버리고 이를 대체하는 호텔, 아파트, 사무실, 하키경기장, 주차장으로 구성된 현대적 복합시설을 계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재개발계획안은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회 의원들, 시장 부동산 소유주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베티 보윈(Betty Bowen), 빅터 스타인브룩(Victor Steinbrueck) 등의 역사보존론자들과 시장 협의체 등 지역 커뮤니티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다. 이들의 시장 보호 노력은 1971년 11월 시장구역을 역사 보존 구역 (historic preservation zone)으로 지정하여 재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시에 의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보존 및 개발 위원회 (PDA)가 설치되고 지역 커뮤니티 그룹과 시의 협력으로 다수의 지역 내 역사적 시장 건물들은 원래의 설계도면 그대로 복원되거나 보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시민중심 도시재생의 역사와 의미

(1)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및 NGO 참여의 역사

상향식의 개발 계획 접근법은 지역 계획 프로그램 및 1960년대와 1970년 초반에 걸쳐 일어났던 “시애틀 지역 운동”(Seattle Neighborhood Movement)에 기원을 가진 지역 매칭 펀드(matching fund)와 같은 시애틀 내의 관련 지역 중심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시민중심의 도시재생 움직임은 1960년대 초반의 하향식(Top-down)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의 비인간적 접근 방식과,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에 거대한 정부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안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 시애틀 도시계획부 직원인 스티브 셰퍼드(Steve Shepherd)의 주장에 따르면,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커뮤니티가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서 형성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림 10〉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재개발계획안

- 1) 모델 도시 프로그램(The Model Cities Program): 도심 지역 내의 지역 개발 계획을 보조하기 위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연방 정부에서 재원을 보조 받는 프로그램
- 2) 시 주도의 커뮤니티 개선 프로그램(The City-initiated Neighborhood Improvement Program):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의 조직화를 위한 시주도의 프로그램
- 3) 1977년의 고속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대규모 시민반대운동: 1977년에 제안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조직화된 대규모 시민 단체의 반대운동과 정치 및 여론의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된 사례

커뮤니티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한 또 다른 요소 및 메커니즘으로는 시의 커뮤니티 개발 부서인 지역 계획 사무소 (1969년에 조직되어, 후에 Department of Neighborhood에 흡수됨)와 커뮤니티 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지방채 프로그램인 Forward Thrust Bond 프로그램(1968년)에 의해 조성된 재정 지원이 있다. 지역 계획 사무소(The Office of Neighborhood Planning)는 커뮤니티의회의 구성, 지역 개선 계획의 수립, 지출 우선 과제의 선정 과정 등에서 연방 정부와 시애틀 시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 O'Donnell, Arthur J.(2004) “In the City of Neighborhoods: Seattle's History of Community Activism and Non-Profit Survival Guide”. New York: iUniverse Press

또한 지역 계획 사무소는 주택/도시 개발부(HUD)으로부터 승인받은 연방 커뮤니티 지원금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1970년대에 커뮤니티 재생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기구의 역할은 결국 지역 의회와 시 당국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하는 역할로 변질되고 말았다. 민간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개발 움직임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지만, 다양한 정부 차원, 특히 연방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협력은 그 이후 수십 년간 발전된 시애틀의 커뮤니티 기반 계획 모델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시민주도의 커뮤니티 개발 사례

① 사례 개요

□ 사업개요 및 추진 주체

- Delridge 지역 개발 공사(公社): 영스타운 문화 센터 및 아티스트 주택 공급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시애틀: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심 지역 계획 발의 및 "시애틀 International District"에서의 설문조사
-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위원회: 콜롬비아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

| 조직 명칭 | 위치 | 조직의 기능 |
|---------------------------------|--------------------------|---|
| Delridge 지역 개발 공사(公社) | 시애틀 남서쪽에 위치한 Delridge 지역 | 이 조직의 주된 역할은 적정 가격의 주택을 조성하는데 있었지만, 예술 및 문화 활동 지원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역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지속가능한 시애틀 (Sustainable Seattle) | 시애틀 및 킹카운티 메트로 지역 |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임무는 시애틀/킹 카운티 지역에서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그들의 우선 과제를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커뮤니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위원회 | 시애틀남동부에 위치한 콜롬비아시티 | 활발하고 강력한 상업 커뮤니티 및 보다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를 위해 활동한다. |

□ 커뮤니티 개요

- 델릿지: 델릿지(Delridge) 지역은 시애틀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약 1만명을 가진 중산층 지역이다. 이곳은 시애틀 다운타운 중심부로부터 대략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 내의 주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심 성장 압력을 받고 있다.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 계획 재원을 지원받았다.

- 국제 지구(International District):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 지구는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약 3,000명가량의 주민이 모여 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도심 지역이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시애틀 다운타운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평균 가구별 소득은 시의 나머지 지역 수입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낮다.
- 콜롬비아시티: 콜롬비아시티는 시애틀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거리는 시의 다운타운 상업 중심부로부터 약10km떨어져있다. 이곳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다운타운 상업 지역을 따라 최근에 완공된 다가구 주택지도 있다. 최근까지도 콜롬비아 시티는 가구 소득이 낮고 범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이 시작된 후 도시 활성화 노력에 있어 눈에 띄는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 지방 정부 조직 개요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있어서 프로젝트 중점 사업 내용에 따라 시민조직 혹은 커뮤니티 그룹과 협조하는 정부 기관들은 다양하다. 이들 중 중요한 기관 들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 지역 계획부 (Department of Neighborhoods)
- 도시 계획 및 개발부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지역 경제 개발부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지역 계획 사무소 (Office of Neighborhood Planning) : 현재는 활동을 중지하였지만, 이 기관이 존재하던 시기(1995-1999)에는 지역 계획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영스타운(Youngstown) 문화센터 및 예술인 주택 공급 프로젝트

□ 사업 목적

영스타운 문화센터 및 예술인 주택은 서민 주택 공급과 기타 혁신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주로 전념하는 비영리 개발업체인 DeIridge 지역 개발 협회에 의해 완공된 프로젝트이다. 문화센터와 주택 등이 혼합된 이 건물은 인근에 새로운 지역 학교가 설립된 이후 1989년에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건설되었다. 이 건물은 개발계획이나 유망한 구매자가 없는 상태로 지난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1999년, 시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 수립 과정의 일부로서 이 폐쇄된 초등학교를 새로운 문화 센터 후보지로 파악한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기구인 DeIridge 지역 개발 협회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잠재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6년에 완공된 쿠퍼-영스타운 프로젝트에는 건물 상부 2개 층에 36곳의 직장 겸 주택과 1층에 위치한 임대극장 및 미디어 센터 그리고 제작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 센터를 결합한다. 직장 겸 주택은 모든 예술인들이 주거 걱정 없이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 지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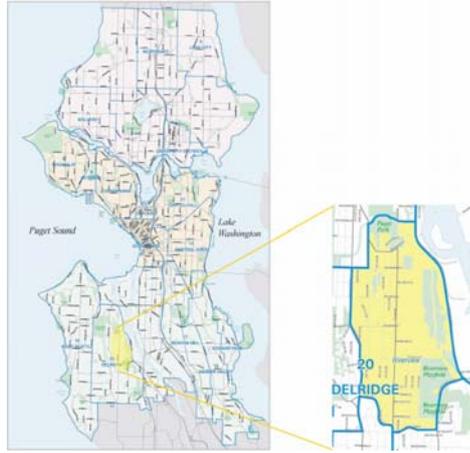
- 인구: 9,521명
- 전체 점유 주택 가구 수: 3,485
- 평균 가구 구성원 수: 2.72명
- 자가/임차 주택: 51%/49%
- 평균 가구별 소득: \$44,085
- 극빈층 인구 비율(%): 16.1%
- 해외 출생자 비율(%): 26.3%



〈그림 13〉 영스타운 문화센터 전경

□ 사업 추진 과정

DNDA는 시애틀 교육청으로부터 1999년도에 52만 5천 달러를 투자하여 10년 전에 폐교되었던 오래된 쿠퍼 학교를 구매하였다. 지역 사회와 협조하여 DNDA는 이 학교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전국적인 기금 마련 캠페인을 벌였다. 이 건물에 대한 두 가지 독특한 활용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들은 각 프로젝트별로 기금을 마련하였다. 문화 센터의 경우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 Paul Allen 재단, Murdock 재단과 같은 비영리 후원자들로부터 엄청난 재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외에도 정부 기관 및 여러 다양한 개인 및 기관들로부터도 일부 재원을 후원받았다. 주택 부분은 연방 정부의 저소득 세액 공제에 기반한 국가 공모 펀드 기금, 워싱턴주 주택 공급 신용 기금, 시애틀 도시 주택공급세 그리고 잔여 부족 기금은 \$800,000 일반 대출로 충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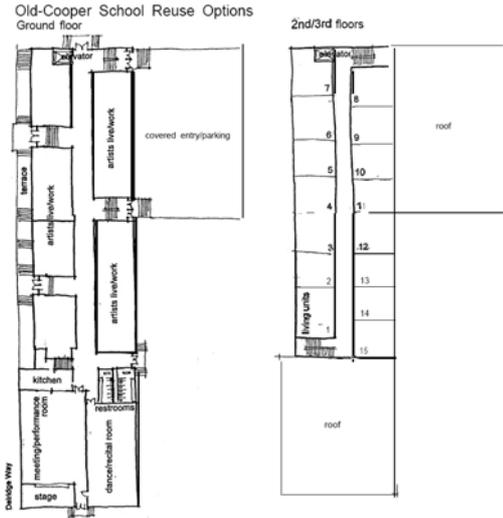
〈그림 14〉 Deliridge 지역 지도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개발 진행 과정 중 커뮤니티는 시설의 프로그래밍과 (이전 소유주인)시애틀 교육청으로부터의 토지 조달에 관한 전략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한 예로, 커뮤니티는 상업 및 생활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현재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커뮤니티는 문화센터 주변 지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센터는 개발 완료와 동시에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 변모하였고,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영스타운 문화센터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반 기구(DNDA), 그리고 정부 사이에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지역 개발 프로세스는 이 세 당사자들 모두가 계획 및 시설 목표를 수립하고, 그와 같은 시설들이 시행할 수 있는 보다 큰 지역 차원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문화센터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었으며 커뮤니티의 본래의 비전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직장 겸 주택 스튜디오들은 아티스트 및 일부 비영리 기구에게 임차 되며, 문화센터에서는 커뮤니티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영스타운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또한 필요한 자원 가운데 일부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재개발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오래된 교육 건물인 학교를 몇 가지 새로운 활용 목적을 가진 건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비영리 개발로서,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개조 및 운영 및 전형적인 영리 목적의 프로젝트에는 없는 중대한 가정(假定)을 함에 있어 독창적인 재무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문화센터의 공실율(空室率) 결정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음). 셋

째,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로서, 세액 공제와 연방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Section 8"의 주택 공급 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내에서 DNDA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개발업체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또한 건물 소유주와 커뮤니티의 이익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의 몫이기도 하였다. DNDA는 일반적인 소유주 또는 투자자 그룹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의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기로 하였다. 이들의 재무 분석은 정확해야 했으며, 문화 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림 15〉 지역 개발 계획에 포함된 커뮤니티에서 제시한 오래된 쿠퍼 초등학교의 재활용 계획 가운데 하나(1999)

③ 지속가능한 시애틀 - International District의 지속가능한 계획안 수립

□ 사업 목적

길거리 설문조사 (street-level surveys)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애틀 시와 킹카운티 메트로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전념하는 비영리 기구인 지속가능한 시애틀 조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길거리조사 프로젝트는 사설 기구(Alfred P. Sloan 재단)에서 시애틀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 지표 개발을 위해 2003년에 발의된 4년 기한의 프로젝트로서 재정 지원을 받는 시애틀 도시 개발 계획의 일부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한

시애틀 위원회는 시애틀 시 당국,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워싱턴 대학과 지역 차원의 삶의 질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공조를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낙서, 버려진 건물, 쓰레기, 보도(步道)문제, 그리고 중요한 지역 관심사들과 같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분류, 추적되어 관련 시 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애틀 시 당국에 제출되었다.

□ 지역 통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956명 - 전체 점유 주택 가구 수: 1,704 - 평균 가구(家口) 구성원 수: 1.54 명 - 자가(自家)/임차 주택: 1.8%/98.2% - 평균 가구별 소득: \$11,201 - 극빈층 인구 비율(%): 49.3% - 해외 출생자 비율(%): 60.3% |  |
|--|--|

〈그림 16〉 International District 전경

□ 사업 추진 과정

서민 주택 공급 기구인 International District 주택공급연합은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길거리조사 프로젝트의 지역 파트너가 된 도시 내부 자연 보호 구역 관리(WILD)라고 불리는 젊은이 중심의 환경 정의 기구를 후원하였다. WILD는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국제 업무 지구에서 이상적인 커뮤니티 파트너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성, 기술과의 친숙성, 커뮤니티 우선 과제에 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이 지역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WILD에 속한 젊은이들 상당수는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 지역의 방언 및 언어를 사용하



〈그림 17〉 International District 지역 지도

는 사람들이었다). WILD는 정보 및 데이터 수집, 그리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관련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시애틀은 감독, 훈련 및 관리 역할에 힘을 기울였다. 지속가능한 시애틀이 제공한 훈련으로는 WILD자원 자들에 대한 휴대용 컴퓨터, 루트 선정 및 기타 문서의 사용에 관한 브리핑이 포함되어있었다. 지속가능한 시애틀은 또한 이들 간의 젊은이를 위한 환경 관련 워크숍 주최, 프로젝트를 위한 휴대용 컴퓨터 제공 등을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사진을 이용한 문서화 작업에 500달러를 기부하였다.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길거리 조사 프로젝트의 "모체 프로젝트"였던 "시애틀 도시 지역 계획 발의"는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후원하였으며,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는 시애틀 시 경제 개발 사무소, 시애틀 시 지역계획부, 그리고 미국 환경 보호국과 같은 곳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재정 관련 문제 외에 프로젝트의 중요 아이디어는 시민과 시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지역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프로젝트가 가지는 중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커뮤니티의 건전성과 활력 사이의 관계 이해 및 시 당국이 지역 개발 우선 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연관이 되며, 이들이 어떠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림 18〉 길거리 조사 기간 동안 사진 문서화 작업에 참여중인 젊은이와 장년층 커뮤니티 회원들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그림 19〉 길거리 조사 기간 동안 정보 기록에 사용된 휴대용 장치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④ 콜롬비아시티(Columbia City) 활성화 프로젝트



〈그림 20〉 콜롬비아시티 전경

□ 사업 목적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프로젝트는 1994년에 결성된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의미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안전성 개선, 지역 내 전통적 상업구역의 활력 증대, 지역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전반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없앨 목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립하였다.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지방 정부 사이에 효과적인 공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안전,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 경기 부양 등의 목적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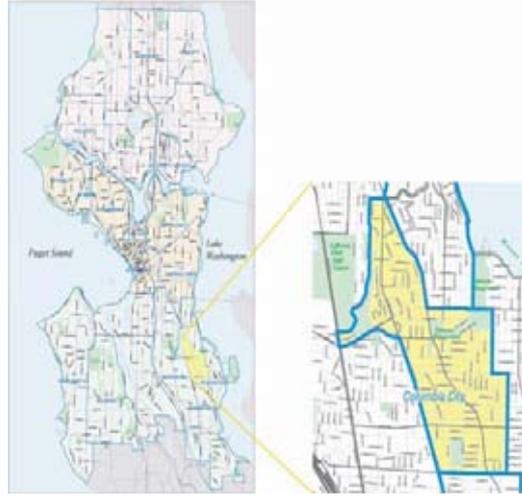
□ 지역 통계

- 인구: 5,629명
- 전체 점유 가구 수: 2,101
- 평균 가구(家口) 구성원 수: 2.68 명
- 자가/임차 주택: 34.3%/65.7%
- 평균 가구별 소득: \$26,879
- 극빈층 인구 비율(%): 28.8%
- 해외 출생자 비율(%): 41.1%

□ 사업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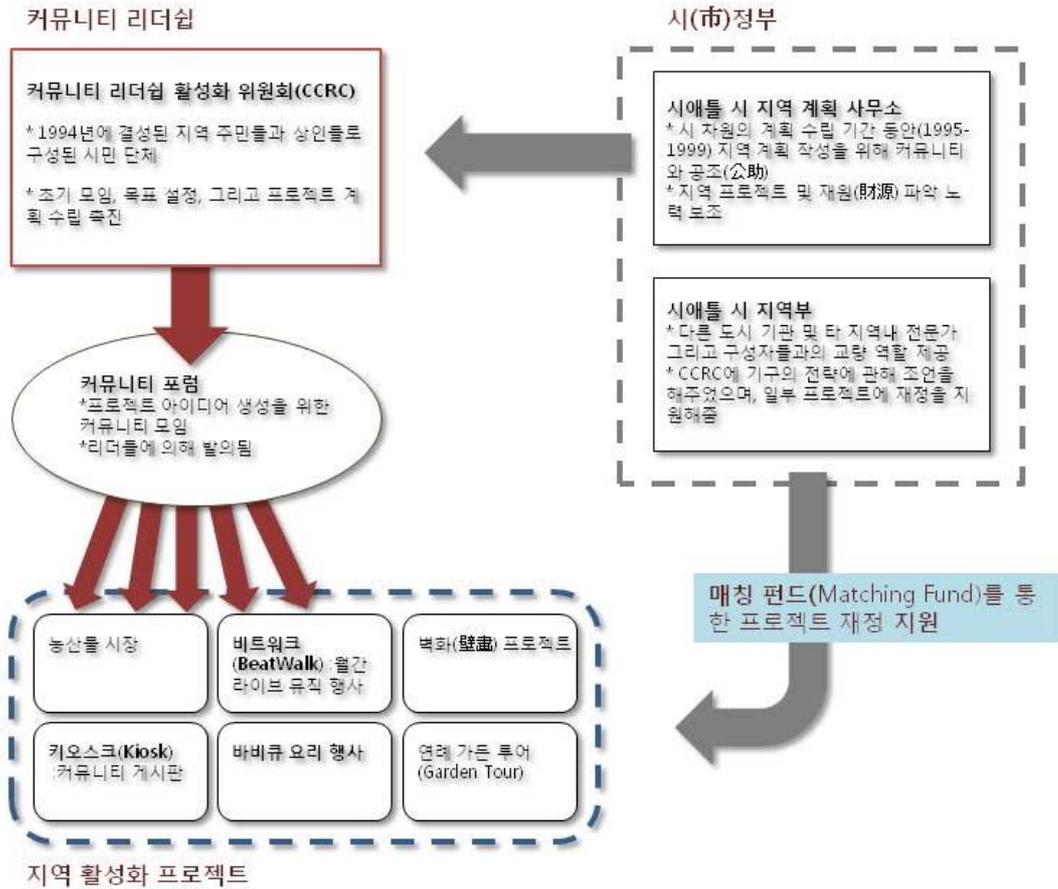
콜롬비아 시 활성화 위원회(CCRC)는 1994년도에 주민과 사업 소유자들에 의

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 그룹은 지역의 쇠퇴하는 사업 여건에 대한 우려 및 지역 상업 지구에 유동 인구가 부족한 문제점을 알릴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CCRC는 1995년 봄에 지역 레스토랑에서 팬케익 아침 식사 타운 모임을 구성하고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자에게 지역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CCRC는 참여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은 지역 예술 및 음악의 거리 프로젝트(일명 "비트워크(Beatwalk)"), 지역 정보 센터 건립, 몇 개의 연례행사(바비큐파티, 연례 가든 투어),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그림 21〉 Columbia City 지역 지도

커뮤니티의 역할은 주로 정보 공급원(특정 프로젝트 형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 인력 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주요 정부 기관은 시애틀 시의 지역 계획부였다. 이부서의 사무실은 콜롬비아 시 업무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직원들은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과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냈다. 지역 계획부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다른 시 당국의 부서 및 주변 도시 지역 리더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어 지역 커뮤니티에 이들의 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와주었으며, 2) 지역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통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줌으로써 CCRC와 커뮤니티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존재했던 지역 계획 사무소 또한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22〉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 프로세스 차트 설명



〈그림 23〉 비트워크(Beatwalk)에서 공연 중인 음악가들
 (출처: Pamela Eaton Ford <http://www.ColumbiacityBeatwalk.org>)



〈그림 24〉 지역 주민들이 1998년에 방치된 건물에 제작한 가능성 있는 지역 사업을 나타내는 벽화

지난 10년간의 콜롬비아시티 활성화 프로젝트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도시계획부 형성 이전 시기(1989년 이전)
- 2) 지역계획부가 형성된 후 시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1989-1999년)
- 3) 지역 개발계획 시행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1999-2007년).

비록 콜롬비아시티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여러 지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주었던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은 1994년을 시발점으로 콜롬비아 시티 활성화 위원회(CCRC)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콜롬비아시티 비트워크(Beatwalk): 콜롬비아시티 업무 지구내에서 개최되는 월간 행사로서 지역 아티스트와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지역 업무 지구에서 오래된 전통 있는 상업 지구에서 공연함. 행사 주관 비용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방문객들은 균등하게 5달러의 입장료만을 지불하였다.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두 곳의 센터는 주민들이 지역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한다. 센터는 콜롬비아 시와 연관된 역사적인 사진들로 장식되었다.

- 콜롬비아시티 농산물 시장: 마켓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역 학교의 주차장에서 운용되며,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한다.
- 벽화 프로젝트: CCRC의 조정을 거쳐, 주민들은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미술을 사용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빈 점포들을 따라 가상의 사업 벽을 만들어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으며, 주민들이 자체 벽을 만들어내는 몇몇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역 커뮤니티가 원래 목표했던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예: 콜롬비아시티 내에서의 범죄율 감소, 사업 환경의 극적인 개선,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 프로젝트 비전의 실현). CCRC의 활동은 콜롬비아시티의 지역 활성화 노력을 구상하였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지역이 여러 면에서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도록 만들었다. 지역 리더들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택 공급 수요 증가와 그에 대한 부동산 가격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저소득 거주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지역에 대한 연방 및 시 당국의 서민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CCRC에서 수행한 역할은 결국 콜롬비아시티 사업 협회(CCBA)에서 떠맡게 되어, 현재는 이곳이 지역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구심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CCBA는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소개하고, 지역 미화(美化) 그리고 문화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 협회는 시 당국과 협조하여 지역 내 문제의 우선 과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4) 결론

시애틀은 19세기 중반 서부 개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탄생하였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아시아 및 북부유럽의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독특한 다문화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하였으며,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항공 산업의 메카로, 1990년대 이후에는 다시 IT산업 중심지로 변화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이 위치한 미국 북서부 해안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환경과 융합되어 현재의 시애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나 문화도시, 창조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유행하는 이 시점에 시애틀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도시적 가치의 보존과 개발 사례는 현재의 우리도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 도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의 보존 노력

서부의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애틀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전통적인 도시들에 비할 수 없이 그 역사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지 않은 도시의 역사 속에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정부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를 지켜내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왔다.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의 역사보존지구 지정을 통한 역사적 도시공간의 보존 노력이나 무분별한 도시개발 압력에 대한 조직적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도시의 전통시장지역(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지역성을 지켜낸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보이고 있는 과도한 전면재개발방식 사용 사례들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방 대도시들은 과거 수년 동안 도시환경정비 혹은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각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지역적 가치나 자산의 보존, 더 나아가서는 이의 적극적 개발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도시계획 혹은 도시설계가 추구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는 문화도시, 창조도시와 같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각 도시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의 발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도시만의 고유한 장소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도시에 내재된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도시적 자산의 보호에 국한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서 역사지역에 대한 엄격한 도시설계지침이나 개발권양도제도, 역사건축물 보존을 위한 관리비 지원 같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도시정책을 통하여 도시의 역사적 자산들을 보존하고 도시의 장소성을 발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도시재생

민주적이고 상호 협력을 중시하며 강한 주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애틀의 문화적 풍토는 관주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정비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발전적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조직과 주민참여운동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시애틀의 도시적 특성은 과거 시애틀 대화재 이후의 도심의 재건과 20세기에 진행되어온 도시재생운동(urban renewal) 등을 통해 자칫 파괴될 뻔 했던 시애틀 커뮤니티의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하향식 도시정책의 폐해와 불합리성을 인식하며 시애틀의 사례에서 보이는 상향식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애틀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서 보이듯이 공공부문과 민간의 상호 협력적 도시 정비는 그 과정상에서 의견수렴과 합의를 위해 부단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도시 내 커뮤니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더욱이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시정비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도시정비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International District 도시정비사업이나 컬럼비아시티 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이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도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미래 도시와 장소성 개발의 중요성

본 글에서 살펴본 시애틀의 역사성 보전과 커뮤니티 정비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도시정책 방향의 큰 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과거 50여 년간의 성장시대를 통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이나 지역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서구화된 개발 일변도로 급속히 변화되어왔다. 그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들은 무미건조하고 규격화된 공산품의 집합소와 같은 얼굴 없는 도시화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서울이 서울답고, 부산이 부산답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시들이 잊고 살아온 우리 도시들만의 가치와 전통, 지역성의 회복을 통해 각 도시들 고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부록 1-2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

파리의 '전통성'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도시형태 형성과 의미

외국도시의 정체성 모색사례(프랑스)

파리의 '전통성'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도시형태 형성과 의미

〈한지형〉(아주대학교 교수)

1) 파리의 도시설계에서 정체성의 모색

도시 조직의 형성은 사상 흐름의 역사적 축적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한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인 도시 형태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도시 속에 존재하게 된다. 건축과 도시 역사의 모든 변천 속에서, 전 세대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주어진 시점에 하나의 독트린을 생성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담론들을 끌어내었다. 사실상 건축과 도시 설계에 있어 모든 전환점은 역사 속에서 결정적 순간을 결정지어왔고, 공간 정책과 계획 개념의 서로 다른 국면들을 분절시키고 재구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반과 사회의 주요 변화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도구라 할 수 있는 협의개발지구(ZAC: zone d' aménagement concerté)는 도시의 전략적 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는 집합적인 계획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행과정에 있어서, 개발사업구성방식과 시행은 일반건축사업보다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협의, 조정에 기본을 둔 일관성 있는 제어를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시의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 형태를 만들고자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계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주체들의 참여에 위계를 부여하고 구분하면서 사업주체들의 역할 분배를 조직화한다. 현대 도시계획의 실행 수단으로 실제 프랑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협의개발지구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도시 형태의 논의와 결정과정은 도시 마다의 특색이 어떻게 개발사업의 속성과 결합되어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독특한 도시구조와 형태를 발전시키고 형성해 온 파리라는 도시에 대한 몇 가지 사항과 특징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파리라는 도시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한 배경으로서의 전통성을 어떻게 현대에 이어가고 있는지를 협의개발지구 계획의 변천, 베르시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도시 형태적 특성과 건축 계획적 합리성, 파리리브 고슈의 마세나 구역 아이디어 설계 공모전의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개발 제도의 내용과 배경의 변화, 전통적 도시 형태의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탐구 사례, 특수한 장소 해석으로 파리의 한 도시 단편에 대한 동시대 건축가들의 고민과 풀이 방법 등을 통해 파리의 특수성을 읽는 방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파리시 도시설계의 진행과정

(1) 협의개발지구(ZAC)계획의 변천

도시 형태에 대한 원칙의 변천과 설계 방식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파리시의 협의개발지구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경계는 프로젝트 수립과 구상에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 : Atelier parisien d'urbanisme)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시점과 관계가 있다. 이 시점부터, 도시계획원칙의 형태화에 대한 고찰은 파리도시계획연구소에 의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었고, 계획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도시연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개발계획의 설계 작업과정을 체계화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정책 방향과 연결된 주요한 사상들과 이 기관은 실행의 여러 단계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① 파리 협의개발지구의 제1세대 : 1969년-1977년

과거 실행된 도시우선화구역(ZUP : 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의 불행한 결과에 대한 반동으로, 1967년 토지이용방향(LOF)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협의개발지구(ZAC)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실행적인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우선화구역 제도를 대신하게 되었다. 도시우선화구역과 비교해볼 때, 협의개발지구(ZAC)는 협의의 중시,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과 기능의 혼합, 도시계획도에 있어서 토지점용계획(POS : Plan d'occupation du sol)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이라는 점과 함께 절차상의 세 가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개발의 등장은 공권력(국가, 지방자치단체)과 시민을 포함한 관련기관들(개발업체, 민간 소유자, 건설업체, 미래

의 이용자 등) 사이의 협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실현안의 결정단계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업추진의 범위 결정, 도시계획도서의 수립, 실행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는, 195개의 도시우선화구역에 800,000채의 주택이 지어질 만큼 주택 건설을 우선시하였던 도시우선화구역에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었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협의개발지구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설정은 협의개발지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앞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제안하면서, 주택, 공공시설, 업무시설, 녹지공간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종합을 지향하고 있다. 협의개발지구에서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은 시설지역세가 면제되고, 이러한 지방자체단체의 허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된다.

세 번째로, 실현방식에 있어서, 협의개발지구는 이 지구만의 특별한 법규가 적용되면서, 일반법에 속하는 토지점용계획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다.

도시우선화구역(ZUP)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표출에도 불구하고, 협의개발지구(ZAC)의 첫 번째시기에 이루어진 계획들은 도시개조가 주류를 이루던 이전의 도시계획 양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특히 도시 형태와 건축형태의 생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라이프 협의개발지구, 제마프-그랑주-오-벨르 협의개발지구, 아망디에 협의개발지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협의개발지구라 할지라도 실행절차에서 서로 다른 도시설계안들이 시대변화에 따른 방향 전환에 따라 여러 차례 새롭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개발지구(ZAC)의 첫 번째시기에 이루어진 도시 형태는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 도시계획의 주를 이루고 있던 ‘양상블 어버니즘’ 과 아직도 유사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뒤늦은 형태변화의 적용은 독트린에 비해 절차의 시기가 가지는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트린은 리노베이션 구역들의 지속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공적인 활동영역은 그 활동 방법에 대해 천천히 고려를 하면서 이들 구역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파리는 도시개발에 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되찾게 되었고, 시행 시스템과 도시계획 원칙 및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1977년 파리시장으로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이 당선되었고, 파리가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역할은 도시정책 변화의 기류와 함께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이 기관은 파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맺으면서 실행과정 속 공적인 활동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협의개발지구의 사전연구와 마스터플랜 구상이 대규모 리노베이션 구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개발업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리시의 도시 개발부와 파리도시계획연구소에서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의 실행에 있어 시의 자치권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파리시는 민관자본 혼합회사(SEM : Société d' économie mixte -이 회사 자본의 평균 50%이상을 차지하게 됨) 주요 출자자로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형태의 생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리의 도시개발 원칙과 방향은 파리도시계획연구소에 의해 확증된 독트린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자 유치 협의개발 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파리에서 이루어진 협의개발지구의 계획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 제어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② 파리 협의개발지구의 제2세대 : 1978년 이후

1978년 초, 파리시는 대규모의 도시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협의개발지구를 도시 리노베이션과 개발정책의 주요 도구로 설정하면서, 도시사업의 새로운 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협의개발지구의 시행 역사에 있어서 이 큰 변화의 계기는 파리의 새시장 선출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도시계획이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파리시의 기술부가 재개편되었다. 1978년, 새 파리시장은 피에르-이브 리젠(Pierre-Yves Ligen)을 파리도시계획연구소장과 도시개발부의 책임자로 동시 임명하였다. 리젠은 협의개발지구 계획을 전면 중단시켰고, 약 10년 동안에 걸쳐 18개 협의개발지구에 대해 재설계작업을 진행시켰다. ‘도시적’ 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구상을 위해 파리도시설계연구소의 건축가들에게 기술적인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리도시설계연구소는 이중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통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인구통계, 교통, 주택, 공공시설, 보건 등에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 목표를 초안으로 쓰이게 될 전체 배치 계획도와 법규에 대한 사전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파리시의 이러한 의지는 도시개발의 사업수행에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참여를 장려하였고, 파리도시계획을 위한 일반적인 목표로서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독트린’의 채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소의 독트린적인 성향은 역사 회고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글이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리도시계획연구소는 주된 흐름 속에서 도시로의 회귀라는 아이디어를 이끌고 있었다. 즉 파리라는 도시의 경관에 부합할 필

요성, 가로에 대한 존중-근대계획에서는 깨졌던 것임-, 역사적 변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실루엣으로의 회귀 등을 말한다. 파리를 형성해온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법규를 통한 도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파리도시계획연구소가 내세웠던 최초 규칙들 중 가장 큰 주제는 경관에 대한 존중이었다.’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이데올로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기존의 것에 대한 존중과 도시형태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시한 ‘도시 경관’이라는 개념은 파리도시계획의 세 가지 중요도서(파리시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기본계획도서, 토지점용계획, 지구개발계획)에서 공통적 핵심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개발계획도에 있어서 이러한 회고적인 경향의 영향 속에서 협의개발지구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협의개발지구의 고민 중의 하나는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고찰로 시작되고 있는데, 19세기 도시의 질적 재평가를 통해 토지점용계획의 수립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었고,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가치부여가 단한 도시블록의 재구성이나 형태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했다.

(2) ‘균형적인 파리 개발’과 협의개발지구(ZAC)의 설계방향

1978년-1980년의 도시계획 종합보고서의 내용들은 재정적 인자, 추진 절차, 회계 등 도시계획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이면서도 양적인 결과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로부터 협의개발지구 계획의 두 번째 세대에 대한 도시형태의 결정요소 몇 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이는 지구개발계획(PAZ)에 제시된 원칙들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차분하면서도 전통적이면서도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하고 명료한 도시 도로체계를 완성하거나 실현하는 것, 도시공공공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 도시공공공간을 둘러싼 건물 볼륨을 분절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는 새로운 사업구상과 다양한 개발 배치도에 대한 검토의 공통적인 목표이다.’ 라고 표방하고 있으며,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기존 환경의 특징들에 보다 잘 어울리는 건축물 볼륨으로의 회귀 : 보다 현명하고, 보다 절제된 도시계획으로의 회귀, 높이 축소, 밀도화, 도시경관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
- 2)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 기존 거리의 재구축, 건축선 맞추기에 불연속성에 대한 수정, 지나치게 좁은 도로에 대한 확장, 구역의 옛 구성에 대한 참조, ‘전통적인’ 도시계획으로의 접근, 클래식한 파리와

오스망적인 파리의 중정이나 작은 광정보다 넓은 규모의 외부자유공간 확보

- 3) 옛날 주거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유지와 개선
- 4) 수공예나 산업 활동의 수용, 유지, 확대
- 5) 공원과 도시공공공간의 확대
- 6)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 재조정
- 7) 주변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정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배치 계획도에서 보이는 형태적인 성향이 파리도시계획연구서에서 연구하여 제시한 도시 원칙들을 지향하고 있었다. 도시블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외곽을 둘러싸는 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로에 면해 서로서로 벽이 붙은 형식의 건물들로 중앙의 빈 부분이 둘러싸인 ‘두터운 껍질’ 처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일반화는 리노베이션 구역에 대한 첫 재검토 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나 구분 없이 도시의 형성 방법에 대한 일률적인 방식의 적용이 목표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시로의 회귀’와 ‘도시블록으로의 회귀’ 원칙에 기반을 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에서 보인 몇몇의 배치 계획도들은 너무 도식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들의 표현으로 흐르기도 하였는데, 결국 이것은 도시화 우선구역 시기, 협의개발지구 첫 번째시기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라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행해졌던 원칙들에 대한 완전한 반대를 극단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절충적이면서 중간적 모습을 띠었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내용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전의 도시 설계 요소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이들의 개혁적인 도시계획 방향이 일부 반영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도시설계들은 도시적인 묘사에 있어 잘 알려지고 관습적인 요소들을 차용하면서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같이 보였던 반면, 그래픽 이미지로 옮겨진 지구개발계획의 도면 표현은 도시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의 모습은 균일화되어가고 도시 형태는 단순한 재생산에 힘입은 다양한 형태 아래 재구성되었다. 근대의 일자형 건물과 전통적 도시블록 사이에 생성된 모호한 형태는 주변 도시 형태와의 분절 또한 고려하지 않았고 명확한 아이덴티티 또한 만들지 못하였다. 게다가, 대지소유 특징에 대한 구분이 색인에 표시되어있지만, 배치도에 표시된 도시블록 내부자

유공간의 유동성은 실제 보행자 전용도로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토록 한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전환기적 시점에 행해진 지구개발계획도에서 서로가 부딪치고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도시계획들 사이의 충돌이자 도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협약개발지구에 대한 ‘파리도시계획연구소 시기’가 열리게 된 1980년대에 이 특별지구에 대한 연구의 경험과 더불어, 파리도시계획연구소는 프로젝트의 테두리, 내용, 도시형태의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변화된 방법론으로써,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사전 연구 작업과 외부 건축가들 대상의 아이디어 자문은 협약개발지구의 도시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다. 사전 연구 작업은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절제되고 보수적인, 또한 때로는 교조주의적인 입장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었다.

도시 주거단지에 대한 ‘동질적인’ 프로필이 파리 협약개발지구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실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블록 어버니즘’을 제도입하면서 제시된 해결안들은 역설적이게도 프로젝트의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거대주의’의 이전 세대 계획안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극도의 수직적 모더니즘’에 대한 부인과 건축물의 분산적이고 기념비적인 형상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개발지구에서 보이는 해결방안은 정렬된 단지 속에 균일한 특징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기념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지의 ‘동질적인’ 형상은 종종 거리에 면해 정렬된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시블록으로 경계가 지어지는 도시 형태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곤 한다. 이렇게 협약개발지구 안에서 단지의 형상들은 오스망적 모델에 대한 불완전한 형태적 참조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의 ‘양상블 어버니즘’에서 유래된 대지 상태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모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고, 협약개발지구의 계획안에 나타나는 동질성과 개별 건축물의 산발적 부조화 사이의 대조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파리도시계획연구소는 특별한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외관상의 부조화 현상을 없애고 조화로운 조율을 위해 도시 형태와 건축형태의 컨트롤 수단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질화’에 대한 노력은 첫 번째 시기의 협약개발지구가 표방했던 형태와 배치 평면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정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계속되었다. 1986년부터는 파리시가 외부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조정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협약개발지구의 실행 절차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르네 베르락(René Verlhac-agence ACAUR)이 주도한 코르비노-라송보디(Corbineau-Lachambeaudie) 협약개발지구

의 첫 조정 작업이 있는 이후, 조정 작업의 절차는 일반화되었다. 예를 들면, 뢰이이(Reuilly) 협의개발지구의 롤랑 슈바이처(Roland Schweitzer) -1986-, 라 빌레트 도크(Bassin de la Villette) 협의개발지구의 파트릭 셀레스트(Patrick Céleste)-1987-, 샤토-데-랑티에(Château-des-Rentiers) 협의개발지구의 L.L.T.R. (Le Boursicot, Loth, Testas, Robert)-1988-, 베르시(Bercy) 협의개발지구의 장-피에르 뷔피(Jean-Pierre Buffi)-1988-, 듀플렉스(Dupleix) 협의개발지구의 장-폴 뷔기에(Jean-Paul Viguier)-1989- 등이 도시 설계와 실현과정에 있어 조정건축가(architecte-coordonnateur)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도시 연속성의 존중에 대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설계 안들은 협의개발지구의 도시형태에 대한 몇몇 요소들과 비전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경제 정세와 사회, 도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도시 형태와 건축형태가 보다 유연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개발지구의 도시적 상황이 형태적으로 보다 더 복잡해지고 사업규모가 지난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면서도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형태적인 참조(‘네오-오스망적인(néo-haussmannien)’ 모델과 같은)에 기대기보다는 각 도시적 상황에 적합하고 그 특성을 살린 원칙들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여러 건축적 형상에 의해 표현되는 다양성과 구역의 재구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블록의 개념 또한 해석되었다. 장소성에 대한 고려와 복합적 모폴로지에 대한 고려의 경향은 도시조직의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제는 1980년-1990년대에 이미 언급되어진 바 있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시의원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아이디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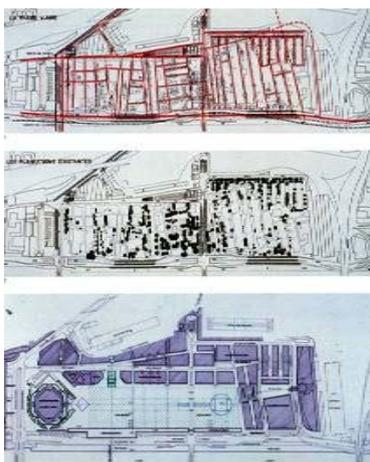
한 구역의 아이덴티티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은 협의개발지구의 계획안에도 영향을 미쳤고, 개정된 토지점용계획 적용 건축물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덴티티 보존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보존 구역뿐만 아니라 개발 구역에서 도시 형태의 다양성과 장소의 특성 맞는 조정, 설계와 관련되어 일련의 변화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 사례분석 1. 베르시 구역: 파리의 전통적 도시형태에 대한 모범적인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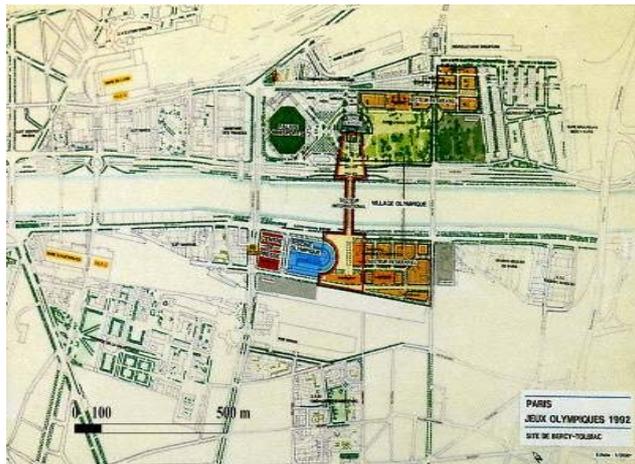
(1) 베르시 구역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기원

파리도시계획연구소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공원/필지구획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베르시 구역에 대한 일련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의 그림들은 두 입장 사이의 긴장관계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 장소의 특징적 경관과 옛 건물이 있던 기억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공원을 제외한 대지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계획하는 것을 제안하여 균일한 건축 매스들로 밀도 있는 도시조직 형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설계안은 공원의 형태와 범위, 공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도시블록의 형태, 도시공공공간으로서의 도로체계에 대한 고찰 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시블록으로의 회귀(retour à l’ilot)’, ‘길로의 회귀(retour à la rue)’ 등을 주창하던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이후로, 각 구역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와 대지의 형태적인 복잡성에 대한 탐구가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고, 이는 도시공간의 구성을 위해 장소적 특징을 종합하고 파리의 도시역사에 대한 다양한 읽기에 근거를 둔 형태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3년에는 1989년 국제박람회개최를 위한 계획과 1985년에는 1992년 올림픽 픽유치를 위한 계획이 파리 동남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베르시 구역의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여러 제안들이 등장했었다.



〈그림 1〉 베르시 구역 도시조직구성을 위한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의 분석연구, 1980년대 중반



〈그림 2〉 199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R)가 제시한 마스터 플랜, 1985

1987년에 승인된 베르시 협의개발지구(ZAC de Bercy)는 51ha에 달하는 면적 중 옛 포도주 창고들, 주변도로, 강변 등을 포함하여 41ha가 파리시의 소유로 되어있다. 핵심적인 도시 구성요소로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고, 이 지구는 크게 세 부분-약 700m×170m 규모의 세느강을 따라 길게 펼쳐진 공원, 동남쪽에 위치한 농산물 센터, 그리고 북쪽에서 공원에 면하고 있는 프롱 드 파크(Front de Parc) 주거단지-으로 나뉘어 개발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발지구의 승인과 같은 해에 베르시 공원의 유럽 현상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제2단계 10개의 설계안 중 베르나르 위에가 이끄는 팀 (M. Ferrand, J.-P. Feugas, B. Huet, B. Leroy, I. Le Caisne) 의 ‘기억의 정원’ 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설계안은 몇몇 전형적인 건물과 나무들의 보존 원칙과 대지가 지니고 있는 두 방향의 도로 체계-규칙적인 그리드의 직교체계와 피토레스크적인 옛 길 흔적의 재생-의 중첩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현상설계에 제출된 설계안들의 대부분이 공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면한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까지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통합된 도시형태 구성을 보여주었는데, 당선작의 경우는 파리 도시블록의 특징을 고려한 닫힌 블록 형태를 주거단지에 제시하였다.



〈그림 3〉 베르시 공원 조성 계획 모형, 1987



〈그림 4〉 개발 이전의 베르시 구역 : 옛 포도주 창고들, 철로, 외곽순환도로 등이 혼재

베르시 공원은 이 지역의 통합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녹지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단지의 도시 형태적 측면, 특히 도시블록 형태 결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공원이라는 지역개발의 핵심요소는 아주 예외적인 조건 속에서 새로운 개념을 실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전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방대한 도시공공공간의 ‘도시적 기념비성’ 에서 빛어지는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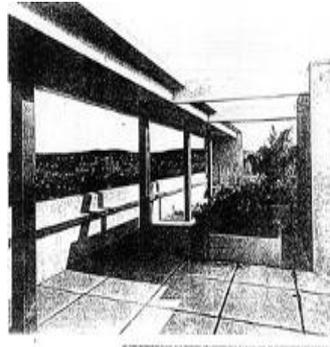
(2)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계획적 특성

파리의 전통적 도시형태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형성된 베르시 협의개발 지구의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계획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베르시의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 설계에 있어서, 도시적 참조와 건축적 참조의 두 가지 역사적 참조 유형이 있었다. 이러한 참조가 대지의 조건 읽기와 서로 중첩되어 중심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킬리 정원과 샹 드 마르스의 두 역사적인 예를 도시적 참조로 하여, 조정건축가인 장-피에르 뷔피(Jean-Pierre Buffi)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킬리 정원에 면한 리볼리 거리에서, 이 건축가는 투시도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길게 연결된 발코니의 연속성과 동질성의 원칙을 끌어내었고, 샹 드 마르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질적인 건물들 속에서는 비어있음과 차있음의 교대로 인해 비연속적인 전면을 가진 건물 형성에 대한 원칙을 끌어내었다. 설계에 반영된 이 요소들은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과거의 교훈을 통해 파리적인 도시조직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림 5〉 건축적 참조1
: 리베라(A. LIBERA)의
오스티아 건물



〈그림 6〉 건축적 참조2 :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옥상정원, 바이센호프, 1927



〈그림 7〉 건축적 참조 3 :
테라니(G. TERRAGNI)의 카사
루스티니, 밀라노, 1933-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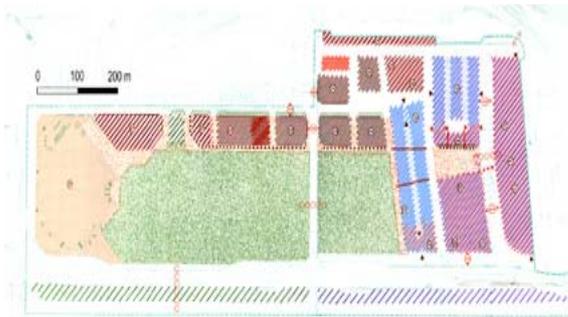
미적인 측면에서 리베라의 주거단지(지붕의 표현적인 처리와 깊이 방향 건축물의 잠재적인 이미지), 주세페 테라니가 설계한 카사 루스티니(선적으로 연결된 로지아의 사용으로 공간적 풍요로움 표현), 바이센호프에 르 꼬르뷔지에가 설계한 주택(옥상정원)의 세 근대 건축물을 참조로 하였다. 근대건축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이 건축이 보여주었던 혁신적 건축요소들을 재해석하여 프롱 드 파크 단지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조정건축가의 입장이 건축 및 도시적 생각을 원리화하는 설계 작업의 ‘절충적 과정의 독창성’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한다. 그의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대 운동을 포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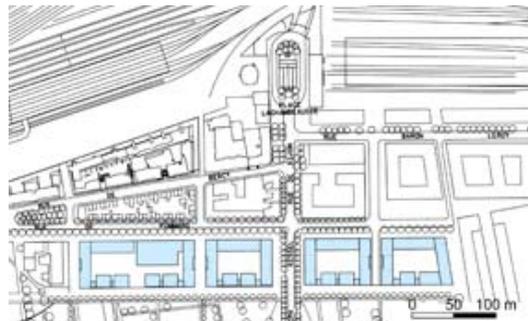
건축적인 전통 속에 뿌리를 둔 형상과 공간에 대한 역사적 참조를 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차용이 아닌, 재해석되고 개념적으로 발전된 단계를 형성함으로써. 뷔피(Buffi)에게 있어 절충적인 태도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해 자문하면서 이 시대와 함께하는 창조와 실험의 부식토’와도 같은 것이다. 공간적이고 형태적인 새로운 생산의 원천인 셈이다. 도시형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원에 근거를 두면서, 유기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개념적인 논리를 찾고 있으며, 정체성을 가지고 근대 건축과 역사적 기억의 교혼을 담아내고 있다.

프롱 드 파크 단지설계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찰은 이 대지에 대해 파리도시계획연구소가 사전연구작업을 했던 결과가 제시한 구역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결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정의가 도시설계의 가장 큰 방향과 틀로 제시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구개발계획(PAZ)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베르시 협의개발지구에서는 두 도로체계가 중첩되어있다. 전원적인 옛 필지에서 비롯된 옛 창고에 대응하는 내부체계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외부체계가 각각 강조되고 확장되면서 교차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부가되는 축을 만들지 않았다. 대지에 도입되고 있는 가로외의 구성 원리는 두 대형 공공건축(재경부청사, 움니스포르츠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과 함께 이미 조성된 환경적 요소에 비해, 그리고 인접한 코르비노-라송보다 협의개발지구의 주거단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베르시 협의개발지구의 도시개발계획도(PAZ), 1987년 : 도로체계와 도시공간구성 원칙 제시,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과 함께 건축가능지역을 채색 빗금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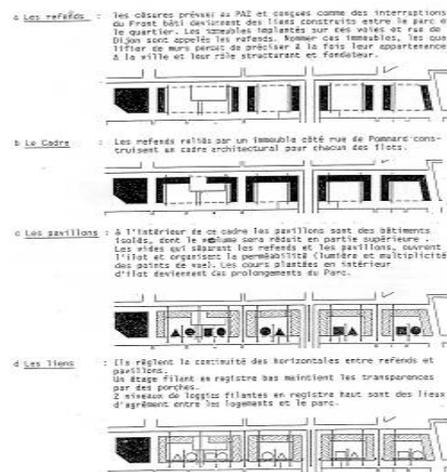


〈그림 9〉 베르시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배치도 : 도시개발계획도(PAZ)의 발전과 도시블록 형태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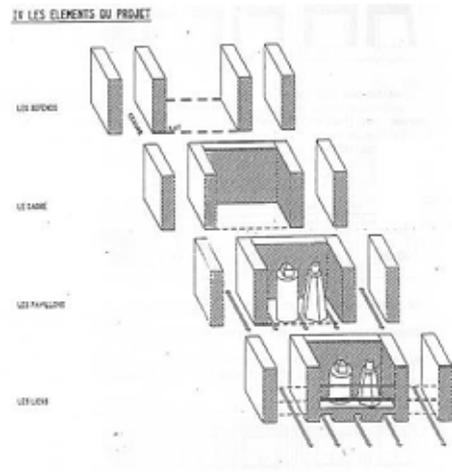
계획 추진상 독특한 것 중의 하나는, 이 지역 전체 도시공공공간의 정비가 설계에서부터 세부디테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조정건축가인 유리엘

파제스(Muriel Pagè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도시공공공간의 담당 조정건축가는 ‘이 공간이 건물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처럼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도시의 본질적인 구조로서 새롭게 인식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설계 특징에서부터 도시공공공간이 조직되고, 표현되고, 정체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임무는 선 맞추기, 땅높이 조절하기, 사람 진입과 차량 진입의 구분과 같은 일반 설계 작업과 재료, 식재, 돌의 고정 등 디테일 처리에 대한 세부 설계 작업 모두에 관계되었다.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건축물과 도시공공공간 사이의 일관성에 대한 탐구가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채워진 부분을 위한 조정(건축)과 비워진 부분을 위한 조정(도시공공공간)을 담당하는 두 유형의 건축가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 구역의 재생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러한 시도들은 1980년대 이후 파리시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던 도시공공공간 설계방침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설계방법의 성공과 효과가 증명됨으로써, 이어서 계획된 협의개발지구의 실행과정에서 도시공공공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설계지침서 작성을 구체화, 의무화하면서 이 방법론을 일반화하였다.

베르시 협의개발지구의 첫 번째 주거단지는 베르시 거리와 포마르드 거리 사이의 대지에 형성되었는데, 공원을 따라 길게 연속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구역 도시 요소들과 파리적 유형의 연속과 함께, 주거단지의 도시블록에 대한 처음 조건은 지구개발계획(PAZ)에 명시된 도로체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기인하고 있다. 직사각형으로 크기가 비슷한 4개의 도시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도시블록 크기는 동일한 깊이 52m에 길이가 133m, 80m, 80m, 68m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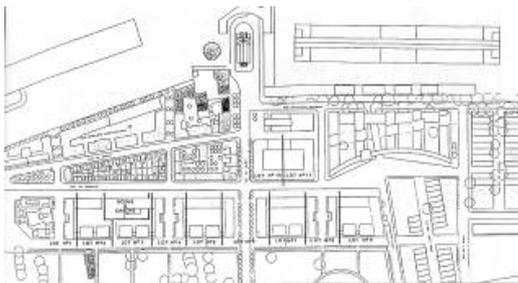


〈그림 10〉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의 적용원칙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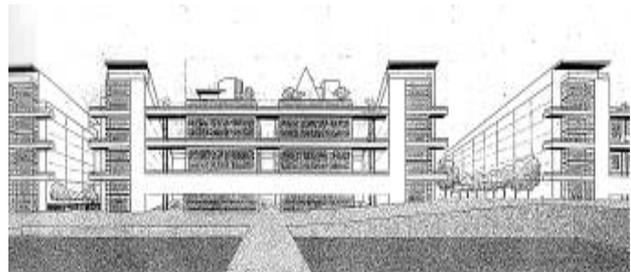


〈그림 11〉 도시블록 형성의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

공간구성과 건축형태의 논리와 필지 분할 규칙을 결정하는데 네 가지의 주요 테마가 사용되었다. 즉, ‘관상형태(refends), 틀(cadre), 파빌리언(pavillons), 연결(liens)’ 이 뷔피의 건축개념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이 방향의 ‘관상형태’와 ‘틀’은 외곽을 둘러싸는 건물 배치를 만듦으로써 도시블록 내 중심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파빌리언’은 공원을 향해 도시블록의 내부를 개방시킴으로써 비연속적인 리듬을 부여한다. 그리고 긴 발코니의 수평적인 연속성을 통해 하나의 전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 선적인 ‘연결’은 엄격한 건축선 맞추기에 따라 단지 전체에 걸쳐 각 도시블록 간의 결속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네오-오스망적인 도시블록의 특징을 따르면서도 열고자 하는 의지와 가로와의 관계를 형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땅의 기하학은 유지하면서 남쪽의 공원과 깊이 방향으로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북쪽으로는 기존 도시조직과 맞닿아 있는 ‘절개된 도시블록’의 개념에 대해 탐구하였다. 도시블록의 전체는 격자형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원을 향해 열린 U자형 건물배치로 연속된 블록은 각각이 두 독립형 건물인 ‘파빌리언’에 의해 ‘틀’이 마무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공공공간을 향한 부분 개방의 도시블록 형태는 뷔피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어휘로 도시조직을 재구성하면서 도시의 단편 속에 그의 건축적, 도시적 사상이 이입된 주거단지를 설계하였다.



〈그림 12〉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필지분할과 건물배치



〈그림 13〉 공원에 면한 파사드의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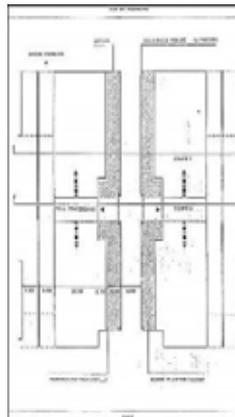
네 가지의 형태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프롱 드 파크 구역의 전체 배치개념에 이어, 필지분할 원칙에 대한 세 가지의 가정이 제기가 되었다. 첫째, 각 필지에 대해 같은 면적의 건축실행단위를 형성하도록 도시블록의 한 가운데를 나누면서 공원 방향에 수직적인 자르는 분할, 둘째, 한쪽은 공원을 향하고 또 다른 한쪽은 반대편 가로를 향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형태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분할, 셋째, 일자형 건물과 타워형 독립건물 사이를 나누면서 대지를 가로지르는 분할이 검토되었고, 세 번째의 가정이 채택되었다. 이 필지구획은 도시경관적인 면에서 가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을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시도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단지의 일체감을 부여하였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보차분리의 용이함과 지하주차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공원방향에 평행한 두 가로의 연결이 필지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공원에 면한 건물 파사드는 더욱 합리적인 규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원을 향한 시각적인 투명성과 공간적인 투과성을 만들어내고 주거블록을 단한 세 면으로 규정함으로써, 주거블록의 중앙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중정 내부를 관통하는 오솔길이 있어 서로 지면높이가 다른 두 가로 (공원변의 길이 2m 낮음)을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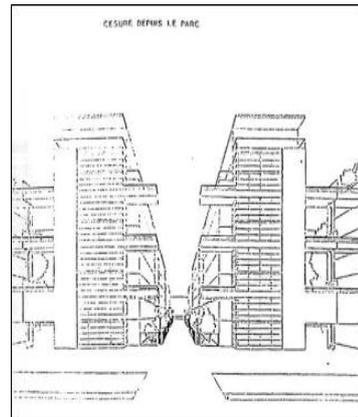
단지 전체의 통일되고 연속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실행단위인 필지를 분할하였고, 엄격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먼저, 공원과 직교하여 단지를 가로지르는 12m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한 대칭적 건축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서로 마주보는 건물은 상층부 2개 층 후퇴, 층고 높은 1층, 판상형 대칭 건물의 중앙부 입구 홀의 투명성 확보, 지층의 건물전면부 전이공간 형성 등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공원에 면한 도로와 직교하는 보행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의 입면구성은 유리 사용의 극대화로 가벼움과 투명성 표현되고 옆 건물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강한 수평선의 강조로 단지의 일체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14〉 L8필지/K8필지의 모습 : 파사드의 개폐, 후퇴, 재료, 조형요소 등의 규정 준수



〈그림 15〉 보행자도로를 축으로 한 대칭적 배치구성의 건물 지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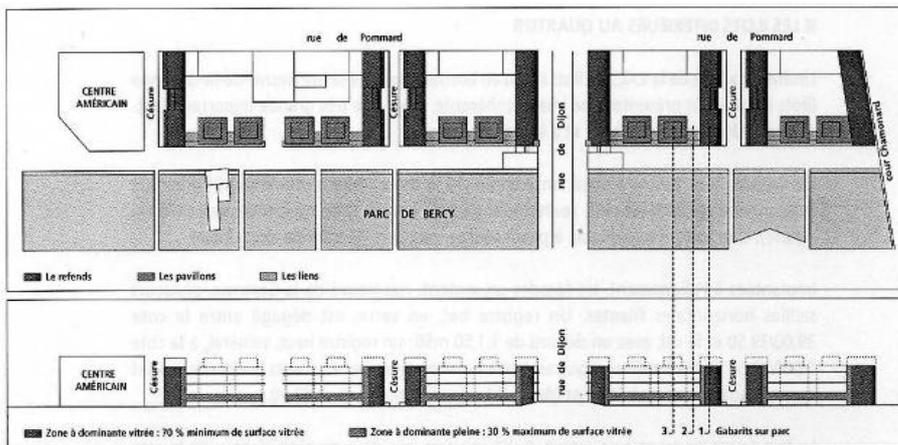


〈그림 16〉 보행자도로변 건물 입면 지침 : 도로 교차부분 모서리 입면의 유리사용 극대화와 수평적 건축조형요소의 강조

공원에 면한 건물의 파사드 전체에 리듬이 부여되도록 열린 틈과 타워형 독립건물(파빌리언)이 공원을 향해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공공공간과 도시블록 내부 사이의 소통과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뒤편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도시블록을 열고자 하는 의지와 건축적인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긴장감이라 할 수 있다. 지층부 기단과 선적으로 길게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단지를 조형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건축적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방감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블록의 형태가 거의 닫혀져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설계 원칙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파리적인 유형에 대한 재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접건물의 벽을 서로 붙이는 것이라든지 건물 입면의 선적 연결은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투명성은 도시공공공간에 면한 파사드의 처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방향의 판상형 건물의 파사드 구성 원리 또한 이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 판상형 건물의 공원에 면한 11m폭의 옆면이 두 개의 수직적인 띠로 구분이 되는데, 필즈 경계면의 성격에 따라 투명성, 즉 벽면율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이 중 하나의 수직 띠부분은 최소 70%이상이 유리면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불투명한 띠가 강조되어야 하는 수직 띠부분은 30%이하만이 유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전체 단지의 질서 있는 외관, 통일성 속의 자유로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17〉 건축물의 볼륨과 외관 디자인 지침 :
단지의 통일성과 건축적 자율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공원에 면한 파사드의 건축형태규정

건축표현의 면적 요소와 선적 요소의 대비, 도시를 향한 건축 형태의 단협과 열림, 공원으로의 시원한 개방감 등은 한 단지의 일관된 건축이미지를 형성하였고, 최상층부 형태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건축가의 개성을 담은 형태의 다양성이 실험되었다.

프롱 드 파크 단지는 주거라는 일상성과 공원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념비성이라는 양면적 표현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는 거주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 스케일 변화의 긴장과 모순이 장-피에르 뷔피의 조정 작업으로 프로젝트 안에 통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정건축가로서 그는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상 유감스러운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파리 협의개발지구의 법규가 가지는 매우 강한 경직성, 특히 높이에 대한 규정을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발코니의 돌출 허용과 같이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의 규칙에 대해 건축가가 자율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재량권의 부재,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 기능혼합의 미약함을 들었다.

이 주거단지 설계에 대해 여러 시각의 평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도시 형태로 구현했다는 것과 도시경관상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정건축가의 지휘 아래 사업의 관련주체 모두가 하나의 뚜렷한 목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4) 사례분석 2. 마세나 구역 : 새로운 ‘도시 만들기’의 규칙과 방법 모색

(1) 상위 개발계획과 마세나 구역의 기원

파리시의 마지막 남은 최대 도시개발지역으로 약130ha의 면적에 걸쳐 파리 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 (ZAC de Paris Rive Gauche)의 건설이 한창이며, 그 프로젝트의 진행방식과 도시공간구성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세느강을 따라 서쪽으로는 오스테르리츠 기차역(Gare d' Austerlitz)에서부터 동남쪽으로는 이브리-쉬르-센느(Ivry-sur-Seine)시까지 이어지는 2,7km가 넘는 긴 구간에 새로운 ‘도시 만들기(fabrication de la ville)’ 를 시도하고 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개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사전 연구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우선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건축가들이 사전연구작업을 바탕으로 설계의 방향을 담은 도시계획평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의개발지구의 도시설계를 위한 기본도면인 지구개발계획(PAZ : Plan d'aménagement de zone)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도시설계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1987년에서 1990년까지 건축가, 도시설계가, 조경설계가 등으로 하여금 열린 형식의 도시설계공모를 개최하였다. 이는 파리의 전통적 도시 조직의 연속에 대해 재해석하고, 새로운 도시 형태를 만드는 도시 생성논리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근본적인 도시적 문제를 제기되면서 설계에 비판적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건축 및 도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의 수렴은 공식적인 개발구역 승인과 사업 착수 이전에 이루어진 작업들이며, 이 내용들과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의 연구가 병합하여 실제 적용되어지는 도시설계의 기본 틀과 방향이 설정되어졌다. 파리도시계획연구소가 도시 형태와 프로그램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한 도시개발원칙과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고, 이는 지구개발계획(PAZ)에 반영되었다.

- 프로그램의 배분 : 신작대로변으로는 대규모의 공공건물과 업무시설들을 배치시키고, 세느강변에는 주거를 배치시킴.
- 도로 계획과 도시공공공간의 정의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 : 세느강변의 건축물(높이24m)에서 부터 신작대로변(높이35m)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사선의 지붕선을 형성함. 이 원칙은 사업 수익의 균형적 측면 또한 고려한 것임.

사전 계획검토와 사업가능성 타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파리는 유럽의 문화, 업무, 교육 복합중심지구로서 파리 동남쪽 ‘제2의 라데팡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지역을 1991년 파리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로 지정하게 되었고, 프로그램과 개발 계획을 도면화하고, 공식화한 지구개발계획을 공표하였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파리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는 크게 세 개의 구역-오스테르리츠 구역(Quartier Austerlitz), 툴비악 구역(Quartier Tolbiac), 마세나 구역(Quartier Masséna)-으로 나뉘어져 도시설계가 진행되었고, 그 외 연결지역들과 신작대로를 비롯한 공공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 구역들을 위한 조정 건축가가 실제 도시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설계의 큰 틀을 제시한다. 이 조정건축가는 도시설계자이자 건축설계자로서 두 영역을 모두 이해하고, 이 두 영역의 결절점에서 서서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설정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제반사항을 ‘도시 및 건축 설계지침’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 마세나 구역 대상의 두 단계 도시설계 공모전

1995년에 실시된 마세나 구역을 위한 도시설계 공모전은 두 가지의 목표로 이루어졌다. 지명 설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역 거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근심 같은 작업의 단계를 표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다 고전적 방식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10개 팀을 대상으로 안을 받았고, 두 번째 설계 구체화의 단계에서는 이 중 5개의 팀이 경쟁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배치도를 제시하지 않고 도시 조직의 요약화 또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 방식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도시의 주체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지원자들의 도시 구성요소들을 위계화 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 형성된 구역들을 관찰하고서 공모전의 개최자들은 가로변으로 건물들의 반복적인 단순 선을 위해 깊이 있는 필지와 같은 닫힌 장소의 제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가로는 가로들이 연결되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지어지기를 바라는 건물들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로는 더욱 넓어진다. 결국, 일종의 위생주의가 강조된 도시를 만드는 다른 모든 차원을 은폐하는 경향을 취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최종 선정된 지원자들에게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배치도는 도시의 복합성 속에서 도시를 위계화 하는 보다 분명한 방식들 중 하나로 남아있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세나 아이디어 공모전의 지침은 도시가 치유되어야만 하는 몇 가지의 경직된 요점들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있다.

이러한 단계를 채택하면서, 파리시는 고전적인 공모전이 도로망의 조직에 기반을 두는 것이었던 반면 여기에서는 규칙에 대한 고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위험성은 물론 존재하고 있다. 지원자뿐만 아니라 개최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테마, 필지 구획, 활기 있는 가로를 위한 지층부의 역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혼합, 땅의 기복, 정원 등은 아주 광범위하여 종합하는 것이 이미 어렵다는 것이 토로되었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테마들은 ‘평범한 가로에 대한 반대’, 거주-일의 근접성에 대비, 가로의 활성화, 땅의 기복, 물, 정원(호모 위르바누스의 새로운 참조)로 요약할 수 있다.

마세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탐구가 요청되었는데, 도시의 새로운 단편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규칙 속에서 경관의 건축이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능력들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은 도시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모두가 성공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역할과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아이디어 공모의 목표는 오늘날 도시 외곽부로 특징지어지는 구역에 도시적 질의 향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도시 프로젝트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면서 공모전의 주최인 SEMAPA는 두 단계로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밀집된 도시 속의 조직’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도시 구조에 대한 가장 좋은 제안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공모전의 지침서에 이를 자세하게 표명하였다. ‘사실상 거주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같은 장소 위에 구역들을 따라 변화 있는 위계가 형성되는 여러 공간적 스케일을 엮어내는 것에서 기인한다. 설계자들은 필지 구획, 그것들의 집합, 도시블록의 형상과 규모 결정,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 프로그램 구성과 규모, 지층부의 쓰임새, 정원과 지형의 조합, 물의 존재, 사무×상업×주거의 혼합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위계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해야만 한다.’ 도시의 복합성은 노하우에 근거를 둔 새로운 구상이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 공모를 허용한다.

이 공모를 위해서는 건축가와 조경가가 주축이 되어 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예술가, 과학자 등과 연합하여 다분야적인 팀 구성이 우선 명시되었다. 프로젝트에 따라, 경관의 건축은 현재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는 하

나의 영역인데, 이것은 구축된 형태 속에 흡수되고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에서 기인되는 내용들을 종합함으로써 형성된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공모전을 구성함으로써 먼저 아이디어의 방향을 끌어내고 이어서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아이디어가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정된 제안을 최대한 피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파리 리브 고슈의 개발 사업은 한편으로는 철로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에 필요한 변화 수용을 이유로 약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변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와 개발사는 모든 것이 정해져 고정적인 배치도 만드는 것을 정당하게 금지해야만 한다.’

공모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의 질문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가장 덜 고정적인 채택된 단계는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기대하는 형태와 경계의 정의에 대한 요구와 양립할 수 있는가?
- 2) 마세나 공모전과 함께 경관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건축가와 조경가의 관점은 어떻게 일치되어 지는가?
- 3) 세느강변의 어떤 경관과 인접한 방리유(파리외곽도시)와의 어떤 관계가 변모 중인 이 땅에, 이 시기에 대해 프로젝트에서 제안되는가?

* 마세나 구역에 대한 제안의 두 가지 기본 양상 : 설계자들의 입장

- 각기 다르고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자들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들의 제안 속에서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설계자들의 접근 방식과 도시 생산에 우선시되는 도구의 설정에 따라 계획 양상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 첫 번째 양상은 장소의 맥락에 맞는 도시 형태의 적응을 예상하면서 도시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그리고 도시의 공간적인 구성의 단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은 대지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장소의 기억을 담으면서 현실적이고 전반적인 고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양상은 다시 세 특징으로 구분된다.

- 한편으로는 도시적인 생산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것으로 트뢰텔-가르시아스-트뢰텔 팀처럼 필지구획 방식을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땅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포잡팍-위오 팀이 제시한 것처럼 건물 볼륨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논리를 강조한다. 쿨하스 팀은 건물의 볼륨 결정 논리에 있어서 밀도 높은 현대 도시를 위해 필지 구획 시스템으로서 35mX35mX35m의 블록 볼륨 단위에 의해 결정되는 사각형 그리드의 증식을 제한한다. 볼륨을 깎아나가는 자유 놀이는 대로의 한 측면에 대지의 반 이상이 접하는 건축적인 조각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세 번째 특징의 경우는 구역의 도시 구성 기반으로서 기초적인 참조의 형태를 증가시키고 변형시킨다. 즉, 두 타입의 도시블록과 그 것들의 조합이 구역 전체를 구성하게 된다. 지라르-이스라엘 팀이 제안한 것처럼, 레몽 팀의 '대형 도시블록'의 개념은 컨텍스트에 따른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건물 유형(삼각형 건물, 독립형 건물, 요철이 있는 일자형 건물, 중정형 주택, 타워형 건물)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되는 요소들 간의 대비와 스케일의 비약을 강조한다. 발로드-피스트르 팀은 세 가지의 건축적인 유형('비늘 모양의 도시블록', 독립형 건물, 계단형 건물)을 오점형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고 세느강을 향해 열어놓음으로써 도시 형태를 구성한다.

계획 구상의 두 번째 양상은 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소의 기억에서 출발된 전반적이고도 현실적인 고찰을 위해 땅에 대한 기억이 계획도에 다시 그리고 땅의 특이성에 주목하고 있다.

- 위에 팀은 파리의 전통에 적합한 도시 형태를 찾으려하고 도시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공공공간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기존 대지에 존재하는 흔적을 해독하였다. '대지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프로젝트 힘의 흐름'을 주장하면서 카스트로 팀은 주어진 땅의 기억을 해석하고 문화재를 살리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역의 중심부에 피토레스크적이면서 통과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 철로의 옛 흔적을 살리고 있다.
- 마텍 팀과 이보스 팀의 제안은 기념비와 옛 흔적을 고려하면서도 땅의 조건들을 다른 해독에서 출발한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텍 팀은 땅의 경관적인 분석에 대한 고찰을 하고 '아날로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3차원적인 기본 형상을 결정짓는 것으로 이 기하학을 실제 땅에 위치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 변천하는 해결책을 끌어내고 있다. 이보스 팀은 다소 선언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자연 대지와 인공 대지 사이의 대비를 제안하고 있다. '반대와 싸우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땅의 기존 요소들을 그대로 살리고 같은 레벨의 전망대를 설계함으로써 철로를 덮지 않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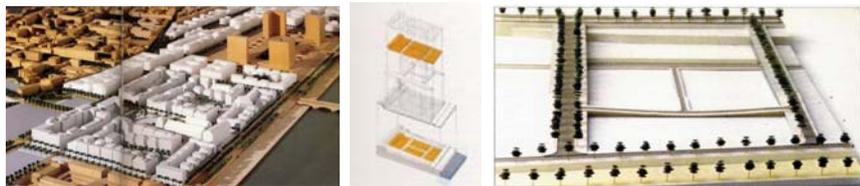
〈표 2〉 설계안의 도시구성 내용 분석 : 파리의 전통적 특수성과 장소적 정체성

| 장소의 맥락에 맞는 도시 형태의 적응을 예상하면서 도시 형태를 만드는 방식 | | | 대지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장소의 기억을 담으면서 현실적이고 전반적인 고찰을 중요시하는 방식 | |
|---|--------------------------|-----------------------------------|--|--|
| 도시적인 생산의 메카니즘에 기반 | 건물 볼륨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논리를 강조 | 도시 구성 기반으로서 기초적인 참조의 형태를 증가시키고 변형 | 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관심 | 고려하면서도 땅의 조건들을 다른 해독에서 출발한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 |
| 트뤼텔-가르시아스-트뤼텔 | 포잠팩, OMA-쿨하스 | 레몽, 발로드-피스트르, 지라르-이스라엘 | 위에, 카스트로 | 마텍, 이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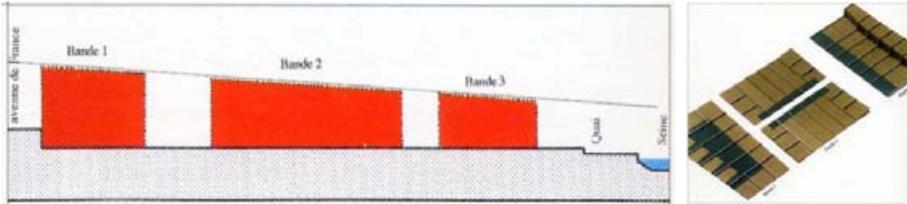
① 트뤼텔-가르시아스-트뤼텔 팀 (Treuttel-Garcias-Treuttel, Demangeon, Werquin)

□ 도시 만들기의 방법

- ‘마세나 구역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적인 균형, 즉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통합에 달려있다. 이러한 통합은 작게 생각하고 땅, 경사로, 평평한 도로, 필지, 건물을 중첩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밀도 높은 도시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한해 한해 지나면서 필지별로 형성되는 것을 반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도로 체계가 신성한 것이라면 모든 건축적인 제안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도시 형성의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 온 도시 만들기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먼저 도로를 계획하고, 이어서 필지를 구획하고, 마지막으로 건축한다.’
- 도로 계획하기, 필지구획하기, 건축하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공공 도로와 식재가 계획되면 사적 영역을 나누는 것이 남게 된다.’ 2차적인 도로가 3개의 띠로 땅을 구분한다. 필지는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한쪽만 도로에 접하게 된다. 3개의 띠 영역은 세느강변에서부터 프랑스로 쪽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건물로 구성이 된다.
- 빈 땅 위에 공공 영역의 도로가 그리고 도시블록의 사적 영역을 그리고 건물을 높기 이전에 필지를 구획한다. ‘경사도로와 평평한 도로의 규칙적인 교차하는 H모양으로 배치가 된 60m*140m의 블록의 단순한 그리드 평면을 구성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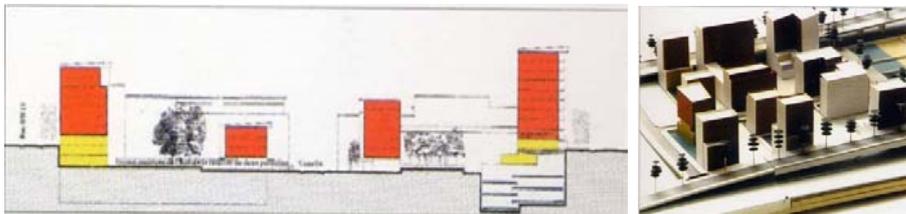


- 세느강변에서부터 프랑스 대로에 이르기까지 3개의 띠는 3가지의 도시블록 점유 방식에 의해 구분된다. ‘강변에 면한 도시블록은 가장 매력이 있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다. 강변에 면한 규칙은 보다 규제적이 될 것이다. 도시블록 안쪽에 위치한 일자형 건물의 내부 파사드를 위해 시각적으로 열리도록 규칙적인 독립형 건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평균적인 밀도가 여기에서는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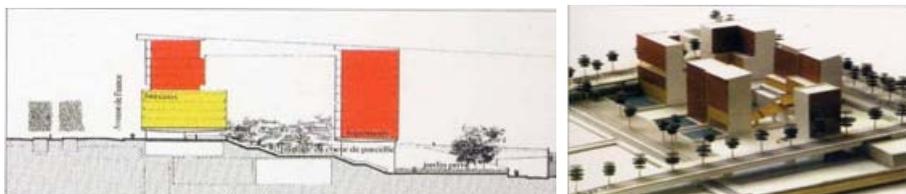
□ 주거 블록

- ‘이 도시블록은 가장 잘 보호되고 가장 사적인 곳이 된다. 가로(경사도로)에 면한 기본 건축물은 신고전주의적인 배치를 재해석하고 뒤편으로는(평평한 골목길) 부차적인 건물을 배치한다.



□ 프랑스 대로변의 밀도 높은 도시블록

- ‘각 상황에 맞게 도시블록 내부에 배치를 자유롭게 하면서 건축주들은 산책로와 접하고 있는 사적 정원의 스펙타클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규칙적인 도시에서처럼 유형은 대로, 산책로, 생활가로, 골목길등과 대비, 보완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계자들을 의도를 설명한다.



② OMA-쿨하스 팀 (OMA-Koolh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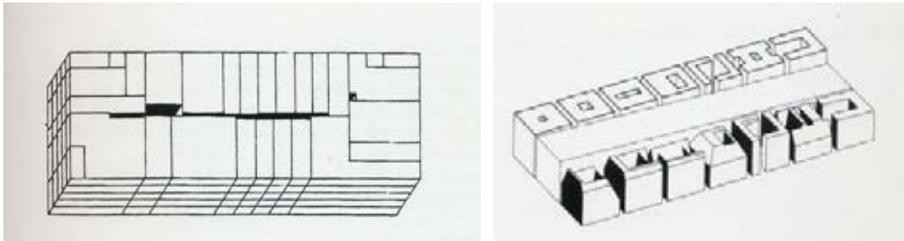
□ 방법론 : 밀도 높은 도시에 대한 질문

- 오늘날 밀도 높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서부터 OMA-쿨하스는 밀집된 도시계획과 넓은 녹지공간의 화합을 권하고 있다. 세느강에 대각선을 따라 땅을 나누는 철도가 있는 영역의 현재 경계 양쪽으로 두 개의 영역이 형성된다.
- 이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좁은 골목 사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전체 경사지의 처리와 도로의 처리는 꼭 필요하다. 블록 형태로 좁게 만들어진 그리드는 면적을 점유하기 보다는 볼륨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좁히는 것은 블록들과 각각의 블록 내부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작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커를 쌓는 건축이 탐구되어졌는데 특히 땅의 다양한 두께와 지붕의 실루엣을 자른 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드에 대한 블록 시스템은 현재 시장의 법칙과 프로그램 분배의 융통성에 대응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 분석 : 도구의 선택

- 새로운 도시 조직의 구성단위로서의 '블록'을 전통적 도시블록보다 선호한다. 보다 작은 규모에 의해 블록은 넉넉한 규모의 사업 조건에 더 잘 부응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 한 변이 35m인 밀도 있는 블록을 선택하는 것은 가로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블록의 모든 내부 공간은 가로를 향하고 있는 반면, 파리의 전통적 도시블록은 전면은 가로를 향하고 후면은 중정을 향하고 있다.
- 높은 밀도에 대해 OMA는 미국적인 예가 적합하다고 보아서인지 뉴욕에 있는 소호 구역을 참조로 하였고 파리에서는 16구역을 참고로 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적인 예는 프로그램의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의 혼합은 볼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 프로그램

- 한쪽으로는 초밀도로, 다른 쪽으로는 여유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인공적 밀도와 자연적 넓이를 융화하기 위해서 건축적 프로그램은 땅의 65%에만 집중되어 있다. 땅의 분석에서 OMA는 새로운 쓰임새와 프로그램의 실험적인 장의 존재를 파리 그랑 물랭의 기존 건물들에서 끌어내었다. 그것은 재생의 초기에 대한 실마리를 만들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조건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땅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즉, 세느강변으로 하나의 경관 속에 통합된 기념비 건축물들이 있는 전조적인 구역, 프랑스 대로변으로 용도 혼합과 높은 밀도의 현대적인 구역으로 구분된다.
- 세느강변을 향한 전망을 위한 도시적인 발코니를 가지고, 하나의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경관적인 대각선은 땅을 통일시키고 있다. 땅의 기록에 대한 탐험은 도시적 잠재력의 세 번째 조건을 만들어낸다.

□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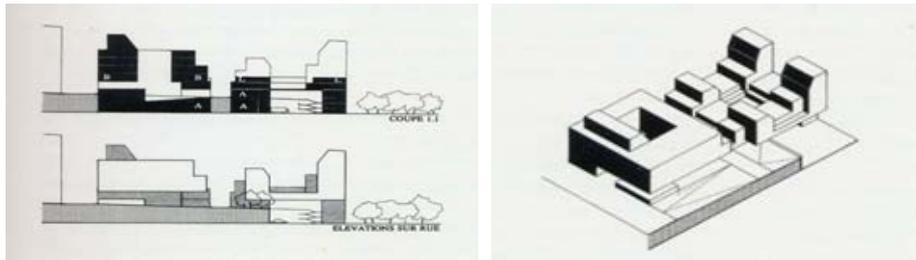
- 블록은 건축적인 조각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한편으로는 단위체들 사이의 간극들에 대해 맞벽의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인 정렬에 대해 주거, 업무, 상업 시설의 분배의 다양성 속에서 상황들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건축적 조각 작업을 하게 된다.
- 한 변당 35m의 가상의 육면체 속에 단면과 평면의 조합에 의한 조각적인 특징은 표의문자적인 건축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서 명료한 형태가 그들의 기능과 정렬에 의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게 한다.

□ 병치와 중첩의 적용

- 개발의 측면에서 OMA는 다양한 목표를 끌어내고 있다. 통합적인 지층부 위의 슈퍼스트러처의 다양성, 땅과 건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경사면, 단일 기능적이거나 복합 기능적인 프로그램 분배, 지붕의 조형적인 처리 등과 같은

것들이 적용되었다. '선택된 척도들의 기준은 프로그램을 병치하거나 중첩하는 것으로 모두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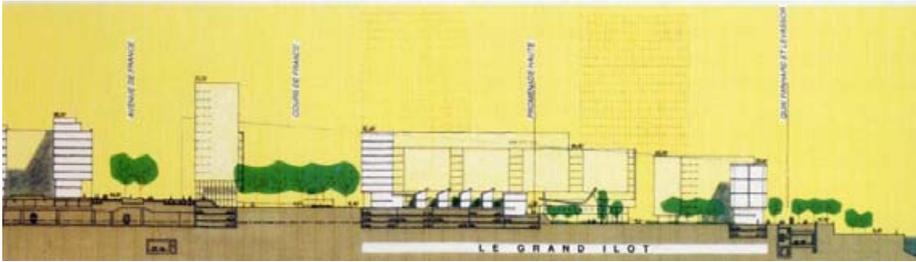
- 면적을 제안하기보다는 볼륨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 볼륨의 단위체는 35m*35m*35m으로 필지구획의 다양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하나 혹은 여러 계획의 처리,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다양한 배치 (주거, 사무실, 아트리움, 상가 등) 등이 가능하다.'
- '밀집된 블록을 '조각'하는 것을 부추기고 인접한 블록들간에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단위체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아트리움으로 된 30%의 사적인 오픈 스페이스는 중정처럼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즉 파티오, 테라스, 건물 안으로 깎여 들어가거나 파여진 다양한 형태는 단순한 평면적 반복이 아닌 공간 분배의 3차원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레몽 팀 (Rémon, Henry, Peter, Celnikier)

□ 살기에 쾌적한 밀도

- '조용함, 공간, 자연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의 요구조건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도시 기반시설의 높은 가격을 감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된 부동산 시장의 조건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공공 개발 사업의 맥락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팔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까? 더욱이 시민들이 쾌적한 구역에 살기를 희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설계자들이 던진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마세나의 땅이 파리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에 있고 이것은 매우 인구가 밀집된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설계자들은 밀도와 웰빙을 점목시키고자 한다. 햇빛이 잘 드는 것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미래 구역의 좋은 채광은 매력적인 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 높은 밀도에 우선적으로 찬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활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대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공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충분한 기여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좋은 사회적 활기는 공공공간의 정의로 이어진다. 즉, ‘빈 공간의 집약은 채워진 부분의 밀도에 대응되어야 한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4개의 타워 사이 중앙에 위치한 사유의 공간을 보완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여가 생활에 열린 대규모의 공공공간’이 권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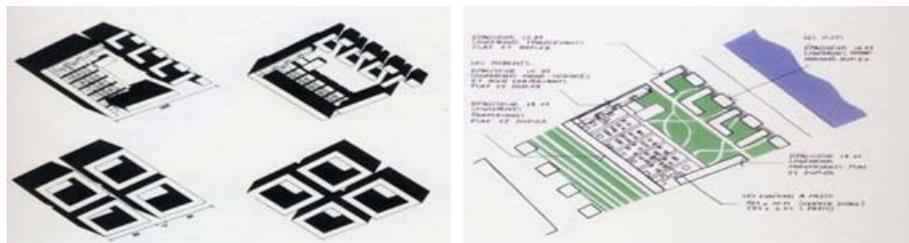
□ 프랑스 중정, 긴 호흡.

- ‘상당이 넓게 녹화된 중정에 의해 프랑스 대로를 이중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축은 확장될 것인데, 밀도 높은 주거, 업무 시설, 대학 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도시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외곽 순환도로까지 이어지는 대로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의 축과 시각적 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확장이 요구되었다.
-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은 미래의 밀도 높은 맥락 속에서는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큰 규모의 비워진 공간은 채워진 공간과 반작용을 이룬다면, 밀도는 또한 다양성의 기여에 의해 가치가 높아진다. 큰 대로와 골목길 사이, 고층건물과 낮은 주택 사이의 충돌은 현대 시민에 의해 인지되는 대비를 만들어낸다. 즉, ‘스케일의 대비와 비약은 오늘날의 도시를 탐구하는 원료가 된다.’



□ 대규모 도시블록

- 작은 규모의 도시적 단위체 형태보다도 대규모 도시블록은 도시 주택에서부터 요철 있는 건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합의 가능성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풍부한 잠재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계획안의 실행에 있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행되는 동안 요구 사항들이 변화될 수도 있다. 대규모 도시블록의 장점은 여러가지이다. 중앙의 넓은 오픈 스페이스는 공공공간과 주거에 좋은 채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땅의 큰 규모가 얽혀지고 건물의 다양성이 가능해진다. 좋은 예로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선수촌을 들 수 있다. 거기에서는 슈퍼 도시블록이 세르다 시기에 만들어진 바르셀로나의 전형적인 4개 도시블록의 크기로 형성되었다.
- 여기에서 대규모 도시블록의 유형적인 상황은 3가지로 구분된다. 즉, 세느강변을 따른 상황, 프랑스 대로변을 따른 상황, 그리고 두 변을 있는 쪽에 면한 상황으로 구분된다.
- 세느강변으로는 열린 블록이 전면부에 리듬 있게 배치되는데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 병치되는 건물들에 의해 이미 실현된 리듬을 연장하게 된다. 도시블록의 개방은 좋은 채광을 가능하게 하고 주거와 강변 경관 사이의 시각적인 소통을 열어놓고 있다. 채택된 배치는 프롱 드 파크 단지 계획의 조정 건축가인 장-피에르 뷔피가 설계한 배치를 연상시킨다. 프랑스 대로변으로 타워들은 전면에 첫 번째로 정렬되고 프랑스 중정을 경계 짓는 두 번째 연속된 파사드에 의해 두드러진다. 큰 나무들이 심어진 중정은 대학 시설과 구역에 적합한 작은 시설들과 접하고 있는 장소가 되며, 지층부분에는 상업시설과 주민시설이 위치하게 된다.
- 강변과 대로변 사이에는, 건물들이 세느강 쪽으로 약하게 경사져서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땅의 움푹임과 함께하면서 배치가 된다. 도시블록의 중심은 두 개의 평행한 띠로 구성이 된다. 하나는 채워진 부분으로 대로와 같은 레벨에 골목길을 가진 개인주택군으로 구성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강둑과 연계되어 이와 같은 레벨에 비워진 부분으로 광장이 높여져 있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는 파리의 구성요소들을 떠올린다. 즉, '프랑스 중정과 프랑스 대로가 살아있는 이 구역에 살아있는 파리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블록의 중앙은 비밀스런 파리를 형성하게 한다. 광장은 피토레스크한 파리를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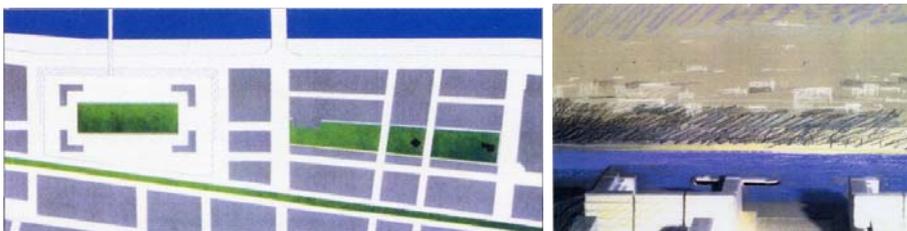


- 파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설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프랑스 대로와 함께 보는 것처럼 맥락의 잠재력의 소중한 가치와 이 맥락을 구성하는 공간들의 구조 속에 해결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현대 주거 유형의 노련한 조합 과 도시 공간의 유형을 질적으로 높게 다루는 것 속에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병치와 중첩에 의한 혼합(복합 기능)은 이러한 의도와 만나게 될 것이다.

④ 발로드-피스트르 팀 (Valode-Pistre, Desvignes, Dalnoky)

□ 제3의 길

- 설계자에 따르면 19세기의 후반부에 파리에 적용되었던 오스망의 도시 만들기 이론과 20세기에 정립되고 2차 대전 이후 부분적으로 실현된 근대 운동의 도시 만들기 이론, 이 두 가지 입장을 화합할 필요가 있는 전환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 ‘마세나 프로젝트의 이번 기회를 통해 무한정의 도시적 선언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여유롭게 잘 혼합된 아이디어의 종합하고자 하였다. 아이디어의 종합 속에서 가로와 조망이 공존하고, 차와 아이들이 모순되지 않고, 테라스와 계단형 건물 방식이 도시 공간의 강한 결여를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이론과 기억이 서로 결합될 수 있다.’
- 화합의 기억에 관계되는데, 하나의 같은 구상 속에 두 시기가 공존함은 혼합된 구성 속에서 읽혀질 수 있다. 직각 그리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은 놀라움을 만들기 위해 직각체계가 아닌 기존 건물들과 대치되고 있다.
- 같은 그리드 체계는 하나의 발생 원리로서 채택되었는데, 이 그리드 체계가 시간 속에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하면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세느강을 향한 조망과 공원을 향한 조망

- 전체의 강한 구성은 모든 장소에 모든 장소에서 큰 차원의 경관을 향한 조망과 각 장소에서 공원을 향한 근접 조망을 결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건물들은 세느강을 향해 열린 U자의 평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기 위해 땅의 깊이감(혹은 140m)을 준다고 생각한다. 전체 단지는 땅의 경사를 따르고, 점점 높아지는 지붕의 입체적 수평 변화를 지향하면서 계단형으로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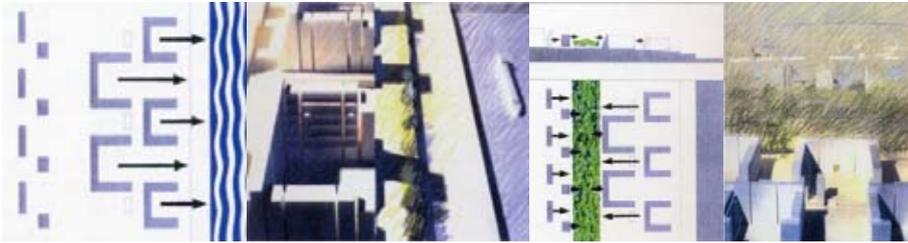
- 공원은 하나의 통일성으로 여겨지는 이 계획의 통합 요소이다. 공원 덕분에 모든 건물들이 세느강을 향하게 된다. 북쪽을 향한 조망과 남쪽으로의 자연채광 방향 사이에 대조를 나타내면서 건축가들은 테라스의 이용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느강에 평행한 건물, 세느강에 직각을 이루는 건물, 동쪽 혹은 서쪽으로 난 테라스 등을 계획하였다. 주거의 테라스는 ‘밖에서 식사하거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가능한 방’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외부 방처럼 설계되었다. 사회 주택의 역사 속에서 테라스는 하나의 전통이었다. ‘오스망 시대의 너무 좁은 발코니와 도시 공간을 무너뜨리고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못했던 1970년대의 계단형 테라스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4m 폭의 발코니-테라스 시스템은 1.2m가 덮히면서 겹쳐지는 것으로 면적 보충에 의한 거주성 확보와 가로에서의 볼륨 형상의 두 요구 조건을 융합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리 내 바뵁 거리와 아미로 거리에 지어진 앙리 소비쥬(Henri Sauvage)가 설계한 건물을 떠올리게 된다. 계단형의 테라스 개념은 건물 스케일과 공공공간의 스케일에서 적용될 수 있다. 세느강에 평행해서 땅은 5단의 수평 쉼으로 조각된다. 이 단들에 건물이 앉히게 된다. 건물들 사이를 파내면서 강까지 연속된 약한 기울기로 자연적인 경사를 드러내준다. 지층부 파사드의 선적 흐름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남쪽편), 동쪽과 서쪽 건물의 아랫부분은 정원을 가진 빌라가 된다.

□ 삼림이 풍부한 공원을 향한 비늘무늬의 도시블록

- 건물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공적공간/사적공간, 솔리드/보이드, 건조하게 계획된 공간 / 녹지로 계획된 공간을 구분하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 설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는 도시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체 건물들의 구성 요소들 사이를 조합하고 이 구성 요소들이 삼입되는 하나의 매트리스이다.’ 세 면이 54m인 U자형을 따라 18m의 파사드를 가진 단위체로 구성된 비늘무늬의 도시블록은 모든 배치의 기본 요소가 된다. 결국, 도시는 하나의 볼륨이다. 거기에는 솔리드의 비례가 보이드와 일치된다. 이것은 근대 건축을 참조한 크기의 그리드에 따르고 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정원처럼 삼림으로 우거진 공원은 세느강에 대해 지리적 차원의 전체성을 이루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조경 건축가의 모든 작업은 건물과 공원 사이의 관계를 다루도록 구성된다. 이 작업은 분명히 구분되고 조정되는 개발로 변화되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점진화를 따르고 있다.
- 주거에서부터 전면 혹은 측면으로, 그리고 구역 내에서 부터 비늘 모양으로 집합된 U자 형태의 건물은 오점(五點)형으로 배치되어 열린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쪽 측면 세느강으로의 조망은 남쪽 공원으로의 조망에 의해 역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세느강에 평행한 80m 420m의 대공원에 의한 구조체로 땅에 새로운 중요 관심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밀도 높은 도시는 주거의 외부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⑤ 위에 팀 (Huet, Wir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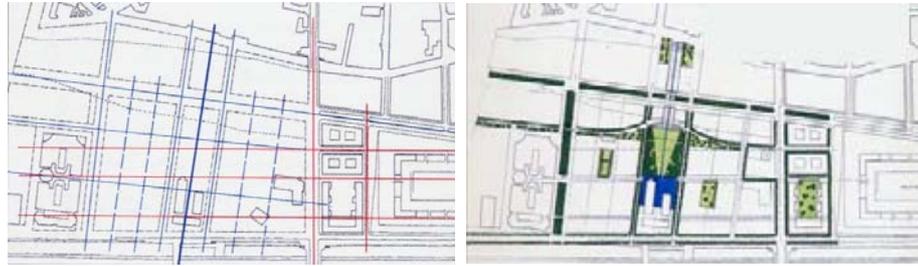
- 베르나르 위의의 제안은 공공공간을 우선시하고 밀도, 연속성, 통일성과 다양성, 토지의 기복, 가로와 혼합을 일반적인 테마로 하는 도시에 대한 독트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법론도 이론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장소, 광장, 공원 등에 대한 묘사 이후에 설계자들은 간단함에서 부터 복잡함으로 진행하였다.
- 도시 경관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활동을 능가하는 것으로 녹지로 처리된 공간과 건조하게 처리된 공간 사이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도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참조로 한다.

□ 독트린: 도시적인 연속성

- 베르나르 위의는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그것은 개혁이나 단절이 있을 수 없고 수많은 요소들의 영향 하에 도시적인 실행의 완만한 변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수많은 요소들은 부동산 경제, 건물의 유형, 생활 방식, 주거의 문화적 모델 등과 관계된 것인데, 서로서로가 의존적이고, 급진적인 변형 보다는 미묘한 기율기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서서히 변천하는 경향이 있다.’
- 실험과 혁신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건축가로 하여금 공공공간을 우선시하도록 이끈다. 파리 13구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연속성을 복구하기 위해서이다.
- 가로에 면한 건물들의 밀도가 전체 단지 속에서 도시가 읽혀지도록 보장하는 방식 속에서 공공공간은 월등함을 가진다. 씬 없는 선적인 특성이 단순함을 통해 명확함에 적용된다. 그랑 물랭과 같이 몇 가지의 강조되는 것들이 새로운 구역에 옛 이미지를 점재시킨다. 이를 위해 강한 의지로 설계되어 잘 알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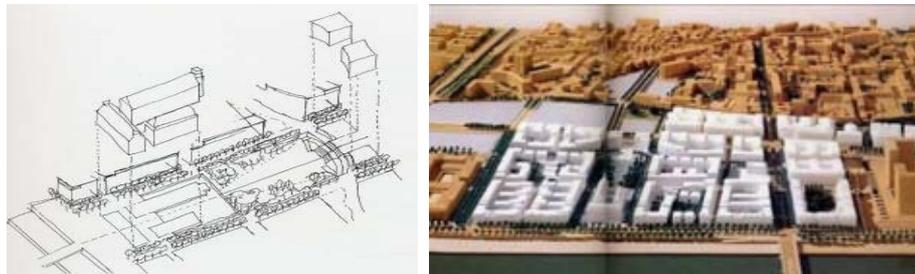
많은 도시들에서 차용한 많이 참조하고 도시블록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즉, '개방형 혹은 폐쇄형 블록에 대한 논쟁은 밀집된 도시의 같은 생각을 가진 역설적인 것이다.'

- 통일성을 방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의 작품이 가로에 대한 기본 규칙 내에서 자리 잡게 된다. 도시블록 내에서의 사적 소유의 필지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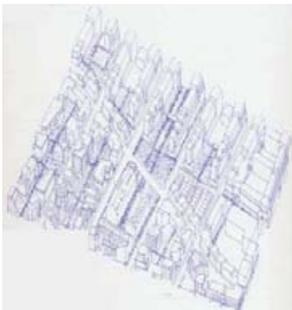
- 모든 도시적인 논리에서, 베르나르 위에는 공공공간의 설계와 형태와 같이 그가 근본이라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도시적인 연속성을 성립하기 위해서 도로망이 고려된다. 구역의 중앙부에 위치한 공원과 두 개의 주요 공공공간이 구역을 구축하고, 마세나 구역과 툴비악 구역의 전환점에 위치한 광장은 툴비악 거리로 향해있다. 이 광장은 새 교회와 함께 구역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와 기능적인 중심성의 역할을 한다. 가로의 연속성이 존중되고 불필요한 혼합을 만들어내는 일 없다는 조건으로 도시블록에 대해서 닫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적인 복합성을 원한다면 도시블록은 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필지 구획은 도시형 건물인 최소 사업의 단위체들을 분배한다. 각 소유주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체 혹은 여러 개의 단위체를 취하게 된다.



- 지층부의 활기는 다양한 주거의 카테고리에 의해 생성(노인과 예술가를 위한 주거)되고 점유(작은 공공시설, 시민 단체 기관, 장인들의 작업실)될 것이다. 복합 용도에 대한 연구는 건물의 새로운 타입을 바라는 것과도 관계된다. 거기에서 1950년대 밀라노에 지어진 토레 벨라카의 예처럼 주거의 최상층과 함께 '서비스 시설, 전문 직종 공간, 상업시설로 쓰이는 층을 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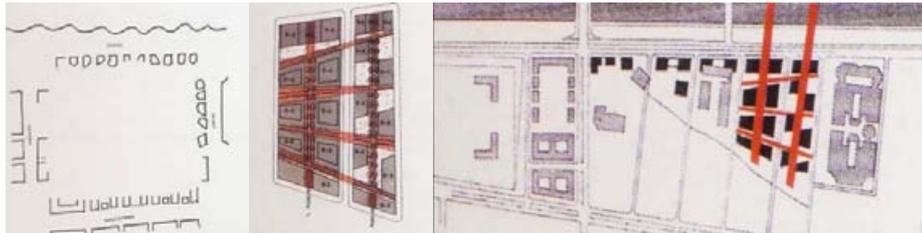
⑥ 카스트로 팀 (Castro, Denissf, Normie-Hennin, Foulon, Tournoux, Brunet, Le Dantec)

- 롤랑 카스트로는 네오 모더니즘도 아니고 고대 오스망주의도 아닌 제 3의 실을 모색하는 하나의 독트린을 내세운다.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땅의 기본적인 성공 요건은 세느강이 되고 있다. 필지 구획의 기본은 비스듬하게 직교하는 강과 함께 새로운 구역을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 와트 거리가 증명하는 것처럼 별나고 철로가 있던 땅의 과거와 함께 특별한 장소의 기억은 설계자들로 하여금 '관습적이지 않은 파리적인 여러 유형과 형태'를 수용한 땅의 분할하도록 한다. 열린 띠, '독립형 건물-로프트'의 정렬, 레티슈 가로나 세르팡틴느 가로와 같이 파리적이지 않은 유형과 형태를 제안한다.
- 설계자들은 도심에 기거하지 않는 젊고 중산층인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구역을 지향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설의 높은 밀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람직한 일관성은 '완전히 파리적인 것이 남아있는 청사진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간극'에 대한 일관성이다. 지층부와 활성화된 중심부를 위해 독창적인 해결방법을 끌어내면서 페티슈 가로는 주거와 상업 기능이 공존하고 있어 활기찬 옛 가로의 표상인 무프타르 가로에 상응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 이 설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요소, 제작 도구, 프로젝트의 시학으로 제안을 해체하여 설명한다.



□ 프로젝트의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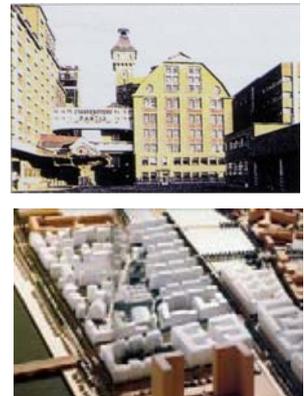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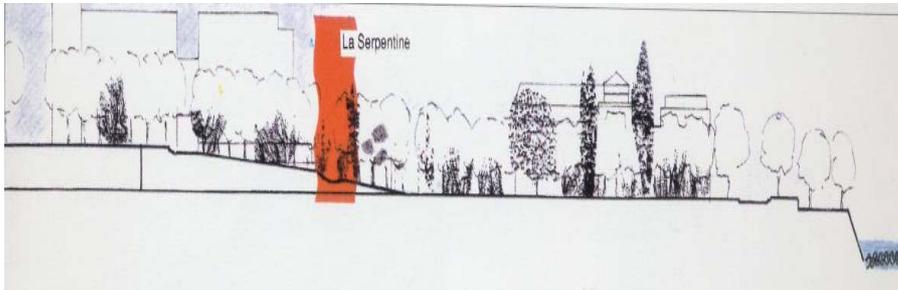
- 파리의 새로운 구역 개념이 프로젝트 구성을 이끈다. 세느강은 단지의 강한 발생기처럼 보인다. 강변의 지형은 기울기의 선과 조율된 선을 가지고 섬세하게 분석된다. 구릉의 기울어진 땅과 강변의 평평한 땅 사이의 경계에 '페티슈 가로'가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대각선의, 열기 있고, 마스코트 같고, 피토레스크한 가로이다. 이 가로는 산업 시설 건물의 향에서 읽혀지는 필지인 땅의 기존 필지의 흔적을 다시 취하고 있다
- 구역의 이미지는 장소의 이질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결국, 네 면이 차별화된다. 그랑 물랭은 보존되고 층고가 기존 건물의 두 배인 로프트(Loft) 건물로 바뀌므로써 거주할 수 있는 볼륨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 제작 도구들

- 장소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확인하면서, 몰랑 카스트로 팀은 도시블록과 가로와 같은 도시의 요소들을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배치시키고자 하였다. 프랑스 대로 측면으로는 세느강을 향해 있는 도시블록은 '실제적인 높은 밀도와 시각적인 낮은 밀도'를 결합시키는 입장을 위한다. 토니 가르니에의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는 모리스 르루에 의해 실현된 리옹 근교의 빌위르반느의 마천루를 생각하게 한다. 이 장소는 현실적이고 근대성을 강조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을 수용하고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진정 성공한 보기 드문 장소이다.
- 세느강변 측으로 전면이 강을 향하도록 계획되고, 도시블록은 폴리아코프 추상회화처럼 처리되었다. '파리는 예술가 구역을 발명해낸 세계 최초의 도시가 아니었는가?' 톨비악 거라 측으로는 폐쇄형 도시블록의 형상을 가지고 가깝게 위치한 대형 기념비 건축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적용된 조정선을 다시 취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중앙부에는 파리적인 빌라(앞뒤로 작은 정원이 있는 3층으로 구성된 주택)의 작은 단지가 페티슈 거리를 향하고 놓은 도시적 피토레스크가 형성된다. 땅의 대각선 방향으로 굴곡이 있는 페티슈 거리는 2층-4층의 맞벽으로 된 작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 설계자들의 고민은 땅의 상황과 서로 대비를 이루는 건축물들 사이에 일치시키면서 구역의 장소를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 이와 같은 체계적 차별화는 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유연한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층부에는 중이층의 주택이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처럼 2배의 층고로 된 볼륨을 처리할 것이 권장된다. 이것은 친근한 건물과 수긍할만한 밀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지층부에는 구역의 삶을 조성하는 복합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병치된 상가, 주민시설, 사무실, 주거 등 다른 프로그램들이 위치되고, 모든 전이를 거치면서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에 이르기까지 외부 공간의 상태가 다양화된다. 또한 거주성의 융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능의 병치 속에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구획이 예상된다.
- 공공공간 그 자체는 차별화된 분위기에 대응되면서 도로에 의해 구성되고 연속되어진다. 건조하게 계획된 것과 녹화된 것의 관계는 페티슈 거리의 엄격한 건조함에서부터 나무로 우거진 공원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 변화에 따라 단면상에서 조정이 된다. 장소의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경사면이 세르팡틴느 산책로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구역의 장면 연출을 추구하면서, 롤랑 카스트로는 그들의 관점에 일치되는 도시 만들기의 도구를 끌어낸다. 전통적 의미의 필지는 고찰의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프로젝트의 추구하는 바에서 기인한다. 즉, '제안된 시스템의 현실적인 종합'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구역을 분절하는 다른 방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프로젝트의 시학

- 구역-공원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여정과 결부되어 구분되는 분위기들에 의해 완성된다. 프랑스 대로에서의 그 분위기는 리옹시의 토니 가르니에의 건축을 상기시키는 깊이 과 들어간 초승달 모양의 건축에 의해 그려지는 '세느강을 향한 다공적 연속성'이다.
- 페티슈 거리에서는 볼륨의 추상적인 조형성이 결정해야 할 건축적 피토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느강변으로는 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강변 건물들이 파리 그랑 몰랭의 강한 실루엣과 만나고 있다. 이 테마에서 롤랑 카스트로의 제안은 '기대되는 배치도 이전에 희망하는 복합성의 이야기'처럼 구상한 것이다.

⑦ 마텍 팀 (Madec, David, Dervieux, Verjus)

□ 21세기의 여명기에 도시성 생각하기

- 새로운 마세나 구역의 개발에 대해 필립 마텍은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상기시킨다. '여기에 펼쳐질 기술의 힘에 맞서고 강, 요소들의 힘에 맞서서 삶을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실패의 명제로 이끈다. 즉, 도시 문명 속에서 도시성의 어려운 출현을 의미한다.'
- 건축의 철학적인 차원이 다루어졌다. 우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구역 형성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체보다는 철학, 역사, 예술, 지리학, 기상학, 기술, 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속에서 정립된 도구들을 탐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형태의 전통, 유클리드 기하학, 도시블록, 모델이 되는 컨셉 등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과 경관이 물질화되기 이전에, 도시 프로젝트는 시간과 공간의 현대적인 구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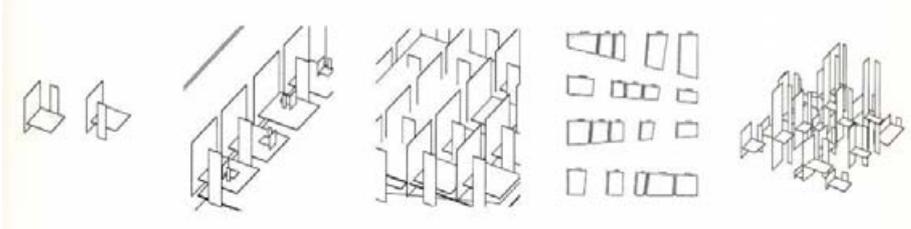
□ 마세나 아날로공(analogon)

- 프로젝트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마세나 아날로공'이라는 개념이다.
- 아날로공을 정의하자면 아날로그의 한 요소 즉,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의 돌 혹은 여러 대상들 사이에 일치되거나 유사한 요소를 뜻하는 것이라면, 필립 마텍에게는 도시 구상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기본적인 형상을 의미한다. '아날로공은 도시 발생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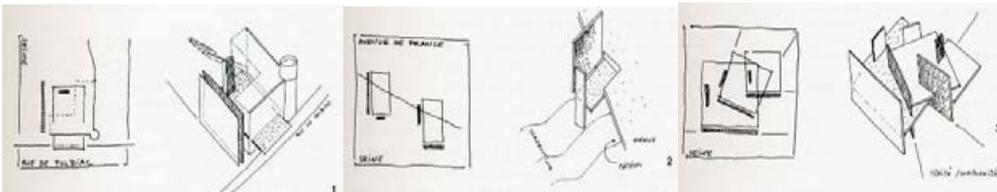


- '기하학은 땅의 내적 구조를 해석하고 힘의 방향, 단절의 축, 교차, 초점, 옛 의지와 땅의 만남 등을 위치시킨다. 기하학은 긴장과 소통과 가깝게 혹은 먼 관계를 형성한다. 기하학은 프로젝트를 향해 재현을 이끌어낸다.'
- 실행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아날로공은 마세나 구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만들어나간다. 슈마 속에서는 우선적인 3개의 평면으로 된 기본 형상에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되는 복합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아날로공은 자멸되는 것 없이 흐려질 수 있다. 각 장소에 특별한 기하학이 적용되면서 변형된다.



-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경우의 형상이 탐구되었다.
- 첫 번째 형상의 경우 : 프리고 건물처럼 아날로공이 기존 건물에 가깝게 있을 때, 아날로공은 일반적인 공간 구소와 결합된다. 그것은 주변과 함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변화시킨다.
- 두 번째 형상의 경우 : 아날로공이 프랑스 대로에 정착될 때, 세느강을 향해 열고 땅에서 하늘까지,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까지,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까지 여러 층들을 분절시킨다.
- 세 번째 형상의 경우 : 아날로공이 복잡한 시스템과 접하게 되었을 때 사무실, 상가, 주거가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서처럼 공간적으로 조직하고 그 풍부함을 자유롭게 실험한다.



⑧ 이보스 팀 (Ibos, Vitart, Benech, Virilio)

- ‘우리 건축가들에게는 역사 없는 처녀지로 장소를 생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장소는 전혀 처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명제를 일반화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보편화를 위해 장소의 고유 성질을 만드는 것의 상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 물론 피토레스크한 관점에서 이러한 폭과 복합성에 대한 탐구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그들의 현실과 힘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이러한

관점으로 컨텍스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반대로 투쟁하기 보다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 이 원칙의 선포에 대해, 이 팀의 건축가들은 이 경관의 색다른 몇몇 양상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땅의 질을 끌어내었다.

- 프랑스 중정은 세느강변의 워터 프런트에 의해 강조된다. 강변의 건물들은 모든 공간들이 향하고 있는 공원을 향해 크게 열려 있다. 그리고 공중 다리가 프랑스 중정을 강까지 연결시킨다. 그랑 물랭을 지나고 다른 산업 시설들을 거치면서 연결된다.
- 다리의 끝부분에는 전망 데크가 세느강 위에 떠서 솟아 있는데, 이 전망 데크는 다리를 따라 온 여정이 끝남을 나타낸다. 강변의 모든 경관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 재경부청사, 파리 시내 원경과 함께 관조의 대상이 된다. 다리는 강 위에 솟아있는 참조적 수평선을 그려내고 기념비적 건축물을 배경으로 연속성을 드러낸다. 거기에서 그랑 물랭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열린 4권의 책을 상징하는 타워와 구분되고 있다.



- 프랑스 중정에서 부터 세느강까지의 주요 종단면도에는 중정과 같은 레벨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기본 단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리 레벨, 국립도서관 데크 레벨, 마세나 대로 레벨이 일치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랑 물랭의 아랫부분에는 대형 공원이 존재하고 자연대지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그랑 물랭 건물을 통과한다.
- 이러한 전체 모습을 갖추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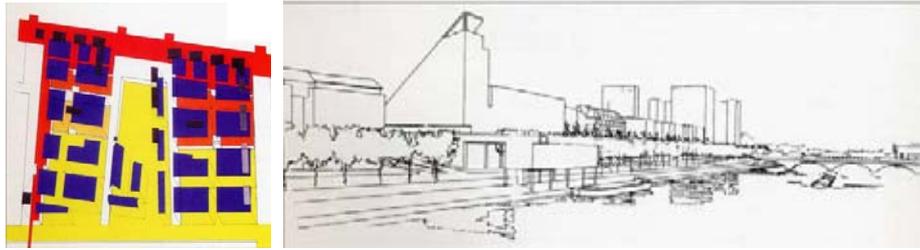
⑨ 지라르-이스라엘 팀 (Girard, Israël, Coulon)

□ 전통과 현대의 혼합

- 이 팀의 설계자들은 ‘분류화되는 땅의 용도 구분과 도시적 위계의 전통적이라 불리는 생각들과 그것들을 해체시키는 비교적 현대적이라 일컬어지는 생각들을 혼합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답론은 오래된 것이다.’라는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설계자들은 19세기 도시 만들기의 성과와 함께 근대 운동의 꿈은 선상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13구의 마세나 구역 근방에 지어진 르 꼬르뷔지에의 구세군 회관을 참고하고 오스망적인 시스템에서 비롯된 파리적인 도시 계획의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이 건축가들을 비판을 수용하고 결과적으로는 변형되어야 하는 것을 적용한 이후에 근대성의 경험을 따를 것임을 표명하였다.
- 도시적 그랑 앙상블과 구역-공원은 전세대의 모델인 그랑 앙상블과 전원도시로 탐구되었던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각각의 질적인 부분은 서로 혼합되고 그들의 단점은 상호 회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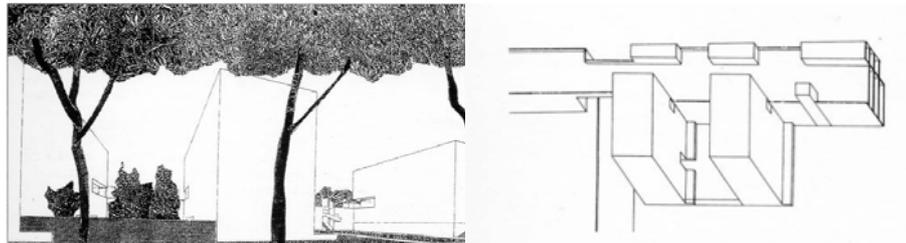
□ 3차원적으로 땅을 건설하기

- 마세나의 땅이 경관의 일체성으로서 새로운 구역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설계자들은 ‘단면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재해석하는 자유로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대로를 따라 땅은 층층으로 처리된다. 왼쪽으로는 성토가 프랑스 대로와 같은 레벨로 이루어지고, 강둑 및 강변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경사 도로는 그랑 물랭은 감싸고 있다. 건설할 수 있는 지리적 상황의 치환을 시도한 후에 4개의 채택된 형상을 병치하는 임시적인 배치가 제안된다.
- 세느강을 향해 약하게 기울어진 땅에서부터 일반적인 문제는 입체적 지붕선 속에 건축물을 위치시킬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세느강변 건물의 높이가 24m로 제한되는 것을 기분으로 선택하는 것이 권고된다. 프랑스 대로변의 높이는 이에 비해 솟아있게 된다. 또한, 13구역을 세느강까지 연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슈발르레 거리를 넘어서있는 도로가 강둑과 그랑 물랭 건물을 포함하는 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두 가지 방식의 교통을 수월하게 하면서 차량과 보행을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내부 도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찬성과 반대를 가늠하면서 테스트된다. 공원의 이편과 저편으로 두 개의 큰 산책로가 서로 교차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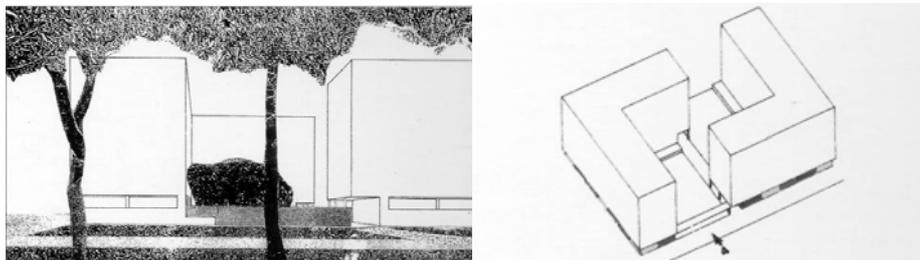


□ 열린 필지-도시블록

- 내부와 외부가 상반되기 때문에 닫힌 중정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각형 평면의 4개 건물은 거부된다. 첫 번째 타입인 열린 '필지-도시블록'은 대각선으로 사각형 형태를 분할시키고 두 부분으로 쪼개놓는다. 즉, 거기에서 투과성 뿐만 아니라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보다 더 풍부한 점진적 변화가 야기된다. 가로지르는 산책로는 지면에 식재가 된 중정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작은 골목길들이 도로에서 분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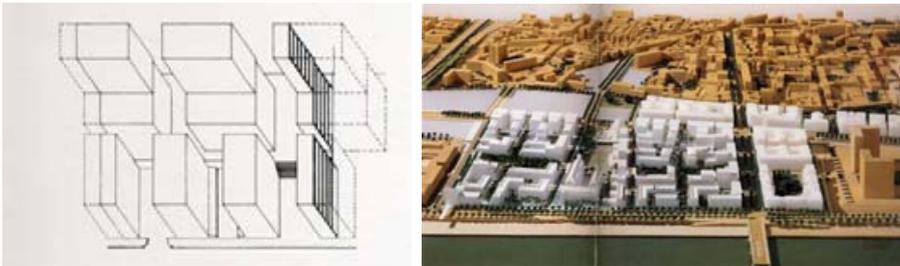


- 평행한 두 건물이 형성하는 두 번째 타입의 도시블록은 안쪽을 향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 두 타입을 반씩 조합한 것은 컨텍스트에 맞도록 변형된다.
- 전체 단지의 구성은 '높이=너비'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건물의 높이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도로의 수치화, 다양한 폭과 관계된다.



□ 이벤트의 다양성

- 도시적인 계획 속에 건축적인 활동은 창의성과 맥락성의 두 가지 수용에 따라 이해되어야만 한다. 설계자들은 중요하게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품고 있다.
- 중앙 공원과 토마스 만 거리를 따라 위치한 선형의 건물은, ‘그래, 일자형 건물!’, 프랑스 대로에서부터 세느강까지 감소하는 높이로 3개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공원으로 비워진 부분을 보충하고 정당화하면서 대로에서부터 강을 향해 시각적인 열림을 유지하고 그랑 물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형의 건물은 많은 주호를 포함하게 된다.
- 프랑스 대로에 평행한 영역은 ‘전략적인 깊이’처럼 생각되었다. 즉, ‘달리 말하면, 건물 혼합의 이 68m깊이는 건물의 외곽 형태도 다르고 다양한 상황과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 깊이는 이웃의 복잡한 짜 맞춤 속에서 프랑스 대로에 면한 파사드의 진정한 차원을 미리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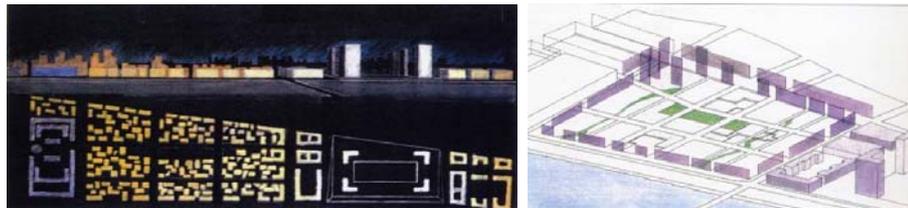
□ 경관-공원을 위해

- 도시 경관은 건축적 예술과 조경적 예술 사이의 상호 의존이 공생으로 생각되어지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즉, ‘공원의 넓은 확장에 의해 평범한 개방이나 골목의 굴절된 감김, 중정의 투명성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골목길, 그것은 모두 강독에 위치되는 매우 밀도 높은 주거의 큰 정원이다.’ 밀도 높고 녹화된 것은 건축과 조경의 조합에 의해 유혹하려는 일동의 도박이다.
- 세느강에 직교하는 가로 시스템은 위계적인 도로망에 의해 구역의 밀도를 낮추고자 하는 ‘바람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순수한 표피의 의미를 넘어서서, 각각의 건물은 건축에 의해 측정되는 가장 큰 규모로 모든 구역을 가로지르는 시각적인 깊이감을 가지게 된다. 프랑스 대로는 68m의 평행한 띠를 포함하는 공간처럼 설계된다. 미래 구역의 이미지가 거기에서 미리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인 깊이감’에 관한 것이 된다. 다양한 상태의 근접 공간, 복합 기능, 각기 다른 볼륨들, 도시에 대한 환영의 힘 상징으로서 말이다.

- 경관, 지리, 역사, 특수성의 차원에서 설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세느강을 보고 느끼는 것, 참조와 지표를 형성하는 것,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 도시적 참조들을 갱신하는 것을 제안한다. 식재와 가로등의 전략은 낮과 밤의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보여준다.
- 새로운 구역에 걸맞은 경관 속에서 프로그램화는 혼합을 추구한다. '구역 내 여러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이 구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위계화된 공공공간의 정도, 4단계의 중심성, 프랑스 대로와 세느강변의 복수 액화 등 모두가 다양한 도시 삶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⑩ 포잠팍 팀 (De Portzamparc, Hu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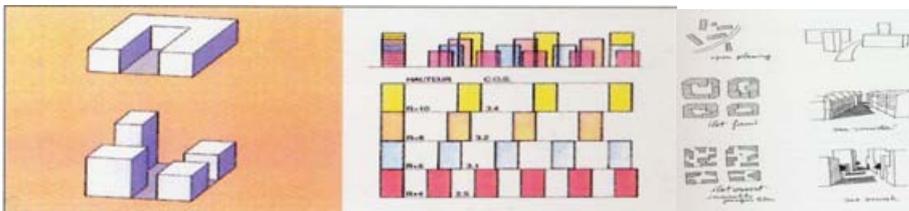
- 크리스티앙 드 포잠팍 팀이 당선되었는데, 이들은 '3세대 도시'이론과 '열린 블록'의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의 형성원리를 실험하고자 하였다. 포잠팍이 조정건축가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건축 경험과 도시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립하게 된 '제3세대 도시' 이론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첫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마세나 구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린 블록 체계'의 도시형태 구성과 자유로운 건축블록 구성은 현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론에 있어 색다른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역사의 단순한 해석에서 기인하는 즉흥적 형태의 표출과 집합으로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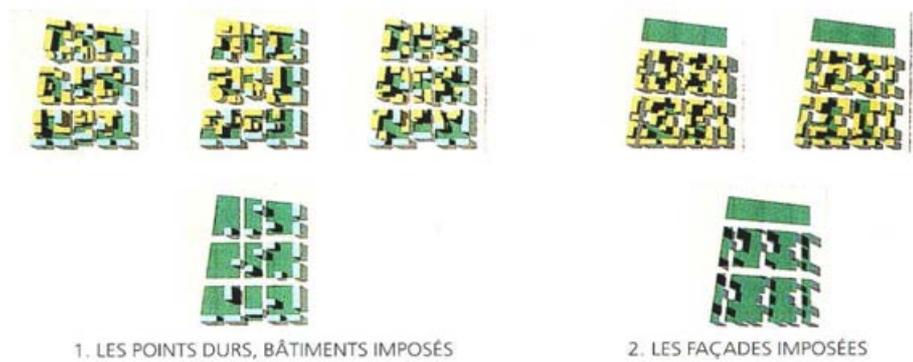
- '그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리 리브 고슈 프로젝트의 역사를 상상하고자 하고, 지역적 도시 경관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긴 도시 시퀀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가속되는 역사적 켜의 중첩 과정으로서의 파리개발공사(SEMAPA)의 연구를 상상한다.' 라는 의도를 설계자들은 드러내었다. 무엇보다도 이웃인 툴비악 구역과의 차별성 표출을 개념으로 하여, 도시공공공간의 규정과 도로 폭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도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공간 개념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로 체계 + 열린 블록의 규칙 = 평면의 무한한 생성 가능'이라는 공식을 내세우며 열린 규칙을 부여하고 최대한의 융통성이 있는 도시설계를

지향하였다. 첫 공모단계에서 제시된 안에서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러한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가 순차적으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블록의 형성과 건물의 배치에 대해 몇 가지의 규칙을 제시하였는데, 전망을 위해 광장을 향해 열릴 것,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들의 다이내믹한 높이 변화, 가로로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건물 배치의 금지, 가로변 대지 내부에 나무심기와 중정 녹지화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통해 ‘도시적인 작은 숲’이라는 개념을 또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 ‘열린 블록’에 대한 관점에서 가로의 공간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한 도시블록의 건물들의 높이는 이웃 도시블록의 빈 공간과 대응한다. 트여있으면 건물은 세워지는 데에 방해 받지 않고 주변 외부공간의 방해도 받지 않으므로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른 가로에서는, 시각적인 투과가 도시 블록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교대로 구성된 평면은 건조하게 처리된 공간과 녹지로 처리된 공간의 공존을 변화 있게 만든다. 오늘날의 다른 모든 도시들처럼 파리도 다양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세 구역에서부터 오스망 시대의 규칙적인 도시블록, 그리고 필자와 블록 위에 독립된 건물의 근대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다.



- 제 1단계 현상설계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가로들을 동반한 도시블록의 단편화에 대해 두 가지의 가정을 보여주었다. 55m×100m, 65m×100m 크기의 도시블록을 형성하는 12m와 16m 폭의 가로를 제안하였고, 제 2단계 현상설계에서는 조금 더 작아진 35m×90m, 60m×90m 크기의 도시블록에 16m와 10m 폭의 가로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보존되어야 하는 문화재 건물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제안된 도로체계에 의한 단편화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상 설계의 제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칙이 적용되었을 때의 구역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건축 설계 지침서(1999)에서 대지의 도시적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도로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블록의 규모가 결정하였는데, 이 안에 자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건물들이



〈그림 18〉 도시블록형성을 위한 2가지의 시뮬레이션 : 형성규칙에 대한 탐구
(제1단계 현상 설계, 1995)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일반적인 예시와 함께 경우의 수의 예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도시 맥락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상대적으로 밀집된 리듬을 가지게 되는 직교 원칙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세느강을 따라 점점더 내려가고 있는 가로들은 10.5m와 16m 폭, 그리고 세느강에 평행한 가로들은 12m와 18.6m 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도로는 보차공존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졌다. 거리에 면한 블록이 비움과 채움의 불규칙한 반복이 제공하게 되는 다이내믹한 시각 흐름은 닫힌 블록에 비해 거리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로와 같은 공공공간과 면하는 경계부분에 건물을 앉히게 될 경우 전체 블록 둘레길이의 50%-70% 사이여야 하고, 남은 둘레길이의 50%는 열려있어야 하고, 남은 50%는 1층, 2층 규모의 낮은 건물이 앉혀질 수 있다. 2층까지는 거리에 면한 건축선을 맞추어야 하고, 2층을 넘는 건물은 최소 10m를 대지 경계에서 띄워야 한다. 그리고 건물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 6m를 서로 떨어뜨려야 한다. 다양한 높이의 건물들의 집합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 면한 건물의 폭은 건물의 높이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블록 둘레길이의 최소 25%는 6층 높이 이하여야 하고, 블록 둘레길이의 최소 25%는 8층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많은 규정이 도식으로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3차원적인 규칙과 2차원적인 규칙을 동시에 소화해야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소 엄격한 규정에 따라 조정된 건축의 볼륨은 자유롭게 보이는 듯하지만, 수많은 규칙에 의해 짜여진 ‘조율된 무질서와 다양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자체의 위치와 높낮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즉 중정과 테라스의 처리에 대한 조경적 규정이 있고, 또한 재료의 선정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다양한 건축물의 볼륨이 만들어내는 void/solid의 관계는 가로마다 각기 다른 시퀀스가 형성되고, 담이나 건물의 벽을 연결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부분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5) 결론 : 통일성 속의 다양성, ‘파리’라는 도시의 정체성

‘도시 위에 도시 구축하기(Construire la ville sur la ville)’가 파리라는 도시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도시만의 정체성 어떻게 확보하고 강한 배경으로서의 전통성을 어떻게 현대에 이어가고 있는지를 협의개발 지구 계획의 변천, 베르시 프롱 드 파크 주거단지의 도시 형태적 특성과 건축 계획적 합리성, 파리 리브 고슈의 마세나 구역 아이디어 설계 공모전의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도시 개발 제도의 내용과 배경의 변화, 전통적 도시 형태의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탐구 사례, 특수한 장소 해석으로 파리의 한 단편에 대한 동시대 건축가들의 고민 등을 통해 파리의 특수성을 읽을 수 있었다.

파리의 도시적 정체성 확보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에 따라 무엇보다도 도시를 만드는데 신중함을 기본으로 역사의 축적을 존중하여 새로운 것을 더하면서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느 곳에서나 시간의 지속성과 공간의 영속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도시 구조의 통일성과 건축 형태의 다양성을 역설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넷째, 도시 개발의 모든 주체가 파리의 특수성을 살린 궁극적인 도시 만들기의 목표를 공유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계획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시민 등 폭넓은 논의와 담론 이후에 열린 정책의 마련과 제도의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파리의 도시 형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재해석한 현재를 종합함으로써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될 도시 환경, 도시 공간, 도시 문화 등에 대한 기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시 정책, 개발 사업, 도시 설계 등 모두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간적, 공간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것이 파리라는 도시가 가진 힘과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부록 2-1.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①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한국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한국적 도시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음

② 조사 대상 및 유효 표본 수

- 조사 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20~59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③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의 처리

-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주)엠브레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 패널을 이용함
- 표본 할당은 전국 주민등록인구(2007년 12월 기준)비에 맞게 지역과 성, 연령대를 사전 할당해 조사를 실시함
-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Excel 2003, SPSS Ver 12.0을 이용한 코딩 및 빈도/교차분석

④ 조사 기간

- 조사는 2008년 11월 21일 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됨

(2)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표 3〉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 구 분 | | 사례수 | 백분율 |
|-----------|----------------------|-----|-------|
| 전체 | | 806 | 100.0 |
| 성별 | 남자 | 411 | 51.0 |
| | 여자 | 395 | 49.0 |
| 연령 | 20대 | 191 | 23.7 |
| | 30대 | 233 | 28.9 |
| | 40대 | 231 | 28.7 |
| | 50대 | 151 | 18.7 |
| 지역 | 서울 | 175 | 21.7 |
| | 부산 | 61 | 7.6 |
| | 대구 | 42 | 5.2 |
| | 인천 | 42 | 5.2 |
| | 광주 | 26 | 3.2 |
| | 대전 | 26 | 3.2 |
| | 울산 | 16 | 2.0 |
| | 경기 | 182 | 22.6 |
| | 강원 | 23 | 2.9 |
| | 충북 | 24 | 3.0 |
| | 충남 | 30 | 3.7 |
| | 전북 | 30 | 3.7 |
| | 전남 | 28 | 3.5 |
| | 경북 | 41 | 5.1 |
| 경남 | 50 | 6.2 | |
| 제주 | 10 | 1.2 | |
| 직업 | 사무직 영업직 | 193 | 23.9 |
| | 자유 전문직 | 45 | 5.6 |
| | 일반 공무원 | 56 | 6.9 |
| | 고급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26 | 3.2 |
| | 자영 업자 | 80 | 9.9 |
| | 생산/ 기술/ 판매/ 서비스 | 136 | 16.9 |
| | 학생 | 81 | 10.0 |
| | 전업 주부 | 150 | 18.6 |
| | 무직 | 25 | 3.1 |
| 기타 | 14 | 1.7 |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 만원 미만 | 156 | 19.4 |
| | 200-300 만원 미만 | 180 | 22.3 |
| | 300-400 만원 미만 | 189 | 23.4 |
| | 400-500 만원 미만 | 148 | 18.4 |
| | 500-600 만원 미만 | 57 | 7.1 |
| 600 만원 이상 | 76 | 9.4 |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29.4 |
| | 대학교 졸업 | 498 | 61.8 |
| | 대학원 졸업 | 71 | 8.8 |

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환경의 질적 향상과 건축·도시문화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들은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왔고, 외국도시의 모방에 급급한 결과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한국도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
연락처 031-478-9643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설문에 응하시기 전에 다음 내용을 잘 읽어 주십시오.

※ 참고사항

[도시의 정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것을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도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유형]

한국에는 서울의 구도심, 경주, 전주와 같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 같이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과 같이 현대화된 도시, 수도권외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이 계획된 신도시, 각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에 한정되지 않고 IT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화 사회, 월드컵 응원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사회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한국의 도시와 한국적 도시구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예비 질문

문1)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7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② 수도권 도시
③ 지방 도시
④ 기타()

문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 이 질문은 거주하시는 주택의 주거형태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한옥에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2번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 ① 한옥으로 구성된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②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③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④ 5층 이상의 아파트 주거지
⑤ 오피스텔, 주상복합(주거와 상권이 혼합되어 있는) 밀집 주거지
⑥ 기타()

문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못 느낀다. ③ 모르겠다. ④ 조금 있다 ⑤ 자주 있다 .

한국도시에 대한 인식 및 방향

문1) 귀하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온 도시에서 “이 도시는 참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못 느낀다. ③ 조금 있다 ④ 자주 있다. ⑤ 모르겠다.

문2) 귀하는 한국 도시의 어떤 모습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순위 (), ◎ 2 순위 ()

- ①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
②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모습을 볼 때
③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볼 때
③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민주화운동,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④ 대학로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시의 모습을 볼 때
⑤ 강남이나 여의도 증권가와 같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의 모습을 볼 때
⑥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
⑦ 기타()

문3) 귀하는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순위 (), ◎ 2 순위 ()

- 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
② 살기에 불편함(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③ 도시 내 낙후지역이 방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음
④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⑤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의 열악함
⑥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
⑦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못함
⑧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부족함
⑨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이 열악함
⑩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함
⑪ 도시를 계획할 때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⑫ 기타()

문4) 한국의 도시를 다른 나라의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② 불필요하다. ③ 모르겠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4-1)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② 한국의 도시문화를 진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 ③ 한국적 브랜드(이미지) 가치를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④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함
- ⑤ 기타()

문4-2)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 나라 도시의 정체성은 필요 없음
- ② 한국적 도시를 만들어도 관광수익과 같은 실제 이익이 없음
- ③ 한국적 브랜드 가치고양과 국가경쟁력은 무관함
- ④ 다른 선행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님
- ⑤ 기타()

한국도시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문5) 한국의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의 고유한 건축·도시양식의 현대화 및 적용
- ② 기존 도시공간의 보존 및 활용
- ③ 외국스타일의 건축·도시에 대한 맹목적 선호 반성
- ④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의식 제고
- ⑤ 한국만의 정체성 있는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
- ⑥ 기타()

문6) 한국의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1 순위 (), ◎ 2 순위 ()
- ①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는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한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 ②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
- ③ 한국적 느낌을 주제로 한 건축·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마련
- ④ 한국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홍보 및 예산지원
- ⑤ 시민들에 대한 홍보·교육 및 도시공간조성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 ⑥ 기타()

문7) 앞으로 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의 도시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② 기존의 도시를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 ③ 기존의 도시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개발 할 것인가는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 ④ 기존의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보존한다.
- ⑤ 기존의 도시 공간을 되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⑥ 기타()

문8)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1 순위 (), ◎ 2 순위 ()
- ① 상가,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
- ②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 ③ 학교, 동네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소규모 공동체시설
- ④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 ⑤ 초고층 빌딩, 박물관과 같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 ⑥ 역사적인 건축문화재 (ex. 고궁, 서울역, 국회의사당 등)
- ⑦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 ⑧ 가로등, 표지판, 보도, 벤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 ⑨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
- ⑩ 기타 ()

문9) 정체성이 부족한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점과 비교할 때 모범이 되는 외국의 사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파리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이 잘 유지·보존되는 도시
- ② 뉴욕과 같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지어진 도시
- ③ 도쿄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혼합된 도시
- ④ 시애틀과 같이 시민들이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는 도시
- ⑤ 기타 ()



파리 - 전통적 건축물이 잘 유지 보존되는 도시



뉴욕 - 현대적인 건축물이 잘 지어진 도시



도쿄 -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도시



시애틀 - 시민들이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는 도시

문9-1) 독창성, 고유성, 정체성 등을 감안한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도시를 10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도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⑥ 6점 ⑦ 7점 ⑧ 8점 ⑨ 9점 ⑩ 10점

문10) 앞으로 한국의 도시를 만들어 갈 때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1 순위 (), ◎ 2 순위 ()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도시, 건축 관련 전문가
 ④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
 ⑤ 시민, 시민단체
 ⑥ 기타()

문11) 주체들의 참여방식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소수의 주체가 집중적으로 참여한다.
- ②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되 소수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③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되 주체의 선정, 비중, 방식 등은 도시에 따라 다르다.
- ④ 모든 주체가 똑같이 참여한다.
- ⑤ 기타()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조금 있다.
- ③ 모르겠다.
- ④ 거의 없다.
- ⑤ 전혀 없다.

문12-1)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정부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과정에 참여
- ③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
- ④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
- ⑤ 학교, 시장 등의 마을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
- ⑥ 기타()

문13) 거주지역의 시청에서 일정 금액을 확보하여 도시를 가꾸려 합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한다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산책로(보도)정비
- ② 공원 가꾸기
- ③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 ④ 학교 등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 ⑤ 무단 적치물, 불법 건축물의 정비
- 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 ⑦ 도로, 공용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 ⑧ 기타()

문14)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이나 공원 또는 거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설문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일반 사무직/영업직
- ② 자유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③ 일반 공무원(일반교사, 공무원, 경찰)
- ④ 고급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부장이상 관리자, 과장급 이상 공무원)
- ⑤ 자영업자(종업원 9인 이하 상점, 음식점 등)
- ⑥ 판매/서비스직(학원 강사, 점원, 판매원, 수위 등)
- ⑦ 생산/기술직(운전기사, 현장 작업원, 생산직사원 등)
- ⑧ 농/임/어업
- ⑨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 ⑩ 전업주부
- ⑪ 무직
- ⑫ 기타()

DQ2) 귀하의 한 달 총 가구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너스, 임대소득, 이자 등 기타소득 포함)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200만 원 미만
- ③ 200만 원~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400만 원 미만
- ⑤ 400만 원~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600만 원 미만
- ⑦ 600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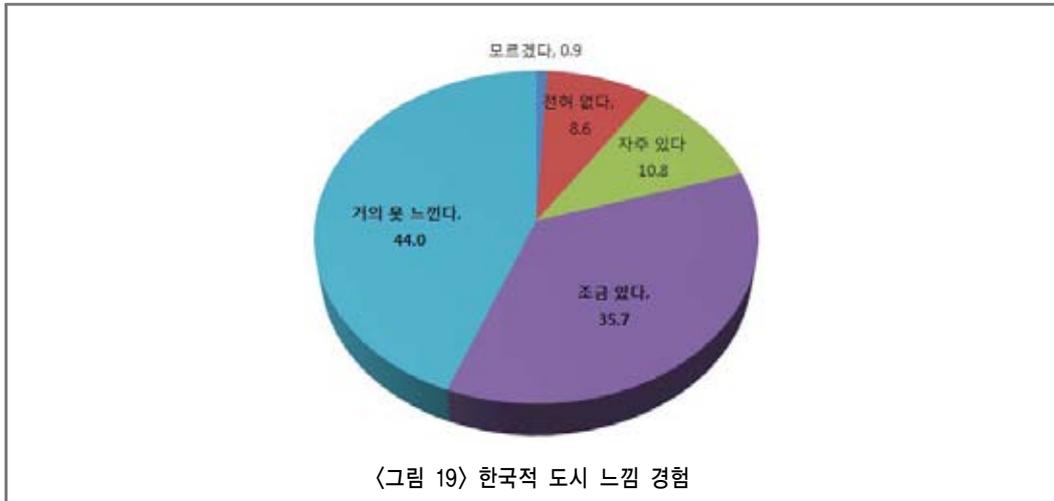
D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포함)
- ② 중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포함)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포함)
-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재학 중퇴포함)
- ⑤ 대학원 졸업(중퇴포함)
- ⑥ 무학

3)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 도시에 대한 인식 및 방향

① 한국적 도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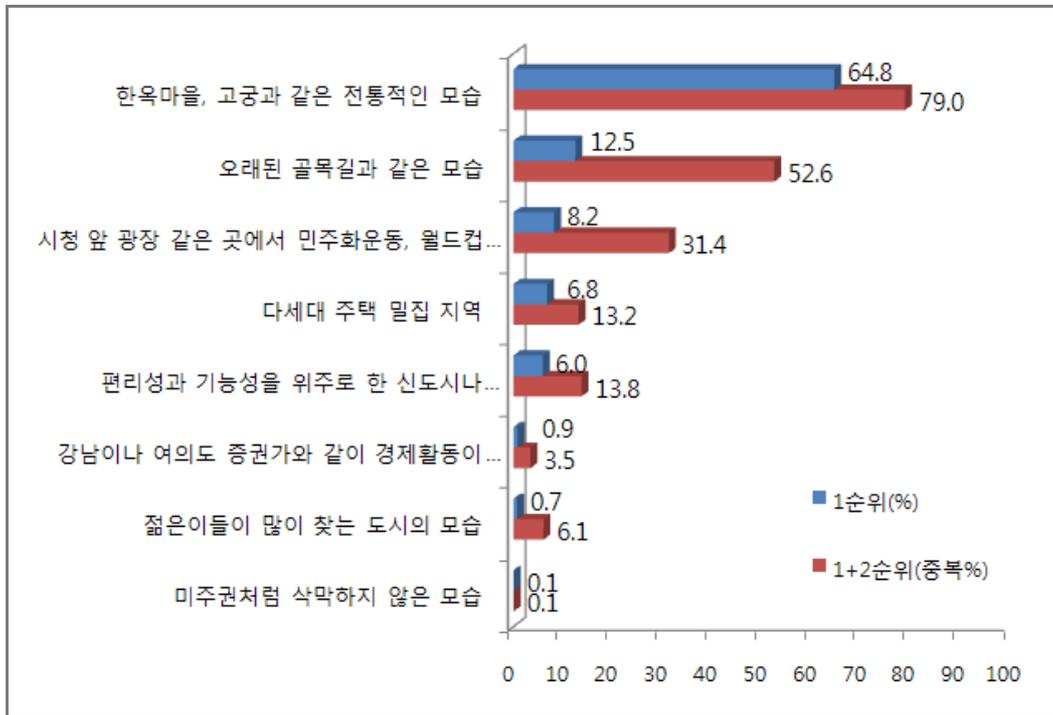
- 이제 까지 살아 온 도시에서 “이 도시는 참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5%(조금 있다+자주 있다)를 차지하고 있음
- ‘거의 느끼지 못했다’거나(44.0%), ‘전혀 없다’(8.6%) 등으로 한국적 도시 느낌을 받지 못한 경우는 52.6%로 한국적 도시 느낌을 받은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음
- 특성별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연령대별에서는 50대의 경험 ‘있다’ 비율이 54.9%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600만 원대 이상의 고소득층은 ‘자주 있다’(17.1%)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지방도시 거주자들의 경험 ‘있다’(58.3%)는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 특성별로는 사례 수는 적지만 한옥으로 구성된 전통주거 밀집지 거주자 한국적 도시를 느낀 경험이 가장 많았고(66.6%), 기타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5층 이상의 아파트 거주지 거주자는 가장 낮았음(42.3%).

〈표 4〉 특성별 한국적 도시 느낌 경험

(단위: %)

| | | 사례수 | 없는 편 | 전혀 없다 | 거의 못 느낌 | 있는 편 | 조금 있다 | 자주 있다 | 모르겠다 |
|-------------|-------------------|-------|------|-------|---------|------|-------|-------|------|
| 전체 | | (806) | 52.6 | 8.6 | 44.0 | 46.5 | 35.7 | 10.8 | 0.9 |
| [성별] | 남자 | (411) | 51.6 | 8.5 | 43.1 | 47.2 | 35.5 | 11.7 | 1.2 |
| | 여자 | (395) | 53.7 | 8.6 | 45.1 | 45.8 | 35.9 | 9.9 | 0.5 |
| [연령대] | 20대 | (191) | 50.3 | 10.5 | 39.8 | 48.1 | 38.2 | 9.9 | 1.6 |
| | 30대 | (233) | 53.7 | 8.6 | 45.1 | 45.5 | 35.2 | 10.3 | 0.9 |
| | 40대 | (231) | 58.5 | 8.7 | 49.8 | 40.7 | 31.6 | 9.1 | 0.9 |
| | 50대 | (151) | 45.1 | 6.0 | 39.1 | 54.9 | 39.7 | 15.2 | 0.0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46.8 | 11.5 | 35.3 | 52.0 | 44.9 | 7.1 | 1.3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53.3 | 8.3 | 45.0 | 46.1 | 33.9 | 12.2 | 0.6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56.6 | 6.9 | 49.7 | 42.8 | 31.7 | 11.1 | 0.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56.1 | 9.5 | 46.6 | 43.3 | 33.8 | 9.5 | 0.7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45.6 | 10.5 | 35.1 | 52.6 | 42.1 | 10.5 | 1.8 |
| | 600만 원 이상 | (76) | 51.3 | 3.9 | 47.4 | 47.4 | 30.3 | 17.1 | 1.3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47.2 | 8.4 | 38.8 | 51.9 | 39.7 | 12.2 | 0.8 |
| | 대재 이상 | (498) | 55.0 | 9.2 | 45.8 | 44.1 | 34.3 | 9.8 | 0.8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53.5 | 4.2 | 49.3 | 45.1 | 32.4 | 12.7 | 1.4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54.9 | 8.5 | 46.4 | 44.3 | 36.6 | 7.7 | 0.8 |
| | 수도권 도시 | (182) | 62.1 | 11.0 | 51.1 | 37.4 | 29.7 | 7.7 | 0.5 |
| | 지방 도시 | (230) | 40.4 | 6.1 | 34.3 | 58.3 | 39.6 | 18.7 | 1.3 |
| | 기타 | (6) | 83.3 | 33.3 | 50.0 | 16.7 | 16.7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33.3 | 0.0 | 33.3 | 66.6 | 33.3 | 33.3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46.3 | 10.1 | 36.2 | 53.7 | 40.3 | 13.4 | 0.0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50.4 | 6.4 | 44.0 | 48.9 | 39.0 | 9.9 | 0.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56.5 | 9.1 | 47.4 | 42.3 | 32.7 | 9.6 | 1.1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43.7 | 8.3 | 35.4 | 54.2 | 39.6 | 14.6 | 2.1 |
| | 기타 | (10) | 60.0 | 0.0 | 60.0 | 40.0 | 40.0 | 0.0 | 0.0 |

② 한국 도시의 차별성을 느낄 때



〈그림 20〉 다른 나라 도시와 한국 도시의 차별성을 느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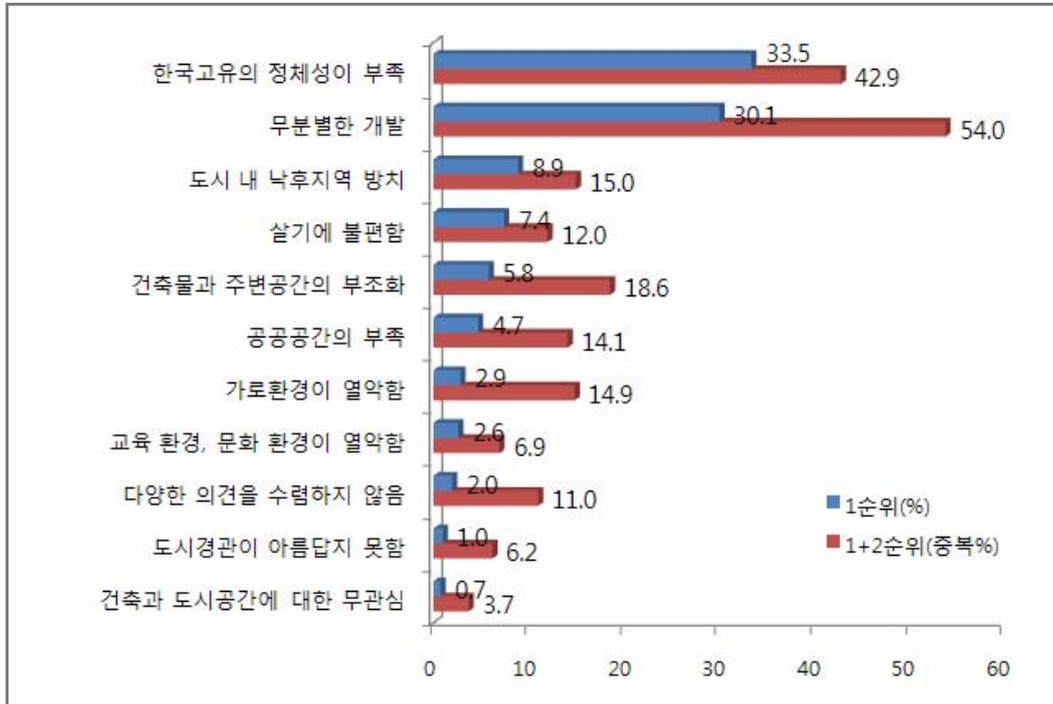
- 어떠한 때 한국 도시가 다른 나라 도시와 다르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가 64.8%(1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12.5%),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민주화운동,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8.2%)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1, 2순위 중복 답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편차가 크지 않음

〈표 5〉 특성별 다른 나라 도시와 한국 도시의 차별성을 느낄 때 - 1순위 기준

(단위: %)

| | | 사례수 | 한옥마을,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 |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민주화 운동, 월드컵 응원 |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모습을 볼 때 |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 |
|-------------|-------------------|-------|---------------------------|---------------------|-------------------------------|--------------------------|---------------------------------|
| 전체 | | (806) | 64.8 | 12.5 | 8.2 | 6.8 | 6.0 |
| [성별] | 남자 | (411) | 65.9 | 12.2 | 6.8 | 7.8 | 5.4 |
| | 여자 | (395) | 63.5 | 12.9 | 9.6 | 5.8 | 6.6 |
| [연령대] | 20대 | (191) | 59.7 | 8.4 | 15.7 | 5.8 | 7.9 |
| | 30대 | (233) | 67.0 | 13.7 | 5.2 | 6.4 | 6.0 |
| | 40대 | (231) | 67.1 | 15.6 | 5.2 | 7.4 | 3.5 |
| | 50대 | (151) | 64.2 | 11.3 | 7.9 | 7.9 | 7.3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62.2 | 15.4 | 5.1 | 9.6 | 7.1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66.1 | 11.1 | 7.8 | 7.2 | 5.0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68.8 | 9.0 | 9.0 | 6.3 | 5.3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62.2 | 14.9 | 11.5 | 6.1 | 4.1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70.2 | 8.8 | 10.5 | 1.8 | 8.8 |
| | 600만 원 이상 | (76) | 57.9 | 17.1 | 5.3 | 6.6 | 9.2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59.5 | 14.8 | 8.0 | 7.2 | 8.0 |
| | 대재 이상 | (498) | 65.7 | 11.6 | 8.4 | 7.4 | 5.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76.1 | 11.3 | 7.0 | 1.4 | 4.2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61.6 | 13.4 | 9.8 | 5.7 | 7.2 |
| | 수도권 도시 | (182) | 65.4 | 9.9 | 9.9 | 7.1 | 6.6 |
| | 지방 도시 | (230) | 69.6 | 12.6 | 4.3 | 8.7 | 3.5 |
| | 기타 | (6) | 66.7 | 33.3 | 0.0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66.7 | 11.1 | 0.0 | 0.0 | 11.1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67.8 | 10.7 | 6.7 | 10.1 | 3.4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60.3 | 14.9 | 12.1 | 3.5 | 7.1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65.0 | 12.0 | 8.2 | 6.7 | 6.2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62.5 | 16.7 | 2.1 | 10.4 | 8.3 |
| | 기타 | (10) | 80.0 | 10.0 | 10.0 |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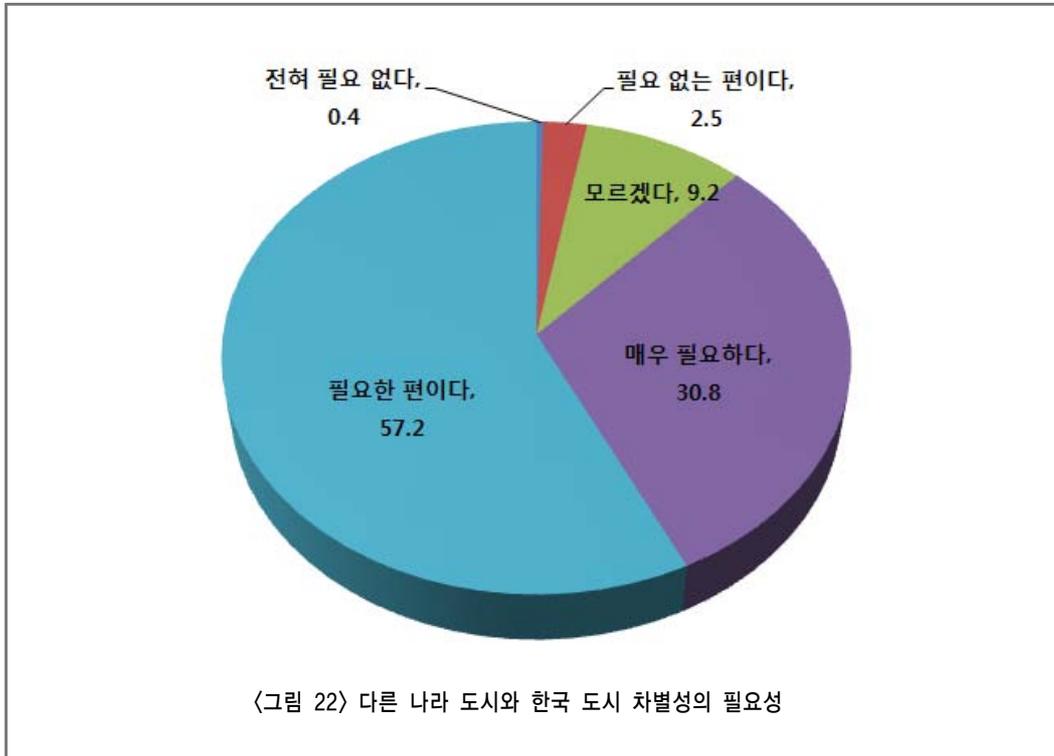
③ 한국 도시의 문제점



〈그림 21〉 한국 도시의 문제점

- 한국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으로 33.5%(1순위 기준)을 나타냈으나, 중복응답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이 54.0%(중복%)로 가장 많아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었음. 또한 두 가지 문제점이 대부분을 차지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과 한옥 전통 주거지 거주자의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각각 43.7%, 55.6%).

④ 한국 도시를 차별성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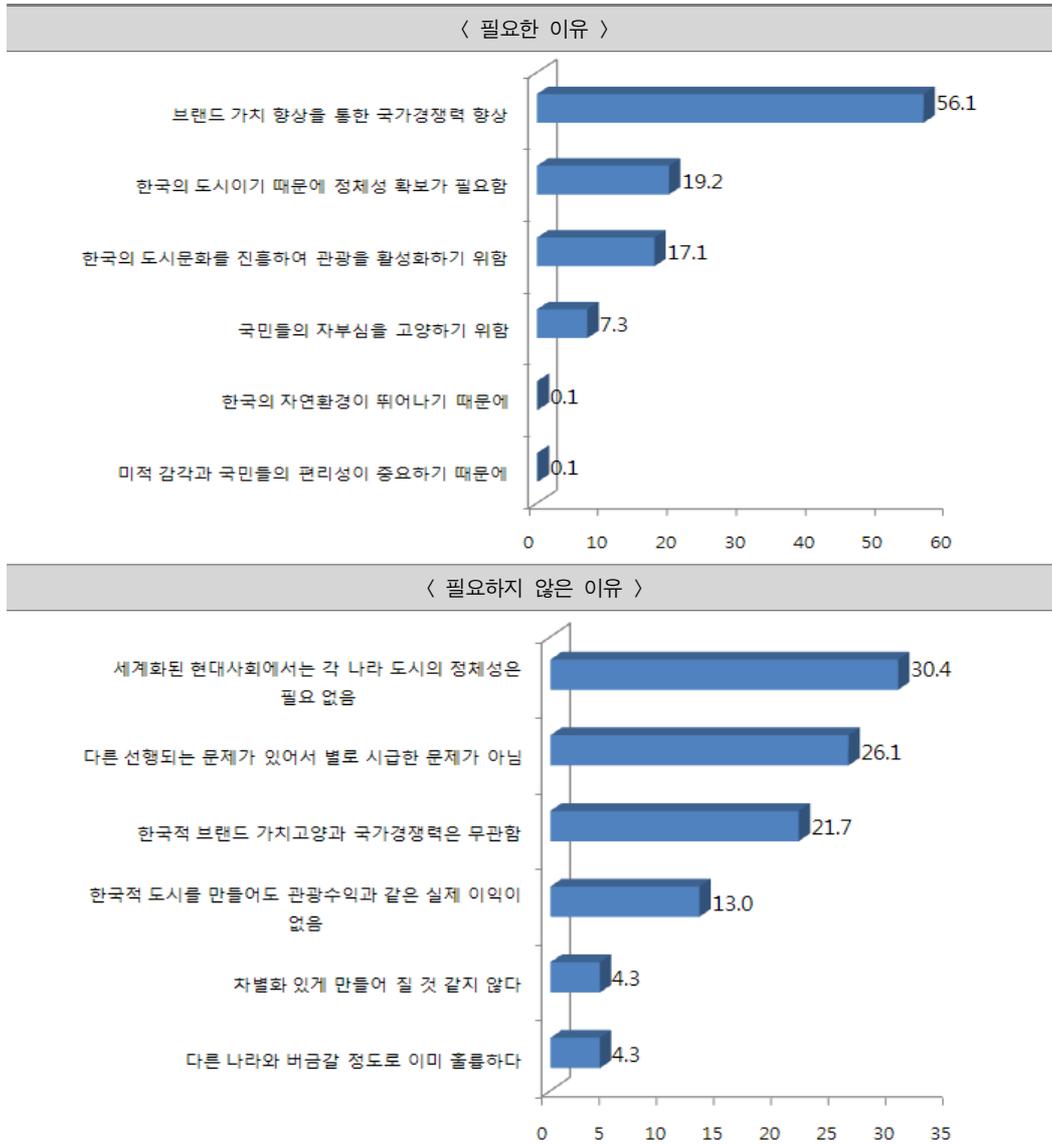
- 한국 도시를 다른 나라의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88.2%(매우 필요+필요한 편)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차별성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한국 도시의 차별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성별 큰 차이 없이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크게 인식하고 있음.

〈표 7〉 특성별 다른 나라 도시와 한국 도시 차별성의 필요성 정도

(단위: %)

| | | 사례수 | 필요 없다 | 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는 편 | 모르 겠다 | 필요 한 편 | 매우 필요 | 필요 |
|-------------------|-------------------|-------|----------|----------------|---------------|----------|--------------|----------|-------|
| | | | | | | | | | |
| 전체 | | (806) | 2,9 | 0,4 | 2,5 | 9,2 | 57,2 | 30,8 | 88,0 |
| [성별] | 남자 | (411) | 2,2 | 0,5 | 1,7 | 8,3 | 56,0 | 33,6 | 89,6 |
| | 여자 | (395) | 3,6 | 0,3 | 3,3 | 10,1 | 58,5 | 27,8 | 86,3 |
| [연령대] | 20대 | (191) | 3,6 | 0,5 | 3,1 | 10,5 | 54,5 | 31,4 | 85,9 |
| | 30대 | (233) | 2,1 | 0,0 | 2,1 | 8,6 | 60,1 | 29,2 | 89,3 |
| | 40대 | (231) | 3,5 | 0,9 | 2,6 | 6,1 | 56,7 | 33,8 | 90,5 |
| | 50대 | (151) | 2,0 | 0,0 | 2,0 | 13,2 | 57,0 | 27,8 | 84,8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3,2 | 0,6 | 2,6 | 14,1 | 59,6 | 23,1 | 82,7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1,7 | 0,6 | 1,1 | 10,6 | 53,9 | 33,9 | 87,8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1,6 | 0,0 | 1,6 | 7,4 | 57,7 | 33,3 | 91,0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4,8 | 0,7 | 4,1 | 8,8 | 59,5 | 27,0 | 86,5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7,0 | 0,0 | 7,0 | 7,0 | 56,1 | 29,8 | 85,9 |
| | 600만 원 이상 | (76) | 1,3 | 0,0 | 1,3 | 2,6 | 55,3 | 40,8 | 96,1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5,1 | 1,3 | 3,8 | 11,8 | 54,0 | 29,1 | 83,1 |
| | 대재 이상 | (498) | 2,0 | 0,0 | 2,0 | 8,8 | 59,6 | 29,5 | 89,1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1,4 | 0,0 | 1,4 | 2,8 | 50,7 | 45,1 | 95,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3,1 | 0,3 | 2,8 | 10,1 | 54,9 | 32,0 | 86,9 |
| | 수도권 도시 | (182) | 1,6 | 0,5 | 1,1 | 8,8 | 61,0 | 28,6 | 89,6 |
| | 지방 도시 | (230) | 3,0 | 0,0 | 3,0 | 8,3 | 58,3 | 30,4 | 88,7 |
| | 기타 | (6) | 16,7 | 16,7 | 0,0 | 0,0 | 50,0 | 33,3 | 83,3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0,0 | 0,0 | 0,0 | 0,0 | 77,8 | 22,2 | 10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6,7 | 2,0 | 4,7 | 9,4 | 50,3 | 33,6 | 83,9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3,5 | 0,0 | 3,5 | 9,2 | 57,4 | 29,8 | 87,2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1,3 | 0,0 | 1,3 | 9,4 | 59,5 | 29,8 | 89,3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4,2 | 0,0 | 4,2 | 6,3 | 52,1 | 37,5 | 89,6 |
| | 기타 | (10) | 0,0 | 0,0 | 0,0 | 20,0 | 60,0 | 20,0 | 80,0 |

⑤ 한국 도시 차별성의 필요 여부에 따른 이유



〈그림 23〉 한국 도시 차별성의 필요 여부에 따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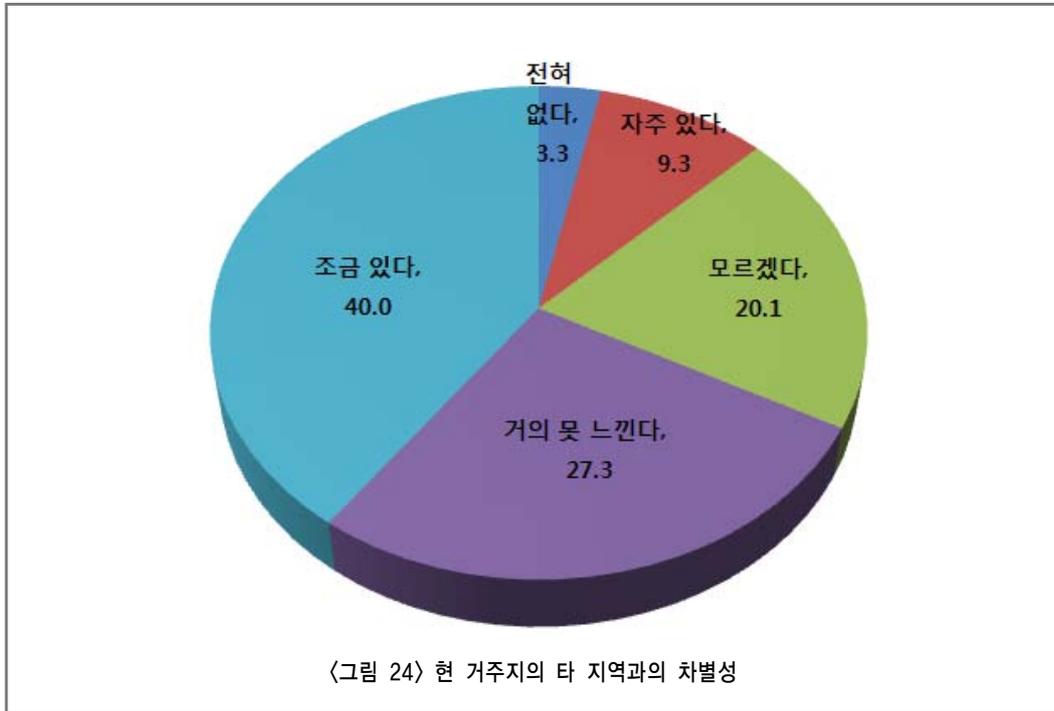
- 차별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국적 브랜드(이미지) 가치를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절반을 넘는 56.1%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이유는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 나라 도시의 정체성은 필요 없음’이 30.4%로 가장 많았음.

〈표 8〉 한국 도시 차별성의 필요 여부에 따른 이유

(단위: %)

| | | 사례수 | 한국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 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한국의 도시문화 진흥을 통한 관광 활성화 | 국민들의 자부심 고양 | 한국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
|-------------|-------------------|-------|-------------------------------|--------------------------|------------------------|-------------|--------------------|
| 전체 | | (709) | 56.1 | 19.2 | 17.1 | 7.3 | 0.1 |
| [성별] | 남자 | (368) | 49.7 | 23.6 | 17.7 | 8.4 | 0.3 |
| | 여자 | (341) | 63.0 | 14.4 | 16.4 | 6.2 | 0.0 |
| [연령대] | 20대 | (164) | 56.7 | 21.3 | 18.3 | 3.7 | 0.0 |
| | 30대 | (208) | 56.3 | 21.6 | 13.9 | 7.7 | 0.5 |
| | 40대 | (209) | 55.5 | 15.8 | 16.7 | 11.5 | 0.0 |
| | 50대 | (128) | 56.3 | 18.0 | 21.1 | 4.7 | 0.0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29) | 55.0 | 20.2 | 18.6 | 6.2 | 0.0 |
| | 200 ~ 300만원 미만 | (158) | 53.8 | 20.9 | 16.5 | 8.9 | 0.0 |
| | 300 ~ 400만원 미만 | (172) | 53.5 | 20.9 | 18.6 | 6.4 | 0.6 |
| | 400 ~ 500만원 미만 | (128) | 61.7 | 14.1 | 14.8 | 8.6 | 0.0 |
| | 500 ~ 600만원 미만 | (49) | 61.2 | 18.4 | 12.2 | 8.2 | 0.0 |
| | 600만 원 이상 | (73) | 56.2 | 19.2 | 19.2 | 5.5 | 0.0 |
| [학력] | 고졸 이하 | (197) | 55.8 | 16.2 | 17.3 | 10.7 | 0.0 |
| | 대재 이상 | (444) | 56.8 | 20.0 | 16.9 | 6.1 | 0.2 |
| | 대학원 재 이상 | (68) | 52.9 | 22.1 | 17.6 | 5.9 | 0.0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37) | 57.3 | 20.8 | 16.0 | 5.9 | 0.0 |
| | 수도권 도시 | (163) | 50.3 | 19.0 | 19.6 | 9.8 | 0.6 |
| | 지방 도시 | (204) | 58.3 | 17.2 | 16.7 | 7.8 | 0.0 |
| | 기타 | (5) | 80.0 | 0.0 | 20.0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33.3 | 33.3 | 22.2 | 11.1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25) | 61.6 | 16.0 | 16.8 | 4.8 | 0.8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23) | 52.8 | 24.4 | 16.3 | 6.5 | 0.0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01) | 56.1 | 18.0 | 17.2 | 8.5 | 0.0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3) | 53.5 | 20.9 | 20.9 | 4.7 | 0.0 |
| | 기타 | (8) | 62.5 | 25.0 | 0.0 | 12.5 | 0.0 |

⑥ 현 거주지의 타 지역과의 차별성



- 현 거주지의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49.3%(자주 있다+조금 있다)로 느끼지 못한다는 30.6%(거의 못 느낀다+전혀 없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성별로는 여성(52.4%)이 남성(46.2%)보다 차별성을 느낀 적이 더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도시 거주자(58.8%)가, 거주지 특성별로는 한옥 전통주거지 거주자(55.5%)의 차별성 경험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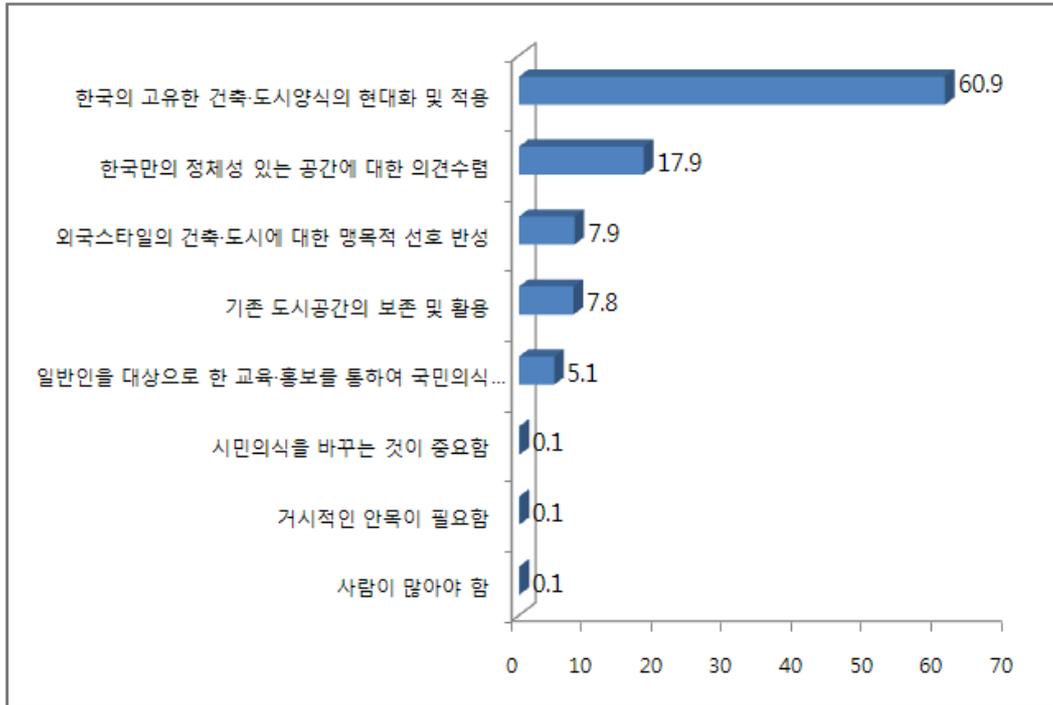
〈표 9〉 특성별 현 거주지의 타 지역과의 차별성

(단위: %)

| | | 사례수 | 없는 편 | 전혀 없다 | 거의 못 느낀다 | 모르겠다 | 조금 있다 | 자주 있다 | 있다 |
|-------------|-------------------|-------|------|-------|----------|------|-------|-------|------|
| 전체 | | (806) | 30.6 | 3.3 | 27.3 | 20.1 | 40.0 | 9.3 | 49.3 |
| [성별] | 남자 | (411) | 33.0 | 3.6 | 29.4 | 20.7 | 38.7 | 7.5 | 46.2 |
| | 여자 | (395) | 28.1 | 3.0 | 25.1 | 19.5 | 41.3 | 11.1 | 52.4 |
| [연령대] | 20대 | (191) | 34.1 | 5.8 | 28.3 | 18.8 | 35.6 | 11.5 | 47.1 |
| | 30대 | (233) | 29.6 | 3.0 | 26.6 | 17.6 | 46.4 | 6.4 | 52.8 |
| | 40대 | (231) | 32.5 | 2.6 | 29.9 | 20.8 | 36.8 | 10.0 | 46.8 |
| | 50대 | (151) | 25.2 | 2.0 | 23.2 | 24.5 | 40.4 | 9.9 | 50.3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28.9 | 5.8 | 23.1 | 29.5 | 35.3 | 6.4 | 41.7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31.6 | 3.3 | 28.3 | 20.0 | 38.3 | 10.0 | 48.3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26.4 | 2.6 | 23.8 | 19.0 | 41.8 | 12.7 | 54.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37.2 | 2.7 | 34.5 | 13.5 | 41.2 | 8.1 | 49.3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28.1 | 5.3 | 22.8 | 15.8 | 47.4 | 8.8 | 56.2 |
| | 600만 원 이상 | (76) | 31.6 | 0.0 | 31.6 | 19.7 | 40.8 | 7.9 | 48.7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26.2 | 3.8 | 22.4 | 22.8 | 41.8 | 9.3 | 51.1 |
| | 대재 이상 | (498) | 32.9 | 3.6 | 29.3 | 19.7 | 38.6 | 8.8 | 47.4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29.6 | 0.0 | 29.6 | 14.1 | 43.7 | 12.7 | 56.4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32.2 | 3.1 | 29.1 | 21.9 | 37.9 | 8.0 | 45.9 |
| | 수도권 도시 | (182) | 23.6 | 3.3 | 20.3 | 17.6 | 48.4 | 10.4 | 58.8 |
| | 지방 도시 | (230) | 32.6 | 3.0 | 29.6 | 19.6 | 37.4 | 10.4 | 47.8 |
| | 기타 | (6) | 66.6 | 33.3 | 33.3 | 0.0 | 16.7 | 16.7 | 33.4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33.3 | 0.0 | 33.3 | 11.1 | 33.3 | 22.2 | 55.5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32.3 | 8.1 | 24.2 | 22.1 | 38.3 | 7.4 | 45.7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26.2 | 2.8 | 23.4 | 23.4 | 41.1 | 9.2 | 50.3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30.9 | 2.2 | 28.7 | 18.9 | 41.6 | 8.5 | 50.1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37.5 | 2.1 | 35.4 | 18.8 | 29.2 | 14.6 | 43.8 |
| | 기타 | (10) | 0.0 | 0.0 | 0.0 | 20.0 | 60.0 | 20.0 | 80.0 |

(2) 한국도시의 실현 방법

① 한국적 도시 정체성 실현의 태도



〈그림 25〉 한국적 도시 정체성 실현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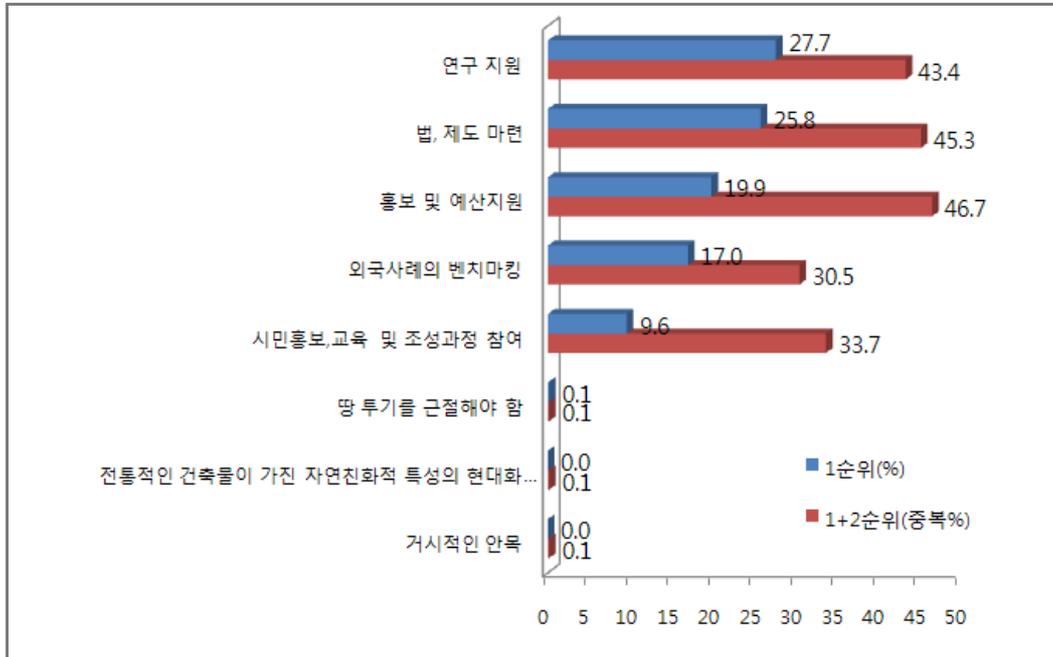
- 한국적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한국의 고유한 건축·도시양식의 현대화 및 적용’이 60.9%로 가장 많았고, ‘한국만의 정체성 있는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이 17.9%로 다음을 잇고 있음.
- 전체적으로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학력별에서 대학원 재학이상 고학력층의 ‘한국의 고유한 건축·도시양식의 현대화 및 적용’(74.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0〉 특성별 한국적 도시 정체성 실현의 태도

(단위: %)

| | | 사례수 | 한국의 고유한 건축도시 양식의 현대화 및 적용 | 한국만의 정체성 있는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 | 외국 스타일의 건축도시 에 대한 맹목적 선호반성 | 기존 도시공 간의 보존 및 활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의식 제고 |
|-------------------|-------------------|-------|--|--|---|-------------------------------|--|
| 전체 | | (806) | 60.9 | 17.9 | 7.9 | 7.8 | 5.1 |
| [성별] | 남자 | (411) | 60.1 | 17.8 | 9.0 | 8.8 | 3.9 |
| | 여자 | (395) | 61.8 | 18.0 | 6.8 | 6.8 | 6.3 |
| [연령대] | 20대 | (191) | 56.0 | 21.5 | 6.3 | 7.3 | 7.9 |
| | 30대 | (233) | 63.9 | 18.0 | 8.6 | 5.2 | 3.9 |
| | 40대 | (231) | 65.8 | 15.6 | 6.9 | 8.7 | 3.0 |
| | 50대 | (151) | 55.0 | 16.6 | 10.6 | 11.3 | 6.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59.0 | 14.7 | 8.3 | 11.5 | 5.8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60.6 | 18.3 | 6.7 | 6.7 | 6.7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64.6 | 20.1 | 6.3 | 5.3 | 3.7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61.5 | 17.6 | 8.8 | 7.4 | 4.7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54.4 | 14.0 | 15.8 | 14.0 | 1.8 |
| | 600만 원 이상 | (76) | 60.5 | 21.1 | 6.6 | 5.3 | 6.6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57.8 | 18.1 | 8.0 | 9.3 | 6.3 |
| | 대재 이상 | (498) | 60.4 | 19.1 | 7.6 | 7.6 | 4.8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74.6 | 8.5 | 9.9 | 4.2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62.9 | 17.8 | 6.7 | 8.2 | 4.4 |
| | 수도권 도시 | (182) | 62.6 | 14.8 | 9.3 | 6.6 | 6.6 |
| | 지방 도시 | (230) | 57.0 | 20.0 | 9.1 | 7.8 | 5.2 |
| | 기타 | (6) | 33.3 | 33.3 | 0.0 | 16.7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55.6 | 11.1 | 0.0 | 11.1 | 22.2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55.7 | 19.5 | 6.7 | 12.1 | 5.4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61.0 | 16.3 | 10.6 | 5.7 | 5.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62.8 | 17.1 | 8.2 | 6.7 | 4.9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62.5 | 22.9 | 2.1 | 10.4 | 2.1 |
| | 기타 | (10) | 50.0 | 30.0 | 10.0 | 10.0 | 0.0 |

②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그림 26〉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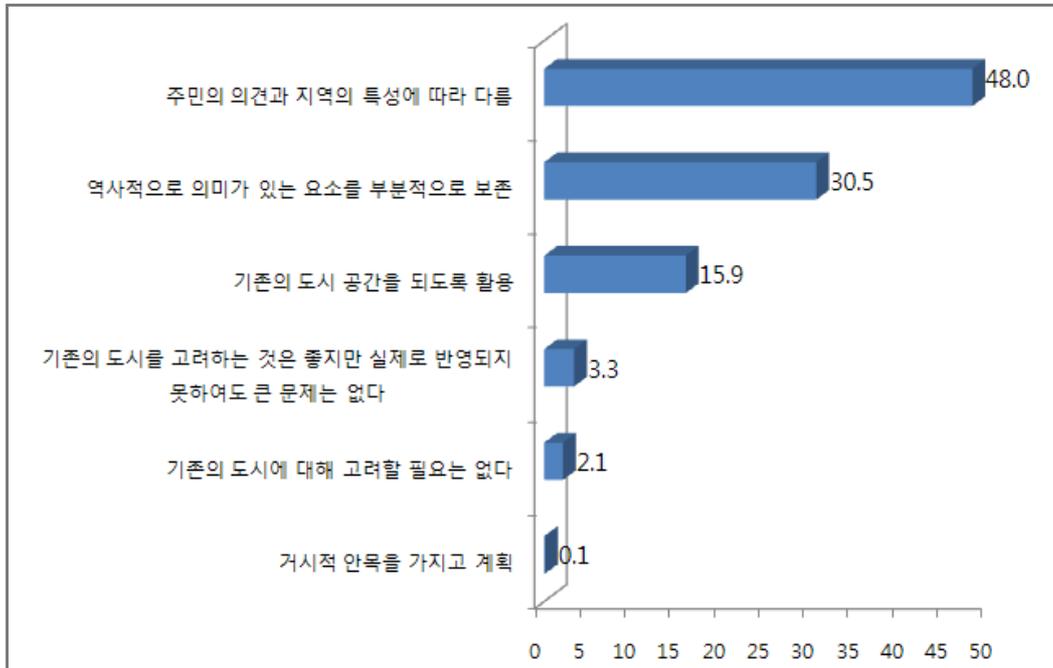
- 정체성 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로는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27.7%, 1순위 기준), ‘한국적 느낌을 주제로 한 건축·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마련’(25.8%), ‘한국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홍보 및 예산지원’(19.9%) 등이 주요 역할로 지적됨.
- 중복답변에서는 연구지원(43.4%), 법·제도 마련(45.3%), 홍보 및 예산지원(46.7%) 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30.7%)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연구지원’(24.6%), ‘법, 제도 마련’(23.8%), ‘홍보 및 예산지원’(25.6%) 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연구지원’(34.8%)이 가장 많았고, 40대는 ‘법, 제도 마련’(32.9%)이 가장 많았음.

〈표 11〉 특성별 정체성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 1순위

(단위: %)

| | | 사례수 |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 | 한국적 느낌을 주제로 건축도시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마련 | 한국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홍보/예산지원 | 독특한 고유성 가지는 도시 성공한 외국사례 벤치마킹 | 대 시민 홍보,교육 및 도시공간 조성과정 에 적극적 참여 유도 |
|-------------|-------------------|-------|---------------------|----------------------------------|---------------------------------|------------------------------|------------------------------------|
| 전체 | | (806) | 27.7 | 25.8 | 19.9 | 17.0 | 9.6 |
| [성별] | 남자 | (411) | 30.7 | 27.7 | 14.4 | 18.0 | 9.0 |
| | 여자 | (395) | 24.6 | 23.8 | 25.6 | 15.9 | 10.1 |
| [연령대] | 20대 | (191) | 23.0 | 22.5 | 22.0 | 20.4 | 12.0 |
| | 30대 | (233) | 34.8 | 22.3 | 18.5 | 15.0 | 9.0 |
| | 40대 | (231) | 22.9 | 32.9 | 19.5 | 16.0 | 8.7 |
| | 50대 | (151) | 29.8 | 24.5 | 19.9 | 17.2 | 8.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25.6 | 21.2 | 28.2 | 17.3 | 7.7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27.8 | 23.3 | 20.6 | 16.7 | 11.1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27.5 | 31.7 | 14.3 | 17.5 | 9.0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33.8 | 25.7 | 16.9 | 14.2 | 9.5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26.3 | 28.1 | 12.3 | 26.3 | 7.0 |
| | 600만 원 이상 | (76) | 21.1 | 25.0 | 26.3 | 14.5 | 13.2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27.8 | 27.8 | 20.7 | 12.7 | 10.5 |
| | 대재 이상 | (498) | 26.9 | 23.5 | 20.5 | 19.1 | 10.0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32.4 | 35.2 | 12.7 | 16.9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29.4 | 24.5 | 19.8 | 17.3 | 8.8 |
| | 수도권 도시 | (182) | 27.5 | 24.7 | 17.6 | 19.8 | 10.4 |
| | 지방 도시 | (230) | 24.8 | 28.3 | 22.2 | 14.8 | 10.0 |
| | 기타 | (6) | 33.3 | 50.0 | 0.0 | 0.0 | 16.7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33.3 | 44.4 | 11.1 | 11.1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28.2 | 23.5 | 28.2 | 12.1 | 8.1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31.2 | 25.5 | 18.4 | 12.8 | 12.1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26.1 | 26.9 | 18.3 | 19.4 | 9.1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31.3 | 16.7 | 14.6 | 25.0 | 12.5 |
| | 기타 | (10) | 20.0 | 40.0 | 20.0 | 10.0 | 10.0 |

③ 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에 대한 고려



〈그림 27〉 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에 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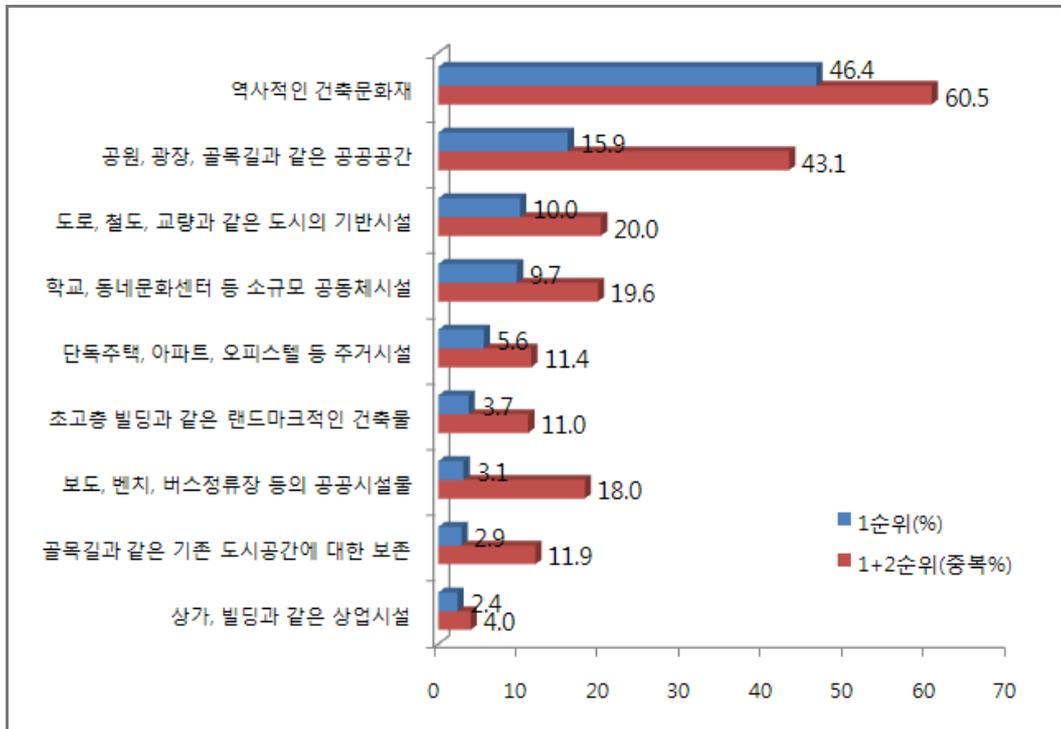
- 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부라도 보존하자는 의견이 보존을 덜 고려하는 방법보다 우세한 편임.
- ‘기존의 도시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개발 할 것인가는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0%로 가장 많았고, ‘기존의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보존한다’는 30.5%, ‘기존의 도시 공간을 되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15.9%로 일부 보존 및 활용의 의견은 46.4%를 차지하고 있음.
- 특성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 층이 다른 학력 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보존’(43.7%)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들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보존’(36.3%)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표 12〉 특성별 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 고려 방법

(단위: %)

| | | 사례수 |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역사적 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를 부분적 으로 보존 | 기존 공간을 되도록 활용하 는 방향으 로 계획 | 실제로 반영되 지 못하여 도 큰 문제없 다 | 기존의 도시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
| 전체 | | (806) | 48,0 | 30,5 | 15,9 | 3,3 | 2,1 |
| [성별] | 남자 | (411) | 47,7 | 29,7 | 16,1 | 3,4 | 2,9 |
| | 여자 | (395) | 48,4 | 31,4 | 15,7 | 3,3 | 1,3 |
| [연령대] | 20대 | (191) | 50,3 | 23,6 | 20,4 | 2,6 | 3,1 |
| | 30대 | (233) | 48,5 | 29,6 | 15,5 | 4,7 | 1,3 |
| | 40대 | (231) | 47,2 | 33,8 | 14,7 | 2,6 | 1,7 |
| | 50대 | (151) | 45,7 | 35,8 | 12,6 | 3,3 | 2,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49,4 | 31,4 | 13,5 | 1,3 | 4,5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50,6 | 25,6 | 16,1 | 6,1 | 1,1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42,9 | 36,5 | 17,5 | 2,6 | 0,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52,0 | 27,7 | 13,5 | 4,1 | 2,7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40,4 | 33,3 | 19,3 | 3,5 | 3,5 |
| | 600만 원 이상 | (76) | 50,0 | 28,9 | 18,4 | 1,3 | 1,3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48,5 | 29,5 | 15,2 | 4,2 | 2,5 |
| | 대재 이상 | (498) | 49,0 | 29,1 | 16,3 | 3,2 | 2,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39,4 | 43,7 | 15,5 | 1,4 | 0,0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44,1 | 36,3 | 13,4 | 3,4 | 2,8 |
| | 수도권 도시 | (182) | 48,9 | 25,3 | 20,3 | 4,9 | 0,5 |
| | 지방 도시 | (230) | 54,3 | 24,8 | 16,1 | 2,2 | 2,2 |
| | 기타 | (6) | 33,3 | 33,3 | 33,3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66,7 | 33,3 | 0,0 | 0,0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47,7 | 26,2 | 20,1 | 2,7 | 3,4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50,4 | 30,5 | 10,6 | 3,5 | 5,0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47,2 | 31,6 | 16,3 | 3,6 | 1,1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50,0 | 29,2 | 16,7 | 4,2 | 0,0 |
| | 기타 | (10) | 30,0 | 50,0 | 20,0 | 0,0 | 0,0 |

④ 한국의 도시공간 조성 시 중요한 요소



〈그림 28〉 한국 도시공간 조성 시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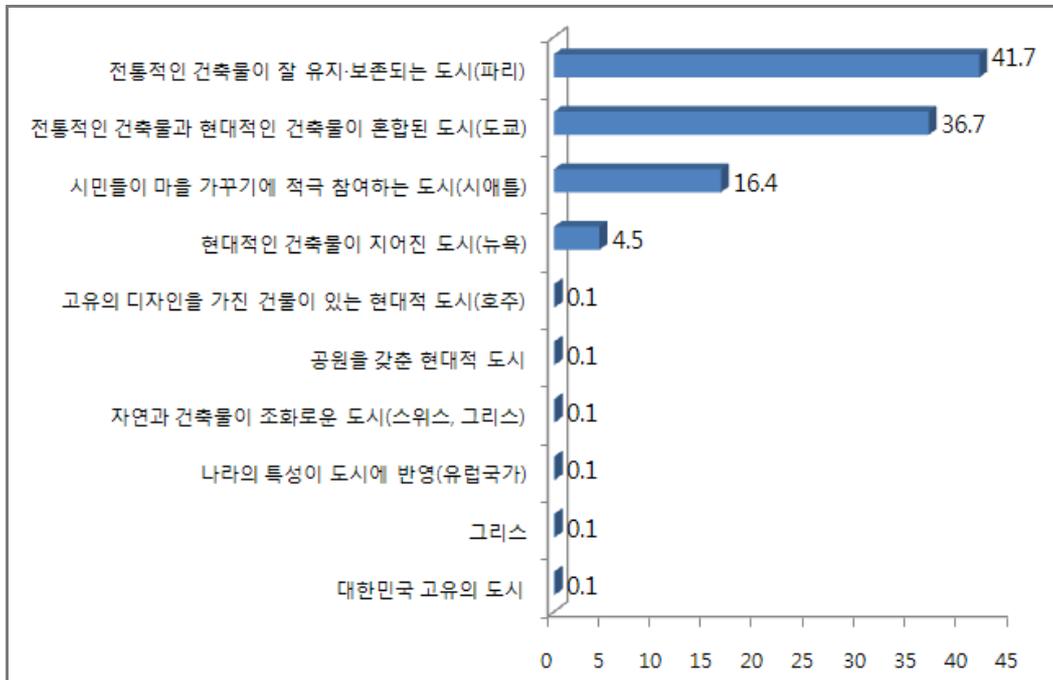
- 도시 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한 요소로는 ‘역사적인 건축문화재’(46.4%, 1순위 기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15.9%)이 다음을 잇고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10.0%)과 ‘학교, 동네문화센터 등의 소규모 공동체 시설’(9.7%)순으로 중복답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600만 원대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 층에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67.6%)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표 13〉 특성별 한국 도시공간 조성 시 주요 요소 - 1순위 기준

(단위: %)

| | | 사례수 | 역사적인 건축 문화재 |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 도로,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 학교, 동사무소 등 소규모 공동체시설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
|-------------------|----------------------|-------|-------------------|----------------------------------|---------------------------------|-------------------------------|------------------------------------|
| 전체 | | (806) | 46.4 | 15.9 | 10.0 | 9.7 | 5.6 |
| [성별] | 남자 | (411) | 43.8 | 17.0 | 11.7 | 9.2 | 6.1 |
| | 여자 | (395) | 49.1 | 14.7 | 8.4 | 10.1 | 5.1 |
| [연령대] | 20대 | (191) | 43.5 | 15.7 | 9.9 | 10.5 | 5.8 |
| | 30대 | (233) | 43.8 | 18.0 | 8.2 | 10.7 | 6.0 |
| | 40대 | (231) | 49.8 | 15.6 | 10.0 | 9.1 | 3.0 |
| | 50대 | (151) | 49.0 | 13.2 | 13.2 | 7.9 | 8.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40.4 | 16.0 | 12.8 | 12.2 | 5.8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42.2 | 20.6 | 10.6 | 8.3 | 6.7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50.3 | 15.3 | 8.5 | 10.1 | 3.7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50.7 | 13.5 | 10.8 | 9.5 | 4.1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54.4 | 7.0 | 5.3 | 12.3 | 8.8 |
| | 600만 원 이상 | (76) | 44.7 | 17.1 | 9.2 | 5.3 | 7.9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41.4 | 16.9 | 11.8 | 12.2 | 7.2 |
| | 대재 이상 | (498) | 45.8 | 16.5 | 9.6 | 8.8 | 5.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67.6 | 8.5 | 7.0 | 7.0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49.2 | 15.5 | 10.1 | 8.5 | 6.4 |
| | 수도권 도시 | (182) | 47.3 | 13.7 | 11.5 | 10.4 | 3.8 |
| | 지방 도시 | (230) | 41.3 | 18.3 | 8.3 | 11.3 | 5.7 |
| | 기타 | (6) | 33.3 | 16.7 | 33.3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55.6 | 33.3 | 0.0 | 11.1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49.0 | 11.4 | 13.4 | 8.7 | 6.0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47.5 | 10.6 | 11.3 | 9.2 | 9.2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44.8 | 18.5 | 9.1 | 10.7 | 4.0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50.0 | 14.6 | 4.2 | 4.2 | 10.4 |
| | 기타 | (10) | 40.0 | 30.0 | 20.0 | 10.0 | 0.0 |

⑤ 정체성 확보를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그림 29〉 정체성 확보를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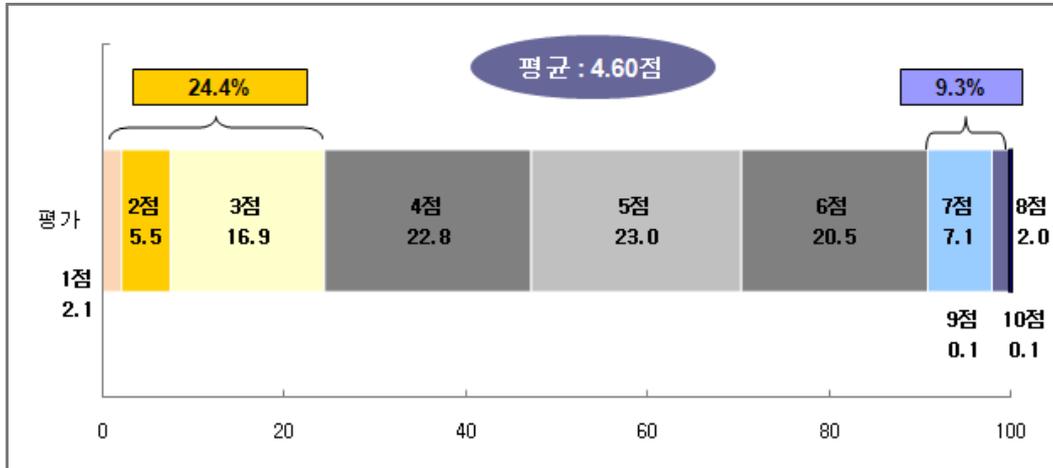
- 정체성이 부족한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점과 비교할 때 외국의 모범 사례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파리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이 잘 유지·보존되는 도시’로 41.7%였으며, 큰 차이 없이 ‘도쿄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혼합된 도시’가 36.7%로 다음을 잇고 있음. 전통성을 가지거나 적어도 현대물과 혼합된 도시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600만 원대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 층에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표 14〉 특성별 정체성 확보를 위한 외국 모범 사례

(단위: %)

| | | 사례수 | 파리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물이 잘 유지·보존되는 도시 | 도쿄와 같이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혼합된 도시 | 시애틀과 같이 시민들이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는 도시 | 뉴욕과 같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지어진 도시 |
|-------------|-------------------|-------|-------------------------------|-----------------------------|---------------------------------|-------------------------|
| 전체 | | (806) | 41.7 | 36.7 | 16.4 | 4.5 |
| [성별] | 남자 | (411) | 37.5 | 39.2 | 17.5 | 4.9 |
| | 여자 | (395) | 46.1 | 34.2 | 15.2 | 4.1 |
| [연령대] | 20대 | (191) | 41.9 | 35.6 | 16.8 | 4.7 |
| | 30대 | (233) | 40.3 | 37.3 | 18.0 | 3.4 |
| | 40대 | (231) | 39.4 | 37.7 | 16.5 | 6.1 |
| | 50대 | (151) | 47.0 | 35.8 | 13.2 | 3.3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46.8 | 31.4 | 18.6 | 2.6 |
| | 200~300만원 미만 | (180) | 36.1 | 37.2 | 19.4 | 6.1 |
| | 300~400만원 미만 | (189) | 41.8 | 37.0 | 16.9 | 3.7 |
| | 400~500만원 미만 | (148) | 45.9 | 39.2 | 10.1 | 4.7 |
| | 500~600만원 미만 | (57) | 36.8 | 42.1 | 15.8 | 5.3 |
| | 600만 원 이상 | (76) | 39.5 | 36.8 | 15.8 | 5.3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40.5 | 33.3 | 18.1 | 8.0 |
| | 대재 이상 | (498) | 41.8 | 37.8 | 15.9 | 3.4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45.1 | 40.8 | 14.1 | 0.0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43.0 | 34.0 | 17.0 | 5.2 |
| | 수도권 도시 | (182) | 39.0 | 41.8 | 13.7 | 4.9 |
| | 지방 도시 | (230) | 40.4 | 37.8 | 17.8 | 3.0 |
| | 기타 | (6) | 83.3 | 16.7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22.2 | 66.7 | 11.1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42.3 | 30.9 | 20.1 | 6.0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41.8 | 39.7 | 16.3 | 2.1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43.7 | 36.1 | 14.9 | 4.2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27.1 | 41.7 | 20.8 | 10.4 |
| | 기타 | (10) | 30.0 | 60.0 | 10.0 | 0.0 |

⑥ 한국 도시의 독창성, 고유성, 정체성 평가



〈그림 30〉 한국 도시의 독창성, 고유성, 정체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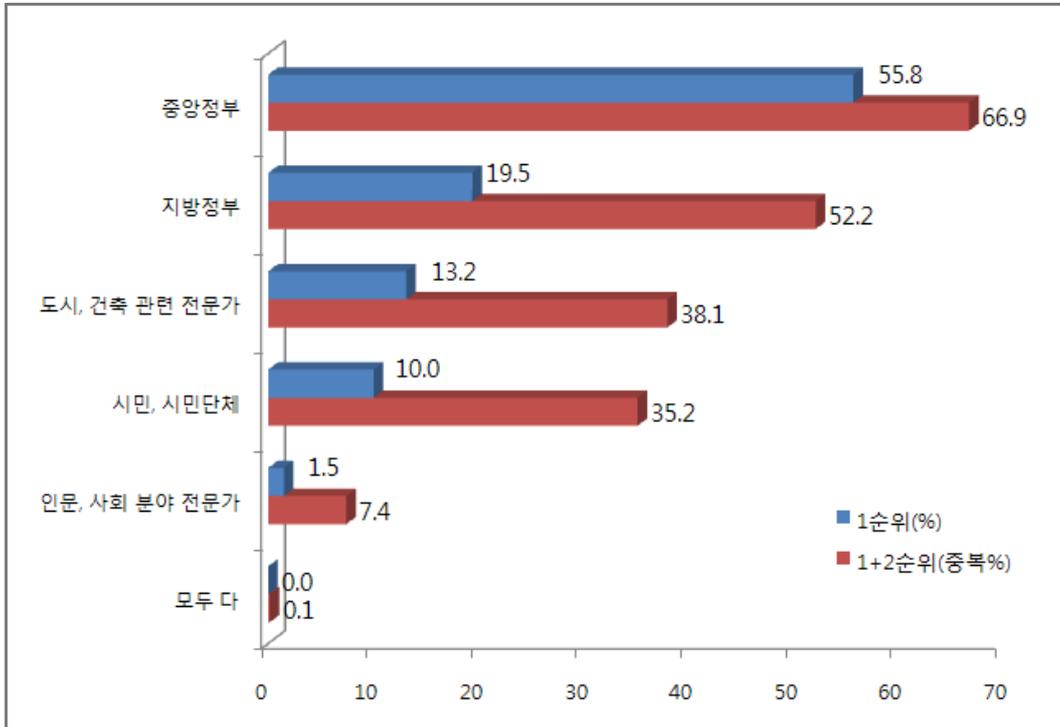
- 한국도시의 독창성, 고유성,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하위 3개의 점수의 합은 24.4%, 상위 4개 점수의 합은 9.3%, 평균 4.60점(10점 만점)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특성별 한국 도시의 독창성, 고유성, 정체성 평가

(단위: %, 10점 만점 평균)

| | | 사례수 | 1~3점 | 4점 | 5점 | 6점 | 7~10점 | 10점 만점 평균 |
|-------------|-------------------|-------|------|------|------|------|-------|-----------|
| 전체 | | (806) | 24.4 | 22.8 | 23.0 | 20.5 | 9.3 | 4.60 |
| [성별] | 남자 | (411) | 24.3 | 23.4 | 21.9 | 21.9 | 8.5 | 4.59 |
| | 여자 | (395) | 24.6 | 22.3 | 24.1 | 19.0 | 10.1 | 4.62 |
| [연령대] | 20대 | (191) | 22.0 | 20.4 | 23.0 | 22.5 | 12.0 | 4.78 |
| | 30대 | (233) | 24.5 | 20.6 | 24.5 | 21.5 | 9.0 | 4.58 |
| | 40대 | (231) | 29.0 | 24.2 | 21.6 | 16.9 | 8.2 | 4.42 |
| | 50대 | (151) | 20.5 | 27.2 | 22.5 | 21.9 | 7.9 | 4.70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21.2 | 23.1 | 23.1 | 24.4 | 8.3 | 4.69 |
| | 200~300만원 미만 | (180) | 26.1 | 25.0 | 20.0 | 18.9 | 10.0 | 4.54 |
| | 300~400만원 미만 | (189) | 24.3 | 25.4 | 21.2 | 18.0 | 11.1 | 4.60 |
| | 400~500만원 미만 | (148) | 21.6 | 23.6 | 28.4 | 19.6 | 6.8 | 4.61 |
| | 500~600만원 미만 | (57) | 21.1 | 14.0 | 28.1 | 28.1 | 8.8 | 4.81 |
| | 600만 원 이상 | (76) | 35.5 | 15.8 | 19.7 | 18.4 | 10.5 | 4.41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19.0 | 26.6 | 20.7 | 21.9 | 11.8 | 4.76 |
| | 대재 이상 | (498) | 25.5 | 21.1 | 24.3 | 20.7 | 8.4 | 4.59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35.2 | 22.5 | 21.1 | 14.1 | 7.0 | 4.1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22.2 | 21.6 | 24.5 | 22.2 | 9.5 | 4.68 |
| | 수도권 도시 | (182) | 32.4 | 20.3 | 20.9 | 18.1 | 8.2 | 4.41 |
| | 지방 도시 | (230) | 22.2 | 26.1 | 22.2 | 19.6 | 10.0 | 4.63 |
| | 기타 | (6) | 16.7 | 50.0 | 16.7 | 16.7 | 0.0 | 4.33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22.2 | 11.1 | 33.3 | 22.2 | 11.1 | 4.67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23.5 | 25.5 | 20.1 | 20.8 | 10.1 | 4.62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22.0 | 24.1 | 23.4 | 23.4 | 7.1 | 4.65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26.9 | 21.8 | 22.5 | 19.4 | 9.4 | 4.55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14.6 | 22.9 | 35.4 | 12.5 | 14.6 | 4.77 |
| | 기타 | (10) | 10.0 | 20.0 | 10.0 | 60.0 | 0.0 | 5.20 |

⑦ 한국 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



〈그림 31〉 한국 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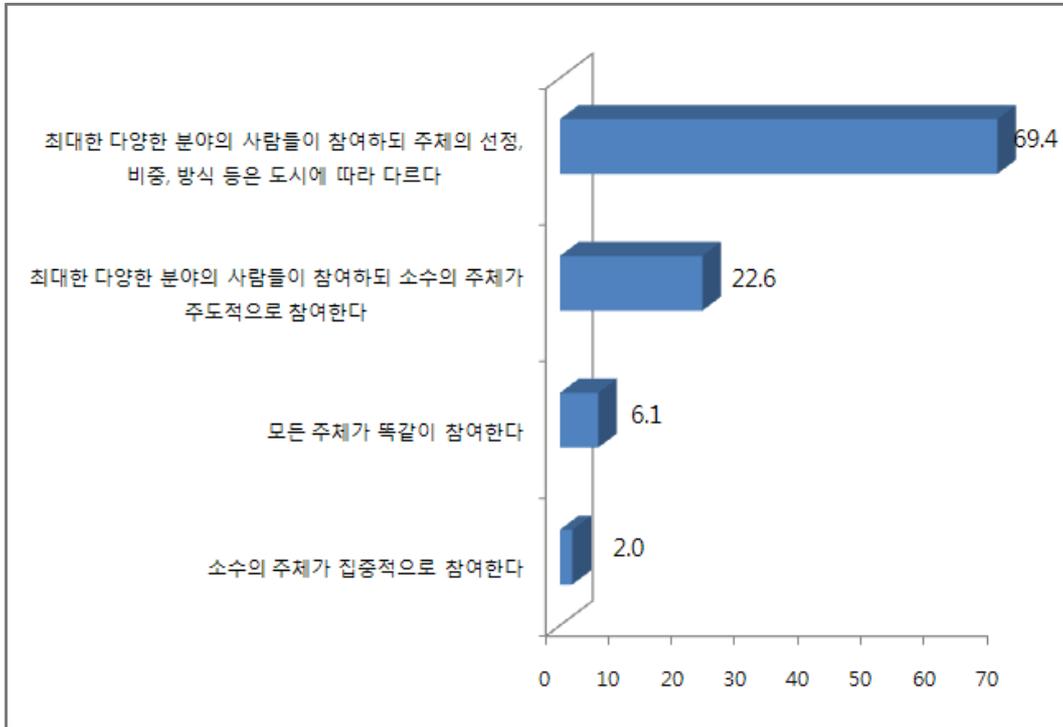
- 한국 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55.8%(1순위 기준)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19.5%로 공공 기관이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은 크지 않았음.

〈표 15〉 특성별 한국 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 - 1순위 기준

(단위: %)

| | | 사례수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도시, 건축 관련 전문가 | 시민, 시민 단체 |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 |
|-------------------|-------------------|-------|----------|----------|------------------------|-----------------|------------------------|
| 전체 | | (806) | 55.8 | 19.5 | 13.2 | 10.0 | 1.5 |
| [성별] | 남자 | (411) | 54.0 | 21.2 | 14.6 | 9.0 | 1.2 |
| | 여자 | (395) | 57.7 | 17.7 | 11.6 | 11.1 | 1.8 |
| [연령대] | 20대 | (191) | 57.1 | 14.7 | 13.6 | 13.6 | 1.0 |
| | 30대 | (233) | 54.9 | 21.0 | 11.2 | 12.4 | 0.4 |
| | 40대 | (231) | 56.3 | 20.8 | 15.2 | 5.6 | 2.2 |
| | 50대 | (151) | 55.0 | 21.2 | 12.6 | 8.6 | 2.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53.8 | 19.9 | 14.1 | 10.9 | 1.3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59.4 | 14.4 | 14.4 | 10.6 | 1.1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57.7 | 20.6 | 6.9 | 14.3 | 0.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52.0 | 24.3 | 17.6 | 4.7 | 1.4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56.1 | 15.8 | 14.0 | 8.8 | 5.3 |
| | 600만 원 이상 | (76) | 53.9 | 21.1 | 14.5 | 7.9 | 2.6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59.5 | 17.3 | 13.1 | 8.4 | 1.7 |
| | 대재 이상 | (498) | 54.8 | 19.5 | 13.3 | 11.2 | 1.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50.7 | 26.8 | 12.7 | 7.0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57.7 | 18.3 | 12.9 | 10.1 | 1.0 |
| | 수도권 도시 | (182) | 50.5 | 21.4 | 15.9 | 9.3 | 2.7 |
| | 지방 도시 | (230) | 56.1 | 20.4 | 11.3 | 10.9 | 1.3 |
| | 기타 | (6) | 83.3 | 0.0 | 16.7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66.7 | 11.1 | 22.2 | 0.0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51.0 | 22.1 | 10.7 | 15.4 | 0.7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62.4 | 19.1 | 7.1 | 10.6 | 0.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55.2 | 18.9 | 15.8 | 8.2 | 1.8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54.2 | 16.7 | 12.5 | 12.5 | 4.2 |
| | 기타 | (10) | 60.0 | 30.0 | 10.0 | 0.0 | 0.0 |

⑧ 주체들의 참여방식



〈그림 32〉 주체들의 참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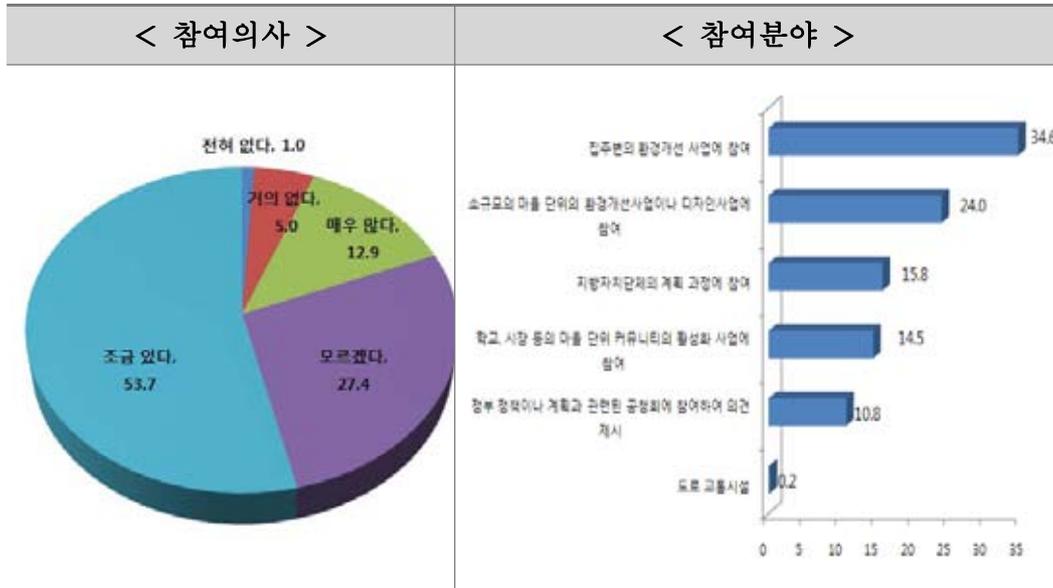
- 주체들의 적절한 참여방식으로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되 주체의 선정, 비중, 방식 등은 도시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69.4%로 전체 2/3를 넘어서고 있음.
- 다음으로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되 소수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22.6%를 차지함

〈표 17〉 특성별 주체들의 참여방식

(단위: %)

| | | 사례수 | 최대한다 양한분야 의사람들 이참여하 되주체의 선정,비 중,방식 등은도시 에따라 다르다 | 최대한다 양한분야 의사람들 이참여하 되소수의 주체가주 도적으로 참여한다 | 모든 주체가 똑같이 참여한다 | 소수의 주체가 집중적 으로 참여한다 |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 |
|-------------------|---------------------|-------|--|--|--------------------------|---------------------------------|------------------------|
| 전체 | | (806) | 69.4 | 22.6 | 6.1 | 2.0 | 1.5 |
| [성별] | 남자 | (411) | 65.7 | 26.8 | 5.4 | 2.2 | 1.2 |
| | 여자 | (395) | 73.2 | 18.2 | 6.8 | 1.8 | 1.8 |
| [연령대] | 20대 | (191) | 68.1 | 23.6 | 6.8 | 1.6 | 1.0 |
| | 30대 | (233) | 70.8 | 22.7 | 5.6 | 0.9 | 0.4 |
| | 40대 | (231) | 71.0 | 19.9 | 6.9 | 2.2 | 2.2 |
| | 50대 | (151) | 66.2 | 25.2 | 4.6 | 4.0 | 2.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67.9 | 18.6 | 9.6 | 3.8 | 1.3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69.4 | 26.1 | 3.3 | 1.1 | 1.1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70.9 | 21.2 | 6.3 | 1.6 | 0.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75.0 | 19.6 | 4.1 | 1.4 | 1.4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63.2 | 26.3 | 8.8 | 1.8 | 5.3 |
| | 600만 원 이상 | (76) | 61.8 | 28.9 | 6.6 | 2.6 | 2.6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67.5 | 20.7 | 9.3 | 2.5 | 1.7 |
| | 대재 이상 | (498) | 69.7 | 23.3 | 5.0 | 2.0 | 1.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73.2 | 23.9 | 2.8 | 0.0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67.8 | 24.0 | 6.2 | 2.1 | 1.0 |
| | 수도권 도시 | (182) | 70.3 | 22.0 | 6.0 | 1.6 | 2.7 |
| | 지방 도시 | (230) | 70.9 | 21.3 | 5.7 | 2.2 | 1.3 |
| | 기타 | (6) | 83.3 | 0.0 | 16.7 | 0.0 | 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66.7 | 33.3 | 0.0 | 0.0 | 0.0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63.8 | 22.8 | 10.7 | 2.7 | 0.7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73.0 | 22.0 | 2.8 | 2.1 | 0.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69.3 | 22.7 | 6.2 | 1.8 | 1.8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77.1 | 18.8 | 2.1 | 2.1 | 4.2 |
| | 기타 | (10) | 70.0 | 30.0 | 0.0 | 0.0 | 0.0 |

⑨ 도시 만들기 참여의사와 및 참여분야



〈그림 33〉 도시 만들기 참여의사와 및 참여분야

- 도시 만들기 과정에 참여 의사는 66.6%로 비교적 참여 의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참여하고 싶은 분야로는 '집주변의 환경개선 참여'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디자인사업에 참여'(24.0%),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에 참여'(15.8%)가 다음을 잇고 있음.
- 특성별로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73.7%: 매우 많다+조금 있다), 고졸이하(76.3%), 7대도시 거주자(84.5%)들의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44.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들은 비교적 여러 분야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집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표 18〉 특성별 도시 만들기 참여의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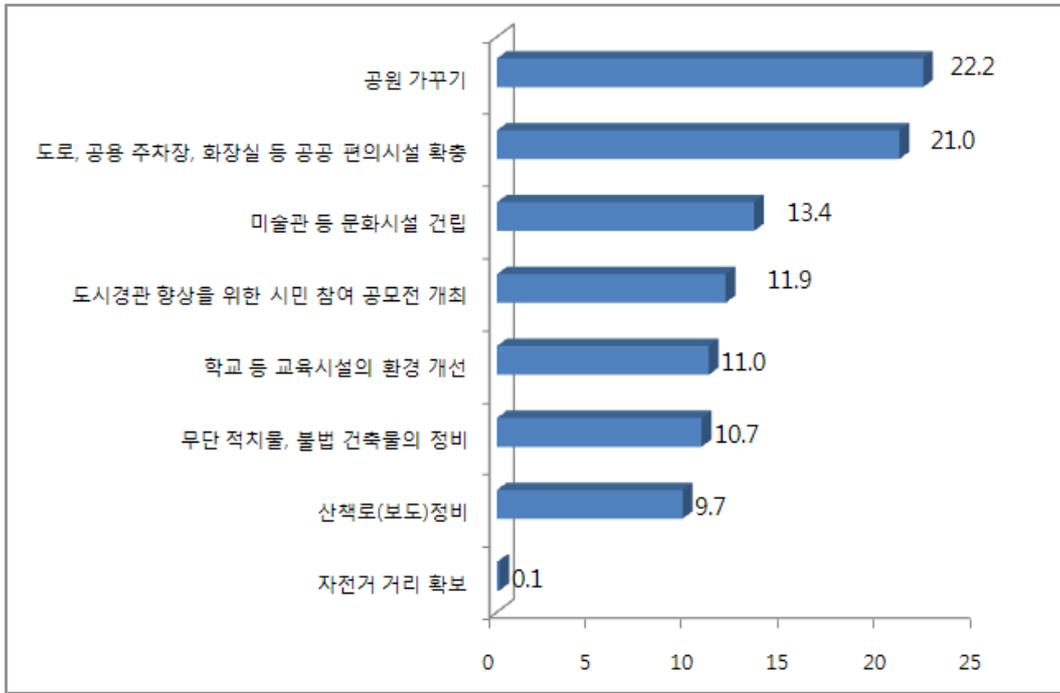
| | | 사 례 수 | 없 는 편 | 전 혀 없 다 | 거 의 없 다 | 모 르 겠 다 | 조 금 있 다 | 매 우 많 다 | 있 다 |
|-------------------|-------------------|-------------|-------------|------------------|------------------|------------------|------------------|------------------|--------|
| 전체 | | (806) | 6.0 | 1.0 | 5.0 | 27.4 | 53.7 | 12.9 | 66.6 |
| [성별] | 남자 | (411) | 13.8 | 1.7 | 6.1 | 24.8 | 53.3 | 14.1 | 67.4 |
| | 여자 | (395) | 17.9 | 0.3 | 3.8 | 30.1 | 54.2 | 11.6 | 65.8 |
| [연령대] | 20대 | (191) | 20.3 | 2.1 | 6.3 | 22.0 | 55.5 | 14.1 | 69.6 |
| | 30대 | (233) | 17.6 | 0.4 | 4.7 | 28.8 | 55.4 | 10.7 | 66.1 |
| | 40대 | (231) | 18.7 | 0.9 | 4.3 | 26.4 | 53.7 | 14.7 | 68.4 |
| | 50대 | (151) | 15.6 | 0.7 | 4.6 | 33.8 | 49.0 | 11.9 | 60.9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17.6 | 1.3 | 5.8 | 36.5 | 49.4 | 7.1 | 56.5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17.4 | 1.1 | 3.9 | 30.6 | 52.2 | 12.2 | 64.4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18.4 | 0.5 | 5.8 | 21.7 | 59.3 | 12.7 | 72.0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18.1 | 0.7 | 6.1 | 27.7 | 52.7 | 12.8 | 65.5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16.6 | 0.0 | 3.5 | 22.8 | 52.6 | 21.1 | 73.7 |
| | 600만 원 이상 | (76) | 15.5 | 2.6 | 2.6 | 18.4 | 55.3 | 21.1 | 76.4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14.6 | 1.3 | 4.6 | 34.2 | 51.9 | 8.0 | 59.9 |
| | 대재 이상 | (498) | 17.3 | 1.0 | 5.2 | 26.5 | 53.6 | 13.7 | 67.3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16.3 | 0.0 | 4.2 | 11.3 | 60.6 | 23.9 | 84.5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16.1 | 0.8 | 4.9 | 28.4 | 51.5 | 14.4 | 65.9 |
| | 수도권 도시 | (182) | 18.1 | 0.5 | 7.7 | 26.4 | 51.6 | 13.7 | 65.3 |
| | 지방 도시 | (230) | 18.2 | 1.3 | 3.0 | 26.5 | 60.0 | 9.1 | 69.1 |
| | 기타 | (6) | 29.2 | 16.7 | 0.0 | 33.3 | 16.7 | 33.3 | 50.0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32.1 | 11.1 | 0.0 | 22.2 | 44.4 | 22.2 | 66.6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32.5 | 0.7 | 4.0 | 23.5 | 60.4 | 11.4 | 71.8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21.5 | 0.0 | 5.7 | 27.7 | 53.2 | 13.5 | 66.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16.6 | 1.3 | 4.9 | 28.7 | 53.0 | 12.0 | 65.0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16.1 | 0.0 | 4.2 | 25.0 | 47.9 | 22.9 | 70.8 |
| | 기타 | (10) | 30.4 | 0.0 | 20.0 | 40.0 | 30.0 | 10.0 | 40.0 |

〈표 19〉 특성별 도시 만들기 참여분야

(단위: %)

| | | 사 례 수 | 집주변 의 환경개 선 사업에 참여 | 소규모 의 마을 단위의 환경개 선사업 이나 디자인 사업에 참여 | 지방자 치단체 의 계획 과정에 참여 | 학교, 시장 등의 마을 단위 커뮤니 티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 | 정부 정책이 나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 에 참여하 여 의견 제시 |
|-------------------|-------------------|-------------|-----------------------------------|---|------------------------------------|--|--|
| 전체 | | (806) | 34.6 | 24.0 | 15.8 | 14.5 | 10.8 |
| [성별] | 남자 | (411) | 25.3 | 24.5 | 22.7 | 13.7 | 13.4 |
| | 여자 | (395) | 44.6 | 23.5 | 8.5 | 15.4 | 8.1 |
| [연령대] | 20대 | (191) | 39.8 | 29.3 | 9.0 | 15.0 | 6.8 |
| | 30대 | (233) | 26.6 | 29.9 | 15.6 | 19.5 | 7.8 |
| | 40대 | (231) | 39.9 | 17.1 | 19.0 | 11.4 | 12.7 |
| | 50대 | (151) | 31.5 | 18.5 | 20.7 | 10.9 | 18.5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37.5 | 28.4 | 18.2 | 12.5 | 3.4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36.2 | 23.3 | 10.3 | 20.7 | 9.5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40.4 | 22.1 | 12.5 | 14.7 | 10.3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25.8 | 27.8 | 15.5 | 12.4 | 17.5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31.0 | 28.6 | 23.8 | 9.5 | 7.1 |
| | 600만 원 이상 | (76) | 31.0 | 13.8 | 25.9 | 12.1 | 17.2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44.4 | 21.8 | 9.9 | 15.5 | 8.5 |
| | 대재 이상 | (498) | 32.5 | 24.8 | 17.3 | 14.9 | 10.1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23.3 | 25.0 | 21.7 | 10.0 | 20.0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37.9 | 21.5 | 18.0 | 10.9 | 11.7 |
| | 수도권 도시 | (182) | 33.6 | 25.2 | 11.8 | 16.8 | 12.6 |
| | 지방 도시 | (230) | 30.8 | 27.7 | 15.7 | 18.2 | 6.9 |
| | 기타 | (6) | 0.0 | 0.0 | 0.0 | 33.3 | 66.7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0.0 | 66.7 | 16.7 | 0.0 | 16.7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42.1 | 25.2 | 11.2 | 13.1 | 8.4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31.9 | 25.5 | 16.0 | 14.9 | 11.7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34.9 | 22.3 | 16.4 | 14.0 | 12.0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23.5 | 23.5 | 26.5 | 23.5 | 2.9 |
| | 기타 | (10) | 25.0 | 25.0 | 0.0 | 25.0 | 25.0 |

⑩ 도시 가꾸기 우선 분야



〈그림 34〉 도시 가꾸기 우선분야

- 도시 가꾸기 우선분야로는 ‘공원 가꾸기’(22.2%), ‘도로, 공용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21.0%) 등이 우선되는 분야였음.

〈표 20〉 특성별 도시 가꾸기 우선분야

(단위: %)

| | | 사 례 수 | 공 원 가 꾸 기 | 도로, 공 용 주 차 장, 화 장, 실 공 편 의 시 설 확 충 | 미 술 관 문 화 시 설 건 립 | 도 시 경 관 향 상 을 위 한 시 민 참 여 공 모 전 개 최 | 학 교 등 교 육 시 설 의 환 경 선 | 무 단 적 치 물, 건 물 축 물 의 정 비 | 산 책 로 (보 도) 정 비 |
|-------------------|-------------------|-------------|-----------------------|--|---|--|---|---|-----------------------------------|
| 전체 | | (806) | 22.2 | 21.0 | 13.4 | 11.9 | 11.0 | 10.7 | 9.7 |
| [성별] | 남자 | (411) | 20.4 | 22.1 | 12.9 | 12.9 | 9.5 | 13.4 | 8.8 |
| | 여자 | (395) | 24.1 | 19.7 | 13.9 | 10.9 | 12.7 | 7.8 | 10.6 |
| [연령대] | 20대 | (191) | 24.6 | 15.2 | 15.7 | 15.2 | 7.3 | 9.4 | 12.6 |
| | 30대 | (233) | 25.3 | 18.0 | 13.3 | 11.2 | 14.2 | 9.9 | 8.2 |
| | 40대 | (231) | 18.2 | 26.0 | 16.0 | 10.8 | 12.1 | 8.2 | 8.2 |
| | 50대 | (151) | 20.5 | 25.2 | 6.6 | 10.6 | 9.3 | 17.2 | 10.6 |
| [가구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56) | 17.9 | 26.3 | 10.9 | 11.5 | 12.2 | 9.6 | 11.5 |
| | 200 ~ 300만원 미만 | (180) | 21.1 | 20.0 | 12.2 | 13.9 | 12.2 | 10.6 | 9.4 |
| | 300 ~ 400만원 미만 | (189) | 28.0 | 18.0 | 12.7 | 10.1 | 9.5 | 12.2 | 9.5 |
| | 400 ~ 500만원 미만 | (148) | 19.6 | 23.6 | 16.9 | 11.5 | 10.8 | 10.8 | 6.8 |
| | 500 ~ 600만원 미만 | (57) | 22.8 | 17.5 | 15.8 | 15.8 | 7.0 | 12.3 | 8.8 |
| | 600만 원 이상 | (76) | 23.7 | 17.1 | 14.5 | 10.5 | 13.2 | 7.9 | 13.2 |
| [학력] | 고졸 이하 | (237) | 19.0 | 24.5 | 11.8 | 11.4 | 11.8 | 8.4 | 12.7 |
| | 대재 이상 | (498) | 23.1 | 19.7 | 13.9 | 12.2 | 9.8 | 12.0 | 9.2 |
| | 대학원 재 이상 | (71) | 26.8 | 18.3 | 15.5 | 11.3 | 16.9 | 8.5 | 2.8 |
| [거주지] | 7대 대도시 | (388) | 24.0 | 21.1 | 12.6 | 11.3 | 12.4 | 11.1 | 7.2 |
| | 수도권 도시 | (182) | 23.1 | 14.8 | 11.5 | 12.6 | 12.6 | 11.5 | 13.7 |
| | 지방 도시 | (230) | 18.3 | 25.2 | 16.1 | 12.6 | 7.8 | 9.6 | 10.4 |
| | 기타 | (6) | 33.3 | 33.3 | 16.7 | 0.0 | 0.0 | 0.0 | 16.7 |
| [거주지 특성] | 한옥 전통주거 밀집 주거지 | (9) | 0.0 | 11.1 | 44.4 | 0.0 | 11.1 | 11.1 | 22.2 |
| | 1-2층의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 | (149) | 22.1 | 21.5 | 10.1 | 12.8 | 9.4 | 12.1 | 12.1 |
| | 4층이하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 | (141) | 15.6 | 29.1 | 12.8 | 11.3 | 14.9 | 5.0 | 10.6 |
| | 5층이상 아파트 주거지 | (449) | 23.6 | 18.7 | 14.3 | 11.8 | 11.1 | 11.4 | 9.1 |
| |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주거지 | (48) | 35.4 | 16.7 | 14.6 | 10.4 | 6.3 | 12.5 | 4.2 |
| | 기타 | (10) | 10.0 | 30.0 | 0.0 | 30.0 | 0.0 | 30.0 | 0.0 |

- 특성별로는 큰 특징은 없음.

부록 2-2.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①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한국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건축도시분야의 전문가들의 한국적 도시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음

② 조사 대상 및 유효 표본 수

- 조사 대상자는 240명 이었으며 75명이 응답

③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의 처리

- 자료수집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조사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auri건축도시포럼'의 건축, 도시, 조경분야의 전문가 풀을 이용함
-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Excel을 이용한 코딩 및 빈도분석

④ 조사 기간

- 조사는 2008년 11월 19일 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됨

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환경의 질적 향상과 건축·도시문화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들은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왔고, 외국도시의 모방에 급급한 결과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한국도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

연락처 031-478-9643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설문에 응하시기 전에 다음 내용을 잘 읽어 주십시오.

※ 참고사항

[도시의 정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것을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도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유형]

한국에는 서울의 구도심, 경주, 전주와 같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 같이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과 같이 현대화된 도시, 수도권외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이 계획된 신도시, 각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에 한정되지 않고 IT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화 사회, 월드컵 응원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사회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한국의 도시와 한국적 도시구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문1) 귀하는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순위 (), ◎ 2 순위 ()

- 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
② 살기에 불편함(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③ 도시 내 낙후지역이 방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음
④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⑤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의 열악함
⑥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
⑦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못함
⑧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부족함
⑨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가로환경이 열악함
⑩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함
⑪ 도시를 계획할 때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⑫ 관련분야 전문가들(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간의 소통이 부족함

문5)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순위 (), ◎ 2 순위 ()
- ① 상가,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
 - ②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 ③ 학교, 동네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소규모 공동체시설
 - ④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 ⑤ 초고층 빌딩, 박물관과 같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 ⑥ 역사적인 건축문화재 (ex. 고궁, 서울역, 국회의사당 등)
 - ⑦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
 - ⑧ 가로등, 표지판, 보도, 벤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 ⑨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
 - ⑩ 기타 ()

문6) 한국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정책이나 설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1 순위 (), ◎ 2 순위 ()
- ① 기존 역사도시(서울, 경주, 수원 등)
 - ② 신도시
 - ③ 대도시
 - ④ 지방중소도시
 - ⑤ 기타 소도시

문7) 최근 들어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계획과정에 거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② 일부 과정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설문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전문분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건축계획·설계
- ② 도시계획·설계
- ③ 토목설계
- ④ 건축·토목시공
- ⑤ 조경
- ⑥ 환경
- ⑦ 공사관리
- ⑧ 행정(공무원)
- ⑨ 문화·예술
- ⑩ 기타

DQ2) 귀하께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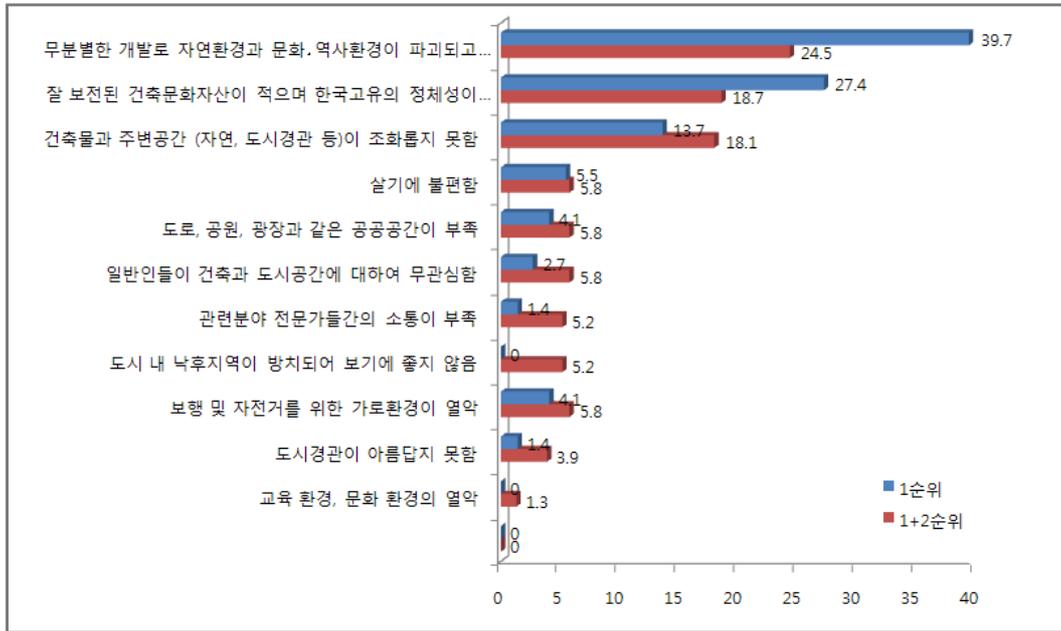
- ① 5년 이하
- ② 6~10년
- ③ 11~15년
- ④ 16~20년
- ⑤ 21년 이상

DQ3)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건축설계사무소
- ② 엔지니어링 업체
- ③ 건설업체
- ④ 감리·CM업체
- ⑤ 공무원(중앙부처, 지자체)
- ⑥ 대학교(학계)
- ⑦ 연구기관
- ⑧ 기타

3)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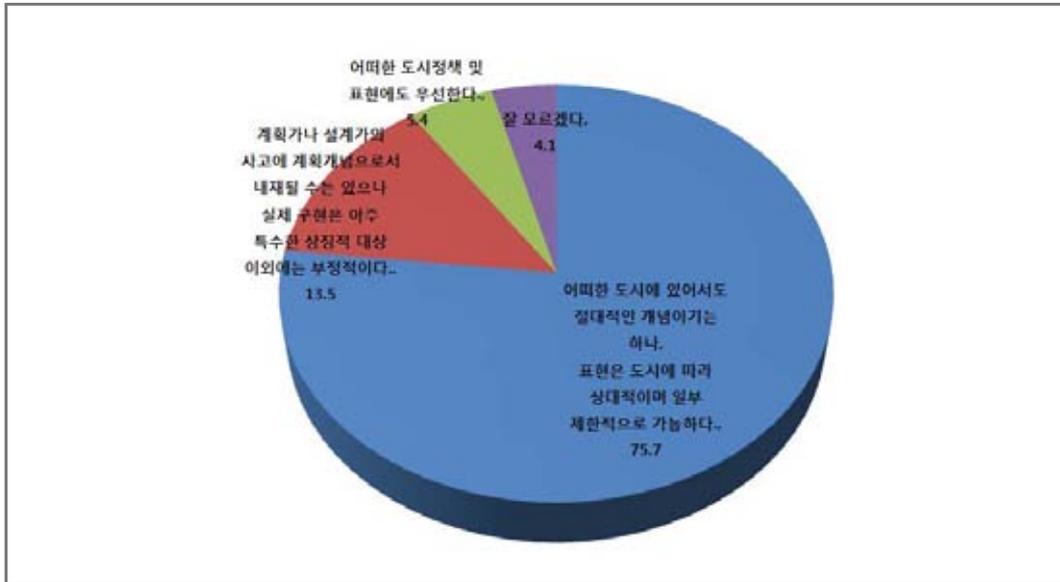
① 한국의 도시공간에서의 문제점



〈그림 1〉 한국적 도시공간의 문제점

-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환경의 파괴(39.2%)가 가장 많았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27%) 과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13.5%)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점의 누적 집계는 1순위와 거의 비슷한 순서로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환경의 파괴(51.4%)가 가장 많았고, 잘 보전된 건축문화자산이 적으며 한국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함(39.2%)과 건축물과 주변공간 (자연, 도시경관 등)이 조화롭지 못함(37.8%) 등이 뒤를 잇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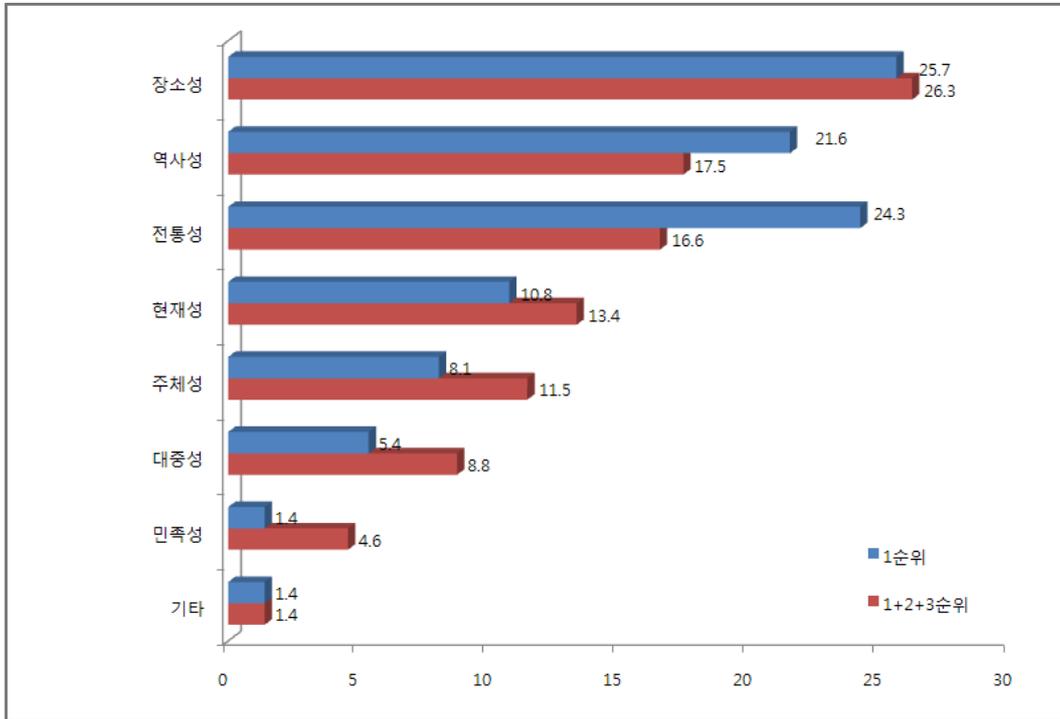
② 한국적 도시공간에서 한국적 정체성의 필요성



(그림 2) 한국적 도시공간에서 한국적 정체성의 필요성

- 한국의 도시공간에 한국적 정체성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도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표현은 도시에 따라 상대적이며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76%).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계획가나 설계가의 사고에 계획 개념으로서 내재될 수는 있으나 실제 구현은 아주 특수한 상징적 대상 이외에는 부정적이다.(13.5%)가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의 도시공간에 한국적 정체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어떠한 도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표현은 도시에 따라 상대적이며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76%), 어떠한 도시정책 및 표현에도 우선한다.(5.4%)를 합친 총 81.4%의 정적 견해의 답변이 계획가나 설계가의 사고에 계획 개념으로서 내재될 수는 있으나 실제 구현은 아주 특수한 상징적 대상 이외에는 부정적이다.(13.5%)와 현재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배제되어야 할 개념이다.(0%)를 합친 13.5%의 부정적 견해의 답변을 압도하는 것을 통해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한국적 정체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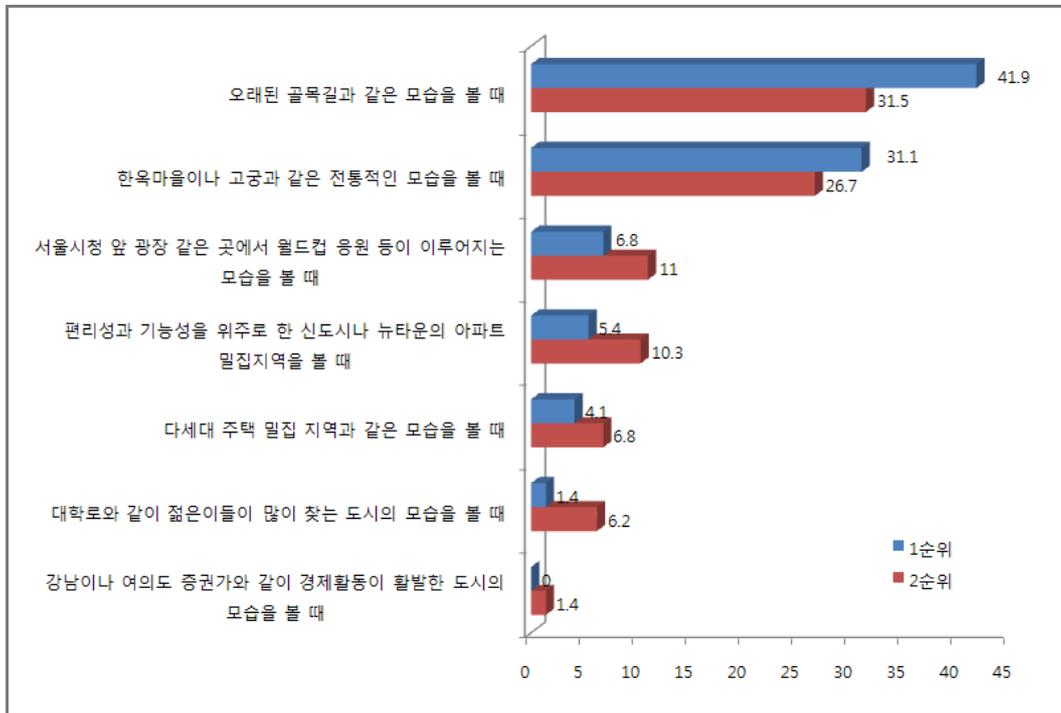
③ ‘한국적이다’의 개념



〈그림 3〉 ‘한국적이다’의 개념

- 1순위 답변에 대해서는 ‘한국적이다’의 개념은 장소성(25.7%)이 제일 많았고, 전통성(24.3%)과 역사성(21.6%)이 비슷한 수치로서 그 다음을 잇고 있음.
- ‘한국적이다’의 개념의 3배수 누적집계에서는 장소성(77%)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1순위의 집계와는 조금 달라진 역사성(51.4%) 전통성(48.6%)의 순서로 비슷한 수치로 집계됨
- 1순위 집계에서 작은 득표를 받았던 현재성(10.8%) 주체성(8.1%) 대중성(5.4%)이 누적집계에선 현재성(39.2%) 주체성(33.8%) 대중성(25.7%)로 상대적으로 증가한 높은 비율의 득표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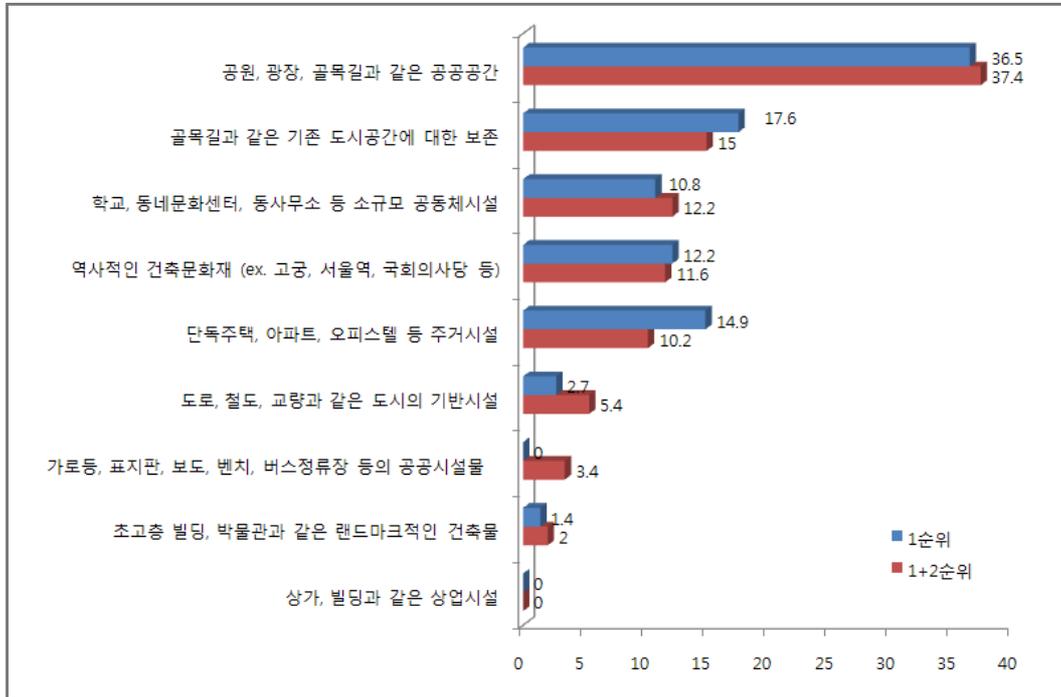
④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요소



〈그림 4〉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요소

-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느껴지는 한국적 정체성은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41.9%)가 가장 많았고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31.1%)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다음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6.8%)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볼 때(5.4%)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느껴지는 한국적 정체성의 2배수 누적 집계는 1순위와 비슷한 순서로 오래된 골목길과 같은 모습을 볼 때(62.2%)가 가장 많았고 한옥마을이나 고궁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볼 때(52.7%) 서울시청 앞 광장같은 곳에서 월드컵 응원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21.6%) 편리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한 신도시나 뉴타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볼 때(20.3%)등의 순서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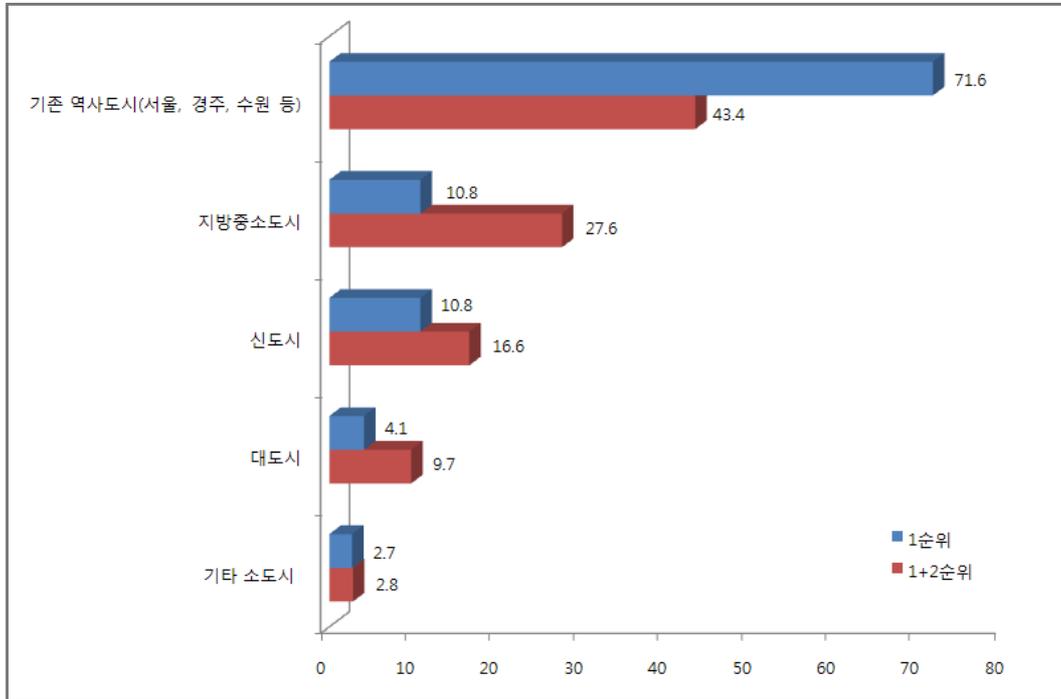
⑤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소



〈그림 5〉 한국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

-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소를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36.5%)이 제일 많았고,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17.6%)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14.9%)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소의 2배수 누적 집계는 1순위와 비슷한 비율과 순서로 공원, 광장,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74.3%)이 제일 많았고, 골목길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보존(29.7%)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24.3%)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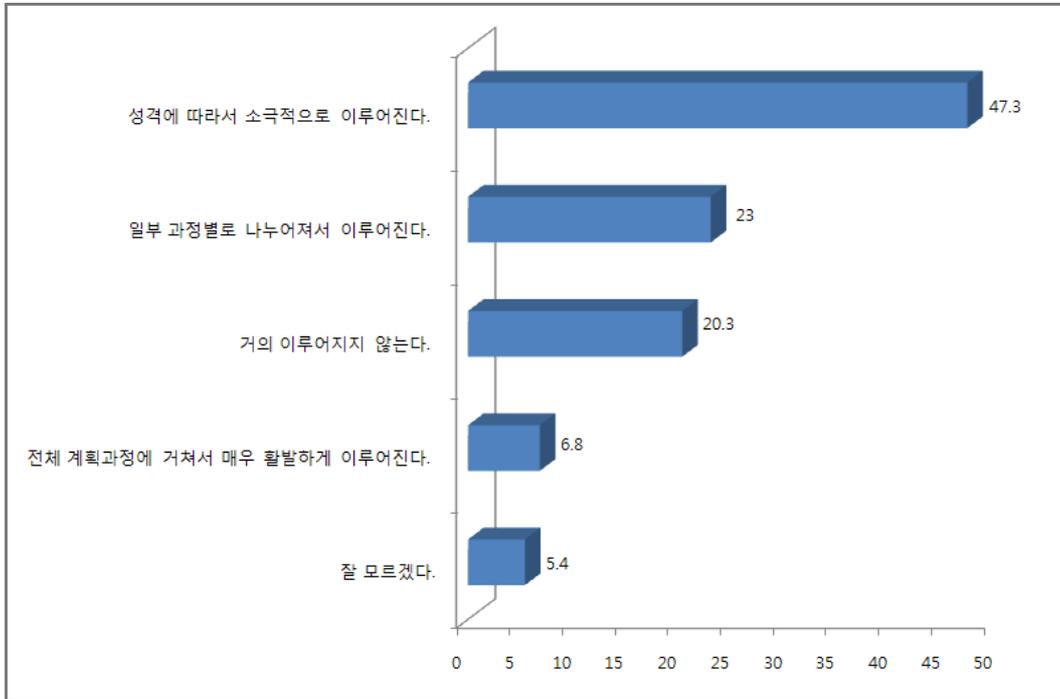
⑥ 한국 도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대상의 우선순위



〈그림 6〉 한국 도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대상의 우선순위

- 한국 도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대상의 우선순위로 기존 역사도시(서울, 경주, 수원 등)(71.6%)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고 뒤를 신도시 (10.8%), 지방중소도시(10.8%)가 잇고 있음.
- 한국 도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대상의 우선순위 2배수 누적 집계는 기존 역사도시(서울, 경주, 수원 등)(85.1%)대부분의 선택을 받았고 1순위집계와는 달리 바뀐 순서로 2위는 지방중소도시(54.1%) 3위는 신도시 (32.4%)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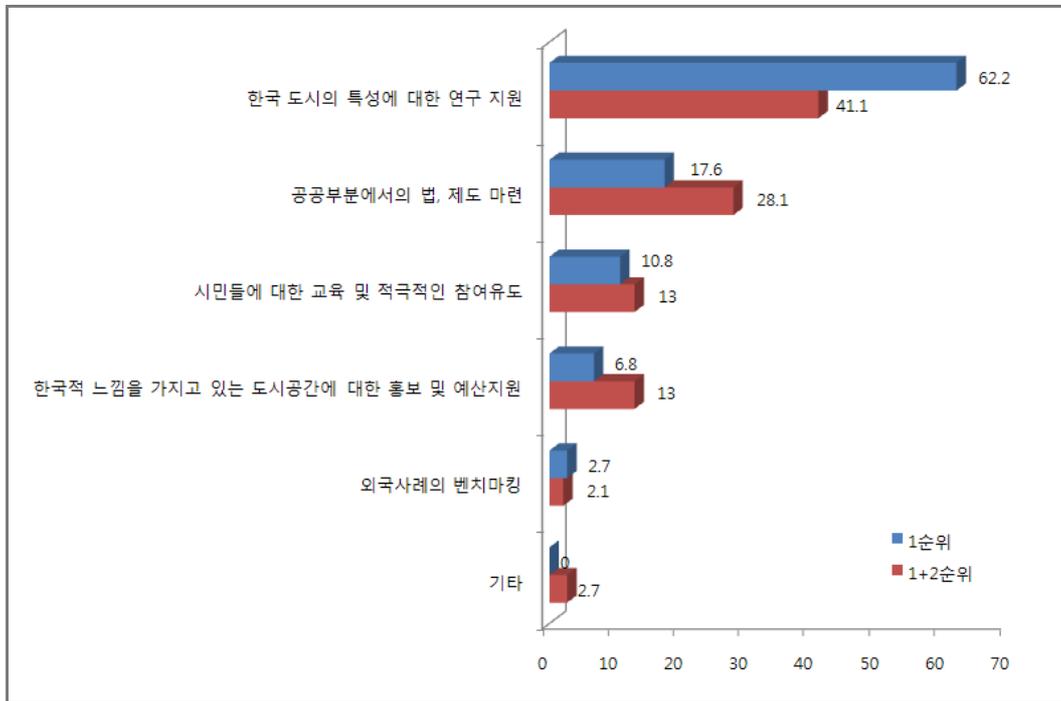
⑦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 여부



〈그림 7〉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업 여부

- 한국의 도시 분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47.3%)가 제일 많았고 일부 과정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23%)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20.3%)순으로 답변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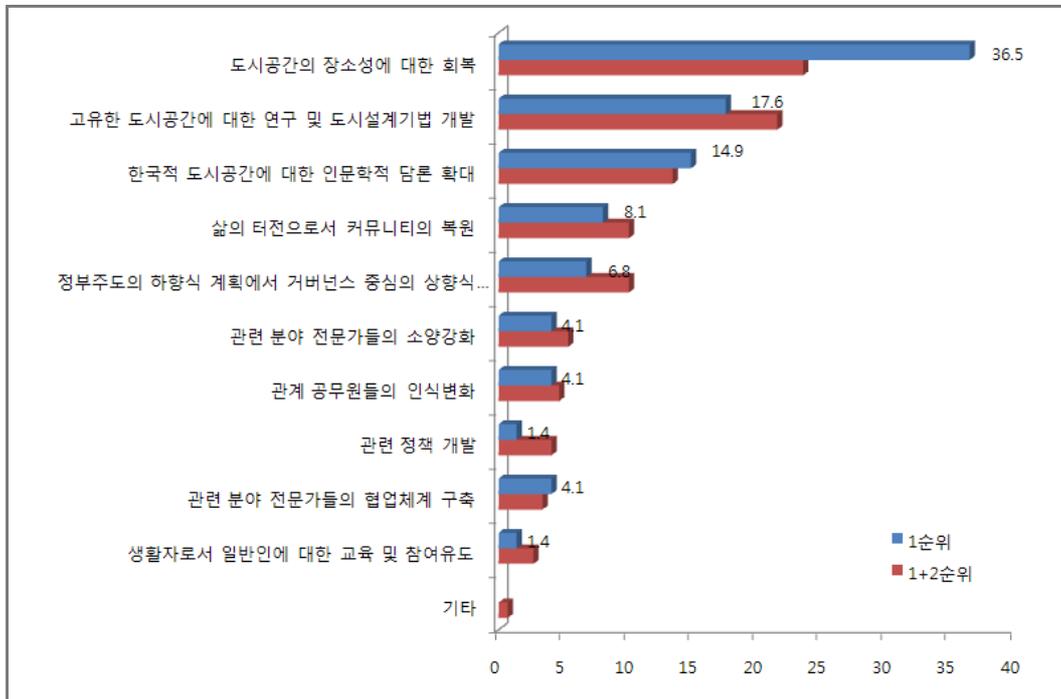
⑧ 한국의 도시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결과제



〈그림 8〉 한국의 도시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결과제

- 한국의 도시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일들로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62.2%)이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분에서의 법, 제도 마련(17.6%)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참여유도(10.8%)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의 도시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일들의 2배수 집계는 1순위 집계와 비슷한 순서로 한국 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81.1%)이 대부분의 전문가로부터 득표를 받았고, 공공부분에서의 법, 제도 마련(55.4%)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비율의 득표를 받았으며,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참여유도(10.8%)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⑨ 한국적 도시공간의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그림 9〉 한국적 도시공간의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 한국적 도시공간의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36.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17.6%)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확대 (14.9%)순으로 그 중요성이 언급됨
- 한국적 도시공간의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2배수 누적집계에서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47.3%)이 과반수에 가까운 득표를 했으며, 고유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도시설계기법 개발(43.2%)이 1순위 집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2위를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확대(20.3%)가 3위를 차지함